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 호 5 월 5 일

평양 근로자사 1965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9 호 (271)

1965년 5월 (상)

차 례

우리 혁명의 심화 발전과 전 사회의 혁명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전 사회를 혁명화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현시기 우리 혁명의 주요 과업인 동시에 혁명을 공산주의에로까지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전략적 과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사회의 혁명화 문제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혁명 투쟁의 전반적 과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고찰함으로써만 그것을 응당한 리론적 높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관습으로부터 해방하고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켜 전 사회를 혁명화하는 것은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이후 프로레타리아 독재 앞에 제기되는 중심적인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착취 계급이 청산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청산된 조건에서 사회주의 혁명 앞에 제기되는 과업은 확립된 새로운 제도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며 그리고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전 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주권을 전취한 후 모든 전선에서 자본주의의 흔적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공산주의에로 갈 때까지 혁명 투쟁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은 적대 계급을 정치 경제적 령역에서 타승한 혁명 투쟁에 뒤이어 사상적 령역에서까지 그의 영향력을 가셔 버리기 위한 혁명 투쟁의 계속이다.

우리는 해방 직후에 정권을 잡았고 일제와 결탁했던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것이였다.

그 후 우리는 미제 침략자들을 때려눕히는 가렬한 반제 혁명 전쟁을 거치였다.

혁명을 더 전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도시와 농촌에서 소상품 경리 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길에로 나아갔으며 전후에 들어서면서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1958년 8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제도는 전면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은 우리 내부에 남아 있는 과거 사회의 유물, 낡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뿌리빼비리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상 잔재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로 되고 있다.

사상 령역에서의 자본주의 잔재와의 투쟁은 과거의 그 어느 사업에도 못지 않게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이며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공산주의에로 들어 가기 위한 영예롭고도 위대한 혁명 과업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없어진 조건에서도 낡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는 곧 없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생활의 이 구석 저 구석에 남아서 집요하게 부정적 작용을 놀 수 있다.

낡은 사상 잔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부모들로부터 자식들에게로, 선배들로부터 후배들에게로 옮겨질 수 있으며 또 외부로부터의 반동 사상의 침습도 우리들 속에 낡은 잔재가 잔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만일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부단히 전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되여 사람들을 부패 타락시킬 수 있고 지어 사회주의 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사람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에서의 심각한 투쟁의 문제로, 항상 일 차적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는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정치 경제적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이겨 낸 것처럼 사상적 령역에서도 반드시 자본주의를 이겨 내야 한다. 몸을 부단히 단련하는 사람에게서는 병균이 맥을 추지 못 하는 것처럼 혁명화를 위하여 사상 단련에 완강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리 집요한 낡은 잔재도 결국 뿌리가 뽑히고야 말 것이며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자본주의 사상도 생활권을 얻지 못 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의 혁명화 문제는 이것이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며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는 의미에서도 심각한 혁명 과업으로 된다.

아직도 우리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그리고 그의 괴뢰 도당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만일 우리 사람들 속에 반혁명과 끝까지 싸우려는 결심과 혁명적 투지가 결여된다면 우리 제도를 고수 발전시켜 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 우리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려면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도 튼튼히 쌓아 올려야 하고 문화 혁명도 해야 하는데 이 사업들도 모두가 우선 사람들의 혁명 사상 여하에 달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상 혁명—이것을 사회주의 하에서 계속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 과업들 가운데서도 선행시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 과업》이라고 지적하였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문제가 가지는 의의는 다만 북반부에서의 혁명의 계속을 위한 투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남반부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준비시

키며 나아가서 세계 혁명에로 준비시킴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은 자기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며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사상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혁명화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로동 계급의 근본 립장과 사상을 더욱더 자각하게 해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와 세계에서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지를 발휘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일부 나라들과 일부 지역에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혁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국 국제적 범위에서 제국주의-자본주의를 청산할 때에만 혁명의 완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혁명 사상으로 견결히 무장시키는 문제—이것은 혁명이 먼저 승리한 나라들에서, 특히 나라의 절반 땅에서만 혁명이 승리한 나라들에서 혁명의 부단한 전진과 그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오늘 혁명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체 성원들에게 다 같이 절실한 임무로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이후 모든 사람들 앞에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참된 공산주의자로서 끝까지 혁명의 길로 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혁명을 중도에서 그만두는 사람으로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제기된다.

이에 있어서 우리 당의 방침은 시종일관 모든 사람들을 믿고 혁명가로 키워서 공산주의에로까지 이끌어 나가려는 철저한 혁명적 군중 로선에 립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당의 이 방침을 받들어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자신을 혁명가로 단련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 누구도 이 투쟁에서 례외로 될 수 있다고 자만할만 한 근거가 없다. 몇 년 전에 사회주의 경리 형태에 들어 온 사람들은 물론 전체 로동자, 농민들, 특히는 일'군들과 인테리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이 강력하게 추진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묶어 세우려고 하는바 여기에서 기준은 어디까지나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인 로동 계급의 붉은 사상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원래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 면에 있어서까지도 《그 아무와도》 권리를 나누지 않는 철저한 독재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만 자신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 키울 수 있으며 혁명 시대에 적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이후 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 문제,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문제는 더욱 더 날카로운 문제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이 문제는 절실한 투쟁 과업으로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

물은 낡은 사상 잔재이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이미 자체의 물질적 바탕을 잃었지만 그것을 잃어 버린지는 불과 6~7년 밖에 되지 않는다. 세기적인 뿌리를 가진 집요하고 고질적인 낡은 유습이 몇 해 동안에 쉽사리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낡은 사상 잔재는 우리 제도의 지반이 강화되고 그에 적응한 새로운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이 나오고 사회가 점차 더 깨여 들어 가자 더는 배겨 날 수 없게 되였다. 청산리 방법, 대안 체계의 확립과 특히 오늘 그것들의 전면적인 도입은 이 체계, 이 방법이 낡은 사상 잔재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새로운 사업 체계와 새로운 사업 방법은 집체적 지혜를 모을 것을 요구하는데 낡은 사상 잔재에 사로잡히면 소총명과 개인 독단에 빠지게 되며, 새로운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은 아래로, 군중 속으로 내려 갈 것을 요구하는데 낡은 사상 잔재에 사로잡히면 우에서 틀을 차리고 명령할 것을 고집하게 되며, 새로운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은 대중을 관리 운영에 참가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낡은 잔재에 사로잡히면 대중의 힘과 지혜를 무시해 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낡은 사상 잔재를 부단히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성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이 날카로운 문제로 나서고 있는 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이 지배적으로 되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최근 수년 간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당의 전면적인 공산주의 교양 방침은 우리 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에 안받침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적 풍모를 가지게 하였으며 그것을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생활 기풍으로 되게 하였다.

오늘 낡은 사상 잔재는 사람들의 이 새로운 생활 기풍에 짓눌려 막다른 골목에 빠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 문제는 우리의 생활이 좋아지고 혁명이 오래 동안 끌어 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생활은 나날이 좋아지고 혁명이 오랜 시일을 끌고 있는 조건에서 만일 사람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장되면서 사람들에게 안일성과 권태증을 가져 올 수 있다. 혁명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오늘 7개년 계획의 방대한 하반기 과업들을 앞에 놓고 있다.

이런 사정들로 하여 당은 오늘 낡은 사상과의 투쟁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 문제, 혁명화 문제는 단순히 사상 투쟁 문제로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전반 문제의 한 고리로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테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극복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차이를 없애는 실천적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지원을 통하여 로동 계급의 붉은 피를 농민들에게 넣어 주어 그것이 왕성하게 맥박치게 함으로써 전 사회를 혁명화하는 문제를 이미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오늘 혁명화 문제를 더욱 날카롭게 제기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요구와 더불어 실지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은 갖은 풍파를 통하여, 내외의 원쑤들과의 가렬 처절한 투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그 어떠한 복잡한 계층까지도 다 혁명적으로 교양 개조할 수 있는 강유력한 당으로 되였다. 이러한 당이 없이는 결코 전 사회의 혁명화 문제를 이렇게 전면에 제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당의 힘이 강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혁명의 령도 계급인 우리의 로동 계급이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을 능히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튼튼한 력량으로, 전투적 부대로 자라 났다. 우리 로동 계급의 조직과 사상은 전 사회를 로동 계급화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둥으로, 본보기로 된다.

또한 전체 군중이 사회주의를 접수하였고 당을 따르고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들의 사활적인 지침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러한 군중을 가진 당은 전 사회를 능히 자체의 사상으로,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다. 이미부터 비당원 군중들까지도 당'적 사상 체계를 자기들의 사상 체계로 받아들이면서 혁명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무르익은 조건과 가능성에 의거하면서 혁명화 문제를 자신들의 개조를 위한 절박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힘을 집중해 나가는 동시에 전 사회적인 군중적 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데 있다.

우리는 혁명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해결 대책을 요구하는가를 옳게 파악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 것은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고 그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로동 계급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있어야만 그 어떤 리기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고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투사—공산주의자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은 사람들을 로동 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선결 조건으로 된다.

사람들을 로동 계급화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로동 계급의 도덕적 풍모로, 로동 계급의 높은 기술과 문화로 무장시킴으로써 전면적으로 발전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혁명화 문제이다.

사람들의 사상 의식: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바로 그들의 전 풍모와 능력과 기능의 밑바닥에 놓여 있는 근본 초석인 것이다. 기술 수준과 지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그가 만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로동 계급적인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이 희박한 사람이라면 그의 기술, 그의 지식은 혁명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상이 혁명적이여야 한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바로 이 혁명화 문제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혁명화 문제가 로동자, 농민, 인테리, 간부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가?

로동 계급에 대하여 말한다면 바로 이들은 혁명의 령도 계급이며 혁명화의 기준이다. 이들의 사상은 농민들과 전 사회 성원들의 혁명화의 본보기로 되여야 한다.

우리의 로동 계급은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전투적 정신으로서 자체의 이 고유한 위치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로동 계급 속에도 극복하여야 할 낡은 사상 잔재는 없지 않다. 형성된 력사가 짧고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소소유자적 생산 관계에 속하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 보충된 우리의 로동 계급 대렬에는 역시 소부르죠아 사상 잔재가 남아 있으며 따라서 그와의 투쟁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로동 계급 속에서 더욱더 령도 계급으로서의 혁명적 긍지와 자각을 높이며 책임감을 높이는 것은 현시기 긴요한 문제이다.

로동 계급은 자체의 혁명적 특질을 살려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사는 기풍을 적극 발양하여야 한다.

농민들 속에서 혁명화의 문제는 아주 절실한 요구로 되고 있다.

수천 년을 두고 작은 땅뙈기와 원시적인 로동 도구에 매달려 분산적으로 일해 온 농민들의 사상에는 개인 리기주의와 보수주의, 소극성 등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농민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로동 계급의 집단주의와 전투성, 조직성에서 배우는 것이 요구된다.

농민들 속에서 사상 수양을 강화하고 로동 계급의 사상적 수준에로 이끌어 올리는 사업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만 그들을 진정한 혁명가—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있다.

혁명화 문제는 간부들과 인테리들 속에서 각별히 날카로운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일'군들은 그들이 처한 위치와 역할로 보아 혁명화를 위한 투쟁에서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일'군들이 집권 당 내에서 가혹한 시련을 거치지 않은 채 자라난 것 만큼 혁명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일'군들의 혁명화를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소총명 등의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고 그들로 하여금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 관철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

며, 군중 관점과 군중적인 사업 작풍을 가지게 하며, 동지애와 인간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군중 속에 들어 가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군중 속으로 들어 가는 것은 곧 사상·단련의 《용광로》로 들어 가는 것이다.

일'군들은 군중 속에서 나왔고 당과 군중을 련결시키는 지휘 성원들이다.

일'군들은 군중 속에 들어 가야 혁명성을 배우고 좋은 비판도 많이 받고 대중의 힘을 더욱 믿게 되며 대중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려는 정신도 나오게 된다.

만일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를 낳은 그 계급적 바탕을 잊고 당성, 계급성과는 인연이 먼 태도와 립장에로 떨어질 수 있다. 군중 속으로 들어 가는 것을 싫어하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거나 군중과 침식을 같이 하고 로동을 같이 해 보지 않는 일'군은 불가피적으로 자신을 점차 남의 머리 우에 올려 놓게 마련인 것이다. 군중의 아픈 점도 모르게 되며, 밑의 사업에서 걸린 문제도 모르게 되며 그러다나니 뒤떨어지고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관주의, 관료주의로 사업을 대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대중 속에 들어 가지 않으면 대중과 조직의 통제를 받기 싫어 하는 자유주의, 대중도, 당도 무시하는 소총명과 소영웅주의가 나오게 된다.

결국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지 않으면 변질하게 되며 따라서 자기의 임무를 옳게 실행할 수 없고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에 적응하게 발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은 일'군들이 부단히 아래에 내려 가서 군중과 접촉하며 정치 사업을 선행하도록 하는 문제를 제도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당이 일'군들의 혁명화에 얼마나 커다란 관심과 배려를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 이 방침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군중 속에 들어 갈 데 대한 문제는 우리 인테리들의 혁명화에서도 절박한 문제로 된다.

인테리들은 그가 어떤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누구보다도 생산 로동, 생산자 대중과 가장 많이 떨어져 있으며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들에게는 의식적으로 대중 속에 들어 가야 할 필요성, 혁명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인테리들이 생산 현장에, 대중 속에 들어 갈 데 대한 문제를 항상 중요한 정책적 요구로 제기하여 왔다.

인테리들은 군중 속에 들어 가서 바로 그들의 집단주의를 배워야 하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그들의 혁명적 정열을 배워야 한다.

개인 리기주의는 인테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뿌리 빼야 할 유습이다.

개인적인 물질적 리해 관계와 향락만을 따지는 것은 혁명가들과 인연이 없다. 맑스가 《자본론》을 쓸 때 언제 자신의 명예나 보수를 생각했는가? 맑스는 오직 전 세계 피착취 인류를 해방하겠다는 일념으로 불탔을 뿐이다. 우리의 항일 빨찌산들에게 있어서도 사

정은 마찬가지였다. 빨찌산들의 안중에는 혁명을 위하고 조국을 해방한다는 것 외에 그 어떤 일신의 안일도, 향락도 없었다. 혁명가들의 투쟁은 원래 그런 물질적 리해 관계의 척도로써는 도저히 잴 수 없는 것이다.

선렬들의 이러한 투쟁과 정신은 우리의 사상 수양을 위하여 매우 고귀한 량식으로 된다.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혁명적 사상 수양 문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일'군들과 인테리들 속에서 혁명적 수양에 커다란 주의가 돌려져야 한다.

혁명 선배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부단히 배워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고전가들과 우리의 항일 빨찌산들, 해방 후 우리 혁명이 낳은 수 많은 투사들과 영웅들의 고매한 혁명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감으로 된다. 우리는 혁명 선배들의 투쟁과 생활을 거울 삼아 자신들의 사상과 방법, 작풍에서의 부족점이 무엇인가를 일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선배들이 살고 일한 것처럼 살며 일하게 된다면 모두가 준비된 혁명가로 자랄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로 계속 무장하며 당 정책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역시 혁명적 수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을 모르고서는 혁명성이 나올 수 없으며 혁명성을 발휘해야 할 목표도, 방도도 알 수 없다.

근로자들 속에서의 혁명화 문제는 우리 당이 정치 사업에서 노리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문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실현 문제, 나라의 공업화 문제, 남조선을 해방할 데 대한 문제 등을 가지고 구체적인 생활과 결부하여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정치 사업에서 심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사회의 혁명화를 원만히 실현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당원들과 일'군들 속에서 당 조직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 생활과 당'적 통제를 싫어 하는 사람은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혁명가로서의 보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당 조직 생활은 곧 정치 생활이며 혁명 생활, 혁명 활동이다. 집단과 생활을 떠나서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당 조직과 당 생활을 떠나서는 당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원들은 당 조직을 통하여 혁명 투쟁에 참가하며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간부들이 조직 생활에서 벗어 난다는 것은 사실 상 당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의 규률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조직 생활에 충실하게 참가하는 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생활의 법칙으로 여기며 그것을 영예롭게 생각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단히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하고 조직 생활에 성실하게 참가할 때 우리 사회의 혁명화 문제는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 앞에 부과된 당면 임무와 세계사적 사명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될 것이다.

혁명 전통 교양과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확립

김 시 중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으로 당원들과 인민 대중을 교양하는 사업을 강력히 진행하여 왔다. 이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는바 그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위업을 계승하는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간직하고 그들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사회주의 건설에서 비상한 애국적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 있는 데서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 전통 교양의 기성 성과와 경험 그리고 현시기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제 조건을 고려하여 혁명 전통 교양을 일층 심화하며 그 폭을 넓힐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혁명 전통 교양을 심화하며 그 폭을 넓힌다는 것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되고 해방 후 20년 동안 새롭게 보충 풍부화된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대중에게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인식시키며 그것을 단순한 사실로써가 아니라 깊은 사상-리론적 견지에서 파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 전통 교양을 심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은 결국 대중의 혁명 의식을 확고한 **세계관적 기초 우에** 올려 세우며 그들의 공산주의적 자각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려는 진정한 자각적 혁명 투사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이미 다음과 같이 가르친 바 있다:

《당 단체들은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는 데 주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그러면 혁명 전통 교양이 인민 대중을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에 있어서 실지로 어떠한 역할을 놀며 또 놀아야 하는가? 그리고 혁명 전통 교양을 심화하는 사업과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데서 초점으로 되는 주요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　　*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 전통 교양을 심화하며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확립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맑스-레닌주의의 사상 리론적 제 원

칙을 깊이 파악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의 사상적 측면과 리론적 측면의 호상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의 사상적 측면과 리론적 측면은 호상 불가분적인 관계를 가지며 그 두 측면 사이에는 어떤 절대적인 한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두 측면을 밀접히 결합시켜 체득할 때에만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개 측면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두 측면을 체득하는 과정도 꼭 같은 보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례를 들어 리론적 지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상적으로도 견실하고 혁명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확고하게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추호의 동요도 없이 행동하는 투사가 되려면 사상적 측면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의 리론적 측면을 옳게 체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물론 리론적 측면을 경시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두 개 측면을 다 원만하게 체득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인 것이다. 실지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리론적 지식도 계급적 립장, 사상적 립장이 옳게 설 때에만 정확히 습득할 수 있으며 그것을 단순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와 살로, 자기의 진정한 세계관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의 사상적 측면과 리론적 측면의 통일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전자에 즉 확고한 계급적 립장, 혁명적 사상성에 있다.

혁명 전통 교양은 대중을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 공산주의적 혁명성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면서 이에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적 제 원리도 깊이 체득시켜 나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힘 있는 교양 사업으로 된다.

그러면 혁명 전통 교양이 대중에게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적 사상성을 체득시킴에 있어서 주로 어떠한 역할을 노는가?

혁명 전통 교양은 우선 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적 각오를 부단히 높이도록 하는 데 큰 감화적 작용을 논다.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키는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알려 줌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모범을 본받아 혁명에 헌신할 각오를 굳게 다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혁명 전통 교양의 경험이 잘 실증하여 준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항일 빨찌산들의 영웅적 투쟁 업적과 해방 후 혁명 투쟁에서 몸바쳐 싸운 혁명 전사들의 활동을 체계 있게 알려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 위업의 계승자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혁명을 보위하며 사회주의 전취물을 고수하려는 결의를 부단히 높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혁명적 각오가 높아지는 것 자체만으로써도 사회 생활에서의 사람들의 근본 태도, 세계관에서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소유하는 데 이미 들어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맑스-레닌

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혁명 전통 교양을 심화해 나감으로써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진수를 깊이 파악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의 근본 요구는 결국 로동 계급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다. 이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을 거세한다면 도대체 로동 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맑스-레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징표로 된다.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활동의 출발점이고 근본 지침이며 또한 그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이기도 하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공산주의자들, 빨찌산들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고수하는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그들은 불패의 영웅적 투쟁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해방 후 우리 당의 붉은 전사들도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견결히 고수함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다. 높은 계급적 각성에 기초한 애당, 애국, 애민의 사상은 우리 혁명 투사들의 전 활동을 일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범으로 당원들과 인민 대중을 교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며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깊이 인식시킬 수 있다.

혁명 전통 교양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함으로써만 공산주의자들이 소유하여야 할 혁명적 기풍 즉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 기풍을 전면적으로 체득시킬 수 있다.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 기초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기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 투쟁에서의 혁명적 헌신성과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풍 그리고 공산주의적 도덕 풍모인바 바로 이러한 기풍과 풍모들은 혁명 선배들의 실지 활동에서 력력히 찾아 볼 수 있다.

항일 빨찌산들은 혁명적 헌신성의 고귀한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들의 혁명적 헌신성은 온갖 개인적인 것을 돌보지 않는 철저한 자기 희생성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여기에 빨찌산들의 만난을 극복하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적 헌신성은 견결한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풍과 밀접히 결합되여 있었다. 그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시작하는 첫 날부터 혁명 투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외세 의존의 일체 경향을 반대하고 우리 나라 인민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 승리를 보장하려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적 헌신성은 또한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 풍모와 결합되여 있었다. 그들의 공산주의적 도덕 풍모는 강한 계급 의식과 군중 관점, 혁명적 의리와 절개, 깊은 동지애와 인간성으로 안받침되여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혁명적 기풍들은 생활

화되고 습성화되여 시간, 장소, 조건을 불문하고 모든 활동과 생활에서 견지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 대중을 이러한 혁명적 기풍과 풍모로 교양하며 그것을 계승 발양시키도록 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높은 사상성에 기초하여 확립하고 혁명 의식을 확고하게 높이며 그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해방 후 영웅적으로 투쟁한 모든 사람들 특히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선과 후방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한 사람들과 전후 재'더미 우에서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공장과 농촌을 일떠세우기에 몸바쳐 일한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 영예로운 천리마 기수들 그리고 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 기풍을 이어 받아 당과 계급,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혁명 투사들이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 대중 특히 젊은 새 세대들이 이러한 혁명 투사들의 대오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데 혁명 전통 교양의 주되는 초점이 돌려지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과 이에 기초한 그들의 혁명적 기풍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기풍과 풍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생동한 사실, 산 모범을 통하여 여러 측면에서 보여 줌으로써 당원들과 인민 대중을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혁명적 단련의 길로 힘차게 인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것은 주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확립의 사상적 측면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이다.

이와 함께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적 원리들을 깊이 습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큰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적 원리들을 습득함이 없이는 로동 계급의 과학적 세계관인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확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개 당원들에게 자연과 사회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의 계급 투쟁의 본질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멸망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필연적 승리에 관한 과학적 지식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할 것이다》 (김 일성 선집 제 4 권, 1960년 판, 232 폐지) 라고 교시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적 원리들을 깊이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방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 하나는 일반적 원리에 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그 원리들이 실천에 적용된 투쟁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이 두 방면의 연구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것들이 잘 결합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 왔다.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원리 교양을 사

상 교양의 요구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동시에 원리 교양 자체도 더욱 심도 있게,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주체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은 항일 무장 투쟁, 해방 후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조국 해방 전쟁,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등 사회 발전, 혁명 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의 투쟁 경험, 각이한 내외 원쑤들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투쟁에서의 경험을 담고 있다. 이러한 투쟁 경험들은 매우 복잡하고 간고한 환경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원리들을 능숙하게 적용함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보장한 귀중한 것들이며 여기에는 허다한 창조적 경험들이 포함되여 있다.

이러한 풍부한 투쟁 경험을 전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혁명 발전의 모든 주요 법칙들,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의 모든 기본 원칙들을 정확히 심도 있게 인식할 수 있다.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대중에게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주요 리론적 원칙들을 습득시킬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적 공산주의의 제 원리들을 성과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다.

과학적 공산주의의 제 원리를 대중에게 깊이 인식시키는 것은 그들의 혁명 의식, 공산주의적 자각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대중의 혁명 의식을 확고하게 높이기 위한 당의 정치 교양 사업에서 반드시 틀어 잡고 나아가야 할 주요 고리를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확신시키고 그것을 공고 발전시키려는 투지를 가지게 하며 반제 반미 투쟁의 의식과 조국 통일의 사상을 높이도록 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발전 법칙, 혁명의 발전 법칙을 명확히 인식시키면서 결국 과학적 공산주의의 제 원리,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의 제 원칙을 철저히 체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대중에게 우선 맑스-레닌주의의 3대 구성 부분의 하나인 과학적 공산주의의 제 원리와 우리 나라에서의 그 구현 과정을 심오하게 인식시키며 이것을 계속 심화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원리들을 전면적으로 습득시키는 데로 나가야 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과 리론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혁명적 실천 투쟁 속에서 그것을 공고화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의 확립 과정은 총체적으로 볼 때 인식과 실천의 두 측면을 포괄한다. 이 두 측면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호상 보충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사상-리론적 제 원칙들을 깊이 파악함으로써 혁명적 실천이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동시에 또한 혁명적 실천 속에서 그 리론에 대한 신념도 확고해진다.

혁명 전통 교양은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적 및 리론적 제 원칙들을 깊이 파악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혁명 투쟁을 진행하며 그 혁명적 실천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공고화하도록 하는 데서도 극

히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것은 원래 혁명 전통이 단순한 리론 사상 사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혁명적 실천 투쟁 속에서 이룩되고 풍부화되였기 때문이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빨찌산들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실천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이악하게 투쟁하였으며 반드시 관철하고야 말았다. 해방 후 당의 충직한 전사들 역시 그와 같이 투쟁하였다.

이러한 모범으로 교양함으로써 당원들과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우선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하는 실천 투쟁에서의 견결성을 배우게 하며 또한 혁명 선렬들을 본받아 투쟁하는 행정에서 그 세계관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혁명 전통 교양은 혁명적 실천에서의 조직성을 배양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기초한 혁명 투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명확한 목적 의식성과 함께 강한 조직성을 가진다는 데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활동은 어느 때나 집단적 투쟁, 조직적 투쟁이며 당'적 투쟁인 것이다.

원래 개인의 지혜와 힘, 개인의 지식 수준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이 혁명 집단에 망라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투쟁할 때에는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각자의 개별적 능력 이상의 수준에서 실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그들의 사상 리론 수준과 능력이 급속히 높아질 수 있다.

우리는 실천 활동에서의 강한 조직성의 전형을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과 그들을 본받아 투쟁한 우리 당의 붉은 전사들의 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가 평범한 인민의 아들딸들이였다. 그러나 그들이 비범한 활동을 할 수 있은 것은 그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였고 당에 의거하여 투쟁하였으며 수령의 교시, 당의 로선, 정책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인 혁명 전통 교양은 당원들과 모든 일'군들, 대중으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태도, 조직 생활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가지게 하는 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에 대한 태도, 조직 생활에 대한 관점은 그것 자체가 세계관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것은 당에 대한 태도, 조직 생활에 대한 관점이 바로 계급적 립장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당에 의거하여 활동하지 않고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튼튼히 확립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체계적인 혁명 전통 교양은 당원들과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수령의 교시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실천 활동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리론적 및 사상적 수준을 급속히 제고시킬 수 있게 하며 이 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공고케 할 수 있다.

혁명 전통 교양은 맑스-레닌주의 세

계관에 기초한 실천 활동의 근본 립장을 옳게 세우도록 하는 데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세계관에 기초한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업 방법과 작풍은 군중에 대한 관점 여하에 의하여 규정되며 군중에 대한 관점은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사업 방법과 작풍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또한 반면에 사업 방법과 작풍을 옳게 세움으로써 그 세계관을 더욱 공고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사업 방법과 작풍 문제를 특별히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항상 사상 관점 문제, 세계관 문제와 결부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맑스-레닌주의적 군중 관점에 기초한 혁명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이 확립되였으며 우리 당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왔다.

위대한 청산리 방법은 이러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 발전의 고귀한 결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모든 지도 일'군들에게 청산리 방법의 진수를 똑바로 인식시키며 그것을 정확히 관철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혁명 전통 교양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산리 방법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반영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 방법이다. 따라서 혁명 전통 교양, 세계관 교양을 강화하여 일'군들의 사상 관점을 똑바로 세워 주지 않고서는 청산리 방법을 원만히 관철시킬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확립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우리는 혁명 전통 교양과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확립의 호상 관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로부터 도달되는 중요한 결론은 혁명 전통 교양을 심화해 나가며 그것을 전반적 공산주의 교양, 당 정책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당원들과 인민 대중을 조선 로동당의 사상 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 전통 교양과 결부된 공산주의 교양은 당원들 뿐만 아니라 광범한 근로 대중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당의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강력한 교양 사업으로 된다》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조선 로동당의 사상 체계는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사상 체계이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주체성 있게 적용한 사상 체계이다.

조선 로동당의 사상 체계로 당원들과 인민 대중을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은 그들의 혁명 의식을 견고한 사상 리론적 기초 우에서 높이며 그것을 일상 생활에서 정확히 구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며 결정적인 요인이다.

* *

이상에서 혁명 전통 교양이 맑스-레

닌주의 세계관 확립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의의를 해명하는 것으로써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의의를 정확히 리해한 기초 우에서 그에 적응하게 즉 그 의의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혁명 전통 교양, 혁명 전통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면 혁명 전통 교양과 연구 사업을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데서 중요하게 세기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우선 혁명 전통 교양이 그 모든 내용을 단순히 사실 그 자체로써가 아니라 그에 안받침되여 있는 세계관적 기초 즉 깊은 사상성과 원리적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이 이룩되고 발전 풍부화되여 온 과정 그 자체를 시기적으로나 측면 별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사상 리론적으로 깊이 있게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명 선배들의 활동을 보여 주는 데 있어서도 단편적 사실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혁명적 세계관의 형성 발전 과정과 그에 기초한 투쟁 모습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 전통 연구에서 가져야 할 립장을 옳게 세워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 전통에 대한 교양과 연구는 단순히 지나 간 일을 회상하는 립장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립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혁명 전통 연구를 일상적인 사상 단련, 사상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하며 이런 저런 사상 상의 부족점,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확립에서의 약점들을 극복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체득하는 과정이 각 계급, 계층에 따라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로동 계급, 농민, 인테리, 사회 정치 생활이 각이한 계층 등에 대하여 각각 그들에 적응하게 혁명 전통 교양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혁명 전통 교양의 초점을 대중의 혁명 의식을 확고히 높이는 데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 전통 교양을 당면한 혁명 과업 수행, 대중의 일상적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하여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한 대중의 사상 의식 개변이 실지 행동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의 혁명 의식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사업과 당면한 혁명 과업 수행에서 그들의 자각적 열성을 높이는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혁명 전통 교양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혁명 전통 교양과 그 연구 사업의 수준은 부단히 높아져야 하며 그 내용과 형식도 계속 개선되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당의 강령적 및 정책적 요구에 맞게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이 힘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청년들 속에서의 문화 교양

전 태 극

오늘 우리 당은 청년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지, 덕, 체가 겸비된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육성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청년들을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 육성하는 것은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움에 있어서나 또한 미래 사회의 참된 주인공으로 키움에 있어서나 현시기 중요하게 관심을 돌려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문명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된 미래에로 전진시키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낡은 사상과 악습을 청산하고 사람들의 사상-도덕적 풍모와 전반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에서 항상 어려운 고비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 육성하는 것은 조국을 통일하고 이 땅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청년들을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 육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문화 교양을 옳게 진행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1962년 5월 3일 교시에서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사회-문화 교양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내용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교시 이후 당 조직들의 지도 하에 우리 일'군들과 청소년 교양 기관들은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 사업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진행하여 왔다. 그리 하여 우리 청년들은 사상성이 강하면서도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한 새 형의 인간으로 성과 있게 육성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교양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만족할 것은 못 된다. 더우기 현시기 당은 전 사회 성원을 혁명화하며 그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일'군들은 청년들을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참된 혁명 전사로, 지, 덕, 체가 겸비된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 교양에서 문화 교양이 가지는 의의와 그 실행에서 현시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리해하고 이 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끌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 *

우리는 문화 교양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사회적 실천에서 달성된 과학 기술과 일반 및 기초 지식을 주어야 하며 사회와 자연에 대한 지식, 공산주의적 도덕 규범과 생활 양식 등 광범한 지식을 주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에게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레닌은 공청 제 3 차 대회에서 청년들이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달성한 광범한 과학, 문화 지식을 체득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여러 분이 만일 인류의 지식에 의하여 축적된 것을 습득하지 않고도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 여러 분은 커다란 오류를 범할 것이

다. 그리고 또 지식의 총화—공산주의 자체가 바로 그 결과인—를 습득하지 않아도 공산주의적 구호나 공산주의적 과학의 결론만 습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유일 것이다. 맑스주의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인류의 지식의 총화에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표본이다》(레닌 전집 제 31권, 341 페지).

청년들 속에서의 문화 교양은 우선 그들의 세계관을 확립하며 옳은 인격 풍모를 갖추게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을 새 형의 인간으로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을 공산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고상한 리상과 큰 포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청년 시절은 세계관이 형성되고 도덕과 인격이 구비되는 인간 성장에서의 전환기이다. 청년들은 이 시기부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자립적 견해를 가지게 되며 공산주의적 리상과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려는 큰 포부를 키워 나간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수많은 청년들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리상과 포부가 그들의 세계관 속에 중요한 정신적 지향성으로 자리 잡고 있음으로 하여 당과 조국이 부르는 모든 초소에서 일편단심 헌신하여 불멸의 영웅적 위훈을 떨치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을 이러한 높은 공산주의적 리상과 큰 포부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회 계급적인 립장과 혁명 임무를 옳게 인식시키는 것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다방면적인 문화적 소양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청년들이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 계급 투쟁, 혁명 투쟁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며 사회와 자연에 대한 넓은 지식을 가져야만 공산주의자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계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립장과 각오를 옳게 가질 수 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낮으면 청년들의 리상과 꿈도 그 만큼 협애해지고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또 설사 리상은 높고 포부는 크다 할지라도 과학적 지식이 안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생활력을 나타낼 수 없으며 한갖 공상으로 남게 될 것이다. 더우기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높은 과학 기술과 문명한 지식에 기초한 미래 사회를 건설할 데 대한 웅대한 포부와 뜻을 가지게 하려면 응당 그들의 문화 수준을 그에 상응하게 전면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군들이 청년들에게 위대한 포부와 큰 뜻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폭 넓은 지식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청년들 속에서 문화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그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청년들의 계급적 의식과 혁명 사상은 객관적 진리에 확고히 기초할 때 공고한 것으로 된다. 청년들이 로동 계급의 력사적 임무와 혁명적 립장을 반영한 공산주의 과학, 공산주의 리론으로 무장됨으로써 공산주의적 당성과 계급성, 인간성을 겸비한 불굴의 혁명 전사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산주의 과학, 리론은 인류가 달성한 선행 사상과 지식의 총화로 이루어져 있으니 만큼 선진 인류가 이루어 놓은 풍부한 문화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는 공산주의적 과학의 결론을 옳게 리해할 수 없다. 과학, 문화 지식이 있어야만 공산주의 과학, 리론을 성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으며 또 공산주의 과학, 리론을 체득할 때 보다 확고한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될 수 있다.

특히 새 세대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그들이 계급 사회에 대한 생활적 체험이 없는 조건에서 주로 사회적인 교양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러한 사정은 그들에게 계급 사회에 대한 지식을 높여 줌으로써만 그들의 계급 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은 그들에게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과 고상한 문화적인 생활 습성을 배양하며 생활을 혁명적 랑만으로 들끓게 하는 데서 또한 중요하다.

공산주의자—이는 도덕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며 또 혁명적 랑만으로 충만되여 있는 인간이다. 청년들 속에서 고상한 도덕 풍모와 혁명적 라관주의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방면적인 지식을 체득시키며 문화적 수준을 높여 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적 도덕, 생활 양식은 모두가 높은 문화적인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높은 문화적 지식과 소양이 없이는 공산주의적 도덕과 생활 양식의 본질을 리해할 수 없다. 문화적 수준이 높아야 사회 생활에서의 아름다운 것과 추악한 것,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사회-미학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고상한 생활 기풍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문화적 수준이 높을 때 고상한 생활 정서와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사업과 생활에서 긍정적인 것에 공명하며 또 생활을 라천적으로 흥겹게 조직할 수 있다. 인간 생활에서 제기되는 풍부한 지식이 없고 감정이 메마르고 흥분할 줄도 모르는 《샌님》 같은 청년들에게는 높은 사상성도, 부드러운 인간성과 혁명적인 랑만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높은 문화적 지식은 청년들의 사상성과 인간성을 높이며 훌륭한 도덕 풍모를 배양하는 중요한 전제로 된다.

청년들 속에서의 문화 교양은 그들의 세계관을 넓혀 주며 고상한 인격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충실한 혁명 전사로서 우리 당 정책을 훌륭히 관철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게 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이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충실한 전사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당과 수령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적 사상 체계로 확고히 무장시키는 것과 함께 당 정책을 관철하는 자질과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자질과 능력을 키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화 교양을 통하여 사회의 경제, 문화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다방면적인 지식을 체득함으로써만이 당 정책을 본질적으로, 리론적으로 심도 있게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혁명적 열정과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더우기 지금 우리 나라는 전면적인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단계에 처하여 있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 수행에서 청년들은 응당 선구자의 위치에 서야 하며 또 사실 상 이 3대 혁명 과업 수행은 청년들이 선봉에 섬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청년들이 낡은 사상 잔재와 비문화적인 인습을 뿌리 뽑고 자신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며 현대적인 기술을 소유하고 기술 혁명을 수행하는 데서 앞장 서 나가는 것은 우리 나라 전반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청년들 속에서 문화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 통일의 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청년들이 남반부의 정치 정세와 사회 생활을 깊이 리해할 때 남반부의 형제들을 구원하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려는 혁명 사상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또 청년들이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지식이 높아야만 조국이 통일된 후 남반부의 청년 학생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을 교양 개조하여 우리 당 주위에 훌륭히 묶어 세울 수 있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청년들은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면서 그들을 교양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신 세계와 지식 수준에서 항상 높이 서 있어야만 남조선 청년들을 부르죠아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

식》의 악영향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그들 속에서 과학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격 풍모를 완성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역할을 제고하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을 잘 하려면 우선 문화 교양의 내용이 청년들을 새 인간으로 형성함에 필요한 풍부한 지식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높여 주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문화 혁명에서 중요한 것은…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 없이는 기술 혁명도 실현할 수 없으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89 폐지).

일반 지식은 사회와 자연을 옳게 인식할 수 있는 기초를 주며 기술 지식은 실천 활동에서 자립적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준다.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떠나서는 사상 의식과 생활 문화를 높일 수 없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자연과 사회를 리해하는 기초 지식들인 국어, 수학과 지리, 력사 그리고 물리, 생물, 화학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교양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문화 교양에서 일차적인 문제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자기의 직업에 기초한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지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현 시대의 쓸모 있는 일'군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새 시대에 태여 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나라에서 초중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기술 의무 교육제에 들어 서고 있는 조건에서 거의 모두가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초보적 기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 속에서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을 더욱 깊이 있게 보다 폭 넓게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또한 대학 및 고등 기술학교 청년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청년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기술자,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며 문화인으로서, 과학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청년 인테리들이 이러한 사회적 위치에 옳게 서려면 전공 지식에 더욱 정통하는 동시에 그와 련계된 광범한 일반 지식을 풍부히 가져야만 실천 생활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맡겨진 생산 과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려면 전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연을 정복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며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모두가 복잡하게 련쇄되여 있어 이 사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그와 련계된 광범한 지식을 체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청년 인테리들에 대한 교양에서 자기 전공 지식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일반 지식을 폭 넓게 체득하도록 관심을 돌려야 한다.

청년들을 문화 수준이 높은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려면 그들에게 일반 지식 및 기술 지식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그에 기초하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다방면적 지식을 풍부히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으로 되려면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공산주의자는 인류가 달성한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문학 예술, 경제 관리 운영 지식들 그리고 나라의 정치 시사와 국제 정세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력사,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 문화 유산, 경제 지리 등에 대한 깊은 리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이러한 다방면적 지식과 상식을 가져야만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훌륭한 역군으로 일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 속에서 고상한 생활 습성과 취미를 가지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 속에서 고상한 풍모의 형성은 그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생활 습성과 취미를 고상하고 건전하게 하는 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그러므로 청년들 속에서 문학 예술 작품을 광범히 읽고 쓰게 하며 다양한 체육 경기에 참가하게 하며 건전한 생활 오락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문학 예술은 청년들의 문화성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 예술은 인간과 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며 사람들의 정서를 계발함으로써 인간성과 문화성을 높여 준다.

그러므로 청년들 속에서 문학 예술 작품에 대한 독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시와 소설, 희곡, 씨나리오도 쓰고 악기도 다룰 수 있게 문화적인 생활 습성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로동과 국방에 준비시키며 신체의 균형적 발전에 큰 의의를 가지는 체육을 그들 속에서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 속에서 체육을 대중화하며 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육 경기를 조직해 주며 특히 생산과 결부된 체육 경기를 조직하여 줄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게 하며 자기의 일터와 거리와 마을을 항상 깨끗하게 거두게 하며 언어와 행동으로부터 옷차림과 몸가짐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문명한 사람으로 되게 하며 조상 전래의 아름다운 례의 범절과 공중 도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대 발전의 앞장에 서 있으며 모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민감하게 흡수하는 청년들이 응당 높은 공산주의적인 생활 문화의 창조에서도 앞장 서 나가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 청년들은 문화 혁명 과업의 성과적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 례의지국이며 우리 인민은 례의 범절과 미풍 량속을 자각적으로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행위로 여기는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이 우리 인민의 이 아름다운 도덕 풍속을 우리 시대에 와서 활짝 꽃피도록 하게 하여야 하며 그것을 자신의 생활에 모범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간주하게 하여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문화 교양의 모든 수단들을 청년들의 기호와 특성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은 그들이 항상 잘 모이는 구락부, 민주 선전실, 도서관, 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강연회, 좌담회, 영화 및 문예 감상회 등을 광범히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청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는 창작 발표회, 과학 토론회, 웅변 대회와 각종 생산 경기, 기술 시험 그리고 다양한 체육 경기들을 광범히 조직하는 것이 좋다.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에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1962년 5월 3일 교시가 있은 후 우리의 출판물들은 형식과 내용에서 훨씬 개선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 교양 자료를 광범히 소개 선전하고 있다. 각종 출판물들은 청년들의 정신적 량식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청년들 속에서 학풍을 확립하고 더 많은 책을 읽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문화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현지 견학 사업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민주 수도 평양을 비롯한 현대적인 도시들과 최신 기술로 장비된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 세계에 이름 높은 명승 고적 등 훌륭한 견학

대상들이 우리 나라 도처에 수 많이 있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견학을 조직하는 것은 청년들의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높임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예로부터 《백문 불여 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직관 선전은 그들의 문화성을 높이는 데서 큰 효과를 가진다.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을 잘 하려면 문화 교양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에서 특히 사로청 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로청 단체들은 광범한 청년 군중들을 직접 대상하여 사업하느니 만큼 사로청 단체들에서 문화 교양 사업을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간주하고 그것을 직접 틀어 쥐고 더욱 실속 있게 조직 진행하여야만 이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에서 사로청 단체들은 우선 청년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와 비문화적인 생활 인습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 교양은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비문화적인 생활 인습을 뿌리 뽑는 하나의 사상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청년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자각성과 책임감을 높여 줄 수 없으며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서의 높은 문화성과 인간성을 체득시킬 수 없다.

또한 사로청 단체들은 청년들이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며 문화 교양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조직하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에서 학교는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는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 청년 학생들에 대한 문화 교양을 체계적으로 조직 집행한다.

여기서 교원들의 역할은 자못 크다. 교원들은 자기들의 풍부한 지식으로 청년 학생들의 문화성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고상한 풍모와 인격으로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청년 학생들의 문화성을 높임에 있어서 교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문화 교양 사업은 온갖 낡은 의식, 낡은 도덕과 문화, 낡은 생활 습성을 뿌리 뽑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도덕과 문화, 새로운 생활 습성을 배양하기 위한 어려운 혁명이며 인내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김 일성 동지는 전국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 강사 열성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문화 혁명, 이것은 간고한 투쟁을 동반하는 혁명이다. 만약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하는 동무들은 혁명가적 기풍을 가져야 하며 혁명가답게 투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인내성과 완강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문화 혁명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은 청년들에 대한 문화 교양에 계속 심중한 주목을 돌리면서 그것을 일시적인 깜빠니야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계통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꾸준하고도 인내성 있게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 속에서 문화 교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 조직들이 이 사업에서 일'군들과 청년 교양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조직들은 일'군들과 청년 교양 기관들이 청년들 속에서 문화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정확히 관철하도록 지도 방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 하여 우리는 전체 청년들을 공산주의적 세계관이 확립되고 지, 덕, 체가 겸비된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육성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참된 혁명 전사로, 믿음직한 역군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앞장 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화학 공업 부문 앞에 나선 중심 과업

송 복 기

오늘 화학 공업 부문 앞에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특히 7 개년 계획에 예견된 화학 비료 고지를 한 해 앞당겨 점령하여야 할 전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농촌 경리를 포함한 인민 경제의 화학화를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화학 공업의 발전은 인민 경제의 기술 진보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의 자연 부원을 다각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원래 없는 자원도 있는 자원으로 대용할 수 있게 하며 생산과 건설에 천연 재료보다도 훨씬 질 좋은 여러 가지 합성 재료들을 공급하여 준다. 더우기 경지 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 경리에서 경공업 원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으므로 원료를 화학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화학 공업, 그 중에서도 유기 합성 공업의 발전과 인민 경제의 화학화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에 튼튼히 립각하면서 중공업의 기간 부문의 하나인 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시종일관 큰 힘을 경주하여 왔다.

최근 년간에만 하여도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세계 1 등급의 대비날론 공장을 비롯하여 년 5만 톤 능력의 가성 소다 공장, 3만 톤 능력의 농약 가공 직장들이 건설되였으며 화학 비료, 인조 섬유, 카바이드 공장들이 현대적 기술로 신설 확장되였다. 설비의 기술적 개건이 현저히 실현된 결과 《공칭 능력》에 비하여 암모니아 합성 공정은 1.8 배로, 탄산 소다 생산 능력은 2 배 이상으로 각각 높아졌다. 7 개년 계획의 첫 4 년 동안에 화학 공업의 생산량은 화학 비료는 1.3 배, 농약은 2.8 배, 섬유는 1.7 배, 가성 소다는 2.3 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오늘 우리 화학 공업은 수백 종의 기본 화학 제품들과 400여 종의 화학 시약, 300여 종의 합성 의약품 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훌륭히 만들어 내는 현대적인 공업 부문으로, 무기 화학 공업과 유기 합성 공업을 겸비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믿음직한 한 구성 부문으로 되였다. 또한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품이 많이 드는 작업들이 기계화, 자동화되였으며 적지 않은 유해 직장들이 무해 직장으로 전변되였다.

이와 같이 화학 공업에서 최단 기간 내에 이룩한 성과들은 화학 공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잘 보여 준다.

우리는 이미 쌓은 이러한 성과와 토대에 의거하여 화학 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

섬유 가일층 촉진시키며 인민 생활을 보다 빨리 향상시켜야 한다.

현시기 화학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중심 과업은 7 개년 계획에 예견된 화학 비료 생산 목표를 한 해 앞당겨 달성하는 것이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을 급속히 추진시키며 당면하게 우리 당이 힘을 넣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하나는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알곡 생산을 백방으로 증대시키는 데 있다.

여기에서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촉진시키며 특히 화학 비료 생산을 장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촌 경리의 화학화는 수리화, 기계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 조건 하에서 농사에서 수확고를 더욱 높이며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결정적 방도로 되며 농촌 기술 혁명 수행에서 주되는 과업의 하나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농촌 경리의 화학화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화학화는 농작물의 단위 당 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농촌 경리에서의 화학의 적용은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을 촉진하며 병해충과 잡초를 없앨 수 있게 한다》(김 일성,《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화학 비료의 대대적 도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함으로써만 알곡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 수 있으며 농민들을 김매기와 같은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여 일을 헐하고 흥겹게 하면서도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화학 공업이 농촌에 비료를 많이 공급하면 할수록 그 만큼 더 많은 알곡이 생산된다. 결국 알곡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문제가 화학 비료 생산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당은 화학 비료 생산에 특별히 중요한 관심을 돌리면서 화학 공업 부문의 전체 근로자들이 일대 생산적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7 개년 계획에 예견된 화학 비료 고지를 한 해 앞당겨 점령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화학 공업 부문의 전체 근로자들은 《비료는 쌀이다,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화학 비료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알곡 고지 점령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이후 최근 3～4 개월 동안에 우리 화학 공업 부문 근로자들은 화학 비료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지 않은 예비를 찾아 내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에 고무된 흥남 비료 공장을 비롯한 화학 공업 부문의 전체 근로자들은 금년도 화학 비료 생산 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조직 전개하고 있다.

우리 당이 제기한 화학 비료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커다란 예비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순별, 월별, 분기 별로 정상화하는 데 있다.

만약 현재의 설비와 로력을 가지고도 화학 비료 생산을 철저히 정상화한다면 여기에서만도 생산 능률을 근 20%나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계 설비들을 제때에 점검하고 보수하며 일상적으로 잘 정비하는 것은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는 기본 고리이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튼튼히 틀어 쥐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지도 일'군들로부터 운전공, 수리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설비에 정통하고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의 요구에 따라 기계 설비들을 계획적으로 예방 보수하는 정연한 체계를 확립하여야만 설비의

정상적 가동을 보장하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

화학 공업의 설비는 다른 공업 부문과 달리 많은 경우에 내부 구조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반응기와 탑, 탕크 등 장치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들은 배관으로 호상 복잡하게 련결되여 있다. 또한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고온, 고압 혹은 진공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부식성이 강한 산, 알카리성 물질을 주로 취급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 운전 조작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은 설비의 가동률을 높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매개 요소마다에 측정 계기들과 기록 계기들을 정확히 취부하여 반응 과정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장, 기업소 내 공정 별 기사들과 중요 기대 담당 기사들의 책임성을 높여 기술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비 보수 정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예비 부속품 생산을 3 개월 분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부속품 생산에서는 재질의 옳은 선택과 가공의 정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질을 잘 선택하고 가공에서의 정밀성을 보장하여야만 설비 보수 작업의 질을 제고하며 화학 공업 부문에서 보수 주기를 2 배 이상으로 높일 데 대한 당의 요구도 관철할 수 있는 것이다.

질 좋은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한 기초 우에서 매개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수리공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실천에서 이미 그 우월성이 확증된 묶음식 보수 방법을 광범히 도입함으로써 설비 보수 기일을 단축시키며 《사회적 점검원》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 비료 고지를 점령하는 기본적인 담보는 기술 혁신에 있다.

특히 전면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킴에 있어서 이 운동을 군중화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절실하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원래 모든 기술 혁신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광범히 전개되여야만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이 현대적인 기술 장비로 튼튼히 꾸려졌고 모든 공정이 높은 기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조건에서 선진 과학과 새로운 기술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는 기술 혁신 운동을 군중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전면에 나서게 된다.

기술 혁신에서는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이 이미 달성한 성과들을 도입 일반화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화학 공장들에서는 우선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탑의 고압 전처리를 저기압 혹은 상(常)기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능력을 현재 수준의 1.5 배 이상으로 높이며 석회 질소 비료 생산에서 회전 질화로를 광범히 도입하는 데 선차적 주목을 돌려야 한다.

기술 혁신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 협조 밑에 이미 축적한 경험에 기초하여 압축기 능력을 선진적인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낡은 《공칭 능력》에 매달리는 보수성과 기술 신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한편 공무 동력 직장들에서 피스톤 로트를 비롯한 암모니아 합성 계통의 부속품의 재질을 정확히 선택하고 그 가공을 정밀하게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는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암모니아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화학 비료 고지 점령에서 특별히 큰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의 다른 하나는

비료의 성분 구성 별 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사실 상 질소 비료, 린 비료, 카리 비료를 합리적으로 배합 사용하여야만 질소의 효과가 더 높아지며 다른 비료 성분도 은을 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비료 생산에서 특히 질소 성분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석회 질소 비료 생산에서 질화물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원료인 카바이드 생산을 증대시키는 한편 화학 공장들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카바이드를 선별하여 쓰며 그 품위를 높이는 등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질화물을 높이는 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생산 공정들에서 질소 가스압을 정확히 보장하며 분말 카바이드의 풍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질화로의 관리에서 기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석회 질소의 류출 및 파쇄 공정을 기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석회 질소 비료 생산을 선차적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류산을 쓰지 않고도 질소 함유량을 훨씬 높일 수 있게 하는 합성 뇨소, 합성 염화 암모니움의 생산을 시급히 조직하며 류린안 석회 생산을 공업화하여야 한다.

질소 비료 생산에서 질소 함유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동일량의 비료를 가지고서도 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의 성분 구성 별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성하며 린 비료, 카리 비료 생산을 질소 비료의 생산 장성에 상응하게 시급히 따라 세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화학 비료와 함께 농약은 농촌 경리의 화학화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약 생산에서는 그 원질 생산을 현재 수준의 2 배에 도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하여 헥사클로란, 디디티, 2.4디, 피시피, 쩨람, 비산 칼시움 등 살충제와 살균제, 살균제 생산을 증대시키며 과학 연구 기관들과 실험실들의 역할을 제고하여 새로운 품종의 농약을 더 많이 연구 생산하여야 한다.

농약 생산에서는 또한 그 가공 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병해충을 구제하며 잡초를 제거하는 데 알맞는 비률에 따라 농약을 다양하게 가공하되 유제 가공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화학 비료 생산을 증대시키며 7 개년 계획에 예견된 기본 지표를 앞당겨 달성하는 중요한 고리는 현존 화학 비료 생산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새로운 기지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 비료 생산의 주원료인 암모니아, 류산 및 카바이드 생산 시설을 확장하며 뇨소, 석회 질소 등 화학 비료 생산 직장들을 신설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이미 화학 비료 고지 점령을 앞당기기 위한 방대한 기본 건설을 예견하고 건설 공사를 추진시킬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였으며 그 관철에 깊은 배려를 돌리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건설을 공업화하는 동시에 로력, 자재,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하하여 건설의 효과를 최단 기간 내에 나타내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건설 기관들과 건설주 기업소들 간의 호상 협조를 강화하며 특히 화학 공장들의 주인다운 역할을 높임으로써 건설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며 시공을 앞당겨야 한다.

우리는 방대한 건설 공사를 하루 속히 끝냄으로써 화학 비료와 농약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한편 그 질적 구성을 높이고 품종을 확대하여 장성하는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화학 공장들에서는 큰 공장 건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 군중적 운동으로 중소 규모 생산을 도처에 조

직하며 토법에 의한 비료 생산을 합리적으로 배합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중소 규모 화학 공장은 큰 공장에 비하여 투자가 적게 들며 아무 데서나 손쉽게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설비로 다양한 비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리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상 우리 나라에 풍부히 매장되여 있는 저품위 린회석을 리용하여 도처에서 용성 린 비료, 소성 린 비료, 중과 린산 석회, 침전 린산 석회 등 생산을 다양하게 조직한다면 여기에서만도 막대한 량의 비료를 더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순천 석회 질소 비료 공장 미량 비료 분공장의 경험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약 20 명의 가정 부인들로 꾸려진 이 분공장에서는 군당 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화학 공장들에서 나오는 붕사 잔사, 뇨소 잔사와 카바이드 생산에서 나오는 탄산가스 등 부산물을 혼합 리용하여 하루에 10여 톤의 미량 비료를 생산해 내고 있다.

우리는 지방적 예비와 가능성들을 적극 탐구 동원하여 도처에 중소 규모의 화학 공장을 건설하며 비료 생산을 큰 공장에서도 하고 작은 공장에서도 하며, 현대적 방법으로도 하고 수공업적 방법으로도 진행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기후 풍토와 농작물의 특성에 맞는 다종 다양한 화학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해 내야 한다.

* *

현시기 화학 공업 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며 특히 화학 비료 고지 점령을 한 해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와 최근 흥남 비료 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모든 지도 일'군들이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실로 화학 비료 고지 점령을 위하여서는 긴장된 전투를 예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실행하는 투쟁 행정에는 어려운 난관과 적지 않은 애로에 부닥칠 수 있다.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앞에 어려운 투쟁이 제기될 때마다 더욱 요구되며 그것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나가는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표현되여야 한다.

오늘 화학 공업 부문 일'군들 속에서는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는 데 기초하여 난관을 대담하게 극복해 나가며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시키며 로동자들의 작업 조건과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는 등 구체적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흥남 비료 공장을 완전한 폐허 속에서 맨주먹으로 단 3 년 동안에 복구 건설한 그러한 기백과 혁명적 정열을 가지고 사소한 안일성, 해이성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당이 제기한 과업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성 및 관리국들과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온갖 형식주의와 주관주의적 사업 방법을 퇴치하고 생산 현장에 더욱 접근하여 군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당의 의도를 전달해 주며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화학 비료 고지 점령이 가지는 의의를 해설해 줌으로써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각오 정도를 부단히 높여 주어야 한다. 또한 화학 공업에서 유해 공정을 무해 공정으로 전환시킬 데 대한 당'적 요구를 더 잘 관철하며 로동 보호 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동시에 생산 조건과 로동 조건을 개선하고 로동자들의 구체적인 생활 면에 이르기까지 관심함으로써 당의 배려가 그들에게 제때에 가 닿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화학 공업 부문의 지도 일'군들

은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요구에 맞게 계획화 사업, 로동 행정 사업, 절약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화학 비료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 조직을 면밀하게 하는 실천 투쟁에서 높은 당성과 혁명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화학 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무엇보다도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며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계획화에서는 화학 공업의 내부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제기된다.

화학 비료 생산이 원료 공급으로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련관 속에서 진행되는 조건 하에서 공정 호상간, 중간 제품과 완제품 간, 주원료와 보조 원료 간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것은 생산 공정에 대한 계획적이며 기술적인 지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계획화에서는 또한 설비 능력을 옳게 타산하며 설비 보수 계획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된다. 설비 보수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자연 조건의 영향을 옳게 타산하여 전력을 많이 쓰는 부문은 상반년에 보수를 세전하여야 하며 전력을 적게 소비하는 부문의 설비 보수는 하반년에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계획의 동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하여 제때에 계획에 포함시키는 데 제 1 차적 주목을 돌리며 외'적 요인은 관계 부문과의 긴밀한 련관 속에서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인 중요 화학 설비들과 기대에 대한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기술 일'군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신입 로동자들에 대한 기능 전습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기능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로력을 절약하는 것은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모든 일'군들은 단 한 명의 로력이라도 더 많이 절약하기 위하여 머리를 써야 한다.

절약 제도의 강화는 증산과 함께 화학 비료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나라의 축적을 부단히 증대시키는 기본 담보이다.

특히 전력, 석탄, 카바이드 등 귀중한 원료와 자재를 많이 쓰는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이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매개 화학 공장들에서는 원단위 소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고 물자와 재산의 보관 관리 사업에서 질서와 제도를 일층 강화하며 한 키로 와트시의 전력, 한 그람의 석탄, 카바이드라도 더 많이 절약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 속에서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며 기관 본위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치 말고 자체가 생산한 원료 제품을 극력 아껴 쓰면서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에 대한 공급 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화학 공업 부문 전체 근로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받들고 긴장된 로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바 대로 화학 비료 고지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한 전에 점령하여야 할 것이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남조선 인민의 지향

리 종 철

얼음 밑에서 강물이 흐르듯이 파쑈적 폭압 속에서도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 통일 지향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적 운동은 원쑤들의 탄압으로 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단히 발전한다. 운동은 항상 폭발적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도 아니며 운동이 표면화되지 않는 잠재적 시기라고 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운동의 잠재적 시기에도 혁명 세력은 다음의 전투를 위하여 력량을 수습하고 재편성하며 보다 높은 대중적 진출을 준비하면서 부단히 발전한다.

따라서 사회 운동을 리해함에 있어서 표면에 나타난 형태만 고찰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시기에 기저에서 부단히 발전 장성하는 혁명 력량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정확히 리해할 때만이 모든 사회 운동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조국 통일 지향을 리해함에 있어서도 공개적으로 표면에 나타난 현상과 함께 잠재적 형식으로 밑바닥에서 부단히 장성하는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자주 통일 지향은 인민 운동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표면화되며 인민 운동이 저조되는 시기에는 잠재적 형태를 띠게 되였다.

파쑈적 탄압이 극도에 달했던 리승만 독재 시기에 자주 통일 지향은 공개적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 형태로 부단히 자라나 왔다.

당시 원쑤들은 통일 문제를 론의하는 것조차 《국시 위반》으로 엄금하였으며 《평화 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인민들을 극형에 처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는 조국 통일 지향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의 조국 통일 지향은 4월 인민 봉기를 계기로 급속히 표면화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국토의 분렬이 가져다 준 후과를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더는 그대로 살 수 없게 된 남조선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미제를 반대하여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단호히 궐기하였다. 남조선에서 남북 협상과 교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결정적 행동에로 넘어 가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청년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 하에 남북 학생들이 서로 만날 것을 주장하여 나섰다. 이 제의는 북반부 청년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남북 조선에서 학생 회담에 파견할 대표를 선출하기 시작하였다.

고조된 이 투쟁은 《군사 정변》 후 군사 불한당들의 파쑈적 탄압에 봉착하게 되자 합법적인 투쟁으로 계속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주 통일 지향은 인민들 속에서 잠재적 형태로 장성하여 왔다.

1963년 초부터 생존의 권리를 위한 대중적인 로동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조국 통일 지향이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 통일 지향은

6.3 봉기를 계기로 더욱 증대되였다. 시위에 궐기한 청년 학생들은 《한 일 회담만이 현 정권의 출로가 아님을 알라!》, 《통일 대책 없는 무능》, 《민족 분렬을 일삼는 독재 정권 물러 가라!》는 구호를 들고 조국 통일을 지향하여 나섰다.

봉기 후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민족 분렬의 원흉을 처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한 일 회담보다 판문점 개방 협상이 더욱 절박하다》, 《북반부에서 주겠다는 백미 200만 석이나 배급해 달라》(《경향 신문》 1964. 5. 12)는 요구가 남조선 출판물에까지 반영되였다.

표면화된 조국 통일 지향은 도꾜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하여 급격히 고조되였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혈육의 장벽은 뚫어져야 한다》, 《민족적 비극은 하루 속히 해결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렇듯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 통일 지향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표면화되거나 잠재적 형태를 띠면서 부단히 장성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자주 통일 기운이 날로 장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들 속에서는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점차 높아 가고 있고 반미 감정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기운이 날로 장성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투쟁 속에서 부단히 단련되고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체득하며 더욱 조직적으로 단결되여 가고 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 *

1965년을 맞이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해방된 지 20 년이 되는 오늘까지 조국이 의연히 남북으로 분렬된 채 있는 현 사태를 통탄하면서 조국의 조속한 통일을 더욱 주장하여 나섰다.

남조선 출판물들은 《허리 잘린 지 20 년, 오늘의 남과 북》, 《해방 20 년, 이젠 자립 찾아야 할 때》라는 표제를 비롯한 년두사, 시, 특집 기사 등을 통하여 인민들의 조국 통일 지향을 담았다. 《전남 일보》는 《통일이여 열려라》라는 시를 통하여 조국 통일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아! 1965년
우리들 이 새해에
통일이여!
열려라!》

인민들의 이러한 지향을 반영하여 《조선 일보》는 《통일과 남북 교류의 주체성》이라는 제목 하에 10여 회의 련재 론설을 냄으로써 대중의 인기를 끌었으며 구독자가 급격히 증대되여 인쇄 능력의 한계에까지 달하게 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이 얼마나 자주 통일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얼마 전 《조선 일보》가 진행한 여론 조사 자료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였다. 즉 조국의 자주 통일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조사 대상자의 1%에 불과한 반면에 《대단한 관심을 가진다》고 당당하게 대답한 사람은 85%에 달하였으며 75% 이상이 우선 남북 간의 서신, 체육인 및 언론인의 교류와 접촉을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는 자주 통일 문제가 가장 절박한 민족적 관심사로 공개적으로 론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조직체를 결성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작년 10월 중순에는 남조선 대학 교수, 법률가,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민족의 자주적 민족 통일》, 《자주, 자립, 자존》을 자기 강령으로 하는 《자강 학회》(自彊學會)가 조직되였으며 지난 년말에 《한국 학사 청년 련맹》의 반기 회는 조국 통일의 주체적 념원 확립에 중추적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

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국 통일에 대한 론의조차 엄금되여 있던 종전의 사태에 비하여 정세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 준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서 최대의 념원으로, 사활적 요구로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계속 장성하여 온 자주 통일에 대한 지향에 토대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조국 통일에 대한 문제는 가장 긴절한 민족적 관심사로 되고 있으며 이 지향은 공개적 형태로 계속 심화 발전되고 있다.

첫째로,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 통일 지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미제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 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4월 인민 봉기 전 시기까지만 하여도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에 대한 환상으로 하여 그들을 배격하는 기운이 극히 미약하였다.

이러한 제한성은 봉기 후 인민들의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자주 자립을 주장하는 민족 주체 의식이 급격히 제고됨에 따라 극복되여 갔다. 즉 당시에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 나기 위한 《원조》 정책을 반대하는 태도에서도 기껏해야 《무조건 감사할 바는 못 된다》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미제의 《원조》가 남조선 경제 발전을 저애하고 지금과 같은 파국에 몰아 넣은 최근이라고 하면서 그의 침략적 성격을 신랄하게 폭로 규탄하는 데로 발전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공개적으로 남조선이 미제의 《보호국》이며 《상품 시장》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로서 미제에게 《주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과 남조선이 미제의 《반공》을 위한 《포대》로서 그의 극동 침략 정책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는 것을 규탄해 나서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최근 미제의 직접적 지시 하에 박 정희 도당이 남부 월남에 괴뢰군을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표면화되였다.

이것은 《령남 일보》가 남조선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남부 월남 파병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음으로써 잘 살 수 있다는 과거적인 착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력설한 데서도 나타났다.

외세를 배격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이와 같은 동향은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 위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이 지향이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원흉인 미제를 반대하는 반미구국 투쟁의 대중적 운동에로의 전환을 마련해 준다는 데 있다.

외세를 배격하는 동향은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한 일 회담》의 침략적 본질은 미제의 조종 하에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조국 통일을 저애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범죄적인 《한 일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은 4.19 5 주년을 전후하여 대중적 투쟁에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하여 남조선 출판물에는 《한 일 회담》을 반대하며 조국 통일을 주장하는 론설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최근 《령남 일보》가 《남북 통일의 지상 과제가 일대 숙제로 남아 있거늘 반세기에 걸쳐 우리 겨레를 쉼없이 못살게 굴었던 일제와 국교 정상화를 구실로 삼은 여러 가지 회담이 진행되여 선후가 뒤바뀐듯한 느낌이 퍽 간절하다》고 하면서 《한 일 회담》보다 남북 통일이 급선무라고 력설하고 있는 것은 단적 실례이다.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 통일 지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외래 침략 세력에 아부 추종하여 나라를 팔아 먹는 매국 집단들과 친미 보수 정객 전반을 불신하고 인민들 자신의 힘에 의한

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괴뢰 통치배들과 보수 정객들이 저들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민족 분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하여 똑똑히 알게 되였다.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은 괴뢰 통치배들과 보수 정객들이 《남북 통일보다 남조선 경제 건설이 더 절실한 문제이며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외자를 도입해야 한다》느니 《남북의 접촉은 위험하다》느니 《공산주의를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되기 전에 통일한다는 것은 공산화의 위험이 있다》느니 하는 기만 선전에 더는 속지 않게 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현 파쑈 정권의 우두머리들이나 보수 정객 할 것 없이 그들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비극이 소수 위정자들의 정치적 야욕과 망동에 의하여 빚어진 후과라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고 신랄히 규탄하게 되였다.

그들은 《내내 우리 정계는 남북 혈육간의 접촉이 〈위험하다〉, 〈신중 검토〉로만 일관해 오지 않았는가. 정치인은 그러한 랭전형 사고에서 분연히 탈피하여 민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정치인들의 사고 방식이 만일 그대로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부산 일보》)라고 괴뢰 도당을 통렬하게 비난 공격하고 있다. 동시에 남조선 인민들은 조국 통일 문제의 해결은 현 위정자들에게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그들을 반대 배격하고 있다. 인민들 속에서는 《국가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먼저 정치에서 물러나고 민주주의를 리해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정치를 맡기라》는 주장이 울려 나오고 있다.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통일 문제는 위정자들이나 국제적 추세에 맡겨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도 그 실례의 하나이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통일 문제를 부패한 반동 세력에 의해 해결하려면 환상에서 벗어나 오직 인민들 자신의 손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지향에로 점차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세째로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 통일 지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하면서 새 제도, 새 생활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리 승만 독재와 장 면의 소위 《민주 정치》도 겪어 보고 박 정희 군사 통치도 겪어 본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가 남조선에 동지를 틀고 있는 한 그 주구들이 아무리 교체되여도 사태는 달라질 수 없으며 그 어떤 괴뢰 정권에도 기대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낡고 썩은 현 제도에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자주적인 정치 제도의 수립을 요구하며 진정으로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복무하는 《유능한 지도자, 자주 정신의 소유자, 원대한 포부를 가진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새 정치 제도와 행복한 새 생활에 대한 남조선 인민 대중의 절실한 요구—이것은 본질상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동경과 갈망으로서 그들의 자주적 조국 통일 지향의 기본 내용으로 되고 있다.

조국의 자주 통일을 념원하면서 특히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가장 가혹하게 억압 착취 당하고 있는 로동자, 농민들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조선 일보》까지도 남조선 로동자, 농민들의 《통일에의 의욕이나 관심은 솔직히 말하여 정치인이나 언론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그 농도가 짙으며 앞서고 있다》라고 썼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

범한 대중 속에서 새 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특히 청년 학생, 지식인들이 점차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하고 그를 신봉하게 되였다. 그들은 《공산주의 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좌경을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 방식》이라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비난하면서 《자본론》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 서적을 연구하고 있다.

이 사실은 최근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이 파국에 처한 남조선 사태를 수습하고 인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주적인 새 제도, 새 정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가 바로 자주적 조국 통일 념원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자주 통일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이 인민들의 심장 속에 깊이 침투되고 있는 뚜렷한 표시이다.

자주 통일—이것은 우리 당이 시종 일관 주장하여 온 조국 통일의 3대 원칙 즉 자주, 평화, 민주 원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측면이다.

이 자주 통일 원칙은 우리 인민 자체의 투쟁에 의해서만 조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주체적 립장과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워싱톤에 있는 조선 문제 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회답 서한 중에서 조국의 자주 통일 원칙을 재천명하였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허용할 수 없는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이다. 조선 문제는 조선 사람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민족 문제를 능히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이다》.

북반부의 강력한 사회주의 력량과 남반부에서 장성 강화되고 있는 민족 애국 력량은 우리 조국을 능히 자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국제 정세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날로 장성하고 있는 자주적 조국 통일 지향을 억제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실로 조국 통일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념원이며 사활적 요구이다. 이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 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지금과 같은 노예적 처지에서 살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또 지금과 같이 더는 살 수도 없다.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온갖 민족 분렬 정책과 전쟁 도발 책동들을 반대하며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인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요구하는 대중적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들은 남북 간의 서신 거래, 자유 래왕, 경제, 문화의 교류 및 조국의 완전 통일 달성을 위한 보다 결정적인 투쟁에로 일떠 설 것이다. 그리 하여 때가 오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적 조국 통일 지향은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굳게 단결된 인민들 자체의 힘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의병장들의 격문에 반영된 반일 애국 사상

김 하 명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국 강토에 침입한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빛나는 애국 전통을 이룩하여 왔다.

특히 일본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임진 조국 전쟁 과정에서와 19 세기 말 20 세기 초에 교활한 일본 침략자들과 부패 무능하며 매국적인 봉건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일어 난 의병들의 투쟁은 우리 인민의 강한 민족성과 높은 애국주의 정신의 뚜렷한 표시로 되였다(당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궐기한 인민 대중의 무장 대오를 정규군과 구별하여 정의로운 군대라는 의미에서 의병이라고 불렀다).

의병 투쟁은 임진 조국 전쟁 시기를 비롯해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조국 보위의 가장 적극적이며 대중적인 투쟁 형태로 되였다. 거기에는 농민을 골간으로 하여 각계 각층 인민들이 참가하였으며 그 중에는 적지 않은 유학자들도 있었다.

당시 의병 투쟁의 선두에 서 있은 유학자—의병장들에 의하여 투쟁 속에서 수 많은 창의문과 격문, 시가 작품들이 창작되였는데 그것들은 의병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유력한 무기로 리용되였다. 가렬한 전투 정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작품들이 흩어져 없어졌지만 19 세기 말 20 세기 초의 이름 있는 학자들이며 의병장들이였던 최 익현, 류 린석 등이 쓴 격문과 시가들은 그들의 사후에 편찬된 문집들인 《면암집》과 《의암집》에 수록되여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유학자로서 사상적으로는 보수적인 면이 있었으나 일본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반만 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조국의 자주 독립을 고수하려는 애국 충성과 고결한 지조로 하여 인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다.

최 익현은 벌써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반대하다가 흑산도에 귀양 간 일이 있으며 1905년의 을사 5조약이 체결되자 70이 넘은 늙은 몸으로서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일본놈들에게 체포되여 대마도로 끌려 가서 고결한 최후를 마쳤다. 《74 세의 몸으로 죽은들 무슨 한이 있으리오마는 다만 국내 역적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죽으니 이 몸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한 그의 말은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류 린석(1842～1915) 역시 유학자였으나 젊어서부터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는 20대의 청년으로 1866년에 불란서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울 것을 강경히 주장하였으며 1876년에는 일본 침략자

들에 의하여 강요된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그 후 일제의 침략 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자 1895년에 녕월에서 의병을 일으켜 충청도 일대에서 활동하였고 1910년 《합병》 이후에도 13도 의병 도총재의 직책으로 국내외의 각지에서 끝까지 굴함 없이 원쑤들과 싸웠다. 그는 그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 가슴에 솟구치는 애국 충정을 담아 시와 격문들을 수많이 썼다.

이들의 창의문과 격문들은 필자 자신들이 문학 작품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투쟁의 정의로운 내용과 목적으로 하여 그리고 그것이 투쟁과 직접 결부되여 있는 사실로 하여 호소성과 선동성이 매우 강한 정론적 성격을 띠게 되였으며 설득력 있는 선전문의 역할을 놀았다. 실로 그 구절마다에는 원한에 사무친 우리 인민의 분노가 서려 있으며 붉은 피가 용솟음치는 멸적의 기개가 담겨져 있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떠선 우리 선조들의 열렬한 애국 사상이 높뛰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시대적 및 작자 자신들의 세계관적 제약성도 반영하고 있으나 가렬한 투쟁 속에서 점차 사회 정치적 시야가 확대되여 나중에는 새 시대의 사조를 따라 부르죠아 개혁의 필요성을 리해하는 데로 발전해 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일 의병들이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갔다. 그러나 그들의 격문들은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 대한 준엄한 론고장으로서 또는 력사의 증언자로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살아 있다.

의병장들의 격문과 시가 작품들이 똑똑히 보여 준 바와 같이 일본 침략자들은 먼 옛날부터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로 등장하였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들씌웠다. 이미 거듭되는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였던 그들은 오늘 또다시 매국 역적 박 정희 도당의 안내로 우리 조국의 남녘에 기여 들어 깨여진 자기들의 옛 꿈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애국 의병장들의 격문은 오늘도 침략자들과 이 더러운 주구들을 준렬히 단죄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을 원쑤 격멸의 성스러운 투쟁과 승리에로 힘 있게 부르고 있다.

* *

의병장들은 우선 자기들의 격문을 통하여 일본 침략자들을 《불공대천의 피의 원쑤》로 락인하고 그 흉악한 정체를 철저하게 폭로하였다.

당시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 인민을 무력만으로써는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우와 같은 속임수, 원숭이와 같이 간사한 술책》으로써 아주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대동 평화》니 《한 일 량국의 보존》이니 하는 가면 밑에 외교권을 비롯하여 국가 주권을 앗아 내고 《친선》, 《원조》 등의 구실 하에 경제의 명맥을 거머쥐였다.

최 익현은 격문 《전국 인민들에게 호소한다》에서 치욕적인 을사 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그 때 조선 인민에게 들씌워진 망국의 비운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전면적으로 적발 폭로하였다.

《이 날의 국가 사태를 어찌 차마 입을 떼여 말할 수 있으랴! 옛날 나라가 망한 것은 그 통치배들만이 멸망하였을 따름이나 오늘날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민족까지 망하고 만다. 옛날에는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였지만 오늘은 조약으로 나라를 멸망시킨다》(《력대 격문선》, 이하 같은 책에서 인용).

이것은 애국자의 넋으로 감득한 가장 정확한 판단이였다. 이 말은 오늘의 남조선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심각한 교훈으로 되고 있다.

을사 조약에 의하여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을 제멋대로 롱간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탈취하였다. 격문에서 예리하게 분석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국가로서 제 힘으로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사람을 끌어 들여 그들에게 나라 살림을 떠맡기는 것은 곧 나라도 주권도 없는 것이며 제 국토와 인민을 가지고도 자주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격문에는 일본 침략자들이 간교한 속임수로써 우리 나라의 철도, 광산, 어업, 삼포 기타 많은 자원과 생산을 장악하고 제멋대로 좌우하게 되였으며 남북 수천리, 동서 수천리 어간의 각 항만과 정거장들, 들판의 기름진 땅과 풍부한 산림 자원들을 차지하였고 화폐까지도 제멋대로 롱간질하게 된 기막힌 사태를 통탄하면서 《이로 하여 비록 노예로 살고저 하더라도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썼다.

격문은 놈들이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먼저 순 몇 푼 안 되는 차관을 미끼로 온 나라를 통으로 삼키고 있는 침략자들의 교활한 수법을 똑똑히 밝히였다.

놈들의 간악한 행위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래도 당시에는 아직 명목상 나라가 보존되여 있었으나 침략자들은 《각처의 철로 일'군들과 로일 전쟁 때 군수품을 나르던 짐'군들을 소처럼 때리고 돼지처럼 몰아 댔으며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면 그 때마다 풀 베듯 총살하여》 실로 우리 인민을 원한에 사무치게 하였다.

송 병준을 괴수로 하는 일진회의 반역 도당이 일제를 끌어 들이기만 하면 마치 무슨 큰 수라도 생길듯이 떠벌리던 그 《원조》의 내용은 바로 이러하였다. 예나 이제나 침략자들이 스스로를 침략자라고 부른 일이란 없다.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의병장들은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놈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 내였으며 그들을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로서 단죄하였다.

《놈들은 조약을 맺고도 위반하고 맹약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데 대하여는 본래부터 허물로 여기지 않는다. 마관(馬關) 조약으로부터 로일 전쟁 선전 포고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가 자주 독립 국가라고 성명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령토를 보전한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였건만 그러나 이 모든 맹약을 거침 없이 포기하는 것을 조금도 어려워 하지 않고 있다》. 격문은 이렇게 놈들의 허울 좋은 약속에 현혹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의병장 류 린석이 엄격히 단죄한 바와 같이 왜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대대로 내려 오는 원쑤, 피의 원쑤, 불구대천의 원쑤》로서 《극히 방자하고 사나와서 제 힘만 믿고 약속, 신의, 법과 정의는 애초부터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다. 격문들은 침략자들의 악독한 죄악상을 폭로 규탄하면서 놈들의 비렬성과 교활성에 대하여 더 없는 멸시와 혐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의병장들의 격문을 통하여 표현된 또 하나의 강렬한 사상은 송 병준, 리 완용과 같은 매국 역적들을 왜적에 못지 않는 인민의 원쑤로 단죄한 것이다.

역적의 무리들은 사람의 탈을 썼으나

세상에서 가장 천한 미물만도 못한 너절하고 더러운 존재였고 나라와 인민을 해치는 극악한 무리였다. 조국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귀중히 여기는 조선 인민은 나라를 팔아 《영달》을 꾀하는 역적들을 치솟는 분노로써 저주하고 규탄하였다.

류 린석은 격문 《관리들과 선비들에게 다시 통고한다》에서 매국 역적들의 추악한 정체를 밝히고 천하에 용납될 수 없는 그 가련한 운명을 만신의 증오와 멸시로써 예언하였다.

《예로부터 역적이 없지 않았으나 그들도 오히려 욕망하는 것이 있었으니 나라와 백성을 얻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 저 역적들처럼 나라를 빼앗아 원쑤에게 주어서 나라가 망하게 하려는 것, 인민들을 적에게 넘겨 주어 멸망하게 하려는 것에서 그들이 마침내 성취하려는 바는 무엇인가? 저들의 신세가 종말에는 어떻게 될지 가히 알 수 있다… 선대 선렬들의 령혼과 조상들의 혼백의, 그리고 억만 백성들의 노하고 미워함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또 비통하고 격분하여 원쑤로 여기는 그 원망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저 모든 국가들도 이 반역자들과 불량배들의 죄가 엄중하고 극악한 데 대하여 어찌 의논이 없겠는가? 비록 저 왜적들이라도 오히려 반역자, 불량배들의 죄가 엄중하고 극악한 것을 알고 마음 속으로는 실상 비루하고 천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 하여 제 욕망을 실현한 다음에는 오히려 버릴 것이니 저들의 구차한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용납될 곳이 없은 것이다》.

력사는 언제나 준엄하고 공정하다. 예이제 할 것 없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매국노 앞에는 오직 치욕과 멸망의 비참한 운명이 차례질 뿐이다. 나라를 팔아 일신의 《영화》를 누리려는 자 종당에는 인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며 그 더러운 죄악으로 하여 후손 만대에 걸쳐 저주와 증오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송 병준, 리 완용이 그랬고 그 후계자 리 승만이 그러했으며 제 2의 리 완용으로 자처하는 매국 역적 박 정희 도당에게 차례질 운명 또한 이에서 례외로 될 수 없다.

의병장들의 격문의 가장 중요한 사상 주제적 파업은 인민들을 원쑤 격멸에로 궐기시키는 것이다. 의병장들은 나라에 침입한 악독한 원쑤들을 몰아 내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오직 전체 인민이 손에 무기를 들고 일어 나 싸우는 한 길만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로 하여 그들은 격문에서 우선 원쑤들의 정체를 폭로하여 투쟁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격문에서는 조국의 자유 독립을 고수하는 투쟁의 필요성과 그 수단, 방법과 승리할 수 있는 전망과 신념에 대하여 격동적으로 쓰고 있다. 격문의 필자들은 이 때에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와 우리 인민의 빛나는 애국 전통에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국토, 인민, 정치 모두가 자주적이였는바 정병 백여 만을 두었고 재물은 국고에 가득 찼으며 백성들의 생활은 윤택하였고 민족은 번영하였다. 수 양제와 당 태종의 군사적 위력도 우리에게 패배 당하고 말았으며 태조(리 성계를 말함) 때에는 왜놈들이 여러 번 침노하여 왔지만 놈들은 번번이 패하고 말았다. 임진년 싸움 때에도 비록 명 나라의 원조가 있었기는 하지만 국운을 회복하여 완전 승리를 보장한 공은 오직 로량 해전에서 우리의 해군이 왜적의 배 수백 척을 섬멸시킨 데 있었다…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우리 나라 인민들은 강경한 기질이

다른 나라만 못지 않았다》.

최 익현은 《전국 인민에게 호소한다》에서 이렇게 우리 인민의 애국 전통과 영웅적 기개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 주장이 얼마나 당당하고 론리 정연하며 그 문체는 또 얼마나 힘 있고 격동적인가! 오직 쓸개 빠진 매국 역적들만이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믿지 않고 외세에 아부하며 제 나라의 애국 전통을 보지 않고 인민의 력사를 그 어떤 《무저항과 패배의 력사》로 묘사하려 하는 것이다.

의병들은 유구한 조국의 력사에 길이 빛나는 애국 렬사들의 위훈에 고무되고 또 민족적 책임을 느끼면서 용기 백배하여 투쟁에 나섰다. 오늘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 학생들도 바로 《민족 주체의 력량》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원쑤들의 그 모진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보루》로 자처하면서 그렇듯 떳떳하고 용감하게, 그렇듯 슬기롭고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의병장들의 격문에서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오직 자기 힘을 믿으며 눈 앞의 리해나 난관에 현혹되지 말고 멀리 앞을 내다 보면서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갈 것을 호소한 대목을 특별한 감명을 가지고 읽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격문들은 많은 경우에 다만 인민들의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민들이 조성된 정세를 똑바로 보며 조국의 운명에 대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쓰고 있다. 격문은 인민들에게 세계 정세를 알려 주며 자신이 긴박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각자가 스스로 분발하고 스스로 격려하여 개인의 생명보다도 조국을 더 사랑하게 하며, 만 사람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단합시키는 거기에 바로 죽음 속에서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확고 부동한 자주 정신과 단결은 승리의 담보이며 구차하게 개인의 삶을 찾기보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길에서만 오히려 삶을 찾을 수 있다고 한 이들의 웨침 속에는 우리 인민이 자기 력사에서 찾아 낸 고귀한 교훈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류 린석의 많은 격문들에도 조국의 독립을 목숨 바쳐 고수할 데 대한 절절한 애국 충정이 흘러 넘치고 있으며 노예로 살기보다 애국자로서 죽는 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뿐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일심 단결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이 흘러 넘치고 있다. 그는 《오랑캐로 변해서 어떻게 세상에 살아 갈 수 있겠는가?》고 절규하면서 국가 존망을 결정하는 실로 위급한 때에 《각자 무기를 잡고 끓는 물과 단 불에 뛰여 드는 용감성을 발휘해서 나라의 중흥을 기약하고 태양이 다시 밝아 옴을 보게 하라》고 호소하였다.

류 린석은 자기의 격문들에서 자기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여 비겁하게 행동하며 직접 뛰여 들지 않고 기회를 관망하는 행위가 결국 매국 역적과 통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역시 중요한 력사의 교훈이다. 흔히 투쟁은 해야 한다면서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며 이리저리 핑게를 꾸미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력사는 용기와 결단성이 부족하고 비겁한 까닭으로 나라의 존망을 판가리 하는 중요한 시각에 주저하다가 나라도 망치고 자신의 신세 또한 망친 사람들의 실례를 수많이 전해 주고 있다. 정의와 사악의 싸움에서 기회를 관망한다는 것은 결국 악한 자의 편을 드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적들의 기세가 두려워서 그렇다면 이는 비록 몸을 온전히 하고 처자를 보전하려고 하는 모신지책(謀身之策)에 불과한 것인데 고금의 력사를 더

들어 볼 때 비겁한 행동을 하면서 기회를 관망하고 의리를 저버리기까지 한 자가 과연 몸을 옳게 보전하고 처자를 온전히 구제한 례가 있는가? 또 가령 그렇게 하여 몸과 처자를 일시 보전했다 하더라도 천추에 길이길이 반역자의 루명을 어떻게 면할 것인가? 바로 의리 가운데 바른 길이 있으며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구차하게 살아 있는 것은 정의를 위하여 죽은 것보다 더 욕되는 것이며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비루하게 살아 있는 것보다 더 영광으로 되는 법이다》.

이와 같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며 원쑤들과는 결코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조선 인민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규범이며 순결한 민족적 량심이다. 우리 나라에 침입한 외적들에게 번번이 섬멸적 타격을 준 힘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다.

류 린석의 격문 《관리들과 선비들에게 다시 통고한다》에는 역적 리 근택의 집에 살던 한낱 이름 없는 종이 매국 조약을 맺는 날에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식칼로 도마를 내리쳐 쪼개면서 《세상에 어찌 이 놈 같은 역적이 있는가? 나도 또한 사람이므로 이러한 역적의 종으로는 되지 않겠다》고 하고 근택을 한바탕 꾸짖고서 떠나 버렸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왜적과 그 주구 을사 5적에 의하여 망국 조약이 체결되였을 때에 실로 《전국의 신하와 백성들은 통분함을 금하지 못하여 우로는 항의서를 올리고 아래로는 의병을 일으켰으며 선비들은 맹세하고 단결해 나서서 왜적들을 죽이기 위한 계책》을 세웠다.

이런 엄숙한 시기에 나라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 왜적을 막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침략자들과 협력하여 애국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 기막힌 사정을 통탄하면서 당시 병정 김 봉학은 다음과 같이 장판을 면박하였다: 《나라에 군사를 두는 것은 외적을 막으라는 것이고 집에 개를 기르는 것은 도적을 짖으라는 것이다. 도적 보고 짖지 않는 개는 없는데 지금 병정들은 적을 막지 못 하니 사람이 개만도 못 하다》.

조국이 없이는 자유가 없으며 조국의 자유를 잃은 망국노는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 하다는 자각으로 하여 인민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떨쳐 일어나 피의 항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원주에서 살던 평민 김 응선의 안해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 의병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자결하였다는 이야기도 당시 조선 인민의 기개와 고결한 정신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단적 실례이다.

선렬들은 60 년 전 바로 오늘의 남조선과 같이 조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오직 투쟁의 한 길만이 나라를 구하고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방도라고 힘 있게 부르짖으면서 분연 투쟁의 길에 나섰던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는 의병을 일으키는 한 길 밖에 더 다른 계책은 없다. 나라를 위하기로 말하면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놈들을 토벌하는 것이 옳고 자신을 위해서 말한다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떠서서 싸우는 편이 낫다.

어찌 차마 례절 바른 나라의 충성스러운 우리 사람으로서 원쑤 오랑캐와 매국 역적놈들에게 학대를 받고 욕을 보다가 망하여 죽고 말겠는가? 폐일언하고 정의를 위하여 이미 일떠섰으니

반드시 의리를 다할 것이다! 나라의 어느 한 도라도 일어 나지 않는 도가 없어야 하며 한 도에서는 한 개의 고을이라도 일어 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며 한 고을인즉 한 마을도 일어 나지 않는 데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한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일어 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가 정의를 위하여 의병 대렬을 강화할 것이며 의병 대렬이 강화되면 일본 도적놈들이 비록 강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대적하기 어렵겠는가? 이 또한 남김 없이 섬멸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 하여 우리 나라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니 어째서 이와 같이 하지 않겠는가?》.

* *

오늘의 남조선은 60 년 전의 정세를 방불케 하고 있다. 역적 박 정희 도당의 매국 흉정은 최종 단계에 이르고 있다. 남조선의 경향 각지에는 벌써부터 왜색 왜풍이 활개치고 있다. 실로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남조선을 미일 제국주의의 2중 식민지로 되게 하느냐 아니면 떨쳐 일어 나 침략자들을 쳐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이룩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하나는 멸망과 치욕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승리와 영광의 길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결코 4.19 용사들이 흘린 피를 헛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력사는 결코 그 대로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옛꿈을 실현해 보려고 발악하고 있으나 20 세기 60 년대의 조선 인민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조선 인민은 60 년 전과는 비할 바 없이 장성하였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령도자와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가지고 있다. 적과 직접 맞서서 피의 항쟁을 전개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은 이미 4.19 봉기를 비롯한 거듭되는 투쟁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선렬의 애국 사상이 또한 그들을 무한히 고무해 주고 있다.

문제는 남조선 인민들이 어떻게 단결하는가에 달려 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단결된 인민이 타승 못 할 적이란 없다. 남조선 인민들이 자기의 대오를 더욱 굳게 결속하여 완강하게 투쟁한다면 그들은 민족과 시대 앞에 지닌 력사적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 낼 것이다.

난항에 처한 《대서양 공동체》 계획

변 용 석

최근 미국 지배층들은 대서양 량쪽에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제휴》와 《단결》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저들의 《대서양 공동체》 계획을 추진시켜 보려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존슨은 미국이 《민족적 관심을 초월하여 더 폭 넓은 견지에》 서서 《보다 강력하고 보다 단결되고 미국과 보다 더 협조하는 구라파를 실현할 것》이라고 떠벌리였다.

《대서양 공동체》 계획—이것은 서구라파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도전》 당하고 있는 저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제국주의의 《반공 련합》을 형성함으로써 《세계 제패》를 실현해 보려는 미제의 악랄한 전략적 구상이다.

그러나 미제의 이 계획은 세상에 빛을 보이기도 전에 그들의 서구라파 《동료》들로부터 엄중한 반항에 부딪치고 있다.

서방의 《제휴》와 《단결》이라는 간판밑에 서구라파 《동맹국》들에 강요하고 있는 《대서양 공동체》 계획을 둘러 싸고 미국과 서구라파 나라들 간에는 심각한 충돌과 대립이 조성되고 있다. 제국주의 렬강 간의 이러한 모순과 대립은 현시기 제국주의 진영을 사분오렬케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되고 있다.

《대서양 공동체》 계획을 추진시키려는 존슨 정부의 정책은 제국주의 진영내부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을 더욱 헤여 나올 수 없는 역경에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전략》과 《대서양 공동체》

서구라파 《동료》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와 통제를 유지 강화하며 나아가서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미제의 《대서양 공동체》 계획은 현시기 미국이 처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력사적인 쇠퇴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 상 제 2 차 대전 직후만 하여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서구라파 《동맹국》들에 대한 지배 체계의 개편이 그처럼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당시 제국주의 진영에서 차지하고 있은 미국의 지배적인 지위(정치, 경제, 군사적)와 관련되여 있었다.

제 2 차 대전 과정을 통하여 미국 독점 자본은 막대한 치부를 하였다.

전쟁은 미국 독점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치부의 원천이였다. 제 2 차 대전 기간(1939~1945년)에 미국 독점 자본은 최소한 600억 딸라의 리윤을 취득하였는데 이것은 대전 전(1931~1938년) 8 년 간의 그것에 비하여 실로 6.5 배에 달하였다.

2 차 세계 대전에 의하여 서구라파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는 심히 파괴되여 극도로 쇠약해진 반면에 미국 독점 자본은 급속히 팽창되였던 것이다.

전후 미제는 딸라의 힘에 의거하면서 서구라파 나라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른바 《마샬안》을 들씌웠고 침략적인 군사 쁠럭인 나토를 조작하였다.

제국주의 진영 내에서 미국이 지배적인 지위와 《명령권》을 유지하고 있은 동안은 서구라파 나라들에 대한 통제 체계도 《효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에 의하여 경제 장성 속도에서 구라파 나라들이 미국을 훨씬 앞서게 되고 그들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여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요구하게 되였으며 다른 편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의 위력이 장성 강화되고 민족 해방 투쟁이 전례없이 앙양되여 제국주의 진영의 지위가 더욱더 약화됨으로써 구라파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통제력은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게 되였다.

미국 지배층들은 서구라파에 대한 《낡은 동료 관계》를 《새로운 동료 관계》로 개편하지 않고서는 서구라파에 대한 저들의 통제와 지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는 《대서양 공동체》 계획을 통하여 우선 서구라파에서 《공동 시장》을 비롯한 배타적인 독점적 경제 쁠럭들을 와해하고 구라파 시장에서 저들의 패권을 유지해 보려 하였다. 또한 미제는 이를 통하여 서구라파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군사적 잠재력을 련합하고 나토를 재편성하여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을 반대하는 《효과적》인 군사 전략 체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서구라파 제국주의 렬강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제거하고 저들의 신식민주의를 그에 대치시키려 타산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서양 공동체》 계획은 제국주의 진영의 세력 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 나고 있는 환경에서 서구라파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며 서구라파 제국주의 나라들을 규합하여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력량과 민족적 독립과 해방, 사회적 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기 위하여 조작해 낸 미 제국주의자들의 일대 음모인 것이다.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구상은 미국에서 벌써 제 2 차 대전 시기에 제기되였다. 당시 미 제국주의의 대변자들은 미국의 지배 하에 대서양 량쪽에 있는 자본주의 나라들을 묶어 세우려고 시도하면서 이른바 《대서양주의》를 류포시켰다.

그러나 《대서양 공동체》 계획이 일정에 오르고 그것이 미제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의 주되는 문제의 하나로 된 것은 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 집권 시기였으며 케네디 자신이 그의 적극적인 추진자였다.

케네디는 《대서양 공동체》를 세계적 규모에서 《자유(예속을 의미한다)를 쟁취하려고 맹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인 통합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으로 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미제의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배층들은 저들의 이 야망을 극력 은페하면서 《대서양 공동체》를 미국과 서구라파 렬강들 간의 그 어떤 신성하고 《영예로운》 《동맹》으로 묘사하려 애써 왔으며 또 애쓰고 있다.

케네디는 《대서양 공동체》를 미국과

《구라파 동맹국》들 간의 《원조, 무역, 방위, 외교 및 금융》 면에서의 《새로운 협조 관계》로 찬미하였으며 존슨은 《힘과 단결이 장성하며 미국과의 협조가 장성하는 구라파》를 만드는 신성한 《조치》라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 지배층들의 이러한 궤변은 미국과 서구라파 나라들 간의 모순을 무마하고 이 계획이 추구하는 강도적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제반 사실은 《단결》과 《새로운 협조 관계》를 표방하는 미제의 《대서양 공동체》 계획이 서구라파에서 날로 약화되고 있는 그들의 지배 체계를 수습하며 사회주의 진영, 민족 해방 운동을 비롯한 세계 혁명 력량을 반대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대련합을 형성하려는 《세계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똑똑히 말하여 준다.

그러나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이란 강도적 동맹에 불과하며 그들 간에는 진정한 단결이나 협조란 있을 수 없다.

《대서양 공동체》 계획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을 조화할 수도 없으며 근저로부터 뒤흔들리는 미제의 지위를 만회할 수도 없다.

《대서양 공동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실시되고 있는 미제의 대 《공동 시장》 정책과 《다각적 핵무력》에 의한 나토의 재편성 정책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공동 시장》의 반발

이미 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 시장》을 비롯한 서구라파의 배타적인 독점적 쁠럭을 와해하고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는 것은 미제가 《대서양 공동체》 계획에서 노리는 주되는 측면의 하나이다.

미제는 《경제적 통일》이라는 간판 하에 서구라파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강화함으로써 《동맹국》들을 계속 저들의 경제적 지배 하에 얽매여 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밑에 미제는 우선 《공동 시장》에 침투하여 서구라파에서 자기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을 참망하는 영국을 트로이목마로 리용하려 하였다.

미 제국주의의 대변자인 키싱거라는 자가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은 우리로 하여금 구라파 경제 쁠럭 리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하며 영국의 방조 하에 우리가 구라파의 작은 나라들과 이태리 등을 규합하여 한 개 쁠럭을 형성하고 불란서-서독 축이 구라파를 지배하는 것을 저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데서도 미제의 이러한 기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미제는 《공동 시장》 참가국들에 직접적 자본 투자를 증가하는 것으로써 《공동 시장》의 관세 장벽을 허물어 뜨리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구라파 《공동 시장》 참가국들에 대한 직접적 자본 투자를 급격히 증대하였는바 《공동 시장》이 형성되기 전(1950~1957년) 서구라파에 대한 미국 사자본의 직접적 투자는 매년 평균 13.3% 장성하였다면 《공동 시장》이 형성된 후(1958~1963년)에는 그것이 매년 평균 17% 장성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공동 시장》 성원국들에 직접적 자본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공동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그 관세 장벽을 허물어 보려는 것이였다.

자본 투자와 함께 미제는 소위 《관세 일괄 인하》안을 《공동 시장》 성원국들에 강요함으로써 관세 장벽을 뚫어 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년간 허터를 비롯한 수다한 경제 《전문가》들과 교활한 외교 사기'군들이 서구라파에 빈번히 파견되여 이른바 《관세 일괄 인하》안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막후 교섭을 벌여 왔다.

그러나 온갖 음흉하고 교활한 책동에도 불구하고 《공동 시장》을 와해채 보려던 미제의 기도는 파탄되였고 오히려 그들의 반발을 일으켰을 뿐이다.

불란서를 비롯한 《공동 시장》의 완강한 반대에 의하여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은 브류쎌 회담을 계기로 좌절되고 말았으며 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한 《관세 일괄 인하》안도 성공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구라파에서 세력권 확장에 광분하고 있는 《공동 시장》 참가국들이 아직도 커다란 경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안을 접수할 리 만무한 것이다.

미 영 독점 자본의 《공동 시장》 침투를 배격하는 것은 《공동 시장》 참가국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경쟁력이 강한 미 영 독점체들의 강력한 진출이 불란서, 서부 독일 등 나라들의 《공동 시장》에서의 패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공동 시장》의 배타적인 관세 장벽을 허물어 보려던 미제의 책동도 성공하지 못 하였다.

미제의 야망 대로 《관세 일괄 인하》안이 실현되면 《공동 시장》의 관세는 미국의 높은 관세에 의하여 무의미하게 되며 그들의 내부 시장은 전적으로 미국 독점체들에게 내여 맡기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공동 시장》이 미국의 이러한 강도적 요구를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공동 시장》은 미국의 《관세 일괄 인하》안에 대치하여 《관세 평균 인하》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미국의 기도를 완전히 뒤엎어 놓았다.

미제는 《관세 일괄 인하》안에 대립되는 《관세 평균 인하》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1963년에 무려 6 개월 간이나 협상을 벌여 놓았으나 아무런 진척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제네바에서 있은 여러 차례의 회담 역시 모두 아무런 결말도 보지 못 하고 말았다.

관세 문제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각종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동 시장》은 더욱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올려 미국과 영국에 대항하고 있다.

《공동 시장》은 오늘 미제의 압력과 위협에 대비하여 결정적인 반격에로 넘어 가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불란서 정부는 작년 9월에 미국을 포함한 일체 외국 자본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경우에 반드시 불란서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였으며 자국에서 미국 자본의 리권을 현저히 저하시켜 놓았다.

미국 자본의 침투를 배격하는 기운은 서독, 이태리 및 기타 《공동 시장》 성원국들에서도 날이 갈수록 더욱 농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까지 《불란서의 일부 정계와 실업계에서는 미국 자본에 대하여 로골적으로 증오를 표시하고 있다. 서부 독일, 이태리, 영국, 서서에서도 랭담성과 비난이 나타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사실 《공동 시장》 나라들은 미국의 공세에 방위적 립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불란서는 미국의 딸라 위기에 더욱 타격을 주기 위하여 금년 1월 초에 불란서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중에서 1억 5천만 딸라를 또다시 미국에서 금으로 바꾸어 갔다. 이미 미국과 치렬한 관세전을 전개하여 온 《공동 시장》 참가국들은 미국 독점체들이 《공동 시장》 내의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에 대한 《공동 시장》의 반발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자본주의 진영 내부에서 제국주의 나라들 간의 력량 관계는 부단히 변경되고 있으며 그들 간의 충돌은 더욱더

공동체》 계획의 군사적 지주로 만들려면 미제의 기도도 파탄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 제패》 계획의 일환인 《대서양 공동체》 계획은 서구라파 제국주의 렬강들의 반대에 의하여 난항에 처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제국주의 진영에서 시장 쟁탈과 세력권의 확장을 위한 암투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미제가 세계 진보적 인민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저들의 《동맹국》들로부터도 더욱더 고립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자본주의 세계 내부에서 정치 경제적 모순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시장과 세력권을 쟁탈하기 위한 제국주의 렬강 호상간의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성의 강화로 인하여 제국주의 렬강간의 모순과 대립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것은 승냥이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 세계의 필연적 산물이다.

근 로 자 제 8 호 (루계 271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5년 5월 3일 발 행 • 1965년 5월 5일

ㄱ—530253 값 40 전

격화되고 있다.

오늘 《공동 시장》이 경제적으로 더욱 더 미국에 《도전》하는 배타적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조건에서 《공동 시장》을 장악하고 그를 확대함으로써 《대서양 공동체》를 실현해 보려던 미제의 망상은 완전히 파탄되고 있다.

경제적 면에서의 미국과 서구라파 렬강들 간의 이러한 모순과 대립은 정치 및 군사적 면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나토》의 위기

《나토》의 위기는 혁명적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는 세계의 새로운 정세와 제국주의 진영 내의 력량 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서구라파에서 미제의 군사적 패권이 뒤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미 몇해 전부터 미국 지배층 내에서는 강력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위력에 대처하여 서방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견지》할 수 있는 보다 《공고한》 제국주의적 군사, 정치 련합에 대한 론의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전 미 국무 장관 애치슨은 《나토》의 위기가 《일치한 결정을 얻으려는 시도에서의 실패》에서 나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일치한 군사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나토보다 더 《공고한》, 공통한 경제, 정치적 지반 우에서 조직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지배층들은 《초국가적》인 광범한 지반을 가진 제국주의적 대련합만이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는 세계 혁명 력량을 반대하기 위하여 서방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자원과 유생 력량, 군사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타산한 것이다.

미제는 《대서양 공동체》 계획을 통하여 우선 나토의 테두리 내에서 《공동 시장》 성원국들과 그 밖의 나라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과 예속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자주권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미국의 통제 밑에 보다 폭넓은 군사, 정치적 련합을 실현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자본주의 세계의 재분할이 이미 농업 지대의 병합에 그치지 않고 공업이 고도로 발전한 지역의 쟁탈전에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 지배층이 《대서양 공동체》 계획을 들고 나오자 불란서에서는 물론 영국과 기타 나라들에서도 맹렬한 비난이 일어 났다. 영국 《에코노미스트》지는 1962년 6월 2일 호에서 《미국의 정치가는 구라파의 조직 문제를 론할 때… 미국에 유리하면 구라파에도 유리하다는 애티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사실 존슨은 구라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구라파의 리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로운 구라파인들은》 이 미국의 정책에 협조해야 하며 《구라파의 행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떠벌림으로써 그 《애티 있는 특징》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나토》의 위기는 미국의 《다각적 핵무력》 창설안을 둘러 싸고 더욱 심각한 단계에 들어 섰다. 미제는 1962년 12월 나쏘 회담(케네디-맥밀란 회담) 이후 서구라파를 지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대서양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을 실현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나쏘 회담 이후 미제가 이 《계획》 추진에 그처럼 집요하게 매달렸으며 나토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미 국무 차관 볼을 비롯한 미국 호전 장군들의 빈번한 서구라파 방문, 영국 외상 위커와 서독 국방상 폰 하쎌의 워싱톤에로의 초청, 지어 《시범 핵 잠수함》까지 만들어 렬강들에 시위하는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온 리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을 저들의 《세계 제패》를 위한 침략 정책의 희생물로 내몰려는 미제의 이러한 야망은 미국과 서구라파 렬강 간의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켰다.

경제적으로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자적》 로선을 추구해 나서고 있는 서구라파 렬강들은 군사, 정치적 면에서도 자본주의 세계에서 일정한 지위를 요구해 나섬으로써 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군사적 통수권을 쥐려는 미제를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미군 장군들이 그를 지휘하며 그 창설과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함으로써 나토 《동맹국》들을 미국에 더욱더 종속시키며 미국의 군사비 조달의 희생물로 되게 할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은 서구라파 렬강들의 강력한 불만을 야기시켰다.

불란서는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에 처음부터 로골적으로 반대해 나섬으로써 미제의 이 《계획》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구라파의 《자주권》과 《구라파 중심주의》를 제창하면서 구라파에서 《맹주》를 참망하여 나서고 있는 드골 정부는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에 《독자적 핵 무력》 창설을 대치시키면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다. 불란서는 이미 나토로부터 지중해 함대와 대서양 함대를 소환한데 뒤이어 나토 사령부에 배치되였던 해군 참모들을 철수하였으며 지어 나토의 기구 개편 문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불란서 수상 퐁피듀는 《불란서는 자기의 방위를 그 어떤 나라의 결정에 전적으로 위탁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서방 동맹 내에서 행동의 자유를 가지려는 것이다》고 하면서 나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으며 드골은 미국이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기어이 추진시킨다면 불란서는 나토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들이대여 미국과의 대립을 더욱 첨예한 단계에 이르게 하고 있다.

불란서는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편 이 《계획》에 추종하는 서부 독일에 배후로부터 압력을 가함으로써 서독이 《다각적 핵 무력》에 가담하는 것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미제의 《다각적 핵 무력》 계획은 불란서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카나다, 벨기 등 나라들에서도 랭대를 받고 있다.

나토의 핵 무력 문제를 둘러 싼 미국과 서구라파 렬강들 간의 암투는 제국주의 진영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도 심히 분렬되고 있으며 서구라파에서 미제의 군사적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미제가 구라파에서 군사 전략의 공간으로, 《반공》의 요새로 간주해 오던 나토는 날이 갈수록 분렬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존재까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아사히 신붕》이 《나토는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궁지를 벗어 날 수 있는 묘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현 실태를 그대로 방임하여 둔다면 나토는 결국 자연 붕괴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한 불안과 초조감이…폭발적으로 로출되였다》고 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나토가 날이 갈수록 보조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사분오렬되고 있으며 나토를 재편성하여 《대서양

공동체》 계획의 군사적 지주로 만들려던 미제의 기도도 파탄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 제패》 계획의 일환인 《대서양 공동체》 계획은 서구라파 제국주의 렬강들의 반대에 의하여 난항에 처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제국주의 진영에서 시장 쟁탈과 세력권의 확장을 위한 암투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미제가 세계 진보적 인민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저들의 《동맹국》들로부터도 더욱더 고립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자본주의 세계 내부에서 정치 경제적 모순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시장과 세력권을 쟁탈하기 위한 제국주의 렬강 호상간의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성의 강화로 인하여 제국주의 렬강간의 모순과 대립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것은 승냥이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 세계의 필연적 산물이다.

근 로 자 제 9 호 (루계 271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5월 3일 발 행 • 1965년 5월 5일

ㄱ—530253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0 호 5 월 20 일

평 양 근로자사 1965

제 10 호 (272)

1965년 5월 (하)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총련이 걸어 온 자랑찬 10 년

오늘 우리는 전체 재일 동포들의 생활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는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결성 10 주년을 뜻깊게 맞이한다.

지난 기간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전체 조선 인민은 60만 재일 동포들과 함께 커다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총련이 걸어 온 자랑찬 행로를 돌이켜 보게 된다.

* *

재일 동포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값싼 노예로, 징병, 징용 등으로 끌려 가서 갖은 고초를 겪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은 동포들과 그 자녀들이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도 그들은 일본 당국의 민족적 차별 대우로 말미암아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다.

총련은 이러한 재일 동포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단체로서 1955년 5월 25일에 발족하였다.

총련은 자기의 강령에서 재일 동포들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집결시키며 일본 반동 정부의 민족적 차별 조치를 반대하며 재일 동포들의 거주, 직업, 재산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모든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총련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재일 동포들을 굳게 결속시키는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조국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이것은 재일 동포들의 가장 고귀한 풍모이다.

오늘 재일 동포들은 한결같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진정한 자기의 조국으로 우러러 보면서 조국과 수령을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비상한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재일 동포들은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총련의 지도하에 일본 당국의 부당한 민족적 차별과 박해를 반대하면서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단합된 힘으로 일본 당국과 적극 투쟁하는 한편 실업을 당한 동포에게는 직업을, 강제 철거 당한 동포에게는 집을, 파산에 직면한 동포에게는 자금을 알선해 주었으며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동포들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 주었다. 특히 총련의 지도 밑에 재일 동포들 속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상부 상조 운동은 동포들의 생활과 단결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총련은 결성 이래 재일 동포 자녀들에게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애국 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자라 나는 후대들을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일'군으로 교육 교양하는 것은 전체 재일 동포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더우기 재일 동포들의 자녀들의 거의 모두가 일본에서 태여 난 조건에서 총련이 후대들을 조국의 언어와 문화, 력사와 혁명 전통으로 교육 교양하는 것을 자기의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였다.

오늘 총련은 자기 산하에 초급 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150여 개의 자주적인 정규 학교를 비롯한 500여 개의 정연한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는바 여기에서 4만여 명의 조선인 자녀들이 모국어로 공부하고 있다. 그들 중 빈곤한 학생들에게는 장려금이,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총련 산하 모든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간부들과 교원의 절대 다수가 총련이 지도하는 각급 학교들에서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받은 일'군들로 꾸려지고 있는 사실은 총련이 정열을 기울여 실시하여 온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력사적 숙망이였던 조국으로의 귀국을 실현함에 크게 기여하였다.

귀국을 방해하는 미 일 반동 세력과 남조선 괴뢰 도당의 음모 책동을 물리치고 귀국의 길을 열어 놓은 1959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124 차에 걸쳐 8만 3,000여 명의 재일 동포들이 조국의 품 안으로 돌아 왔다.

이것은 자본주의 진영으로부터 사회주의 진영에로의 력사 상 전례 없는 민족의 대이동이였다. 오늘도 민족의 대이동은 계속되고 있다.

진정한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사랑의 정이 두터워지면 질수록 재일 동포들 속에서는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조국으로의 자유 래왕—이것은 재일 동포들의 민족적 념원을 반영한 그들의 신성한 권리이다.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이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일 조선인 조국 왕래 요청 위원회》를 조직하고 대중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1964년 봄에는 제 6 차로 통일 행동 월간을 설정하고 오사까—도꾜 간 도보 행진,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조국 래왕을 위한 재일 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은 광범한 일본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이를 지지하여 나선 일본 지방 의회 수만 하더라도 무려 1,030여 개에 달하는데 이 지방에 거주하는 인구는 일본 총인구의 80%에 달한다.

이렇듯 재일 동포들은 총련의 지도하에 자기들의 민족적 권익을 단합된 력량으로 옹호할 수 있게 되였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에 대한 민족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였으며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당당한 긍지를 지닐 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총련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인 조국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남북반부

인민과 더불어 모든 재외 동포들의 절실한 념원이다.

총련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의 침략 정책과 그 주구들의 매국 매족 책동을 폭로 규탄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도록 재일 동포들을 적극 고무하였다.

총련은 또한 공화국 정부의 자주적 평화 통일 방안을 높이 받들고 그를 동포 대중 속에 널리 침투시키면서 모든 기회를 리용하여 남북 조선 인민들 간의 민족적 뉴대를 강화하고 조국 통일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총련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한 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각계 각층의 동포 대중을 조직 동원하였으며 나아가서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본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한결같은 애국적 념원을 반영하여 그들의 력량을 조국 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투쟁에 합류시켜 왔다.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는, 자기의 정당한 투쟁을 통하여 그가 전체 재일 동포들의 사활적 리익을 옹호하는 단체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동포 대중으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 하여 결성 10 주년을 맞는 총련은 자기 대렬에 60만 재일 동포들을 망라한 믿음직한 력량으로 장성되였다.

오늘 총련 산하에는 48 개의 현 본부와 360여 개의 지부, 2,000여 개의 분회들이 있으며 청년 단체, 녀성 단체, 상공인 단체들을 포함한 계층 별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전국에 걸쳐 동포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조국 연구실, 강연구, 성인 학교 및 청년 학교 등 교양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성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간 신문, 통신, 잡지 등 26 종의 정기 간행물들과 과학, 문화, 예술 력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단들을 통하여 총련은 동포 대중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충실한 공민으로 교양하여 왔다.

그와 함께 총련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단체 소속과 과거 여하를 가리지 않고 민족적으로 단합할 데 대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그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 하여 총련은 전체 재일 동포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켰다.

60만 재일 동포들이 총련의 지도 하에 달성한 성과는 전체 조선 인민의 진정한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륭성 발전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는 이국 땅의 어려운 조건 하에서 투쟁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뜨거운 동포애로 재외 동포들을 보호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는 공화국 정부는 이국 땅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 왔다.

공화국 정부는 총련과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거듭되는 침해를 전 민족의 이름으로 항의 규탄하면서 일본 정부에 재일 동포들의 생활과 인권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

특히 1963년 10월에는 공화국 국적법을 채택함으로써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재일 동포들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공화국 정부는 이미 17 차에 걸쳐 40여억 원(일본 돈으로)의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여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공화국 정부는 재일 동포들에게 귀국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귀국한 동포들에게는 직업을 주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마음껏 배우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였다.

총련 결성 10 주년을 맞는 오늘 한덕수 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 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은 조국과 수령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키기에 모든 력량을 경주하고 있다.

* *

총련이 걸어 온 10 년—이것은 60만 재일 동포들이 미 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면서 용감하게 전진하여 온 자랑찬 투쟁의 로정이였다.

오늘도 미 일 반동 세력과 남조선 괴뢰 도당은 《한 일 회담》을 최종적으로 결속하려고 서두르면서 총련과 재일 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모략적 파괴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책동은 재일 동포들과 총련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고의적인 박해 탄압 음모이며 재일 동포들의 공인된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국제법의 제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일본 정부는 재일 동포들의 력사적 지위에 비추어 또는 국제법과 국제 판례에 따라 그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위한 총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그 어떤 구실로써도 이 의무의 리행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체 조선 인민은 재일 동포들과 총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탄압과 온갖 박해와 차별 정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하는 전체 조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재일 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

총련 주위에 굳게 결속된 60만 재일 동포들이 이미 지난 10 년 간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며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쌓아 올린 업적에 토대하여 앞으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생명 현상의 본질 해명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

한 세 헌

최근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우리 나라 경락 연구 집단은 선정된 일련의 실험 생물체에서의 경락 계통의 분포 상태와 그 체계에 관한 연구를 완성하고 새로 산알 학설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것은 생명 현상의 본질을 해명함에 있어서 위대한 기여로 된다.

생명 현상의 비밀을 밝히는 문제는 오랜 세기를 두고 인류의 가장 큰 숙원이였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곧 현대 생물학의 근본적인 과업으로 되고 있다. 전 세계의 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간 참으로 어려운 탐구와 투쟁의 길을 걸어 왔다.

이미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달성한 고귀한 발견과 연구 성과들에 의하여 현대 생물학은 생명의 비밀을 해명하는 데서 위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 해명 정도가 분자적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으며 생명 현상의 물질적 기초로 되고 있는 단백질의 생합성에서 핵산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을 구명하는 데서도 일련의 전망이 약속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 현상은 의연히 수다한 비밀에 싸여 있으며 인류는 그 정체를 완전히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생물학과 의학은 그 제한성과 부족점으로 하여 많은 미해결 문제들에 부닥치고 있다. 특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의학 분야의 리론 및 실천 활동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은 생명 현상의 본질, 그 근저에 놓여 있는 제 과정에 관한 문제를 보다 철저히 해명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년간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우리 나라 과학자들이 당의 지도 하에 불면불휴의 노력으로 이룩한 경락 계통에 관한 연구 성과와 산알의 발견 그리고 이 산알의 운동 과정을 연구한 데 기초하여 내놓은 산알 학설의 창시는 생명 현상의 바탕을 새롭게 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위대한 성과는 생명 현상의 본질적 내용을 밝히려는 인류의 력사적 숙망을 실현함에 있어서 새로운 거보의 전진이며 20 세기 하반기에 반드시 일어 나야 할 자연 과학에서의 혁명—생명 현상의 종국적 해명을 위하여 그 앞길을 뚜렷이 가리키는 리정표로 될 것이다.

* *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경락 연구 집단은 이미 1961년 8월과 1963년 11월 두 번에 걸쳐 연구 성과를

공개하였다. 첫 번째 론문에서는 경락의 객관적 실재를 론증하였으며 두 번째 론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락의 존재가 계통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히였다.

유기체 내에 존재하는 전혀 새로운 해부 조직학적 계통의 발견은 생명체의 본질적 내용을 해명함에 있어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 놓았다. 이것은 국내외 과학계는 물론 광범한 사회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서 계속 연구를 심화시켜 온 우리 나라 경락 학자들은 두 번째로 연구 성과를 발표한 때로부터 불과 1 년 반이란 시일 밖에 지나지 않는 금년 4월 15일에 또다시 놀라운 발견을 세상에 내놓았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경락 학회 제 1 차 학술 보고회에서 공개된 김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의 새로운 과학적 공적은, 봉한액의 순환 체계로서의 경락 계통의 해부 조직학적 구조와 그 분포를 전면적으로 더욱 심도 있게 체계화하고 경락 계통의 기능과 역할을 천명한 것이며 또한 유기체의 자기 갱신 과정의 새로운 법칙성과 그것이 경락 계통에 의하여 영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산알 학설을 창시한 것이다.

경락 연구 집단은 봉한액의 순환 체계를 이루는 경락 계통의 분포 양상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경락 계통에는 내봉한관 체계, 외봉한관 체계, 내외 봉한관 체계 및 신경 봉한관 체계로 구분되는 네 가지 체계가 있다.

내봉한관 체계는 혈관, 림파관 내에 있으며 이에 련결된 소체들은 적혈구를 비롯한 혈구들을 만들어 내는 조혈 기능을 수행한다. 외봉한관 체계는 혈관 밖에서 혈관 주위를 달리면서 전신에 퍼져 있다. 내외 봉한관 체계는 내봉한관들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혈관이 달리는 것과는 관계 없이 복강, 흉강 등 속에 자유롭게 분포되여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뇌, 척수 및 말초 신경에 특유한 신경 봉한관 체계가 분포되여 있다는 사실이다. 신경 봉한관들과 신경 봉한 소체들은 뇌척수액이 순환하는 뇌실들과 그와 련결된 공간에 자유로이 떠 있으며 뇌 신경 조직 속에도 분포되여 있다. 이상의 네 가지 봉한관 체계들은 서로 련결되여 하나의 큰 체계를 이루고 있다.

봉한관들의 시작과 말단 구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실로 놀라운 또하나의 사실이 알려졌다. 즉 장기 내에 들어온 여러 체계의 봉한관들은 장기 내 봉한 소체들 및 말단 봉한 소체들과 련결되고 나중에는 봉한 소관을 통하여 세포핵들과 직접 련결되며 세포핵으로부터 다시 봉한 소관이 뻗어 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봉한관은 심장과 같은 중심 동력 기관이 없어도 자체의 능동적인 수축 능력에 의하여 봉한액을 순환시킬 수 있다. 봉한액은 세포로부터 시작하여 표층 봉한 소체—심층 봉한 소체—장기내 봉한 소체—말단 봉한 소체를 거쳐 조직 세포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유기체 내에는 이와 같은 순환로들이 여러 개 있으며 호상 련결되여 있다는

것이 새로 확증되였다.

연구자들은 경락 계통이 포유 동물뿐만 아니라 무척추 동물에도 있다는 것, 나아가서는 모든 유기체가 경락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경락 체계의 실재와 그 고유한 기능 및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경락학자들은 경락 계통의 전면적인 구명이 유기체의 생명 활동의 본질을 밝힘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확신하였으며 마침내 생명 현상의 기초에 놓여 있는 극히 중요한 새로운 비밀을 해명하였다.

이미 그들은 모든 봉한관과 봉한 소체들에는 대소 부동한 과립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핵산 특히 데핵산을 다량 함유한 봉한액이 경락 계통을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다.

이 번에 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의 본태를 구명하면서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으며 새로운 학설—산알 학설을 내놓았다.

산알이란 물질 대사 기능, 다량의 데핵산, 고유한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미세한 립자적 구조물이다. 이러한 립자적 구조물—산알은 봉한액 속에만 있는데 그것을 인공적으로 배양하면 완전한 세포가 형성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였다.

산알로부터 형성된 세포는 며칠 지나면 다시 산알들로 나뉘여지며 그 산알들로부터 다시 여러 개의 세포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련속적인 과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봉한 산알-세포환》이라고 부른다. 이런 과정은 모든 정상적인 유기체 내에서 항상 진행되며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더욱 왕성하게 진행된다.

세포의 분렬도 세포 내에서 진행되는 《봉한 산알-세포환》의 특유한 형태에 불과하다. 산알-세포-산알 운동은 부단히 진행되며 세포는 산알 운동 과정에 놓여 있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유기체의 자기 갱신 과정은 《봉한 산알-세포환》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으며 산알은 세포보다 더 작은 생명 단위이며 세포는 산알로부터 형성된다는 새로운 명제를 내놓게 되였다. 이것은 세포가 발견된 후 오늘까지 300 년 간 인정되여 온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라는 명제가 새 명제와 자리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산알-세포-산알 운동이 봉한관과 봉한 소체 내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확증하였으며 따라서 유기체의 자기 갱신 과정이 경락 계통에 의하여 영위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봉한 산알들은 봉한액과 함께 전신을 순환하는데 그것은 봉한액 속에서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세포로 된다. 봉한액 속에서 얻은 산알을 봉한액 순환로에 인공적으로 주입하면 일정한 장기에 가서 그것이 세포로 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사람의 피부에 있는 79개의 각이한 표층 소체에서 산알을 얻어 인공적으로 배양하면 각각 다른 종류의 세포가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한 실례로 간장과 련관이 있는 표층

봉한 소체에서 얻은 산알로부터는 간장 세포가 자라 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간장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경혈에 침, 뜸을 놓아야 한다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 오는 동의학의 리론 및 실천과 합치되고 있다.

우리의 경락학자들은 조직 세포들과 련결된 봉한관을 절단하면 세포핵이 녹아서 사멸하며 봉한관에 약물을 작용시키면 심장 활동, 위장 운동, 골격, 근육의 피로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경락 계통이 세포의 형성과 유지 및 사멸, 내장 장기들의 활동을 조절하며 지배한다는 확고한 근거로 되며 모든 생명 과정의 바탕에 산알의 운동이 놓여 있다는 새로운 생물학적 법칙을 낳게 하였다.

결국 인류 과학은 20 세기 하반기에 들어 와 봉한 산알이라는 세포 이하의 생명 단위를 발견하였으며 경락 계통은 세포의 발생과 사멸, 생명의 본질—물질 대사를 좌우하는 전일적인 체계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생명 현상의 비밀을 알아 내기 위한 인류의 장구한 투쟁과 연구에서 혁명적인 전진이며 세계 과학사 상에서 위대한 변혁이다.

* *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우리 나라 경락 연구 집단이 자기들의 과학 활동을 통하여 인류 앞에 기여한바 공적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자못 명백하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업적이 극히 짧은 시일 내에 이룩되였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학 분야가 개척되기 시작하여 그것이 리론적으로 체계화되기까지에는 일정한 시일이 요구된다는 것을 자연 과학의 력사는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이 때까지 생물학과 의학의 기초 리론 중에서도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여 온 세포 학설을 두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학설로서 완성되기까지에는 식물체 내에서 세포적 구조물을 발견한 때로부터 거의 2 세기라는 세월이 경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경락 연구 집단의 경우에는 사태가 전혀 다르게 전개되였다. 이 연구자들은 유기체 내 새로운 해부 조직학적 구조물로서의 경락 계통의 실태를 처음 발견한 때로부터 말하자면 시간 상 거리의 자승에 비례하는 빠른 속도로 연구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고 심화시켜 들어 갔다.

사실 상 경락 계통이 유기체 내에 체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발견에 뒤이어 전개될 연구 사업의 전망과 거기서 이룩될 결과에 대하여 힘껏 예측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그 결과가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맺어지리라고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초의 휴식도 모르며 왕성한 탐구심에 불타는 이 연구 집단은 실로 사람들의 온갖 예측과 상상을 뒤에 떨구고 멀리 앞으로 나갔던 것이다. 경락 실태의 첫 발견으로부터 불과 4 년 미만에 산알 학설과 같은 또 하나의 세기적인 업적이 이룩되리라

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 하였었다.

경락 연구 집단이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과학 사업에서 이렇듯 류례가 드문 속도로 위대한 발견들을 련이어 달성할 수 있은 것은 이들이 과학 사업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관점과 립장, 방법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민족 문화 유산을 정당하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당에 의해서 교양된 경락 연구 집단은 우선 우리 나라에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로동당 시대에 와서 활짝 꽃 피고 있는 동의학 리론과 그 실천에서 얻어진 경험을 자기들의 연구 사업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삼았다.

경락 연구 집단은 동의학의 리론과 실천 속에 깃들어 있는 과학적 진수를 허심하게 받아 들일 줄 알았으며 연구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연구 방향을 규정하는 중요 지표로 삼았다. 경락 실태의 첫 발견 자체가 말하자면 이 연구 집단이 동의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옳은 관점과 견해의 소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후 유기체 내에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경락 계통을 날날이 들추어 내고 그를 체계화함에 있어서도 연구자들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하여 준 것은 피부의 일정한 경혈은 일정한 조직 장기와만 련계를 가진다고 보는 동의학의 경락 학설이였으며 침구 치료의 림상 경험이였다. 만일 이들이 이 립장에 서지 않고 기성 해부 조직학의 지식에 사로잡혀 경락의 분포를 혈관이나 신경의 경우와 동일시하고 그 어떤 중추를 찾으려고만 시도하였던들 다순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경락 계통의 복잡한 양상을 이처럼 단시일 내에 밝혀 내지는 못 하였을 것이다.

산알 학설을 창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경락 연구 집단이 경락 계통의 기능을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을 돌린 것은 경락이란 기혈을 운행하며 통과시키고 련락하는 통로라고 보는 동의학 리론이였다. 연구자들은 이 립장에 서서 봉한액의 순환과 그 내용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분석을 가하였으며 결과에 봉한액 속을 산알이 운동하면서 세포로 자라 난다는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과학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얼마나 위대한 생활력을 가지며 현대 의학과 함께 동의학을 계승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일할 때 과학 사업에서 얼마나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보게 된다.

다음으로 경락 연구 집단에게 복잡한 실험 과정에서 항상 옳은 방향을 가리켜 주고 연구 사업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 준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립장이다. 다아는 바와 같이 과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물론의 립장과 변증법적 방법은 생명과 같다.

우리 당은 항상 이 점을 중요시하고 이 사상으로 과학자들을 교양하여 왔다.

경락 연구 집단의 경우에 유물론과 변증법은 이들의 모든 과학적 사유와 연구 방법을 철두철미 관통하는 립장이

였다. 이들은 이 립장으로부터의 사소한 리탈도 스스로 허용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경락 계통 내를 특수한 과립양 구조물이 순환하면서 세포로 변하는 현상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우연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담하게 산알 학설로 발전시킨 것도 이 립장과 관련된다.

만일 이들이 만물은 부단히 운동하며 부단히 개신된다고 하는 립장에 서서 세포 학설을 비판적 안목으로 대하지 않고 모든 생명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라고 보는 종전의 견해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생명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심화시킬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실로 경락 연구 집단이 달성한 하나하나의 성과들은 그들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립장에 철저히 립각한 데서 얻어진 응당한 결실들이였다.

경락 연구 집단이 연구 사업에서 강의한 투지와 비상한 전개력을 가지고 과학의 요새 속으로 세차게 뚫고 들어갈 수 있은 또 하나의 조건은 전 집단이 하나로 뭉쳐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분공하여 실험하고 합작하여 온 사실이다.

과학 연구 사업에서 집체성의 원칙은 우리 당 과학 정책의 중요 방침의 하나이다.

연구 사업의 전 행정을 통하여 모든 성원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통일되고 단결된 전투적 단위를 이루었던 경락 연구 집단이야말로 이 집체성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한 빛나는 모범이다. 사실상 이 집단 내 성원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밤과 낮이 없었으며 오직 공동의 목표, 경락 세계의 정복을 위하여 자기에게 위임된 영예로운 실험 과제를 하루 빨리 질적으로 완수하려고 하는 투지만이 불 타고 있었다.

유기체 내 전반에 걸친 경락 계통의 분포 양상을 전면적으로 찾아 내고 그를 체계화하는 사업에서와 이를 발생학적으로 또는 비교 생물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방대한 동물 실험 과제가 제기되였을 것인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때로는 수일 내지 수주일을 실험실에 살면서 관찰해야 할 과제들이 산처럼 제기되군 하였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실험도 하나로 단결된 이 연구 집단에게서는 애로로 되지 않았다.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육성된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능히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특히 경락 연구 집단에 망라된 대부분의 성원들은 우리 당이 길러 낸 청년 과학자들이며 신진 인테리들이다. 이들이 이렇듯 단시일 내에 과학 사업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 수 있은 힘의 원천은 여기에 있다.

경락 연구 집단에게 이처럼 과학 사업에서 옳은 립장과 견해를 길러 주고 옳은 연구 방법을 소유하도록 지도하여 준 것은 우리 당이다. 당과 김 일성 동지는 경락 연구 사업이 가지는 인류 문화사적 거대한 의의를 평가하고 연구 행정을 항상 주시하면서 부단한 지도와 고무를 주었으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백방으로 보장하여 주었다. 이 위대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연구 집단은 확고한 신념과 투지를 가지고 곧바로 생명 현상의 근저에 있는 비밀을 탐구하는 길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락 연구 성과는 우리 당 과학 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며 천리마 조선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뚜렷한 시위로 된다.

* *

경락 계통의 체계를 완성하고 생명 현상의 본질을 밝혀 내는 산알 학설의 창시는 우리 생활의 앞길에 매우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생물학의 기초 리론을 더욱 풍부히 한 이 연구 성과들은 무엇보다 생물학과 의학의 기초 리론의 금후 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과학적 응용과 림상 실천에서 사람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금후 생물학과 의학은 봉한 산알의 운동 법칙을 탐구하는 데 기본 화력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 하여 유기체와 외부 환경과의 호상 관계, 외부 환경이 유기체의 내부 환경에 주는 구체적 과정, 더 나아가서는 생물체의 진화 발전의 구체적 제 과정들이 《봉한 산알-세포환》의 새로운 견지에서 해명될 것이다.

세포의 발견이 세포학을 낳고 이에 따라 생리학과 병리학 등이 새로운 수준에서 발전되여 온 것처럼 봉한 산알의 발견은 생물학과 의학의 각 부문 과학들을 보다 새로운 수준에로 발전되게 할 것이다. 경락 계통 자체의 병리학을 창설하고 그것이 유기체의 제반 기능에 주는 영향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며 유기체의 질환이 경락 계통의 제반 기능과 형태에 주는 영향을 전면적으로 해명함으로써 현존 의학의 제반 리론은 보다 새로운 단계에 올라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물학과 의학이 봉한 산알-세포의 운동 법칙을 인간 사회에 유익하도록 합목적적으로 조절 리용할 수 있는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아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참으로 인류 사회의 위대한 사변으로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빈 공상이 아니다.

내봉한관을 끊어 놓으면 그의 지배 하에 있는 장기 내 조직 세포들이 사멸된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였다. 이것은 의학자들에게 아주 엄숙하고도 경사로운 일련의 문제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실 의학자들의 실천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유기체 내에 필요 이상 많아진 세포들을 의식적으로 죽여 버려야 할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상하였거나 죽어서 적어진 세포들을 소생시키고 보충하며 또한 세포들의 성장 속도를 높여 주어야 할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수의 축산을 비롯한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도 제기되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무병장수할 것이다.

내봉한 소체의 조혈 기능의 확인은 혈액학을 새롭게 발전시킬 것이며 각종 약물들과 봉한관을 자극하여 심장 활동을 좋게 하고 근육의 피로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위장관의 소화 기능을 높여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경 활동을 주관하는 인간의 뇌수 기능을 비롯하여 유기체 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해부 조직학적 및 기능적 체계의 활동을 좋게 하며 파괴된 기능도 회복시킬 가능성을 줄 것이다.

또한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균들과 독소들을 삼켜 없애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방어 기구 체계의 세포들(간장, 피하 조직 등에 널리 분포되여 있다)도 봉한관을 통하여 표층 봉한 소체들과 련결되여 있으므로 그것들의 능력을 높여 준다면 경락 계통을 통하여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다. 관원혈에 뜸을 뜨면 무병장수하며 갓난아이의 배꼽에 우각 뜸을 뜨면 일생 설사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예로부터 내려 오는 경험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질병 예방에서 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적 경험은 유기체 자체의 저항성을 높여 주는 것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일상적인 신체 단련과 적당한 영양, 보약 등은 혈액 순환을 비롯하여 모든 내부 계통들의 기능을 높이며 조직 세포들에서 진행되는 생화학적 제 과정, 특수하게는 물질 대사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유기체로 하여금 해로운 요소들과의 투쟁을 보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시킨다. 이것은 신체 단련, 영양, 보약 등이 틀림 없이 경락 계통의 순환과 산알-세포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 준다. 동의학 리론과 실천적인 경험은 안마, 랭수 마찰과 같은 신체 단련 방법은 12 경맥의 순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적당한 육체 로동이 혈액 순환에 좋은 것처럼 경락 계통을 통하여 흐르는 산알과 세포 성장에 극히 필요한 봉한액의 유효 성분들의 순환도 역시 순조롭게 하여 줄 것이다.

우리는 현대 의학자들이 그리 강조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과학 사상을 앞으로도 계속 주체성 있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 전망을 해결하는 과정은 반드시 현존 침구료법의 현대화를 동반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특출한 과학적 업적으로써 무병장수하려는 인류의 오랜 숙망을 풀어 나가는 앞길에 휘황한 빛을 비쳐 주었다. 그러나 전망을 해결하는 앞길은 그 규모의 방대성과 굴곡의 첨예성으로 하여 결코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생물학자들과 의학자들의 더욱 큰 노력이 깃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 조선 인민은 인류의 문화사에 영원히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20 세기의 이 위대한 과학적 기적이 자기의 조국땅에서 자기 나라 과학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사실을 무한히 자랑하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조선의 과학자들이 자기의 천재적 지혜와 재능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인민들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더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과학과 생산의 밀접한 결합은 우리 당 과학 정책의 기본

김 응 삼

과학과 생산의 밀접한 결합—이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과학 정책의 기본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과 과학 발전의 구체적 특성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작성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지난날 과학 기술 면에서 심히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가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선진 과학 기술을 소유한 나라로 되였으며 세계의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일련의 연구 성과들을 달성하고 우리 나라 인민 경제를 현대적 과학 기술의 기초 우에 올려 세운 것은 바로 우리 당의 이 방침의 정당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해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은 과학과 생산을 보다 밀접히 결합시킬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여야 할 전면적 기술 개건의 시기에 처하여 있다.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고 새 기술을 적극 도입하지 않고서는 7 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우리 인민 경제를 더욱 전진시킬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과학 앞에는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실현을 촉진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 있다. 우리는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확고히 관철시킴으로써만 과학이 기술 혁명 수행에 적극 복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우리 과학을 최단 기간 내에 세계 선진 과학 수준에 끌어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의 관철을 위한 방도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우리 당은 과학과 생산을 결합시킴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과학 력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전망적 의의를 가지는 과학 부문을 발전시키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기술 공학에 기본을 두면서 기초 과학을 정확히 배

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과 유리된 순수 리론만을 연구하거나 먼 장래의 리익만 생각하면서 현실적 문제를 등한히 하는 것이나 또는 당면한 수요만 생각하면서 전망을 고려하지 않는 것 등은 우리 당의 방침과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는 우리 당의 주체적 립장이 구현되고 있다. 과학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 것은 결국 과학 연구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리익에 전'적으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함으로써만 과학 부문 일'군들이 자체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과 자체의 원료에 튼튼히 의거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에서 긴절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과학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며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과학 발전의 기본 방향은 첫째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에 절실히 필요하며 긴급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중심을 두며, 둘째로는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달성한 과학 기술의 성과를 섭취하여 그것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형편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한 방도를 연구하는 데 있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82~83 페지).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 과학 일'군들은 인민 경제의 발전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과학 부문 일'군들은 우선 당 정책을 심오히 연구하는 동시에 우리 선조들이 이룩하여 놓은 우수한 과학 문화 유산을 전면적으로 연구하며 생산에 깊이 침투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과 생산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자연 부원과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의 합리적 리용 대책을 연구하며 국내 자원에 립각한 자립적 공업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체로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반드시 다른 나라들의 선진적인 것들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세계의 선진 과학 기술을 섭취함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 나라 실정과 인민 경제의 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세계의 선진 과학 기술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소화하여야만 이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달성한 과학적 성과들을 우리 나라의 원료 자원과 기타 조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선차적으로 실험 과정을 거쳐 생산에 도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문제들을 처음부터 기초 실험 과정을 거쳐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세계의 선진 과학 기술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현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과학 발전의 추세를 알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서 오래 전에 해결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새로 연구하느라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 과학 일'군들이 자체로 연구한 과학 성과나 외국의 선진 과학 성과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우리 나라의 원료 자원, 기타 제 조건에 의하여 생산에 도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먼 장래에 가서야 실현할 수 있는 오원한 문제에 매여 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업화와 기술 혁명에서 제기되는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며 한 점을 뚫으면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그런 중심 문제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 제작 및 생산 도입을 위한 기술 공학에 대한 연구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기술 공학 특히는 기계 공학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인민 경제 발전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기술 혁명을 촉진시킬 수 없다. 우리가 연구한 화학 야금 분야에서의 과학적 성과들도 기계 공학의 발전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긴절하게 제기되는 당면한 문제들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생산에 도입하고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적 기초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의 공업화와 생산 도입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술 공학의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생산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의 연구를 과소 평가하면서 단순히 기초 과학이나 리론 연구만을 진행하여서도 안 되며 또한 비록 현실적 문제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공업화하고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 공학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면서 리론 기초적 실험 연구에만 치중하여서도 안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긴절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하지 않고 취미주의적으로 개인적 리익과 공명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기초 과학이나 순수 리론만을 연구한다면 이것은 우리 당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과학은 주로 추상과 론리적 추리에 의하여 발전하며 따라서 과학 일'군들은 연구실에서 순수 리론만 연구하고 현실적 문제의 해결은 기술자들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추리 과정은 실천과 동떨어질 수 없다. 추리가 의거하는 론리적 또는 수학적 법칙도 실천 중에서 개괄해 낸 것이며 객관 사물 간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과학은 생산 실천을 떠나서 존재할 수도 없으며 발전할 수도 없다. 모든 과학 리론은 실천에서 출발하며 실천에 복무하며 실천 속에서 검열된다.

과학 리론은 생산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다시 보다 높고 넓은 범위에서 생산을 갱신하는 이러한 부단한 반복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10여 개의 대학보다도 더욱 힘 있게 과학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는 과학 앞에 부단히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과학 연구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면서 과학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과학이 생산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력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전망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나 기초 과학 연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 일'군들은 당면한 과업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우리 나라를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최신 과학 기술의 성과를 인민 경제에 광범히 도입하며 중요한 기초 과학 부문들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과학 앞에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수 많은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 나라 연료, 원료에 철저히 립각하여 제철, 제강을 비롯한 야금 공업 체계를 튼튼히 확립하는 데 과학의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무연탄 콕스화, 환원 단광, 립철 련속 제강 및 질 좋은 각종 합금강 생산을 위한 연구를 시급히 완성하며 알루미니움을 비롯한 각종 유색 금속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완성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과학 앞에는 풍부한 자원들을 리용하여 각종 비료, 합성 섬유, 합성 수지, 합성 고무, 농약, 카바이드 생산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업, 농업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소요되는 능률이 높은 각종 새로운 기계들을 더 많이 연구하며 우리 나라 원료로써 전자관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전자 재료들과 전자 기구들을 연구함으로써 현대 과학의 성과들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성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오늘 절실히 요구되는 석탄, 철광석, 동, 아연 등 유색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선진 채탄, 채광법과 선광법을 시급히 연구하여 생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과학 부문 일'군들은 과학과 생산을 결합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여 당면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모든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현대 과학의 성과들을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생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계 공학, 전자 공학, 금속 공학, 화학 공학, 전기 공학을 비롯한 기술 공학에 관한 연구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기술 공학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만 우리 나라에서 이미 달성한 과학 성과와 세계의 선진 과학 기술을 인민 경제에 급속히 도입할 수 있으며 특히

낡은 기계 설비들과 기술 공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급속히 발전하는 것 만큼 부단히 새 기술을 도입하고 현존 설비들을 개조하는 것은 기술 진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우리 나라 형편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과학 기술의 새로운 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고 공업화하기 위한 기술 공학적 연구를 완성함에 있어서 중간 공장의 실험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간 공장의 실험은 과학 연구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는 길이며 과학 기술이 생산을 위하여 복무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중간 공장의 실험은 설계와 시험 제작 사업을 통하여 합리적인 기술 공정을 수립하고 대량적 생산과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요구에 적응되는 새형의 설비와 구조, 기타 기술 경제적 지표 등 공업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한다.

우리는 중간 공장 실험에 재능 있는 생산 혁신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광범히 인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과학 연구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업화를 실현한 후에 요구되는 기술자들과 기능공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과학 연구 기관들은 공업화 단계에 있는 연구 과제들에 대한 중간 공장의 실험 연구를 강화하며 그의 기술 공학적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분석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로써 집체적인 협동 연구를 광범히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과학적 성과들의 공업화와 생산에 도입하는 단계에서 과학 연구 기관과 생산 기관의 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 연구 기관과 생산 기관들은 다 같이 우리 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과학 기술의 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고 공업화하기 위하여 공동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 생산 기관들은 새로운 과학 기술의 중간 공장 실험 단계에서 과학 연구 기관과 긴밀히 협동하여 그의 공업화를 추진시켜야 하며 또한 과학 연구 기관은 과학 연구 성과들이 생산에 도입되여 그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지는 립장에서 생산 기관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여야 한다.

과학 연구 기관과 생산 기관의 련계를 강화하며 과학과 생산을 결합시킴에 있어서 현지 연구 기지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지 연구 기지는 과학 연구 사업을 생산 현실에 접근시킴으로써 과학 연구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자들이 연구 사업을 생산 및 현실 생활에 긴밀히 련결시킨다는 것은 그들의 성과를 보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567 페지).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지 연구 기지를 강화하고 생산 현실에 들어 감으로써만 과학 리론과 생산 경험을 옳게 결부시켜 연구할 수 있으며 실천 속에서 그의 리론과 지식을 더욱 심화하고 풍부히 할 수 있으며 과학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경험주의 등을 철저히 극복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연구소에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공장과 농촌 등 실지 생산 현장에 나가서 현실에서 걸리고 있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들은 로동 계급 속에 들어 가 그들과 접근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혁명성과 진취성을 체득한 새형의 붉은 과학자로 자기를 부단히 육성 단련할 수 있다.

과학 리론과 생산 경험을 결합시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로동자, 농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기술 발전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창안과 발기들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는 동시에 과학의 의의와 과학자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로동자, 농민들이 창안한 문제들에 과학 지식을 안받침하여 줌으로써 그것이 생산에 도입되도록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과학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킴에 있어서 과학 연구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 연구 기관들에서 대안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과학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며 과학 연구 조건들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과학 연구 사업에 대한 당 조직들의 영도적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과학 연구 기관 내의 당 조직들은 과학 일'군들 속에서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며 당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 일'군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 생활을 옳게 지도하며 과학 일'군들이 쓸데 없는 공상적인 것을 연구하는 데 힘과 시간을 랑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민 경제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당장 해결을 요하는 문제의 연구에 모든 지혜와 재능과 창조적 열성을 다 바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고조와 조직 사업

1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어 난 새로운 혁명적 고조는 오늘 계속 앙양 일로를 걷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에서와 황해 제철소를 비롯한 일련의 중요 공장, 기업소에 대한 현지 지도 과정에서 김 일성 동지가 몸소 지펴 준 위대한 혁신의 불'길은 전국의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 사무 기관들과 가두 인민반까지를 휩쓸고 있다. 도처에서 더 많이 절약하여 증산하기 위한 무진장한 예비들이 솟아 나고 있으며 련일 새로운 혁신과 기적들이 창조되고 있다. 이 벅찬 투쟁 속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금년도 계획과 나아가서는 선철, 강철, 전기, 석탄, 화학 비료, 알곡 등을 비롯한 7 개년 계획의 전반적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으며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금년도 계획과 전반적 7 개년 계획의 실현에서 결정적 시기에 처하고 있다. 금년은 7 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 수행에서 결정적 해이며 2.4 분기는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의 중요 시기이다. 2.4 분기 계획을 잘 수행해야만 금년도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금년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야만 7 개년 계획의 모든 고지들이 확고히 점령될 수 있다. 이것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긴장되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고조를 더욱 앙양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천리마의 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일 뿐 아니라 조성된 혁명 정세의 요구이기도 하다.

오늘 전반적 국내외 정세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추호의 지체도 허용하지 말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 범위에서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과 혁명 력량 간의 투쟁에서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도발 정책의 강화에서 출로를 찾고 있으며 특히 아세아에서 악랄한 전쟁 행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제는 남부 웰남에서 벌써 5 년째나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늘 북부 웰남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웰남에서의 전쟁은 제국주의 반동 세력과 인민 대중의 혁명 력량 간의 투쟁이며 웰남 인민들의 투쟁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인 동시에 세계 평화와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웰남 인민의 투쟁은 특히 우리 혁명 위업과 직접적인 련관을 갖고

있다. 미제가 월남에서 쫓겨 나게 되고 동남 아세아에서 반미 투쟁이 강화되면 미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배겨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 혁명적 고조를 견지하여 물심 량면으로 월남 인민들을 도와 주며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반미 반제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것은 이 지역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고무로 될 뿐 아니라 우리 혁명 위업을 촉진하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성스러운 투쟁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7 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더욱 큰 비약을 이룩하며 증산과 절약 운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직도 미제 침략자들과 정전 상태에서 대처하고 있으며 적들의 끊임없는 도발 책동이 감행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고도의 긴장성을 가지고 분초를 다투어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분발함으로써 우리의 위력을 더욱 철옹성 같이 다질 것을 요구한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북반부의 혁명 력량의 장성과 자립적 민족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탄압 속에서도 혁명적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북반부의 륭성 발전과 그 위력의 장성은 남조선 인민들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결정적 요인이며 통일된 후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이다.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생산 과제를 완수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며 조국 통일 위업을 하루 빨리 실현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 임무와 조성된 혁명 정세는 인민 경제 모든 고리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금년도 계획과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더 큰 고조를 이룩할 것을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근로자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증산, 절약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섰으며 조국 통일 위업과 세계 혁명의 촉진을 위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절약할 혁명적 열의로 들끓고 있다. 오늘 더욱더 확대 발전하고 있는 대중적 증산, 절약 운동은 바로 조성된 혁명 정세의 요구를 자각하고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다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 촉진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애국적 헌신성과 고상한 국제주의적 정신의 발현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가 계속 앙양되고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 운동이 날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오늘 문제로 되는 것은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 지도를 따라 세우며 특히 조직 사업과 보장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것이 물질적 열매로 확고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으로부터 기업소에 이르는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자 대중이 찾아 낸 예비를 낱낱이 검토하여 생산 계획에 정확히 포함시키며 조직 기술적 보장 대책을 빈 틈 없이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나가는 조직 사업을 강화하는 것,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담보가 있다.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계발하고 동원하는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그에

조직 사업을 튼튼히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고조를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우리 당이 항상 견지하여 온 중요 원칙이다. 특히 오늘 대중적 운동으로 증산과 절약의 예비가 수다히 탐구된 조건에서 조직 사업과 보장 사업을 더 잘 한다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여 1인당 생산액을 2배 이상으로 높이는 문제도,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고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는 문제도 더 빨리, 더 훌륭히 해결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조직 사업이란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는 것이요, 기계, 설비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보수하는 것이요,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을 제때에 대주는 것 등등을 의미한다》(김 일성 선집 제 6권, 413~414 페지).

성, 국과 기업소에 이르는 모든 단위들에서 1인당 생산액 제고와 설비 리용률 제고, 물자 소비 기준의 저하 등 모든 분야에서 명백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사업이 없이는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계속 견지할 수 없으며 대중이 찾아낸 증산과 절약의 예비들도 실현할 수 없다.

조직 사업은 오늘 우리 나라에 이미 축성된 튼튼한 경제 토대의 잠재력을 더 훌륭히 발휘시킴으로써 국내외 혁명 정세의 요구에 상응하게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고조를 더욱 앙양시키기 위한 튼튼한 담보이다. 이것은 특히 모든 지도 일'군들이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발양하여 튼튼히 틀어 쥐고 나아가야 할 중심적 과업이다. 오늘 지도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바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중이 찾아낸 증산과 절약의 가능성을 남김 없이 실현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과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의 더 큰 앙양을 일으키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에서 표현되여야 하며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의 실천 행정에서 나타나야 한다.

2

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 조직 사업을 따라 세움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되는 것은 모든 지도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고히 소유하며 실천 활동의 매 걸음마다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지도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경제 관리에서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불러 일으킨 기본 요인이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지도가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고 지도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합심 합에 따라 대중은 자기 스스로 생산에서 걸린 고리를 찾아 내고 그것을 풀기 위한 정확한 방도들을 세우게 되였으며 설비와 자재, 자금과 로력을 받지 않고도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무진장한 가능성들을 탐구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혁명적 군중 관점과 군중 로선은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탐구하는 데서 뿐 아니라 탐구된 예비를 실현하는 조직 사업에서도 철저히 관철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서 뿐 아니라 계획 실행을 위한 보장 사업에서도 반드시 관철되여야 한다. 혁명적인 군중 관점으로 확고히 무장한 경우에만 대중이 찾아 낸 모든 예비들의 현실성을 굳게 믿을 수 있으며 따라서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그것을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용기와 적극성도 발휘할 수 있다.

주관주의와 《소총명》은 대중 운동을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뿐 아니라 구체적인 생산 조직 사업에서도 장애로 된다. 주관주의 사상 요소는 그 뿌리가 깊은 낡은 잔재이며 혁명적 군중 관점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은 부단히 전개하여야 할 사업이다. 특히 그것은 대중의 기세가 높아지고 대중이 생산 과정에서 더 큰 예비를 찾아 내면 낼수록 더욱 강화되여야 하며 조직 사업과 같은 복잡하고 구체적인 실천 행정에서 혁명적 군중 로선은 더욱 철저히 관철되여야 한다. 대중이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거나 그에 탄복하는 것만으로는 혁명적 군중 관점을 철저히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대중 운동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주관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했다고 볼 수 없다. 참다운 혁명적 군중 관점은 대중의 위대한 지혜를 적극 동원할 뿐 아니라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계획을 동원성 있게 세우고 기술 혁신과 로동 행정 사업을 조직하며 절약 투쟁을 구체적으로 짜고 드는 조직 사업의 실천 과정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조직 사업과 보장 사업은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그것이 확고한 물질적 열매로 실현되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사업이다. 탐구된 예비를 기술 경제적으로 타산하는 사업도, 예비 실현을 위한 조직 기술적 대책을 세우는 문제도 모두 대중의 발기를 어떻게 하나 더 잘,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립장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조직 사업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항상 대중의 지혜를 최대한 인입하는 데 선차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립장, 이러한 사업 기풍을 튼튼히 확립함으로써만 계획화 사업, 생산 보장 사업, 기술 지도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풀릴 수 있다.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도 계획이 몇몇 사람들의 주관적 욕망이나 소극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광범한 군중의 지혜에 기초하여 생산의 모든 요인들과 모든 가능성들을 정확히 반영한 객관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그것을 생산자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 하에 끝까지 관철시키자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생산자 대중의 지혜를 믿고 그들이 찾아 낸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정확히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계획의 동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이며 그 실현을 위한 조직 기술적 대책을 정확히 예견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시키는 것은 계획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확고히 담보하여 주는 주요 조건이다. 대중의 지혜에 주관적인 《타산》을 대치시켜 가지고는 계획의 동원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대중의 지혜를 확고히 믿는 관점을 확립함이 없이 계획 수행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는 것

이 계획화에서의 객관성과 동원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오늘 지도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은 특히 생산자 대중의 생산 조건과 함께 생활 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여 주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후방 사업은 가장 중요한 정치 사업이며 그것은 지도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된다. 생산 조직 사업의 성과도 생산자 대중의 더욱 의식적인 참가 하에서만 보장될 수 있으며 생산 보장 사업은 더욱 강력한 후방 공급 사업과 밀접히 결부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후방 사업은 생산 보장 사업과 함께 생산자 대중의 높은 혁명적 기세를 남김 없이 생산 실천에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경험은 지도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 관점으로 확고히 무장하면 할수록 후방 공급 사업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생산 계획 수행도 더 훌륭히 진척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철저한 관점과 사업 기풍은 조직 사업 실천의 매개 걸음마다에서 확고히 견지되고 관철되여야 할 출발점으로 된다.

3

생산 조직 사업과 보장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며 매개 단위의 내부적 요인에 주로 의거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 것이다. 내부적 요인은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찾아 내고 실현함에 있어서나 생산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1차적이며 결정적인 요인이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 먼저 인민 경제의 매개 단위에서 그 내부의 력량으로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찾고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도록 하는 데 가장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거기에 기초하여 련관된 부문, 기업소들의 련대적 혁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당의 이 방침을 받들고 우리 근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예비를 찾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동원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으며 국가에 부담을 끼치지 않고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더 빨리 추진시킬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내부적 요인에 튼튼히 의거한다는 것은 매개 단위의 전투 대오를 더욱 혁명화하고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기초 우에서 있는 설비와 자재, 로력 등 현존 생산 조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 주되는 힘을 기울이며 그것을 통하여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찾고 계획을 실현하여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 개 경제 부문의 범위에서나 공장, 기업소의 범위에서나 반드시 적용되여야 할 원칙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업소 내부의 생산 단위들에서도 하나의 원칙으로 관철되여야 한다. 성이나 관리국이라 하면 그 생산 부문 내부의 요인에 주로 의거하여 생산 조직 사업과 산하 기업소들에 대한 보장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기업소들과 직장, 작업반들에서까지도 다른 기업소, 다른 직장, 작업반의 힘을 기대하지 말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여 생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매개 부문, 공장, 기업

소들에서는 새로운 설비를 더 도입할 것을 타산하기 전에 현존 설비의 가동을 정상화하고 그 능력을 더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하며 새로운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을 더 받을 생각을 하기 전에 현재 보장되고 있는 물자들과 동력을 더 잘 관리하고 그 원단위 소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춤으로써 절약한 것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내는 데 힘을 돌려야 한다. 또한 현존 로력을 더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증대시키는 방도를 찾아야 하며 중소 규모 생산을 광범히 조직하는 것도 주로는 절약한 여유 로력과 자재, 설비, 자금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력 갱생의 정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조직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으며 조직 사업이 주동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이 호상 밀접하게 련결되여 있는 만큼 부문 간, 기업소 간의 호상 지원과 아래 단위에 대한 우로부터의 보장 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이 사업은 성, 국들의 기본 임무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도·매개 단위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기에게 있는 가능성을 다 리용하며 해당 단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결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성, 국들은 국가에서 받은 자재와 기타 생산 조건들을 산하 기업소들에 더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주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우선 그 산하 기업소들 호상간에 조절하여 해결하는 데 주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내부적 요인에 튼튼히 의거하는 것은 인민 경제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꾸려지고 생산자 대중의 정치 사상적, 기술 문화적 수준이 훨씬 제고된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생산 잠재력을 가장 빨리 동원 리용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사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매개 단위들은 그 규모가 커지고 기술 장비 수준이 높아졌으며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도 제고된 조건에서 전투 대오를 더 잘 꾸리고 지도 수준을 높인다면 추가적인 투자 없이 훨씬 더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많은 기업소들에서는 생산 조직과 로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결합하고 로력 관리를 잘 한다면 현존 인원으로 생산을 훨씬 장성시키고 로동 생산 능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예비들이 많다. 광산의 실정에 맞게 로동과 휴식 조직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대한 예비를 동원케 한 은률 광산의 경험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전력 관리와 열 관리를 잘 하고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춘다면 추가적인 전력과 석탄 기타 자재를 받지 않고도 생산을 더 빨리 증대시킬 수 있는 허다한 가능성이 있으며 1 개월 분의 자재 예비와 3 개월 분의 예비 부속품을 확보하고 설비 관리를 개선한다면 현존 설비로써도 능히 더 많은 제품을 낼 수 있다. 생산 장성의 요인은 결코 새 설비를 도입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산 장성의 적극적인 요인은 바로 대중의 지혜와 열성을 더욱 계발하고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을 개선하며 이미 도입된 기계 설비들을 부단히 개조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지어진 생산 조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 있다. 또한 바로 현재 있는 기술의 능력을 잘 리용하는 데 기초해서만 새 설비의 도입도 성

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우리 당은 기술 혁신을 추진시킴에 있어서도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매개 기업소들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내부적 요인에 튼튼히 의거하여 기술적 개조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데 주요한 관심을 돌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매개 단위의 기술 혁신의 기본 동력은 그 단위에서 일하는 생산자 대중이다. 생산자 대중의 지혜를 잘 조직 동원하며 생산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데 기초하여 생산 실천에서 당면하여 절실하게 걸려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산 공정을 더욱더 새로운 기술로 부단히 장비하여 나감으로써만 기술 혁신은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도 못 할 큰 기술적 문제에만 기대를 걸거나 더우기 기술 혁신을 남이 와서 해 줄 것을 기다린다면 여기에서는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 현실은 생산자 대중의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의 힘을 잘 발동한다면 설비의 능력을 현저히 높이고 물자 소비 기준을 훨씬 낮출 수 있는 수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내부적 요인에 튼튼히 의거하여 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현재 있는 생산의 요인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조직 사업을 강화하는 데 생산과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 담보가 있다.

4

생산 조직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련관된 부문, 기업소들 간의 련계를 정확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생산 단위들이 현대적 혁신을 이룩하게 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이 호상 긴밀하게 련결되여 있는 조건에서 이들 간의 련계를 정확히 보장하는 것은 생산 조직 사업의 필수적 고리로 된다. 특히 오늘 인민 경제의 모든 고리들에서 과거에는 예견하지 못 했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련이어 발견되여 동원되고 있는 조건에서 부문 간, 기업소 간의 련계를 기동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는 매개 경제 부문들의 조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 국들 앞에 나서는 중심적 과업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중적 증산, 절약 운동은 한 개 생산 단위에서의 혁신이 다른 단위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여 주며 또 그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련대적인 혁신 운동이다. 어제까지 걸려 있던 고리가 풀림으로써 오늘에 와서는 모든 고리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많은 련관된 생산 단위들이 힘을 합쳐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수다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지금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는 련합 기술 혁신 운동, 련대적으로 질을 높이는 운동, 련대적으로 짐을 더 끌기 위한 운동 등을 비롯하여 부문 간, 기업소 간, 작업반 간 호상 협조하여 전반적 앙양을 이룩하는 대중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기업소들이 타 부문, 타 기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특히 성, 국들에서 부문 간, 부문 내 련계를 정확히 설정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오늘 당은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전반적인 균형적 발전과 모든 경제 단위들의 정상적인 높은 발전 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취 공업과 원료, 자재, 반제품 등을 생산하는 부문들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이 부문들의 발전을 다른 부문에 확고히 선행시키고 모든 기업소들에서 1 개월 분의 원자재와 반제품 예비를 확보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킬 것을 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은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계획 규률과 협동 생산 규률을 철저히 확립하는 데서 전반적 인민 경제 발전의 커다란 예비를 찾고 있다. 광석, 석탄, 선철, 목재 생산 부문을 비롯한 생산의 선행 공정들을 급속히 발전시켜 모든 부문에서 원자재와 반제품의 필요한 예비를 조성하며 매개 생산 단위들에서 계획 규률을 확립하고 협동 생산 과제를 우선적으로 정확히 수행하는 철저한 제도를 세우는 것은 모든 부문이 자체 내의 생산 잠재력에 기초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관리 운영과 계획화 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부문 간, 기업소 간의 련계를 정확히 보장하고 모든 부문에서의 련대적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데서 결정적 담보는 매개 생산 단위의 지도 일'군들이 국가적, 당'적 립장에 철저히 서는 것이다.

자기 기관, 자기 부문의 사업만을 생각하고 타 부문, 타 기업소의 사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업 태도로써는 도대체 모든 부문, 기업소들이 유기적 통일체를 이룬 사회주의 경제 관리를 수행할 수 없다. 기관 본위주의는 모든 것을 자기 기업의 리익에만 복종시키려는 자본주의 생산 관리의 유물이다.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에서는 《각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원칙이 철저히 지배하며 또한 전 사회적 범위에서 생산의 무정부성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한다.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는 제도 자체의 본성으로 하여 사회적 범위에서나 개별적 생산 단위의 범위에서나 모든 것이 국가 계획에 엄격히 의거하여 움직이며 인민 경제의 모든 생산 단위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 활동을 진행한다.

우리의 지도 일'군들은 그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같이 당과 국가가 주는 혁명 과업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 지도 일'군들의 기본 임무는 자기 활동 분야에서 당과 국가가 주는 혁명 과업을 어김 없이 수행함으로써 전반적 인민 경제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데 귀착된다. 이것은 생산 계획을 매일, 매순, 매월, 매 분기 지표 별로 어김 없이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부문, 다른 기업소들에 대한 공급 의무도 량적으로 뿐 아니라 질과 규격을 정확히 보장하여 제때에 철저히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생산 계획은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타 부문에 대한 공급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다면 그것은 국가적 립장에 섰다고 볼 수 없다. 경험은 지도 일'군들이 국가적, 당'적 립장에 튼튼히 선 그러한 곳에서는 금액 상 계획만을 수행하려 하거나 제품의 질과 규격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로되지 않으며 그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맡겨진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한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과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발휘하는 조건에서만 채취 공업과 원자재, 반제품 생산 부문을 선행시키고 1 개월 분의 자재 예비를 확보할 데 대한 당의 방침도, 협동 생산 규률과 계획 규률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요구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모든 부문, 기업소들의 련계를 정확히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만 모든 형태의 련대적인 혁신 운동도 잘 조직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더 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 *

오늘 지도 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실로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 있다. 지도 일'군들의 사업 여하에 따라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고조를 더욱 성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가 결정되며 국내외에 조성된 혁명 정세의 긴절한 요구를 실현하는 문제가 좌우된다.

우리 지도 일'군들은 조그마한 자재 문제를 하나 해결할 때에도, 생산자들의 사소한 생활 상 문제를 처리할 때에도 항상 혁명 정세의 긴절한 요구를 잊지 말아야 하며 혁명을 수행하는 전사로서의 높은 의무감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조국 통일 위업과 우리 혁명의 촉진에 최대한으로 기여하며 나아가서 세계적 범위에서의 혁명 투쟁에 더 잘 이바지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확고한 각오가 있다면 결코 못 해낼 일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자기 맡은 초소에서 더욱 큰 비약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금년도 계획과 7 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을 전반적으로 빛나게 수행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벽의 혁명 기지로 다져야 할 것이다.

기업적 지도의 강화는 알곡 고지 점령의 기본 담보

김 만 금

알곡 고지의 점령—이것은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구호 밑에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알곡 증산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함으로써 나라의 공고한 알곡 생산 기지를 창설하여 놓았으며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업의 하나였던 식량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농촌 경리 부문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알곡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만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을 따라 세우고 인민들에게 식량을 더욱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원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현시기 당이 내세운 알곡 고지 점령의 결정적인 담보는 농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지난 시기의 모든 경험은 농업 부문의 지도 일'군들이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 상응하게 기업적 지도를 강화한다면 자연 기후적 조건이 다소간 불리하여도 농업 생산에서 계속 커다란 생산적 앙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우리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우리 당이 창조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 상응하게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 *

현시기 농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농사'일을 농민 대중의 자각적 열의와 창발성에 기초하여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농업에 대한 지도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한다는 것은 이 부문의 지도 일'군들이 지난날의 낡은 행정식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사람과의 사업을 위주로 하여 기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결국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의 요구를 실현한다는 것을 말한다.

생산에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생산자 대중의 의식이며 높은 자각성이다. 특히 농업 생산의 특성은 생산자들의 의식성과 자각성에 더욱 철저히 의거할 것을 요구한다.

다 아는 것처럼 농업 생산은 다른 부문과는 달리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업 대상이 넓은 포전에 분산되여 있는 농업 부문에서는 로동이 부단히 류동하면서 진행되며 로력 조직을 잘못하여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뒤늦게는 회복할 수 없다. 또한 농민들이 일을 얼마나 실속 있게 잘 하였는지도 제때에 알아 내기 힘들며 로동의 결과도 곧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봄에 심은 것은 허다한 작업 공정을 거쳐서 가을에 가서야 수확을 거두게 되며 그것도 자연 기후적 조건 등 많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는 개인농 때와는 달리 농민 대중의 집단주의 정신, 높은 자각성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그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양될 수 있다. 농업 생산의 성과는 결국 농민들이 공동 로동에서 얼마 만큼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며 성실하게 일하는가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농업 생산 지도에서 군중 로선의 관철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농촌 경리 부문의 지도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적 지도의 모든 고리들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농민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계발시키는 사업 방법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구현한 기업적 지도 방법은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낡은 행정식 사업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군중에 철저히 의거하고 군중을 발동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혁명적 사업 방법으로서의 청산리 방법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관점과 행정식 사업 방법과 완전히 결별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

우리 지도 일'군들은 《행정 만능》, 《기술 만능》 등의 낡은 수공업적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변화된 농촌의 새로운 현실과 개편된 농업의 지도 체계에 상응하게 농촌의 현실에 깊이 파고 들어 가며 농민 대중과 함께 영농 기술 문제, 생산 조직 문제, 생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 의논하고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해결해 주며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함으로써만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알곡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 남김 없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 부문의 모든 행정 경제 일'군들은 우선 당 조직으로부터 정치 사업에 대한 분공을 자진하여 맡으며 그 수행 정형에 대하여 당 조직 앞에서 정기적으로 총화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도 일'군들이 농촌에 나갈 때에는 매 시기 제기되는 경제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당 정책 제강과 국내외의 정세 제강도 가지고 나가야 하며 아래 단위에 내려 가서는 누구나 다 쉽게 리해할 수 있도록 협동 농장의 구체적 실정과 농민 대중의 심리에 맞게 강연, 해설, 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반복 침투시켜야 한다.

농촌에서의 정치 사업은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에서 제시된 과업과 매 시기 제기되는 당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사'일에서 걸린 고리를 풀어 주기 위한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가령 어떤 농장에서 논풀이 작업이 제기되였다고 하면 농장원들에게 우선 논을 왜 풀자고 하며 그것을 푼다면 얼마나 소출을 더 낼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농장 형편은 어떻게 달라지고 농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더 나아지며 국가에는 얼마나 더 큰 리익을 줄 수 있는가를 잘 해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오직 이와 같이 함으로써만 우리는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장할 수 있고 농민들의 열성과 자각성을 부단히 높일 수 있으며 내부적 요인에 기초한 알곡 증산의 거대한 예비도 더 많이 얻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농촌 경리 지도에서의 군중 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오늘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지도 일'군들이 매개 지방의 특성과 농민 대중의 집체적인 지혜에 의거하여 영농 사업 조직과 기술 지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농산 지도에서는 그 어떤 주관과 개인의 소총명도 허용될 수 없다.

자연 기후 풍토 조건이 지대에 따라 다르고 같은 포전이라도 필지마다 각이한 것 만큼 농사 방법은 응당 지방마다 달라야 한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토양 및 기후 조건은 지방마다, 골짜기마다 차이가 많으며 농장과 포전에 따라서도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일 자연 기후적 요인과 농민들의 준비 정도 등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실정에 맞지 않는 영농 방법이나 기술을 기계적으로 내려 먹인다면 농업 생산에서 응당한 성과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당 지방의 농사 방법은 그 지방 농민들이 제일 잘 알며 그들의 농사 경험을 무시하고는 농산 계획도 잘 짤 수 없고 농사를 잘 지도할 수도 없다.

만일 농산 계획을 농민들과 토의하지 않고 몇몇 계획 일'군들의 주관에 의하여 책상머리에서 만들어 내거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일률적으로 내려 먹인다면 농민 대중의 창발성은 억제되고 적지적작의 원칙은 심히 위반될 것이며 결국 전반적인 농업 생산은 크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는 농산 계획을 반드시 그 지방의 농민 대중과 토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우리 당은 매개 협동 농장들이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매 포전, 필지마다 적합한 품종을 골라 심으며 2모작과 간혼작도 그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농업 부문 지도 일'군들은 모든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곡종을 제한하지 말고 다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면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어떤 곡종이든지 다 심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가령 태풍'골이라면 보리, 고구마 등을 심을 수 있으며 하천 류역 침수지에는 그 정도에 따라 수수, 피, 율무 등도 심을 수 있고 산비탈 모래땅 같은 데서는 조, 콩, 팥, 록두, 메밀, 기장 등도 심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산 계획도 응당 이러한 원칙에서 짜야 하며 작성된 계획에는 그 지방 농민 대중의 집체적 의사가 충분

히 반영되여야 한다.

농산 계획의 작성과 영농 사업에 대한 기술 지도에서는 특히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 력사적으로 이루어 놓은 조상 전래의 우수한 농법을 살리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선조들은 수천 년을 두고 대대손손 내려 오면서 거듭되는 실패와 우여곡절을 거쳐 어떤 밭에는 어떤 곡식을 어느 때 어떻게 심어야 하며 비료는 어떤 것이 좋고 김은 어느 때 어떻게 매야 한다는 등 매개 지방의 자연 기후 풍토 조건에 알맞는 훌륭한 영농 체계를 수립하여 놓았다. 이것은 우리의 고귀한 유산이며 밑천이다.

바로 조상 전래의 이 모든 우수한 농법과 농민들의 오랜 실천 과정에서 창조된 경험을 적극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농업을 옳게 발전시키는 길이며 우리의 주체적 립장이다.

농업 부문 지도 일'군들은 각 지방의 전통적인 영농 방법을 적극 살려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작물 및 품종을 배치하며 화학 비료의 시비 체계와 경종법도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세우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벼'모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랭상모 뿐 아니라 륙상모, 절충모, 수모 등 지대적 특성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옳게 배합하여야 할 것이며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은 지대에서는 이랑갈이를 하고 북부 고산 지대에서 봄가물이 심할 때에는 결갈이를 하며 벼'모를 내는 데서도 정방형과 장방형 등을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평당 모의 포기 수와 포기 당 대수도 토양의 비옥도, 비료의 시비량, 품종의 특성, 모내기 시기 등을 타산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전통적인 영농 방법과 경험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영농 방법과 옳게 결합될 때 더욱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농민들의 경험을 존중히 하는 동시에 낡은 것을 고집하며 새 기술을 경시하는 보수주의적 경향과도 투쟁함으로써만 우리 나라에서의 영농 방법과 농업 과학 기술을 더욱 높은 단계로 부단히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작물 품종을 정확히 배치하고 단위 당 수확고를 높여 알곡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종자를 부단히 개량하는 데 특히 주목을 돌려야 한다.

왜냐 하면 종자를 부단히 개량하고 우량 종자를 골라 심는 것 만으로도 추가적인 투자 없이 막대한 알곡의 증산 예비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대 별 특성에 적합한 다비성, 다수확성 신품종을 육성하며 인민 육종 사업을 강화하여 오래 전부터 재배하여 온 우수 품종과 현재 재배하고 있는 품종의 우수한 개체들을 선발 도태하여 각 지방의 기후, 토양 조건에 적합한 종자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

종자 개량을 비롯하여 새로운 영농 방법과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본식 포전을 만들며 2~3 년 간의 시험 단계를 거쳐 그 우월성을 검증하고 농민들의 의식 정도와 농장의 자재, 자금, 로력 형편 그리고 기술 경제적 효과성을 충분히 타산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영농 기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농

업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오늘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2만 5,000여 명의 기술자들이 사업하고 있다.

농업 지도 기관 일'군들은 기술 지도를 몇몇 개별적인 기술 일'군들의 의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전체 기술 집단의 집체적 력량을 동원하는 데 기초하여 보장함으로써 생산 과정에서 제기되는 온갖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들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데 선차적 주목을 돌려야 한다. 그와 함께 기술 지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기술자들과 농민 대중과의 창조적 협동을 강화하여 육종 및 채종 사업, 토양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시비 체계, 경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지대적 특성에 적합한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협동 농장 관리 운영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관리 일'군들이 생산 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영농 사업 지도에서의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협동 농장 관리 운영 사업에 농민 대중을 광범히 인입할수록 농장원들의 자각성과 열성은 더욱 높이 발휘되고 일'군들의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관과 독단은 보다 철저히 방지될 수 있다. 또한 간부들이 생산 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농사'일과 농장원들의 심정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여 농업 생산에 대한 지도를 보다 실속 있게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든 협동 농장들에서는 기준 규약의 요구 대로 농장원 총회, 대표자회, 관리 위원회, 검사 위원회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농장의 모든 관리 일'군들과 작업반장들은 제정된 의무 로력일을 반드시 수득하고 특히 바쁜 농사철에 제일 힘든 기본 작업에 솔선 앞장 서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것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리로서 군내 협동 농장들의 경영 활동 전반을 현지에서 일상적으로, 직접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지도 단위이기 때문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일'군들은 자기의 기본 사명에 상응하게 농업 생산에 대한 과학 기술적 지도, 계획 작성, 자재 보장, 재정 관리 등 협동 농장의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면서 농장 관리 운영 사업에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는 데 언제나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경영 위원회 일'군들은 또한 자기 산하의 직속 기업소들을 튼튼히 틀어 쥐고 계획화 사업과 생산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협동 농장들과의 생산적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군내 농업 생산의 전체 과정을 보다 통일적으로, 조직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경영 위원회 일'군들은 특히 종전의 낡은 행정식 지도 방법을 퇴치하고 농촌에 내려 가는 경우에는 다 작업복을 입고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농촌의 실정을 료해하며 협동 농장 관리 운영 사업을 실속 있게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모든 사업을 잘 보장할 때에만 우리는 매개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과

학적인 영농 체계와 시비 체계를 확립하고 영농 사업에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인 집약 농법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2모작도 잘 하고 고산 지대 농업을 발전시켜 이 지대를 확고한 알곡 기지로 전변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도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

* *

오늘 농업 부문 앞에 제시된 알곡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영농 사업 지도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동시에 그에 기초하여 토지, 물, 기계, 로력 등 농업 생산의 제반 요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농촌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들인 토지와 관개 시설 및 농기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력 관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알곡 고지 점령을 위한 중요 담보로 되며 기업적 지도에서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된다.

우선 농업의 기본 생산 수단인 토지를 적극 개량하고 그 관리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토지 개량에서 오늘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 문제는 우리 나라 밭 토양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며 진펄논과 저습논의 지력을 향상시키고 논밭의 배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경사지 밭의 부식질이 씻겨 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토양의 물리 화학적 성분을 과학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소석회와 광재를 정확히 사용하며 밀차와 삭도의 리용, 류수 객토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논에 객토를 까는 운동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자급 비료를 많이 내여 모든 논밭에 더 많은 자급 비료를 넘으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의 농토를 다 기름진 땅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토사의 류실이 심한 경사지들에는 다락밭을 조성하며 습해를 입는 포전에는 배수로와 지하 배수 체계를 설치하며 포전 정리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등 논밭을 알뜰하게 정리하고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 관리에서는 또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를 랑비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중소 하천 정리 사업과 해안 방조제 공사를 적극 추진시켜 한 평의 땅도 류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밭머리, 밭최'둑, 논'두렁들을 모두 리용하여 실제 파종 면적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토지 관리와 함께 물 관리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당의 수리화 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는 이미 770여 개의 저수지와 6,800여 개의 양수장을 비롯하여 총 1만 6,000여 개에 달하는 수원 시설이 건설되였다.

이 방대한 시설들을 잘 관리하며 리용하는 것은 농업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며 알곡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만일 우리가 현존 관개 시설들을 잘 리용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킨다면 추가적 투자 없이도 약 3만 정보의 논을 더 얻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농업 부문 일'군들은 관개 수리 시설

에 대한 관리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여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이 시설들을 만년대계로 튼튼히 보강하는 동시에 그 리용률을 더욱 높여 논 관개 면적을 부단히 확장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기존 관개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보수 개건하며 양수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도처에서 물주머니를 더 많이 만들며 보조 수원을 적극 조성하여 물을 최대한 확보하는 투쟁을 군중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합리하게 배치된 수로들은 합리적으로 통합 정비하며 포전 인수로 체계를 전반적으로 도입하여 정보 당 물 소비량을 계통적으로 낮추며 물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급수 시기에 긴장되는 전력 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존 전기 양수 동력 시설들을 점차 내연 기관으로 교체하며 양수기들을 보다 능률적인 축류 뽐프로 개조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시키고 북부 고산 지대들에서 물을 자연 인수할 수 있도록 보를 위주로 하는 중소 규모 관개 공사도 광범히 전개하여 벼 생산 기지를 부단히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현시기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일'군들이 계속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는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농촌에는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비롯하여 탈곡기, 사료 분쇄기 등 수 많은 농기계들과 농기구들이 공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협동 농장 당 뜨락또르 대수는 이미 4.2 대(15 마력으로 환산)로서 그 마력 수는 63 마력에 달한다. 우리의 농촌에서는 지금 기계가 사람의 힘을 대신하여 농사'일의 결정적인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농촌에 있는 뜨락또르와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옳게 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농업 로동의 생산 능률을 높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서 지금 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집중된 중심지들에 지구 별 수리 기지를 조직하며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전개하여 수리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 보충하며 현존 뜨락또르 수리 공장들을 부속품 생산 공장으로 전환시켜 부속품에 대한 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중적인 창의 고안 운동을 전개하여 경사와 기복이 심하고 농법이 고도로 집약화된 우리 나라의 실정과 지대 별 특성에 맞는 각종 농기계들을 더 많이 연구 제작하고 부단히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현대적 기술 수단에 의한 기계화를 추진시키는 한편 중소 농기계를 소홀히 하며 부림소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과 계속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대적 농기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과 함께 부림소를 계속 증가시키며 삭도, 달구지, 발구 등 사람의 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 리용함으로써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결정적으로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농업 부문 지도 일'군들은 농촌 기계화에서 덮어 놓고 국가에만 의존하려는 그릇된 관점을 없애고 필요한 중소 농기계들을 농민들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쓰며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기계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소중히 관리하도록 옳은 지도를 주어야 할 것이다.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오늘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농촌 로력 관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농업 부문 앞에 나선 과업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농촌의 로력 사정은 아주 긴장되여 있다. 로력 조직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에 따라 전반적 농업 생산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촌 로력 조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건장한 청장년 로력으로 농산 작업반을 튼튼히 꾸리며 농민들의 휴식 조직을 잘하고 로력의 사소한 랑비 현상과도 타협함이 없이 투쟁하는 것이다.

김매기를 비롯하여 로력의 긴장성을 요하는 시기에 로력 조직을 잘하는 것은 농촌 로력 조직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에 대한 화학 비료의 공급량이 해마다 증대되고 있으며 농업 부문에서의 정보 당 화학 비료 시비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비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여도 김을 제철에 매지 못한다면 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낼 수 없다.

우리 당은 지금 모든 국가 기관, 기업소들에서의 농촌 로력 지원 사업도 모내기, 추수 시기 뿐 아니라 특히 김매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지도 일'군들은 농촌에서 김매기 철에 농촌 지원 로력과 협동 농장 자체의 로력을 빈틈 없이 짜고 들어 리용함으로써 김을 묵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조직 사업을 따라 세우는 동시에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며 국가의 전반적인 지원 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농촌 로력 조직 사업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협동 농장들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농업 부문 일'군들이 크게 관심을 돌려야 할 분야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개선하여야 할 문제는 협동 농장들에서 작업 정량을 군중적 방법으로 토의 제정하고 정확히 적용함으로써 로력일 평가에서 사소한 평균주의적 경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작업반 우대제를 계속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다.

협동 농장들에서는 우선 로력일 평가조를 원칙성이 강한 일'군들로써 꾸리며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매 작업반장들로 하여금 농장원들이 그 날에 번 로력일을 그 날로 로력일 대장에 기입하고 10 일에 한 번씩 공시하는 제도를 어김 없이 준수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날로 부단히 앙양되는 농민 대중의 높은 생산 열의에 물질적 자극을 정확히 안받침하고 농업 생산에서 그들의 자각적 열성을 보다 확고히 견지하여 나갈 수 있다.

오늘 알곡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 부문 지도 일'군들 앞에는 실로 무겁고 영예로운 과업이 부과되여 있다.

우리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과업을 보다 훌륭히 실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후방 사업은 정치 사업

안 룡 각

후방 사업은 당과 국가가 인민 생활을 위하여 지어 주는 조건과 공장, 기업소 내부의 가능성들을 적극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적 생활 조건을 보장해 주며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연적 요구로서 오직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민의 생활이야 어떻게 되든, 그들이 살든 죽든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다만 어떻게 하면 대중의 고혈을 더 짜내여 저들의 더러운 치부욕과 개인 향락을 충족시키겠는가가 문제로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 조건의 보장이란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착취와 압박이 청산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이와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민을 유족하게 문화적으로 더 잘 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만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인민 생활을 위하여 유리한 온갖 조건과 가능성들이 조성되게 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후방 사업을 강화하고 지어진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들을 적극 리용하여야만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적 생활을 체계적으로 개선 향상시킬 수 있다.

후방 사업은 공산주의자들의 본능적 사업 방법으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낡은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들은 자체의 이러한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서슴없이 바치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와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일, 모든 현상들을 결코 평범하게 대하지 않고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만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해결해 주고야 만다.

후방 사업은 단순한 경리 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 사업이다.

후방 사업을 잘 해야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며 생산의 장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근로자들의 의식성을 높이며 그들이 자기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의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정치 사업은 사상 사업만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후방 사업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로동자들의 사상 의식을 높이는 것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정치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로동자들의 물질적 생활을 개선해야 하며 문화 생활도 잘 조직해야 하며 그들에게 적당한 휴식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1960 년 판, 468 페지).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각성이 아무

리 높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생활 조
건과 휴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필연코 사업에서 열
성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생산 능률도 오르지 못 하고 생산의 성
과도 계속 높일 수 없을 것이다. 더우
기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고 긴장된 때
일수록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 잘 보살
피고 휴식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그
들은 거기에서 더욱 새 힘을 얻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후방 사업을 통하여 근
로자들의 생활 조건이 잘 보장되면 될
수록 그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당과 정부의 배려를 더욱 깊이 느끼고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기가 말
은 계획 과제의 수행에서 온갖 창의 창
발성을 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후방 사업을 잘 해야 지도 일'군
들과 근로자들과의 련계를 더욱 긴밀
히 하고 집단 내부의 동지적 단결을 일
층 강화할 수 있다.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생활 형
편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의 요
구와 애로를 제때에 해결해 주는 과정
에서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간에는
호상 신뢰에 기초한 동지적 우애와 단
결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어느 때나 당
이 부르는 데로 상하가 합심하여 집단
이 한 사람 같이 동원되게 될 것이다.

후방 사업은 나아가서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당의 배려를 근로자
들의 실생활에 구현하는 것을 더욱 원
만히 보장하며 보충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당과 정부는 자기의 모든 활동
특히 경제 조직자적 활동을 통하여 국
가 축적을 증대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
켜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부단
한 향상을 위한 제반 조건을 조성한
다. 따라서 기관, 기업소들에서 당과
국가가 지어 준 조건과 자체 내부의 가
능성을 잘 리용하는가 못 하는가에 따
라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을 보장하며
개선하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좌우되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후방 사업을 잘
하지 않고서는 인민 생활을 위하여 당
과 국가가 베풀어 주는 배려를 옳게 보
장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그 바쁜 가운데도 몸
소 인민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항상 후
방 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
였다.

특히 지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하여 황
해 제철소, 은률 광산, 강선 제강소,
흥남 비료 공장 등 중요 공장, 기업소
들을 현지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몸소
로동자들의 생활을 돌보면서 문제를 하
나하나 풀어 주었다.

김 일성 동지의 실천적 모범을 따라
오늘 후방 사업에서는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서 힘을 얻은
우리 근로자들은 7 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모든 전선에서 자기의 온갖 재능
과 창의 창발성을 다 발휘하여 날에 날
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후방 사
업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그
것을 부단히 개선 강화함으로써 앙양된
대중의 기세를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후방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근로자
들의 생활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혁명
적 관점과 태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
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혁명 전선에서 같이
싸우는 전사이며 혁명 동지이다. 그들
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며 체계적으
로 향상시키는가 못 시키는가 하는 것
은 그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일하
고 더 잘 살며 더 잘 쉬게 하겠는가를

밤낮으로 념려하게 될 때 일'군들은 자신의 생활보다 근로자들의 생활을 먼저 보살피게 되고 공급도 그들부터 먼저 해 주게 되며 궂은 날에는 그들의 집에 들려 보고 곤난해 하는 문제를 자기 일처럼 돌보아 주게 된다. 만일 지도 일'군들이 목전에 부닥친 경제 사업 일면에만 몰두하면서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덜 돌리거나 일이 바쁘다는 데서 그에 전혀 무관심하게 될 때에는 그들이 일에서 힘들어 하지 않는지, 잘 자고 잘 쉬였는지, 집 근심은 없는지 그에 대하여 주의가 돌아 가지 않게 되며 나아가서는 거저 사람 수만 늘여 생산을 높이려는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옳은 관점과 태도를 철저히 확립하지 않고서는 후방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무관심성과 무책임성은 낡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의 표현으로서 일조일석에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지도 일'군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는 동시에 그들 속에서 발로되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그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일시도 등한히 하지 않고 생산에 못지 않게 머리를 쓰게 되며 일이 바쁠 때일수록 더욱더 그에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된다.

후방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군중을 옳게 발동하여 이 사업을 자체의 창발적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후방 사업은 군중 자신의 리해 관계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그 포괄 범위도 매우 넓다. 자체의 부업 농장을 경영하고 가내 부업을 조직하며 공장과 마을, 주택을 문화 위생적으로 알뜰하게 꾸리고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부수입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문화 휴식 조건을 옳게 보장하는 등 어느 일이나를 막론하고 군중의 적극적인 참가가 없이는 잘 해결될 수 없다.

더우기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구체적 실정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보장 조건이 각이하다는 사정은 후방 사업을 직접 책임 지고 조직 집행하는 일'군들이 국가가 지어 주는 조건과 자체 내부의 가능성들을 실정에 맞게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바로 후방 사업이 일'군들의 고도의 창발성을 요하는 일이며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군중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체의 창발적 노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군중을 옳게 발동하여 자체 내부 예비를 광범히 동원 리용하며 후방 사업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조건을 자체로 구비하고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날로 증대되는 근로자들의 생활 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실천적 경험은 일'군들이 군중을 잘 발동하여 부식물 원천을 탐구하며 절약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 사장된 예비를 찾아 내며 가내 부업을 옳게 조직하는 등으로 그들의 생활 조직을 잘 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군중을 잘 발동하여 후방 사업을 자체의 창발적 노력으로 해결하는 데서 중심적 문제는 육류, 채소를 비롯한 각종 부식물의 공급 원천을 광범히 탐구 동원하는 것이다.

사실 근로자들에게 부식물 공급을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자금이나 설비가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군들의 결심과 성의 여하에 달려 있다.

일'군들이 하자고 마음 먹고 이악하게 달라붙는다면 산을 낀 데서는 산을

리용하여, 바다와 하천을 낀 데서는 바다와 하천을 잘 리용하여 얼마든지 공동 부업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다종 다양한 부식물을 자체로 생산하여 근로자들에게 눅은 값으로 제때에 더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부업 농장을 잘 조직 운영하여 육류, 계란, 우유, 물'고기, 채소 등을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로동자들에게 부식물을 원만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 실정에 맞게 가정 부인들로써 채소, 축산, 담수 양어 작업반을 광범히 조직하게 한다면 육류, 채소 등에 대한 로동자들의 수요를 자체로 능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내 부업은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능히 조직할 수 있는 일이며 일'군들이 로동자들과 의논하고 약간한 조건만 보장해 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일'군들이 머리를 써서 토지가 없는 데서는 공한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게 하며 토지가 여유 있는 데서는 가정마다 로력을 보아 땅을 나누어 주고 채소를 심게 하여 간단한 부식물은 자급자족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집집마다 닭, 토끼, 염소 등을 기르게 할 수도 있다.

량강도 건설 위원회 산하 제 3 건설 트레스트 지도 일'군들의 사업 경험은 일'군들이 하려고 마음 먹고 온갖 창발성을 다하여 이악하게 달라붙는다면 어떤 불리한 곳에서든지 인민들의 생활 문제를 남부럽지 않게 자체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온갖 창발성을 다하여 자체 부업 농장과 가내 부업을 대담하게 조직함으로써 고산 지대에서는 채소 재배가 불가능하다던 낡은 인식을 극복하고 채소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조미료, 육류, 우유까지도 생산하여 자체의 수요를 훌륭히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부식물 공급 원천을 탐구하는 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부근 농목장, 협동 농장 그리고 가능한 곳에서는 수산 사업소, 수산 협동 조합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부식물 공급 원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체의 부업 농장을 조직 운영하면서도 그에 너무 많은 로력을 들이기보다 협동 농장들에 기술적 및 로력적 방조를 대대적으로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협동 농장들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과업 실현을 적극 방조하고 로농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후방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로동자들에게 부식물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신선한 채소와 육류 등을 떨구지 않고 제때에 공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후방 사업을 자체의 창발적 노력으로 해결하자면 무엇보다도 후방 부서들과 경리 위원회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공장, 기업소 후방 부서는 주로 로동자들에 대한 공급 사업을 책임 지고 있는 것 만큼 그 역할 여하는 로동자들의 생활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후방 부서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또 그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창발성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그들이 부식물 하나 공급해도 더 잘, 더 편리하게, 더 빨리 공급하게 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로동자들의 생활 상 편의를 도모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자구 경리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리 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만 로동자구 후방 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다.

경리 위원회는 로동자들에게 필요한

공업 상품, 식료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 경영 사업, 편의 봉사 사업, 보건, 문화, 위생 사업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동시에 상업 및 수매 기관들, 도시 경영 기관 및 보건, 문화, 위생 기관들은 경리 위원회의 통일적인 계획 밑에 로동자구 내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온갖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봉사 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다하여야 한다.

후방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다른 문제의 하나는 도,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인민의 충실한 복무 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 지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이러한 후방 사업을 잘 해야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에 대한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에 일상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 밑에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도,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들은 우선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상업 및 수매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조사 장악하고 식료품을 비롯한 각종 생활 필수품을 지역별, 계절 별 특성과 주민들의 기호에 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채소, 육류, 물'고기 등 부식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생산 기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채소의 계단식 재배를 적극 도입하며 공장, 기업소들의 배열과 자연 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온실, 온상 재배를 광범히 조직하는 등 각종 방법을 다함으로써 사철 부식물을 떨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또한 도시 경영 사업, 편의 봉사 사업, 문화 후생 사업들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근로자들의 생활이 유족해짐에 따라 그들의 문화적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의 이러한 요구에 상응하게 도시와 로동자구를 더욱 알뜰하게 꾸며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들과 공공 시설들을 잘 관리하며 편의 봉사 사업과 사회 급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에 대한 당의 배려가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살며 일하도록 그들의 생활상 요구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후방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생산적 의욕을 더욱 높임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미 일어 난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여 7 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알제리 혁명은 확고하게 전진하고 있다

최 성 엽

프랑스(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8 년 간의 영웅적인 무장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 독립을 쟁취한 알제리(알제리아) 인민은 오늘 벤 벨라 대통령과 민족 해방 전선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아프리카에서 반제 반식민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민족 해방 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니고 있는 알제리 인민은 전후 짧은 기간 내에 확고한 정치적 통일을 실현하였으며 제반 민주주의적 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고 자립적인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혁명적 알제리 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종국적인 해방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조선 인민은 알제리 인민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시종일관 견결히 지지하여 왔으며 또 지지하고 있다.

굳게 맺어진 조선 인민과 알제리 인민 간의 친선 관계는 작년 말에 있은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 용건 동지의 알제리 친선 방문을 계기로 가일층 강화 발전되였으며 날을 따라 더욱더 공고화되고 있다.

알제리 인민이 민족 해방 전쟁 행정에서 쌓아 올린 고귀한 경험과 업적 그리고 독립 후 새 생활 건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은 싸우는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있어서 고무적인 힘으로 되고 있다.

* *

1954년 11월 1일 오레스 산중에서 훤히 밝아 오는 동녘 하늘의 새벽 대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 요란한 총성은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알제리 인민의 해방 전쟁의 서막을 열어 놓았다.

여섯 명에 렵총 한 자루씩 무장한 3,000 명의 알제리 애국자들은 현대적 무기로 무장한 100만 명의 프랑스 군대를 상대하여 용감히 궐기하였던 것이다.

판가리 싸움을 알리는 장엄한 총성이 울리자 투쟁의 신호만을 기다리던 인민 대중은 결전에로 일어 섰으며 투쟁 과정에서 무장 대렬은 급속히 장성되였고 작전 구역은 1 년도 못 되는 기간에 전국을 포괄하였다.

이리하여 무장 봉기는 전 인민적인 민족 해방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8 년 간의 영웅적인 민족 해방 전쟁, 이것은 알제리에서 수난과 치욕의 력사

를 끝장 내고 새 생활의 력사를 창조하는 행정이였다.

알제리 민족 해방군은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의 정확한 전략 전술에 의거함으로써 불과 몇 해 동안에 현대적인 무기로 장비한 수십만의 강력한 인민적 무장력으로 장성하였으며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알제리 인민이 손에 무장을 들고 원쑤들을 반대하는 결전에 나서기까지에는 장기간에 걸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부단히 강화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야수적인 무장 탄압 책동과 그들의 간교하기 그지없는 기만 술책 그리고 알제리 해방 운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애한 각종 기회주의자들과 합법주의자들의 끊임 없는 분렬 행동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기회주의자들은 식민주의자들의 《개혁》(1947년에 프랑스 국회에서 제정된 《알제리 구성법》에서는 알제리 인민에게 《알제리 의회》를 선사하고 일련의 기만적인 《개혁》을 약속하였다—주) 놀음과 프랑스 《좌익》(그 후 프랑스 사회당 기몰레 정부는 알제리 식민지 전쟁의 집행자로 되였다—주)에 환상을 품고 합법적 투쟁에만 매달리면서 의회 투쟁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은 콘스탄틴 사건과 《알제리 구성법》 제정 후의 수년 간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현실은 알제리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의 길이 의회 투쟁이나 그 어떤 합법적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무장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알제리의 민족적 영웅 벤 벨라를 비롯한 무장 투쟁 조직자들은 력사가 제기한 바로 이 성숙된 정당한 길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고 기성 당파들의 주저와 동요, 반동들의 책동을 과감히 물리치면서 합법적인 《개혁》 놀음에 환멸을 느낀 인민 대중을 각성시켜 결정적인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급속히 확대 발전되는 인민들의 항쟁에 겁을 집어 먹은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아프리카 지배의 《지탱점》이며 중요한 원료 및 연료 기지인 알제리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려고 발악하면서 이 식민지 전쟁에 자기 륙군의 3 분의 2, 공군의 60%, 해군의 90%, 80억 딸라 이상의 군비를 투입하여 《장기판 전술》, 《샬 작전》 등 수다한 토벌 작전을 벌여 놓았다.

나토 《동맹국》들인 미제와 서독 복수주의자들 역시 프랑스의 식민지 전쟁을 적극 지원하여 나섰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발악과 학살 만행도 정의의 투쟁에 궐기한 알제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알제리 민족 해방군의 민첩하고 대담한 작전에 의하여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의 작전 계획은 하나하나 분쇄되였으며 전투 행정에서 민족 해방군은 점차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거듭되는 군사적 패배와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하여 프랑스 정부는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빠져 들어갔다.

궁지에 빠진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군사 작전에서 당한 패배를 회담에서 만회해 보려고 획책하면서 이른바 정치적 교섭을 들고 나섰다.

그들은 교섭을 단순한 정전으로 대치시키려고 시도하였으며 《제 3 세력》을 조작(괴뢰 정부 수립 음모)하여 《프랑스 련합》 범위 내에서의 알제리의 《독립》을 획책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사하라의 분할, 지어는 알제리의 종족적 분할까지 시도하였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가 자기 《동산》에서 쉽사리 물러 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 주었다.

이에 대처하여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은 무장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임과 함께 프랑스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적 교섭 과정에서도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만 회담을 한다》는 단호한 립장에서 무장 투쟁과 정치적 교섭을 배합하면서 적들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한편 민족 해방 전선은 프랑스 강점 구역들에서 인민 대중의 강력한 애국 투쟁을 불러 일으켜 민족 해방 투쟁의 제 2 전선을 형성하였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제 3 세력》 조작 기도를 분쇄한 1960년 12월의 알제리 각 도시들에서의 시위, 1961년 7월 5일 사하라 분할 기도를 반대한 전 민족적 시위 그리고 1961년 11월 프랑스 감옥에 수용된 1만 5,000 명의 정치범들의 단식 투쟁 등은 무장 투쟁과 더불어 침략자들을 종국적으로 궁지에 몰아 넣는 데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모든 책동이 파탄되고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프랑스 침략자들은 1962년 3월에 하는 수 없이 에비앙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으며 협정에서는 알제리의 독립과 령토 완정 및 알제리 인민의 일체성 원칙이 확인되였다.

그 후 7월에 실시된 국민 투표를 통하여 알제리 인민들은 독립을 선포하게 되였으며 이로써 오래 동안 갈망하여 오던 알제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은 성취되였다.

알제리의 독립—이것은 이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물론 전체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 력사에서 실로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프랑스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달성한 알제리 인민의 승리는 손에 무장을 들고 정의의 위업에 궐기한 인민은 불패이며 그 어떠한 힘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궐기한 아랍,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알제리 인민의 해방 전쟁 경험은 혁명 정세가 그것을 요구하고 인민 대중이 무장을 요구할 때 혁명의 지도부는 지체없이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원쑤들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 원쑤들은 결코 스스로 자기의 《보금자리》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장기간의 승리적인 해방 전쟁 과정은 또한 무장 투쟁이 혁명적인 지도부의 정확한 전략 전술에 의거하고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으며 적들의 온갖 책동에 대처하여 무장 투쟁과 정치 투쟁을 능숙히 결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었다.

알제리 인민은 8 년 간의 간고한 해방 전쟁을 통하여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을 격파하고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행정에서는 알제리 혁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귀중한 밑천과 경험들을 쌓았다. 민족 해방 전선은 전쟁 행정에서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전취하고 그들과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인민 대중 속에 뿌리를 깊이 박게 되였으며 또한 전쟁 행정에서는 정권 수립과 그 운영의 경험이 축적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해방 전쟁을 통하여 민족 해방군이 정연한 체계와 엄격한 규률을 가진 혁명적인 정규 무력으로 성장되였으며 전쟁의 불'길 속에서 인민들이 단련되고 수 많은 세련된 민족 간부들이 배출하게 된 사실이다.

독립 후 알제리 인민이 식민주의자들의 낡은 통치 기구를 격파하고 혁명적인 명도 기구를 확립할 수 있은 것도, 전후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나라의 부강 발전을 위한 길에서 동요 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경험과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알제리 인민들이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전쟁 행정에서 이룩한 업적들은 알제리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 력사에 찬란한 페지를 아로새기고 있으며 알제리 혁명을 급속히 추진시키는 커다란 힘으로 되고 있다.

* *

식민지 예속으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은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무장 투쟁에서 승리한 인민들은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반식민주의 투쟁을 철저히 진행하면서 자립적인 민족 경제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이것은 신생 독립 국가들이, 그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처지의 각이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며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알제리 혁명 정부는 독립 후 식민주의 세력과 국내 반동들의 부단한 준동이 있고 나라의 경제적 형편이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반동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다른 편으로는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일련의 민주주의적 사회 개혁을 실시하면서 확고하게 민족 민주주의적 과업을 수행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혁명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사회 각 계층들 사이의 계급적 모순은 점차 전면에 나타나게 되며 민족 부르죠아지의 동요성이 점차 표면화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족 해방 전쟁 시기에는 식민주의 청산, 민주 공화국의 수립이라는 구호하에 민족 해방 전선에 단합되여 투쟁하던 알제리의 민족 부르죠아지의 일부가 민족적 독립이 가까와진 전쟁 말기에 와서는 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겁을 먹고 변절의 길로 나아가면서 혁명의 령도권을 찬탈하여 집요하게 덤벼들었다.

이에 대처하여 1962년 6월 민족 해방 전선 트리폴리 회의에서는 반혁명적 로선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고 로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죠아의 반(反)자본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지향을 반영하여 이른바 《트리폴리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1962년의 《여름 위기》(7~9월)를 극복하는 투쟁 행정에서는 혁명 정권과 혁명적 령도 체계를 확립하였다.

실로 전후 3 년 간의 짧은 기간에 알제리 인민의 새 사회 건설에서는 일련의 수다한 교훈적인 경험들이 이룩되였다.

1962년 가을부터 1963년 여름에 걸쳐 진행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귀국식》 태업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알제리 인민들과 혁명적 지도부의 결단성과 원칙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독립을 전후하여 기술자들을 대량적으로 철수함으로써 기술의 《진공 상태》를 조성하여 알제리 경제를 파탄시키고 새 국가 창건 사업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책동하였다. 물론 이것은 나라의 경제의 대부분을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장악 운영하고 있은 조건 하에서 알제리 인민들의 경제 건설에 일시적인 난관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반동들은 알제리 혁명의 패배를 《예언》하였고 미국 에이피 통신은 《알제리의 유일한 희망은 프랑스와의 항구적인 협력》이라고 설교하였다.

그러나 알제리 정부와 인민들은 자신의 힘에 확고히 의거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를 격파하였으며 이 시기 알제리의 농업 및 공업 프로레타리아트들은 도주자들의 농장과 공장, 기업소들을 점거하고 관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 3월 법령은 《주인 없는 재

산》을 국유화하고 그에 대한 로동자들의 《자체 관리》제를 립법화함으로써 식민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알제리의 혁명적 지도부는 제반 민족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며 나라의 경제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인민 대중의 비등한 정치적 열성에 의거함으로써 그것을 훌륭히 해결하였으며 또 해결하고 있다.

오늘 알제리 인민은 자립적인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 이것은 부강하고 문명한 독립 국가 건설의 필수적 조건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할 수 없으며 평등한 기초 우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알제리 대통령 벤 벨라는 《전 민족이 힘을 동원하여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수차 강조하였다.

자립적인 경제 건설 로선에 립각하여 영웅적인 알제리 인민들은 전후 3년간에 경제, 문화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우선 전체 주민의 80%가 종사하는 농업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1963년 3월과 10월에 혁명 정부가 취한 조치에 의하여 식민주의자들의 토지 소유는 완전히 청산되였으며 이미 작년말 현재로 375만 정보의 토지가 국유화되였다. 수 많은 농업 근로자들이 식민주의자들의 착취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농업 생산력은 부단히 제고되였으며 알곡 수확량이 현저히 장성되였다. 이리하여 농산물 구성 상에서의 불균형도 점차 극복되고 있다.

총 경지 면적의 45%를 차지하는 가장 비옥한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농업 생산의 70%가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게 되였다. 오늘 알제리에서는 토지 개혁의 완수를 위한 투쟁과 함께 농업 협동화를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알제리의 공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 알제리 인민은 공업에서의 혹심한 식민지적 기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로 국내 원료에 기초한 민족 공업을 창설하는 데 주목을 돌리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풍부한 동력 자원과 금속 자원에 기초하여 금속 및 석유 화학 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중공업 기업소들을 복구 건설하였으며 새로운 기업소들의 대대적인 신설도 예견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필수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자본이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재정, 금융, 대외 무역 및 운수 분야에서도 일련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 문화 분야에서도 독립 후 현저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교육 문화의 발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육망이 대대적으로 확장되였고 학생 수가 현저히 증가되였다. 작년 5월 현재 취학 아동 수는 120만에 달하였으며 대학생 수는(모두 국가 장학금에 의해 공부함) 5,000여 명에 달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민족적 민주주의 교육 강령에 기초하여 모국어에 의한 교수를 광범히 진행하고 있으며 알제리인 교원의 비중이 결정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 알제리 인민들은 벤 벨라 대통령과 민족 해방 전선당 주위에 굳게 단합하여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급속히 청산하고 자립적인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건설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확고하게 전진하고 있다.

* *

오늘 알제리는 아랍, 아프리카의 통일과 단결, 철저한 반제 반식민주의 투

평 및 전 세계 반제 평화 애호 력량과의 련대성의 강화를 자기의 대외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알제리 인민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투쟁을 아랍, 아프리카 세계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있다.

벤 벨라 대통령은 《우리는 팔레스티나에서의 유태 민족 복고주의, 앙골라, 뽀르뚜갈(포도아)령 기네(기니아) 및 모잠비크에서의 식민주의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의 인종 격리 제도가 금지되고 영원히 페지되지 않는 한 자신을 독립한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알제리는 싸우는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군사적인 원조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효과적인 지원을 주고 있다.

알제리는 꽁고(레) 인민의 투쟁을 자기 자신의 투쟁이라고 선포하면서 그에 대한 물심 량면의 모든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앙골라, 모잠비크, 뽀르뚜갈령 기네를 비롯한 많은 나라 인민들의 무장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꾸바와 웰남(월남)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인 침략과 전쟁 도발 행위를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싸우는 이 나라 인민들과의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오늘 아랍,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있어서 단결은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그들은 력사적으로 되는 일련의 뉴대로 뿐만 아니라 공동의 리념과 공통한 목적에 의하여 서로 긴밀히 련결되여 있다.

아랍, 아프리카의 단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알제리 인민들은 아랍 국가 련맹과 아프리카 통일 기구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그의 선언과 결의들에 충실하고 있다.

알제리 인민들은 아랍 국가들을 반대할 목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해 낸 이스라엘을 반대하여 견결히 진출하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아랍 국가들의 심장에 꽂아 놓은 비수》, 아랍 세계의 《복부를 향하여 발사된 괴물》로 규탄하면서 요르단강 수로 변경을 제지하며 팔레스티나 인민들의 귀향을 실현시키기 위한 아랍 인민들의 공동 투쟁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쏨베와 같은 《아프리카의 반역자》를 알제리 인민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주지되여 있다.

알제리 인민들은 전쟁 시기와 전후 시기를 통해서 미제의 침략적 본질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였다. 미제는 전쟁 년간 줄곧 프랑스를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프랑스 침략군이 장비한 무기의 75% 이상을 담당하였다.

미제는 알제리의 자주적 발전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를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다.

미국 위정자들은 몇 푼 안 되는 《원조》를 가지고 계속 흥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출판물들은 알제리 혁명 정권과 인민에 대한 비방 중상을 일삼고 있다. 알제리-마로끄(모로코) 국경 충돌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도 사실은 다름 아닌 미 제국주의자들이였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며 민족 해방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하고 있는 알제리 인민의 정당한 립장은 그들의 확고한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벤 벨라 대통령은 아세아, 아프리카의 해방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정당하게 선언하였다.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 행정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간의 친선 단결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알제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 이는 피부색의 공통성(유색 인종이라는)

이 아니라 민족적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지향하는 공통적인 리상에 기초하고 있다.

《반공산주의》를 고취하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분렬과 그들과 아세아 나라들과의 뉴대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은 여지없이 분쇄되고 있다.

금년 6월 말에 알제리의 수도에서 진행되게 될 력사적인 제 2 차 아프리카, 아세아 회의는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 궐기한 두 대륙 인민들의 전투적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력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며 또한 대회는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약화시켜 보려고 집요하게 시도하는 배신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으로 될 것이다.

벤 벨라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어떠한 대포, 폭탄도 그리고 그 어떤 감언리설도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알제리 인민의 전진 운동을 멈춰 세울 수 없다.

알제리 인민들은 알제리 땅에 자주적인 부강한 사회를 건설할 것이며 아프리카 대륙의 해방 위업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전투적 단결 및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더욱더 큰 공헌을 할 것이다.

근 로 자 제 10 호 (루계 272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5월 17일　　발 행 • 1965년 5월 20일

ㄱ—530276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호 6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5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1 호 (273)
1965년 6월 (상)

차 례

전 당이 정치 사업을 하자

1

오늘 우리 당은 전 당이 정치 사업을 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우리 당의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당원들, 전체 간부들이 정치 사업을 하여야 하며 당 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기관, 문화 기관들에서도 모든 사업을 정치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 당이 정치 사업을 할 데 대한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혁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 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당 사업의 기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정치를 선행시킨다는 것은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 정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혁명 과업 수행 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며 높은 정치적 각성을 가지고 혁명 과업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이다》**(《새 환경에 적응하게 군당 단체의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라고 교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 사업은 당 정책을 대중 속에 해석 침투시키며 대중 자신이 그 수행 방도를 토론하고 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 사업은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계발할 뿐만 아니라 그 열성을 동원하여 모든 혁명 과업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원래 정치 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조직 동원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기본적 사업 방법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을 하는 당이다. 당은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을 각성시키고 군중을 발동하여 인민 대중을 온갖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의 활동에서 기본은 혁명적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은 혁명 투쟁에서나 건설 사업에서나 항상 대중의 자각성에 호소하여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동원하는 정치 사업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혁명 투사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민 대중을 향하여 호령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그들을 설복하고 교양하여 혁명 승리의 길로 이끌고 나갈 임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인민 대중이 혁명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활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가장 위력한 사업 방법이다. **《정치 사업을 홀시하고 경제 기술적인 실무에만 매여 달리며 근로자들의 정치 사상 의식을 높이지 않고**

물질적 관심만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근 40 년 간에 걸친 혁명 투쟁의 력사는 정치 사업의 위력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주권을 잡기 전이나 잡은 이후에 있어서 일관하게 인민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발양시키는 정치 사업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혁명가의 대렬을 확대 강화하고 당을 공고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광범한 군중을 당 주위에 집결시킬 수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이러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 발전의 현실적 요구, 조성된 혁명 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전 당이 정치 사업을 할 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 7 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긴장된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인민 앞에는 실로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7 개년 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궐기하였으며 전국은 혁명적 열정으로 들끓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열성을 계속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 있게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청산리 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 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조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대안의 사업 체계는 청산리 방법을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에 철저히 구현한 것이다.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는 사회주의 경제를 당 적, 정치적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는 생동한 모범으로 되며 이것은 관료주의, 형식주의 기타 일체 낡은 사업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현실은 낡은 사업 방법이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의 관철을 저애하며, 일'군들이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군중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푸는 혁명적 방법—당 적,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할 때에라야만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는 7 개년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 고리가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 체계를 보다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하여 일 군들의 사업 방법을 바로잡을 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물론 최신 기술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에서 기술적 지도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가 우리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 기계와 기술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며 그것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다. 오직 사람들의 정치적 각성을 높이며 그들이 자각적으로 움직이도록 할 때에만 기술적 지도 그 자체도 가장 훌륭히 보장될 수 있으며 인민 경제 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업들을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로자들의 정치적 각성과 의식 수준을 높이는 정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이에 경제 기술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전면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리 하여 우리 인민의 정신-사상적 면모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 났다. 그러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 문제는 결코 짧은 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을 과학적 세계관, 로동 계급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계통적인 투쟁을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

낡은 사상 잔재의 극복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이 심화 발전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더욱 날카롭게 제기된다. 오늘 우리 나라는 낡은 사상 잔재를 전면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혁명의 발전,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는 바로 그러한 단계에 처하여 있다.

우리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함으로써만 집단주의 정신을 더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 속에서 혁명성과 진취성을 높이고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당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빼고 전 사회를 혁명화하며 전체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과 당원들, 대중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당 정책 교양, 사상 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하며 모든 사람이 자각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로서 혁명 과업 수행에 적극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이 빠짐 없이 정치 사업에 동원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할 때 군중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더 잘 무장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정치 사업을 하는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 자신이 로동 계급의 혁명성을 배우고 체득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의 혁명 위업을 저해하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침략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중을 높은 계급적 각성과 정치 사상 의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오늘 우리 앞에는 전체 간부들, 전체 당원들, 전체 인민을 정치적으로 보다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을 우리 나라의 형편과 우리의 혁명 임무를 똑똑히 알고 자각적으로 활동하는 혁명 투사로 키우기 위하여 전 당이 정치 사업을 하고 모든 부문에서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으

로 사업하도록 할 데 대한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론에서와 그 후에 있은 일련의 교시들에서 전 당이 정치 사업을 할 데 대한 문제를 거듭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2

전 당이 정치 사업을 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당 일'군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기관, 문화 기관 일'군들, 그가 당원이라면 어떤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자신이 혁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혁명 투사이며 정치 활동가이라는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립장에 서게 될 때 모든 문제에 정치적으로 대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분석 처리하게 되며 확고하게 군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힘 있게 밀고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은 언제, 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정치적 립장을 견지하고 정치 사업을 첫 공정에 놓아야 하며 일체 사업의 진행 과정과 그 총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정치적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근로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당 정책과 당의 의도를 알려주며 그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계발하고 발동시키는 사업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이 잘 돼야 당 정책의 실현 방도를 토의하는 사업도, 분공된 과업들을 실행하는 사업도, 총화 결속하는 사업도 다 원만히 보장될 수 있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계발하자면 정치 사업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도록 진행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조선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혁명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교양하는 것이다.

조선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시기 긴절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과업들을 성과 있게 해결하여야만 조선 로동 계급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 공업화를 촉진할 데 대한 문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 남조선을 해방할 데 대한 문제 등등을 가지고 실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정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하겠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자면 정치 사업이 한두 차례의 일반적 강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

의 미래를 혁명의 승리와 밀접히 결부시키고 위임된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될 때까지 반복되면서 부단히 심화되여야 한다.

정치 사업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매개 기관, 기업소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놀고 있는가, 따라서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사업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련관시켜 정확히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정치 사업을 이렇게 할 때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궁지와 영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양시킬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황해 제철소와 흥남 비료 공장을 현지 지도하실 때 《황해 제철소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1,211 고지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곳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켰으며 그들을 로력적 위훈에로 크게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들이 일을 잘 해야 다른 모든 부문이 풀리고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추켜 세울 수 있다는 높은 책임감으로 고무하였기 때문이다.

정치 사업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것을 당면한 혁명 과업과 밀접히 결부시키고 때와 장소, 대상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정치 사업의 목적은 구경은 사람들을 당면한 혁명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데 있다. 해당 부문의 당면 과업이 무엇이며 걸리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정치 사업을 몇 백 번 거듭하여도 그것은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일 수 없다.

정치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당면한 과업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동시에 그 과업을 해결하여야 할 사람들의 사상 동태와 감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여 처방을 내리듯이 대상에 알맞게 정치 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여야 대중을 당면한 혁명 과업 수행에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정치 사업에 참가하는 간부들과 당원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以身作則)하는 것, 이것이 또한 대중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말과 행동의 일치, 리론과 실천의 결합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의 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 학습과 로동, 일하는 방법과 작풍 등에서 항상 군중의 모범이 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의 앞장에 설 때 그가 하는 정치 사업은 권위가 서게 되며 대중을 감화하고 그들을 난관을 극복하고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게 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사업에서는 대중의 선두에 서는 기수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될 때 군중은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며 그들의 모범을 본 받아 혁명 과업 수행에서 더 높은 열성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고 군중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해결해 주는 고결한 품성을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유감 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당 정책을 해석 침투시켜 대중을 사상적으로 동원한 다음에는 대중 자신이 당 정책의 수행 방도를 토론하는 사업과 그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고 총화하는 모든 사업이 정치적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를 정치적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회의가 당 정책의 수행 방도를 토론하는 중요한 장소이며 바로 회의에서 구체적인 분공이 조직되고 위임된 사업들의 실행 정형이 총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회의든지 결코 제기된 과업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장소로 되여서는 안 되며 여기에서는 모든 문제가 높은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으로 분석되고 평가 처리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매사에서 심중한 교훈을 찾게 되고 남의 부족점을 보고도 자신을 반성하게 되며 따라서 대중의 사상 의식 수준은 부단히 높아지고 일은 더 잘 퍼워 나가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당 정책을 해석 침투하는 것으로부터 사업을 총화 결속 짓는데 이르는 전 행정에서 정치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당 위원회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는 기풍을 확립할 것이 요구된다.

당 위원회에서는 당 정책에 립각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대책들이 수립된다. 또한 군중의 광범한 의견과 훌륭한 발기들은 례외 없이 당원들을 통하여 당 위원회에 집결되고 거기에서 체계화된다.

이것은 당 위원회에 적극 의거하는 것이 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과업과 당면하여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군중의 사상 동태와 지향, 정서 생활까지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료해하여 정치 사업을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아래 단위에 내려 갔을 때 해당 당 위원회에 의거하여 정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해당 단위의 실정을 더 잘 료해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곳 일'군들과 서로 의사가 소통하게 되고 그들을 적극 인입하여 대중 속에서의 정치 사업을 폭 넓게, 실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문의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은 전 당이 정치 사업을 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일상적으로 군중 속에 들어 가 정치 사업을 잘 하고 모든 사업을 정치적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3

전 당이 정치 사업을 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서 각급 당 위원회들 앞에는 실로 책임적인 과업들이 제기되여 있다.

당 위원회들은 이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철저히 인식하고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정치 사업에 인입되도록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하여야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당 기관들 자체가 사람과의 사업을 더 잘 하며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 기관들이 이렇게 사업할 때 모든 행정,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그 일'군들이 그의 모범을 따라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사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 중앙 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에서 자기 부문 당 정책을 대중 속에 책임적으로 해석 침투하도록 지도하며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에 놓고 이에 행정 경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행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초급 당 조직들에서 모든 당원들을 정치 사업에 한결같이 인입하고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다 정치 사업을 하도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당은 오늘 방식 상학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방식 상학은 일'군들에게 시범을 통하여 정치 사업의 내용과 방법 문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위력한 수단이다.

전 당이 정치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과 당원들이 정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

정치 사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이며 높은 창발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정치 사업은 그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이 높을수록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일'군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로 무장하며 경제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 대중에게 당 정책의 본질과 당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시킬 수 있으며 현실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풀고 제기되는 혁명 과업의 해결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 위원회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학습 기풍을 철저히 수립하고 상학조와 토요 간부 학습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다 하루에 2 시간 이상씩 공부하여 자체의 정치 리론 수준과 실무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 생활 특히 세포 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일상적으로 군중 속에 들어 가 살며 일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더 높아지며 그들이 혁명 앞에서 지닌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 사업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전 당이 정치 사업을 할 데 대한 당의 요구가 관철되고 간부들은 당원들을 교양하며 당원들은 군중을 교양하면서 모두가 다 당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움직이게 될 때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위업은 더욱 힘 있게 추진되게 될 것이다.

당'적 방법으로, 정치적 방법으로

김 석 영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요즘 중앙과 지방의 신문들이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으로 일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문화 기관들의 사업을 련일 보도하고 있는 데서 여실히 증명된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이것은 우리의 당 및 국가 경제 기관과 문화 기관들의 사업에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사업 수준이 상당한 높이에 오르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은 **《군중 로선에 의거한 사업 방법 즉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군중을 동원하는 사업 방법》**(김 일성)이다.

이 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이 주권을 잡기 전이나 잡은 후에나 또는 혁명 투쟁에서나 건설 사업에서나 항상 견지하여야 할 위력한 사업 방법이다.

1930 년대에 확립된 혁명적 사업 방법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은 해방 후 혁명이 심화 발전되고 인민 대중의 각성이 높아 감에 따라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모든 부문의 사업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왔으며 그 행정에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쌓아 올렸다.

우리 당은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선행시키면서 여기에 이 방법의 진수를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 왔다.

사람들의 사상 관점은 그들의 사업 방법을 규정한다. 군중에 대한 부르죠아적 관점으로부터는 관료주의적 방법이, 로동 계급의 관점으로부터는 혁명적 방법이 흘러 나온다는 것은 주지되여 있다.

인민 대중을 사회의 주인으로가 아니라 단순한 로동력으로 보는 그릇된 관점, 사람들에 대한 행정 실무적 관점으로부터는 결코 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돌리며 온갖 것을 다하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당'적, 정치적 방법이 나올 수 없다. 여기로부터는 불가피하게 인간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고 생산의 프로만 따지는 비공산주의적 방법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와 함께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의 소유 정도는 사람들이 혁명 투쟁에서 얼마나 단련되였는가, 군중 공작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우리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모든

일'군들 속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으며 그들에게 실천 투쟁을 통하여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체득시키는 사업을 꾸준하게, 계통적으로 진행하여 온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은 실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이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 구현될 때 그것은 경제 기술적 지도 자체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은 일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경제 기술적 지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방법은 정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이에 경제 기술적 지도를 옳게 결합시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 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사회에서의 경제 운영 방법의 기본은 모든 사람들의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그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교시하였다.

물론 높은 기술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데서 기술적 지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계와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며 그것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다.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인 사람들이 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각성시키지 않고서는 기술도 발전시킬 수 없고 경제 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인 대안의 사업 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법적으로 공고화된 오늘의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 방법의 잔재를 청산하고 관료주의를 매장한 무덤 우에 솟아 오른 혁명적인 체계이다. 이 체계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행정 만능》, 《기술 만능》 등 낡은 사상에 기초한 온갖 낡은 사업 방법들과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이 체계하에서의 경제 기술적 지도는 오직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자 대중이 기업 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될 때에라야만 원만히 수행될 수 있다.

정치 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홀시하고 경제 기술적인 실무에만 매여 달리는 것은 경제를 지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여 가지고는 인민 경제를 옳게 지도 관리할 수 없으며 생산을 부단히 발전시킬 수 없다.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오직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 정치 사업을 확고히 선행시켜야만 경제 기술적 지도 자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도 보다 훌륭히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우리 당은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국가 경제 기관, 문화 기관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도 문제에서도 가치 있는 경험들을 창조하였다.

다음에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정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

국가 경제 기관, 문화 기관들의 사업에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당 위원회가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한 고리를 뚫고 들어 가 거기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여 전반을 지도하며 정

치 사업이 경제 과업 해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전반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면서 중요한 고리를 먼저 추켜 세우며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원칙은 다른 모든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짧은 기간에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모든 부문의 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지도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신포시 당 위원회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이 방법으로 일하도록 일반적인 포치를 한 다음 우선 간부들 그리고 당 기관과 당 조직들이 모범을 보이도록 지도하였으며 시 인민 위원회와 시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에서 경험을 창조하여 일반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 하여 여기에서는 개별적 부문, 개별적 단위에서 창조된 모범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새끼를 치고 그것이 더욱 확대되게 되여 오늘에 와서는 마침내 모든 일'군들이 정치 사업을 하게 되고 모든 기관, 기업소가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으로 일하게 되였다.

한 점, 한 고리를 뚫고 들어 가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면서 전반을 추켜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방식 상학이 가장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지금 많은 당 조직들에서는 방식 상학을 통하여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여 주고 있으며 강의와 참관을 결합시키고 시범 동작을 통하여 정치 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는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으로 일하라고 일반적인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별적 부문, 개별적 단위, 개별적 사람들에게서 모범을 창조하고 방식 상학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하여야 하며 특히 당 기관, 당 조직, 당 일'군들과 간부들이 솔선 수범함으로써 모든 기관, 기업소의 사업을 짧은 기간에 혁명적으로 개편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 기관과 문화 기관들에서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구현하도록 하는 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도록 당 및 행정 사업 방향을 통일적으로 제시하고 그의 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지도 통제하면서 정치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염주군 당 위원회는 매 영농 시기마다 사전에 중심적인 경제 과업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풀기 위하여 군'적으로 어떠한 정치 사업을 하여야 하는가, 당 조직들에서는 행정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어떻게 지도하고 당원들과 군중을 어떻게 발동시켜야 하는가, 행정 경제 기관들에서는 정치 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 기술적 지도를 어떻게 결합시켜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통일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군 하였다.

이리 하여 여기에서는 당 조직들의 지도 하에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하는 정치 사업이 당면한 경제 과업 해결에 집중되고 정치 사업에 경제 기술적 지도가 따라 서게 됨으로써 농업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이 사실은 당 및 행정 사업 방향을 통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당 조직들의 령도적 기능을 높여 국가 경제 기관과 문화 기관들의 사업에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구현하게 하며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행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도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염주군 당 위원회는 당 및 행정 사업 방향을 통일적으로 제시한 다음에는 그의 실행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로 정치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키도록 지도하였다.

례컨대 모내기 때는 평당 포기 수와 포기 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고 빈포기를 메울 데 대한 문제, 김 매기 때는 그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적 태도를 극복할 데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정치 사업을 포치하였으며 이에 경제 기술적 지도를 따라 세우도록 지도하였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들이 모든 기관, 기업소가 한결같이 정치 사업을 하고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으로 일하도록 통일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그의 실행 과정을 정확히 지도 통제하면서 정치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경험은 당 위원회들이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인식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머리를 쓰고 골똘하게 생각한다면 자체 실정에 맞는 좋은 방도를 찾아 내여 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경험은 또한 당 위원회들이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솔선 구현하고 그 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면서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바로 그렇게 사업하도록 꾸준히 타이르고 이끌어 줄 때에라야만 이 방법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에 철저히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모든 일'군들이 정치 사업을 하게 하는 문제

국가 경제 기관, 문화 기관들의 사업에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부문 당 정책을 해석 침투시키고 그의 관철에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모든 사업을 이 기관들이 책임 지고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이에 있어서 모든 일'군들을 유능한 정치 활동가로 교양 육성하고 그들을 남김 없이 정치 사업에 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모든 일'군들이 정치 사업을 하고 모든 기관, 기업소가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지금 무역성을 비롯한 많은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자체 학습과 토요 간부 학습반의 운영을 통하여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있으며 당 정책과 수상 동지의 교시에 대한 집중 학습 또는 강연 사업 등을 통하여 모두가 다 그의 내용과 과업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아래에 내려 가 정치 사업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책임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책임 일'군들이 정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솔선 수범할 때에라야만 아래 일'군들을 당 정책의 본질과 그의 수행 방도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 공정에 놓고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으로 사업하도록

고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자기 일'군들 뿐만 아니라 아래 단위의 일'군들까지도 잘 교양하여 정치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신포시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농장 관리 위원장들을, 기사장이 농장 기사장들을, 부위원장들이 농장 부위원장들을, 부장들이 농장 통계원을 비롯한 기타 관리 일 군들과 작업반장들을, 지도원들이 농장 분조장들을 지도하도록 각각 분담하여 그들의 정치 사업과 학습 정형을 수시로 총화하면서 제강도 만들어 주고 실지 사업도 친절히 도와 주고 있다.

이러한 지도 방법은 아래 단위의 일'군들을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정치 활동가로 키우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단위의 사업에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구현하여 해당 부문의 당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또 아래 일'군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서로 배우고 배워 주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 기업소 자체의 사업을 개선케 하는 데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생산 현장에 내려 갔을 때 해당 당 위원회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 내려 간 행정 일'군, 경제 기술 일'군들이 해당 당 위원회에 적극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게 된 것은 최근 우리의 사업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지금 우리의 많은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 가면 반드시 해당 당 위원회에 들려 지도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일반적 형편을 안 다음 그 곳 일 군들과 합세하여 정치 사업을 폭 넓게 진행하며 또다시 한 점을 뚫고 들어 가 대상의 실정에 맞게 정치 사업을 심화시키면서 대중을 당 정책 관철에 조직 동원하고 있다. 그 중에는 당 세포에 소속되여 그 곳 당원들과 당 생활도 같이 하면서 자체의 사상 수양을 실천 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대중을 교양하고 고무하고 있는 일'군들도 있다.

이 모든 사실은 해당 당 위원회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곳 일'군들을 적극 인입하고 대상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치 사업을 더욱 실속 있게 진행할 수 있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에 내려 간 일'군들 자신의 혁명성을 높이고 지도 사업 자체를 과학적인 것으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실행 정형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많은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행정 경제 사업을 총화할 때 우선 그 간의 정치 사업과 학습 정형부터 총화하고 그것을 당 생활 총화와 밀접히 결부시키게 하고 있으며 행정 경제 사업의 총화도 실무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치적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행정 간부 회의에서 각 부서와 일'군들의 정치 사업 정형을 총화하고 있으며 참모 성원들의 총화 회의에서도 정치 사업의 총화를 첫 자리에 놓고 있다.

이리하여 이러한 총화 회의들은 모든

일군들 속에서 그들 자신이 당이 신임하는 정치 활동가이라는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들을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군중 속에서 신망이 높은 열렬한 혁명 투사로 육성하는 교양의 학교로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총화 회의들은 개별적 단위, 개별적 일'군들에 의하여 창조된 모범과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부단히 심화시켜 나가는 장소로도 되고 있다.

군중적 방법, 군중적 작풍

국가 경제 기관, 문화 기관들의 사업에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군중과의 사업에서 군중적 작풍을 견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것은 군중적 작풍에 의하여 군중을 감화하고 감동시킴이 없이는 군중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푸는 군중적 방법—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중적 방법, 군중적 작풍은 모든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과 같이 살고 일하면서 군중이 실천 투쟁에서 쌓아 올린 풍부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업을 대담하게 개선해 나가는 데서 발양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 이러한 작풍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지난해 기후 조건이 극히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군들의 경험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간 지대는 지역마다, 골짜기마다 기후 풍토의 차이가 심하지만 해발이 류달리 높은 창성군에서는 그것이 더욱 심하다. 그러므로 창성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기후 풍토 상 특성도 고려함이 없이 품종 배치와 경종 체계를 일률적으로 내려 먹이던 지난 기간의 페단을 일소하고 지난해에는 농민들의 오랜 경험에 기초하여 지대적 조건에 맞게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이 군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인 옥수수 종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봄철이 빨리 오고 가을철이 늦게 오는 지대에는 만숙종을, 중간 지대에는 중숙종을, 봄이 늦게 오고 가을철이 빨리 오는 지대에는 조숙종을 심게 한 사실이라든가 새 붙임을 하는 시기를 지대적 조건에 맞게 조절한 사실들이 그러한 실례이다.

그리고 염주군에서는 농민들의 광범한 의견에 기초하여 지난해에는 종전 온방주 대신에 기후 풍토에 맞는 해방조를 거의 전 논 면적에 배치하고 모내기 기간을, 시작하는 날'자는 늦추되 끝내는 날'자는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조절하였으며 김도 각별히 더 잘 매주게 하였다.

이리 하여 창성군과 염주군은 농업 생산에서 다 같이 높은 성과를 거두어 군위 1 급 칭호를 수여 받게 되였다.

이상의 실례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군중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업해야 한다는 것은 농촌 경리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지도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철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험은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 사업에서 그 어떤 《유일 처방》을 주관주의적으로 내려 먹일 것이 아니라 광범한 군중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대

상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조치하고 심화시켜 나가야만 군중의 자각적 열성도 더 높일 수 있고 생산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군중적 방법, 군중적 작풍은 또한 군중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찾아 내여 그들의 리익에 맞게 풀어 주는 데서 발양되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이다. 그들은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근로자들을 혁명 동지로 대하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이 곤난해하는 문제들을 솔선하여 해결해 줄 때 군중은 진심으로 지도 일'군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며 사기 충천하여 혁명 과업 수행에 더 잘 동원되게 된다.

지난 기간 우리 일'군들은 후방 공급 사업도 정치 사업이라고 한 수상 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부식물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문화 오락 사업과 휴식에 대하여서도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일부 농촌들에서는 가장 바쁜 모내기 때도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작업 시간을 종전보다 2~3 시간 짧게 하면서도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오히려 작업 능률을 120% 이상으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근로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우리 일'군들 속에서 발양되고 있는 혁명적 동지애의 고상한 정신은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생활은 모든 지도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알아 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리익에 맞게 풀어 주기만 한다면 우리의 일은 더 흥겹고 힘하게 되면서도 쭉쭉 자리가 나게 빠른 속도로 전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군중적 방법, 군중적 작풍은 또한 이신작칙(以身作則)하는 데서도 발양되여야 한다.

일상 사업에서, 특히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제기됐을 때 간부들이 이신작칙하는 것은 우선 그들 자신이 자기의 사상을 단련하고 혁명성을 높이는 좋은 방도로 되며 군중 속에서의 정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중을 힘 있게 이끌고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지금 우리 일'군들 속에서는 자기가 직접 로동에 참가하여 모범을 보이면서 로동을 사랑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교양하며 자기가 직접 공동 재산을 애호 절약하고 동지들을 적극 도와 주면서' 집단주의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복하는 것이 하나의 기풍으로 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군들의 말은 그 대로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이고 우리 일'군들의 행동은 그 대로 사람들을 감화시켜 매일 매 시각 그들을 새로운 로력적 위훈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 과업을 해결하는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이 당 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기관, 문화 기관들의 사업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 열의는 고도로 제고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고 있다.

과업은 당'적, 정치적 지도 방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 방법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계속 견지하면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전투적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정치 사업과 군중 심리

리 재 순

우리는 어떤 일'군의 심각하고 론리 정연한 강연을 들을 때, 혹은 어떤 일'군과의 개별 담화에서 따뜻한 가르침과 충고를 받을 때 흔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주먹이 쥐여지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일하고 더 노력해야 하겠다는 굳센 각오를 다지게 된다. 이것은 바로 정치 사업이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치 사업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하여서는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리론적으로 납득되고 사상적으로 접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의 심리에 맞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공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치 사업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람들의 사상에 뿐만 아니라 심리에 효과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정치 사업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리해를 줄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 그것이 그들을 흥분시키고 격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치 사업의 내용이 좋아야 하고 거기에 맞게 정치 사업의 방법이 따라 가야 한다. 그리 하여 그 내용과 방법이 모두 군중의 사상과 심리에 적중하여야 한다. 여기로부터 정치 사업의 사상적 내용 및 방법과 군중의 사상 심리 간의 관계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정치 사업의 사상적 내용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것이다. 당의 정책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화한 사상 리론이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의 근본적인 리해 관계가 반영되여 있으며 우리 인민의 요구가 반영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당 정책을 받아 물고 실현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천리마적 속도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과정에서는 우리 일'군들이 좋은 사상적 내용을 가지고서도 정치 사업을 군중의 사상 심리에 맞게 진행하지 못 함으로 하여 군중의 혁명적 열의를 더 발양시킬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당 정책을 잘못 해석하여 일'군들의 주관적 욕망과는 달리 군중의 혁명적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일'군들의 사업 방법, 작풍과 관련된다. 일'군들이 정치 사업을 군중 로선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당의 청산리 방법으로 진행할 때에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열정으로 접수되게 된다.

정치 사업의 사상적 내용과 일'군들의 사업 방법, 작풍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와 같은 작용과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사상과 심리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사상과 심리는 사람들의 사고 활동과 생활에서 서로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심리적 요소를 동반하지 않는 완전히 메마른 사상이란 없는 법이다. 사상-리론적인 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흥분과 감정을 동반한다.

마찬가지로 사상-리론이 외부에서 사람들에게 주입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흥분과 감정은 반드시 동반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사상과 심리란 객관 세계의 반영인데 이 면에서 볼 때 사상과 심리는 결코 자기 앞에 나타나는 일체 외부적 현상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사상과 심리는 외부적인 현상에 대하여 그가 주관적으로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더우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적 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정치 사업—그것은 그 대상 인원들에게 보통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외부적 현상과는 달리 심각한 사상 심리적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 강연이나 토론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흥분과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선전되는 모든 사상과 리론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러저러한 사상적, 심리적 반응과 흥분을 남기게 된다. 문제는 그 반응과 흥분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정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사상과 더불어 심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옳게 리해함으로써 당의 사상 리론을 선전하는 정치 사업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행동을 추동하는 요인에는 세계관, 신념과 같은 사상적 요인과 더불어 감정과 기분, 욕망과 흥미 등 심리적 요인이 있다. 사람들은 일정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의의와 가치를 사상-리론적으로 파악하는 때에만이 아니라 기분과 정서에 맞기 때문에도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치 사업은 특히 사람들의 심리적 측면에 많은 주의를 돌리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 하면 정치 사업의 내용인 당의 정책은 바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밝혀 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사업의 명중률은 그것에 대한 사상-리론적 접수나 리해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크게 달려 있는 까닭이다. 당의 사상은 개인의 것으로 접수되여 그의 욕망, 흥미와 결부됨으로써 강한 행동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정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군중의 심리를 옳게 파악할 데 대한 문제를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학생 심지어 소년, 어린이들의 심정까지도 꿰뚫어 볼 줄 아는 심리학자로 되여야 한다. 그렇게 되여야 진정한 공산주의자로서 능히 대중을 조직 동원할 수 있는 훌륭한 혁명 간부로 될 수 있다…》—이와 같이 김 일성

동지는 벌써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로, 혁명 간부로 되려면 동시에 심리학자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제 2 권, 309 페지 참조).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과 또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만 정치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심리는 정치 사업의 사상적 내용을 접수하는 데서 일정한 특징을 가지게 한다. 당의 사상은 사람들에게서 심리 과정을 통하여 주어진다. 매 개인의 심리적 특징 여하에 따라서 같은 내용의 사상과 리론도 각이한 수준과 각이한 정도에서 개인의 사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당의 정책과 의도는 그것이 가지는 과학적이며 론리적인 힘으로 하여 대중의 사상과 심리에 작용한다. 사람들이 당의 정책을 받아 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의 사고만이 아니라 심리 즉 감정과 정서, 욕망과 흥미 등이 발동되는 것이다.

이리 하여 당의 사상과 리론이 매개 사람들의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매 개인의 사상과 더불어 심리가 발동되기 때문에 정열도 나오고 충동도 생기게 된다. 사람들은 당의 사상과 리론을 단순히 리해하고 접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말하자면 당의 의도가 인간 의식의 한 구성 요소로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온근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리 하여 사람들은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모든 힘과 정열을 바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정치 사업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군중의 사상과 심리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게 정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정치 사업의 효과성과 명중률을 높이는 담보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좀 고찰하여 보자.

우선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랜 옛날부터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근면하게 살아 온 우리 인민에게는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배우자는 의욕이 높고 선한 것을 지향하는 정신이 강하다. 우리 인민은 또한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력사적인 투쟁 행정에서 자주 정신이 강하고 용감성과 단결력이 강한 민족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 특성들은 오늘 우리 제도 하에서,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 밑에 전면적인 개화 발전을 보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반제 투쟁 정신이 강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강한 민족으로서, 천리마를 타고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는 영웅적 민족으로서 그 저개를 세상에 떨치고 있다. 정치 사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인민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기초 우에서 진행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치 사업을 심화하며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심리적 특성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계 각층에 따르는, 지어 개인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심리적 특성들까지 옳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각 계급과 계층은 력사적으로 일정하게 사회적 처지가 달랐던 조건에서, 또 오늘에 와서도 사회주의 근로자

로서의 공통성을 가지지만 역시 로동과 생활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조건에서 그들에게는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들이 형성되여 있는 것이다.

로동자와 농민, 인테리들의 심리에는 각각 그 계급, 계층에게만 속하는 특징들이 있다. 또 년령 별에 따라서도, 성별, 지방 별에 따라서도 역시 사람들의 심리에서는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며 매 개인에게 있어서까지 심리는 각이하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정치 사업은 군중의 매 사람에 이르기까지 파고 들어 교양하는 단계에로 심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징들을 옳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된다. 특히 개인의 심리적 특징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기에는 그 민족의 심리, 그 계급의 심리, 그 계층의 심리, 그 지방, 그 성별, 그 년령의 심리들이 종합적으로 구현되여 있는 것이다.

개인의 활동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심리적 특징으로는 사람들의 욕망과 흥미, 기질, 성격, 감정, 취미 그리고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혁명 실천 행정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생활적 요구가 제기된다. 매 개인이 생활에서 무엇을 원하고 가지려 하는가 하는 것이 그의 욕망으로 된다. 이러한 욕망에 기초하여 흥미가 조성된다. 흥미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어떤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의를 돌리고 알아 보려고 하는가 하는 심리적 특징이다.

정치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를 보여 주는 욕망과 흥미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은 기질과 성격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기질은 사람들이 사회 현상을 보고 느끼며 활동하는 데서 나타나는 공고한 심리적 특성이다. 우리는 군중 속에 들어 가면 각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어떤 청년 로동자는 혁명 과업 수행에서 매사에 명랑하고 민감한 기질로 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또 다른 로동자는 침착하고 차근차근 하여 매사를 실수 없이 해결해 나감으로써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제 3의 로동자는 맡은 혁명 과업을 정력적으로 지어 덤비면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 하는 것으로 하여 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 느끼는 데서나 같은 일을 하는 데서도 다 제 멋을 가지고 있다.

성격은 현실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공고한 심리적 특성이다. 우리는 용감하고 씩씩한 성격, 근면하고 슬기로운 성격, 랑만적이며 혁명적인 성격, 솔직하고 원칙적인 성격 등 성격의 여러 가지 류형을 알고 있다. 군중 속에서는 무뚝뚝하고 말은 적으나 혁명적 실천이 앞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혁명 과업 수행에서 남에게 조금도 지기를 싫어 하는 사람, 고집스럽게 일만 아는 사람…참으로 천태만상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사람과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심리적 특징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적인 심리적 특징을 옳게 파악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정치 사업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계급 계층별 또는 집단 및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은 상대적으로 공고성을 띠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적극 파악하기에 노력하기만 한다면 능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을 정치 사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리해함에 있어서 보다 어려운 것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는 그 측면이다. 우리는 시간과 조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같은 계급, 계층의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다른 심리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서로 다른 계급, 계층의 사람들 속에서도 같은 심리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군중적 심리 현상으로서 우선 동감을 들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집단 속에 있을 때는 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혼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공통적인 심리적 체험을 하게 된다. 례컨대 건설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흥성거리고 기쁨에 넘쳐 일할 때 매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더 기쁨을 느끼며 더 일하려는 욕망에 불타게 된다. 그리 하여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힘이 솟아 나게 되며 일'손은 더 날쌔게 움직이게 된다. 집단 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교제가 일어 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심리적 특성과 영향이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옮아 간다.

군중적 심리 현상으로서 소위 심리적 전염(감염)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집단들에서는 핵심들의 심리적 특징과 심리적 상태가 집단 전체 성원들에게 옮아 가는 것이 중요한 현상으로 된다. 작업반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천리마 기수들의 자신만만한 락관적 태도와 제때에 하고야 말겠다는 열정은 그 집단의 기타 성원들에게 곧 전염되여 간다. 그리 하여 다른 작업반원들에게서도 바로 락관적이며 자신만만한 태도와 일을 제때에 해 치우려는 지향을 보게 된다.

기타 군중적 심리 현상으로서는 심리적 전염과 밀접히 결부된 모방이 있다. 사회에서 살며 집단 로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호상 간에는 서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지향이 생기게 된다. 진리와 정의감이 강한 우리 인민에게서는 원래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에 대한 모방성이 강한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제도 하에서 우리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을 본 받는 데서 훌륭히 발양 발전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의 생활력을 안받침해 주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다.

다음으로 집단적으로 일하며 사는 과정에서는 그 시각에만 특별히 작용하는 순간적인 심리적 상태가 있다. 전사들 속에서 공격전을 앞둔 시각의 앙양되고 정열적인 기분과 흥분 상태, 새 기대의 시운전을 앞둔 순간에 나타나는 기대공의 심리적 상태에는 모두 일정한 특징이 있다. 즉 어떠한 사람도 보통 이런 때에는 특별한 흥분과 긴장을 느끼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 현상이 변화하는 몇 가지 법칙적인 과정을 찾아 보았다.

심리의 이러한 변화의 법칙성은 우리가 정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목적 의식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또 목적 의식적으로 정치 사업의 요구에 맞게 유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 정치 사업을 군중의 심리에 맞게 진행 한다는 것은 결코 군중의 심리적 요구의 뒤꼬리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는 임의의 사건으로 하여 불쾌한 감정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며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흥분 상태도 있는 것이다. 또 사람들에게 낡은 사회의 심리적 관습이 남아 있다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무조건 사람들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정적 심리 현상도 긍정적인 방향에로 유도하는 것이 능란한 정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를 정치 사업의 요구에 맞게 유도하려면 반드시 심리 변화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옳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요인들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는가 하는 귀착점으로 된다.

사람들의 심리 변화에 주는 요인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나서 자라고 일하며 배우는 전체 사회 관계와 환경이다. 사람들의 심리에는 그들이 부닥치는 전 생활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심리를 고찰할 때 그가 나서 자란 사회 제도와 계급 관계, 가족 관계, 친우 관계, 그의 고향과 그 곳의 관습 등등을 보게 되는 것이며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극은 그의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회 제도, 우리 사회의 계급, 그들의 고향과 동료들에 대하여 말할 때 몹시 흥분하며 열의를 올린다.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 정치 사업을 진행하려면 또한 일'군들이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군중 속에 부단히 들어 가는 것이 요구된다. 군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일하는 과정에서만 그들의 사상, 심리 동태와 생활 감정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따르는 목적 의식적인 정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군중들과 함께 살며 일하는 때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허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아무리 생산 현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허물 없이 지내지 않는다면 군중은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곁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중의 심리를 알아 낼 수 없다.

군중의 심리를 료해함에 있어서와 정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자신의 행동으로써 이신작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울 때만 군중의 신망을 얻을 수 있으며 군중의 사상과 심리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정치 사업의 내용이 시간과 장소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다. 정치 사업은 군중의 생활 실정, 로동 활동과 밀접히 결부될 때 더 큰 감명을 일으키게 되며 혁명 과업 수행에로 강력히 추동하는 물질적 힘으로 전환된다.

공장에서 하는 정치 사업과 농촌에서 하는 정치 사업이 달라야 하며 어촌에

서 하는 정치 사업과 림산 마을에서 하는 정치 사업이 달라야 한다. 청년 학생들, 로인들과 어린이들, 녀성들 속에서 하는 정치 사업이 또한 각각 자체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어데서나 군중의 심리 동태에 알맞게 정치 사업이 진행되여야 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 변화에 미치는 요인들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정치 사업에 목적 의식적으로 리용한 항일 빨찌산들의 훌륭한 모범을 수다히 알고 있다. 빨찌산들은 이르는 곳 마다에서 언제나 그 지방의 구체적 정형과 주민들의 생활 풍습, 습관, 문화적 전통과 각계 각층의 정치적 준비 정도 그리고 그들의 절박한 요구들을 잘 료해한 기초 우에서 정치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 사업은 바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사람들을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그와 같은 능숙한 정치 사업만이 빨찌산들로 하여금 일제의 폭압과 삼엄한 경계 하에서도 수십 수백만의 군중을 쟁취하여 조국 광복을 위한 투쟁에로 성과 있게 묶어 세울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훌륭한 전통은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되여 우리 일'군들과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 널리 꽃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 확실, 리신자, 리 홍렬과 같은 훌륭한 천리마 기수들의 이름만 들어도 충분할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 기수들의 정치 사업 방법—매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들까지도 고려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 군중이 공산주의적으로 훌륭하게 교양 개조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모범들을 살려 사람들의 심리에 알맞게 정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만 당의 의도를 군중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킬 수 있으며 그리 하여 그들이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성과 있게 추동할 수 있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서의 군의 역할

전 용 식

우리 나라의 군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원칙들이 실현되는 기지로서 자기 앞에 나선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군을 지역적인 단위로, 거점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강화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게 된 것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복잡한 과업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당의 탁월한 령도에 의한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된 후 군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새로운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군은 농업 생산의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서, 지방 공업 발전과 공급 기지로서,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군당 위원회의 령도적 기능이 높아졌다.

군의 이러한 발전은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적 단위와 거점으로서의 군에 대한 사상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소멸에 관한 리론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군이 행정 말단 지도 단위인 동시에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며 지방의 종합적 발전 단위라고 지적하였다.

군이 지역적 단위로, 거점으로 된다는 이 사상은 많은 사회 경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을 강화하는 문제는 단순히 지방의 일정한 행정적 단위를 강화하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군의 역할을 높이고 군을 강화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방의 하나의 행정적 단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군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군은 군 내의 농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동시에 지방 공업 발전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공급 기지,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영향은 주로 군을 거쳐서 농촌에 들어 가며 농촌의 농산물도 또한 주로 군을 거쳐서 도시로 공급된다. 군은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도 단일 소유에 기초한 공급 기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에서 군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다. 농민들은 군을 거쳐서 당의 정책을 받아 들이며 군을 거쳐서 로동 계급과의 생산적, 경제적 련계를 맺으며 도시의 문화와 생활 풍습을 배운다.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군의 거대한 역할은 곧 사회주의 농촌의 발전에서 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

군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당이 지난 시기 우리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군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결과이다.

당은 벌써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지도 단위를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부단히 강구하여 왔다. 이 당시 지방 지도 일'군들을 위한 중요한 회의들이 있었으며 그 때마다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농촌 지도 사업에 대한 일련의 중요한 교시들을 주었다. 수상 동지는 1957년 3월 26일 함경 남도 당,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농촌과 군 소재지 건설에 대하여》, 《지방 정권 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며 1957년 7월 5일 도, 시, 군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3월 7일 도, 시, 군당 위원장들과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8월 9일 시, 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 강습회에서 한 연설 등에서 지방 정권 기관들 특히 군급 기관들이 계획 사업을 잘 하고 하부 지도를 강화할 것을 교시하였다.

그 후 우리의 농촌과 군들에서는 거대한 전환이 련달아 일어 났다. 농촌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였으며 지방 산업 발전에서 커다란 전변이 있었고 농기계 작업소, 농기구 공장들이 점차 군 별로 나오게 되여 군에 농촌 지원의 기지들이 꾸려지게 되였다. 특히 1961년 말에는 군을 단위로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창설되고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되였다.

이러한 변화에 토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1962년 8월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군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과학적인 규정을 주었고 1964년 2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이 사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면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를 반영하는 당의 전략적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에서 군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며 지방의 종합적 발전을 보장하는 단위로서 미래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의 거점으로 또한 공급 기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2

우리 나라의 군들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의 과업들을 실현하는 행정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 기간에 군 사업에서는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며 당의 군중 로선을 관

칠시키는 문제에 특별히 큰 주의가 돌려졌다. 이 문제는 군이 직접 생산 단위를 지도해야 하고 생산자 대중과 접하고 있는 관계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당은 지도를 농촌에 침투시키는 것을 언제나 군 사업 강화의 중요한 과업으로 강조하여 왔다. 이것은 김 일성 동지가 강서군을 현지 지도하면서 제시한 중요 사상이며 이 교시 이전에도 루차 군이 아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농촌의 사회주의적 협동화가 완성되여 감에 따라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리를 군이 책임 지고 계획화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으며 직접 군 간부들이 리에 내려 가서 지도를 아래에 침투시킬 것을 교시하였다.

군이 농촌 경리 지도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특히 국영 기업과는 다른 협동 경리를 대상으로 하며 로동 계급과는 다른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대마다 필지마다 조건이 다 다른 농사' 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 따라서 군을 단위로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협동 경리의 특성을 살리고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데 특별한 주의가 돌려져야 한다.

적지 않은 군들에서 군의 지도적 일'군들과 집체적인 지도 력량이 아래를 도와 주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군 사업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 오늘 협동 농장들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 나가며 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군의 지도가 아래에 침투되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군들은 농촌 경리 발전에 주요 력량을 돌리면서 지방 공업도, 상업도,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통일적으로 틀어 잡고 나가고 있다.

테제가 발표된 후 군들에서는 로동 계급의 지도, 도시의 지원, 공업의 방조에 의하여 농촌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된 모범적인 경험들이 여러 군들에서 나오고 있다. 협동 경리의 관리도 개선되고 협동적 소유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촌 경리에서 국가의 생산 수단이 노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테제는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내의 지방 공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군에는 평균 10여개의 지방 산업 공장이 있는 동시에 적지 않은 수의 중앙 공업 기업소들이 있다. 우리 나라 군 주민 중 평균 40%가 로동자, 사무원이라는 사실은 군 내의 공업이 농촌에 강력한 혁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전망까지도 고려하면서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고 중앙 공업을 이전부터 지방에 분산 배치해 온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해 준다.

군내 지방 산업 공장들은 농민들의 생산물을 제때에 가공하고 생산된 제품들을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며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방 산업 공장들은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방법과 생산 문화,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며 농민들에게 로동 계급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을 주는 데서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 테제가 발표된 후 지

방 공업이 농업을 돕고 서로 련계를 강화하며 중앙 공업이 지방 공업과 농촌을 돕는 사업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테제는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의 공급 기지를 강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지난 년간 이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테제의 과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군 내의 상품 공급, 편의 봉사 부문에서의 소유 관계, 조직 체계들이 변동되고 그 규모도 현저히 확대되였다. 리에서 상점과 편의 봉사 시설들이 국가 기업으로 이관되면서 군에는 소매 류통과 편의 봉사 별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기구가 나왔다. 군의 공급 체계가 강화되고 리의 편의 봉사 세포가 면모를 일신하게 되였다. 이런 기초 우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전국 농촌 상점 판매액은 26%나 장성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의 구매력의 장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종전에 도시 상업망으로 이동하던 농촌 구매력의 일부가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의 증대로 농촌 현지에서 흡수된 것과도 관련된다. 농촌 상점 판매 상품 중 라지오는 8.7 배, 시계는 3.4 배, 재봉기는 2 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점차 도시 주민의 수준에로 끌어 올리기 위한 우리 당의 깊은 배려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리 하여 사회주의 농촌 경리 발전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가 군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여 가고 있다.

군은 오늘 농촌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군의 교육 기관들을 통하여 농촌 간부들이 훌륭히 양성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일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군의 문화 기관들과 보건 시설들을 통하여 농촌의 전반적인 문화 위생 사업이 개진되고 있다. 도시의 선진적인 문화와 생활 풍습을 농촌에 보급하는 중심지로서 군 소재지들이 문화적으로 꾸려지고 있으며 농촌 건설대에 의한 군 소재지와 농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군의 종합적 발전을 위하여 군내 여러 부문들 간의 련계를 강화하는 면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

원래 일정한 지역적 단위에서 부문간의 련계가 어떤 형태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된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이에 대하여 앞으로 낡은 분업이 소멸되며 공업의 과도한 도시 집중이 없어지면서 공업과 농업이 결합될 것이라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우리 당은 현시기 우리 나라 생산력 발전과 관리 수준을 타산하는 한편 농촌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의 방대한 과업을 고려하여 농업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내왔으며 군 지방 공업 경영 위원회로 하여금 군내 지방 공업 발전을 조직 지도하게 하였다. 한편 군당 위원회의 통일적 지도가 실현되고 군 인민 회의가 군 계획을 비준하고 또 정권 기관으로서의 군 인민 위원회가 군내 모든 부문에 대한 자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문간의 련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우리 당은 또다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 체계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군에 있어서도 계획 사업과 군내 부문 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군의 종합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하였다. 군 계획 위원회는 년간, 분기별 계획 작성과 월 전투 계획 작성을 통하여 군내의 부문 간의 련계를 맞물려 주고 있다.

우리 당은 군당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령도적 기능을 강화해 왔다. 군당 위원회들은 군 앞에 나서고 있는 과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군 간부 대렬의 질적 구성을 높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또한 군당 위원회들은 농촌 경리 발전과 농촌 문화 건설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높이고 있으며 당 사업과 정치 사업을 조직 진행하면서 농촌 사상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있다. 이리 하여 군당 위원회는 더욱 심화되여 가는 농촌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3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군의 강화 발전은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 간에는 기술, 문화, 사상 면에서 아직 적지 않은 차이가 남아 있다. 이러한 사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지표로 되는 로동자, 농민의 1 인 당 생산액 대비에서 농민이 아직 로동자의 절반 밖에는 생산하지 못 하고 있다. 1960년도 초에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를 현지 지도하면서 당시 우리 나라 농민들이 1 인 당 생산액에서 로동자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였다. 그 후 수년 간 로동자, 농민의 1 인 당 생산액이 각각 장성하였고 그 비률 관계도 변동되였으나 지금도 농민이 로동자의 대체로 절반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군의 강화와 그 역할의 제고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러한 차이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군 자체가 앞으로 단일 소유에 기초한 공급 기지로 전변되여 갈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을 단위로 생산에서의 사회화 수준이 높아지고 거기서 소유 관계, 교환, 분배의 형태들에서의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발전 전망을 예견하고 단일 소유의 형성 후에도 계속 군이 공급 기지로 남게 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 하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가 해결되여 가는 과정에서 군 내의 공업과 농업이 더욱 발전하면서 군과 군 간의 차이가 점차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소멸되여 가면서 군들의 호상 관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과정으로 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지방과 지방 간의 발전 상의 차이는 다 같이 자본주의가 남겨 놓은 유물이며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은 산간 지대의 군을 발전시키며 토대가 약한 협동 농장들을 추켜 세울 데 대한 체계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왔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관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 생산의 단위는 변화될 수 있는바 이 면에서도 군 단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 나

따 농업 생산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따라 협동 농장은 리 단위로 통합되였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군 내의 농업 생산의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통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조직적인 기능을 높이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없어져 가는 과정에서 생산 단위들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군의 생산 조직자적 기능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군은 통일적 지도의 단위이며 기본 생산 단위는 협동 농장이다. 김 일성 동지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에서 앞으로 일정한 기간 협동 농장이 독립 채산제로 남아 있으면서 군 경영 위원회가 독립 채산제로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을 예견하였다.

군 내의 각 부문들에 대한 지도 체계가 자체의 우월성을 나타내면서 강화 발전하고 있다.

우리 당은 생산력과 관리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이것에 적응하게 지역적 단위에서 부문 간의 련계와 지도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당은 리, 군에서 여러 부문들 간의 합리적인 련계와 결합의 형태를 실현하는 데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끝으로 도시, 농촌 간의 차이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전국적 류통에서의 군의 위치, 군을 중심으로 하는 교환 관계가 변화한다. **《사회주의 건설이 전진하면 할수록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는 더욱더 밀접하여지며 따라서 이 련계를 지어 주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제고되여야 한다》**(해제).

우리 당은 각이한 통로를 통한 도시와 농촌, 지방과 지방 간의 교류와 경제적 련계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군의 발전—이것은 로동 계급이 혁명적 영향을 농촌에 들여 보내며 농민과 함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이다.

세기적으로 못 살고 천대 받던 농민들을 이끌어 공산주의를 향해 간다는 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임적이고도 영광스러운 과업이다.

김 일성 동지는 1962년 2월 해주 지구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회의에서 농촌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일'군들이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할 것을 교시하면서 **《자기 앞에 나서고 있는 혁명 과업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 과업이 어느 단위에서보다도 직접적으로 군 앞에 나서고 있다. 군 앞에 제기된 당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계속 혁신해야 한다. 지도 일'군들이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하고 군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기관들을 잘 꾸리고 대중을 잘 교양하여 조직 동원함으로써만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공장 대학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김　　종　　항

우리 나라의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에 새로운 형태의 대학인 공장 대학이 창설된 후 5 년이 경과하였다.

공장 대학은 우리 당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의 실천적 경험을 종합하고 맑스-레닌주의적 교육 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창조한 우월한 교육 형태이다.

사회 생활에서 온갖 새것이 그러한 바와 같이 공장 대학도 그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실제 행정에서, 생활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힘과 우월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 주었다.

오늘에 와서 사람들은 교육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를 청산하고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 공장 대학의 우월성을 더 잘 알게 되였으며 그 전망을 명백히 내다 보고 있다.

실로 공장 대학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인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 있다.

공장 대학을 내옴으로써 우리는 더 유능한 인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 간부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공장 대학을 창설한 당과 김 일성 동지의 구상을 참답게 리해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

주권을 장악한 로동 계급이 혁명 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기술 간부 대렬을 가져야 한다.

민족 기술 간부의 강력한 부대를 가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사업도,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과거에 락후한 식민지였던 우리 나라에서 민족 기술 간부의 양성은 매우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우리는 기술 간부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함으로써만 조국을 부강하고 룡성한 나라로 전변시킬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부터 민족 간부

의 양성에 가장 큰 관심을 돌렸으며 이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가 노는 중요한 역할과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방 직후부터 그들을 포섭하고 근로 인민에게 복무하는 인테리로 개조하는 동시에 새로운 민족 간부를 양성하는 데 커다란 힘을 돌렸다.

당은 나라의 경제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뒤떨어진 처지에서 빨리 벗어 나기 위하여, 우리의 전진 속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민족 간부 특히 기술 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가렬한 전쟁 시기에 모든 난관과 애로를 무릅쓰고 민족 간부 양성 사업을 계속한 것은 당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당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과학 기술 간부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양성할 데 대한 문제를 절박하게 제기하고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을 취하였다.

민족 간부 양성 사업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중요한 방침은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이였다. 이 방침에 따라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모두다 과학의 기초에 대한 일반 지식과 함께 일정한 기술 지식을 소유하게 하는 기술 교육 체계가 수립되였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가 광범히 수립되여 수 많은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고 중등 및 고등 기술 교육을 받게 되였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창설된 공장 대학이다.

공장 대학은 《…**로동 계급 속에서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하며 교육과 생산, 리론과 실천을 가장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많은 핵심 로동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고 고등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생산과 기술의 발전은 더욱 촉진되고 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이와 같이 공장 대학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를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그의 가장 높은 형태로 출현한 새로운 대학이며 주권을 쥔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이 비단 생산의 담당자로 될 뿐만 아니라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전사로 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방침의 결실이다.

공장 대학의 창설은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을 생산의 기지로 뿐만 아니라 기술 인재 양성의 튼튼한 기지로 되게 하였다.

공장 대학은 우리 나라가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기에 들어 서고 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된 바로 그때에 우리 당이 공장, 기업소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 특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의 배치 정형과 근로자들의 전반적 기술 문화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내놓은 훌륭한 창조물이다.

공장 대학은 기술 인재에 대한 당면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로동 계급을 과학과 기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게 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 있다.

이미 공장 대학을 통하여 근 4,000 명의 기사가 배출되였으며 현재 1만 2,000 여 명에 달하는 로동자-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공장 대학이 창설된 후 5 년 간의 경험은 그것이 로동 계급을 기술, 문화, 사상의 모든 면에서 발전시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인간으로 준비시키는 데서도 많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육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인간으로 육성하는 방법으로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젊은 세대의 학습과 생산적 로동을 결합함이 없이는 미래 사회의 리상를 생각할 수 없다…

전반적 생산 로동를 전반적 교육과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생산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레닌 전집 제 2 권 제 2 분책, 327～328 페지).

공장 대학에서는 공장의 핵심 로동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고 고등 교육을 받고 있다.

공장 대학의 학생들은 직접 생산 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높은 기술 기능 수준과 풍부한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일반 과학 지식이다. 공장 대학은 바로 이 부족점을 보충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

공장 대학은 이와 같이 학생들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로동자 대중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을 높이는 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놀고 있다.

공장 대학생들이 배운 지식은 그들과 같이 일하고 사는 로동자 대중 속에 널리 보급되여 전체 성원들의 기술, 문화, 사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공장 대학이 비단 대학생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의 전반적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 중요한 작용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특히 공장 대학은 공장 내에서 기술 혁명 수행의 위력한 거점으로 되고 있다.

공장 대학은 그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배운 리론이 곧 작업장에서 활용되고 생산 활동에서 직접적 성과를 낳으며 습득한 리론은 실천에서 검증되고 공고화된다.

이리 하여 모든 공장 대학들은 기술 혁신 과제와 생산 계획의 수행을 책임져야 한다는 구호 하에 배운 지식을 실천에서 활용하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기술 혁명 수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놀고 있다.

공장 대학의 로동자-대학생들이 기술 혁명 수행에서 놀고 있는 혁신적 역할은 지난해 흥남 공업 대학과 송림 공업 대학에서 달성된 기술적 성과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964년 상반년 기간에 흥남 비료 공장에서는 311 건의 기술 혁신안이 생산에 도입되였는데 이 기술 혁신안들에 의하여 국가가 얻은 총 리익 금액 중 약 90 %가 공장 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기술 혁신안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1964

년 한 해 동안에 송림 공업 대학 학생들은 자동화 7 건, 기계화 16 건, 선진 기술 도입 73 건, 합리화 321 건 등 총 417 건의 기술 혁신안들을 제기하여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근 75만 원의 리익을 주었으며 15만 공수의 로력을 절약케 하는 성과를 올리였다.

특히 이 대학 교원, 학생들은 《강철 고지는 1,211 고지》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즉 수리 통계학에 의한 용광로 조업의 분석과 그 적용에 관한 문제, 풍온 풍압 파동을 근절하고 열풍 온도를 제고할 데 대한 문제 등에 관한 수 많은 연구 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여 수만 톤의 선철, 수천 톤의 강철을 더 생산하게 하고 많은 콕스를 절약케 하였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 공장 대학생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술 혁신안은 수천 건에 달하며 그것이 생산에 도입되여 나라의 기술 혁명과 생산력 발전에 준 리익은 매우 큰 것이였다. 이것은 공장 대학의 우월성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이미 실천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공장 대학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함으로써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고 우리 로동 계급의 기술, 문화, 사상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더 높이기 위한 과업의 해결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 *

공장 대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공장 대학의 위치, 학생들의 구성 상 특성에 부합되게 교수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교수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1960년에 있은 흥남 공업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들과의 담화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의 특성에 부합되게 공장 대학에서는 생산도 잘하고 학습도 잘 할 수 있게 하는 교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공장 대학의 교수 사업은 학생들이 과학과 기술의 최신 성과에 정통하고 그것을 실천 활동에서 능숙하게 적용할 줄 아는 리론 실천적으로 준비된 기술자들로 육성되도록 진행되는 것이 요구된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일반 대학에 비하여 학습 시간이 제한되여 있는 공장 대학의 특성과 또한 생산 현실에 밝으며 배우려는 의욕이 강한 공장 대학생들의 특성에 부합되게 강의 내용을 제때에 완전히 소화하도록 계발식 교수 방법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이 교수 방법을 더욱 연구 완성하며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방식 상학을 광범히 조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교원들은 학생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그들이 다루고 있는 기대의 구조, 성능, 생산 공정들을 잘 알고 교육 내용이 생산에 미치는 작용을 일상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교수 내용을 부단히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하급 학년 학생들에게는 일반 과목 리론 교수를 강화하며 점차 상급 학년에 올라 감에 따라 전공 과목에서 습득한 선진 과학 리론에 립각하여 연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

특히 공장 대학들에서는 교수 교양

의 내용을 우리 나라의 생동한 현실과 더욱 밀접히 결부시켜야 하며 학생들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의 해결에 철저히 복무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오늘 로동자-대학생들과 기술자-교원 호상간의 창조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기술 혁명 수행에서 공장 대학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면적 기술 혁신—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이 과업은 로동자-대학생들과 기사-교원들, 로동자와 공장의 모든 일'군들이 한명어리가 되여 추진시킬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공장 대학은 기술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체적 지혜와 힘을 남김 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공장 대학의 집체적 힘이 기술 혁명 수행에 저절로 동원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문제는 과학 리론적으로 준비되고 생산 현실에 밝은 공장 대학에 단합된 력량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대담하게 각종 형태로 되는 협동을 조직하며 면밀한 분공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기술자-교원들 속에서는 낮에는 기대 앞에서와 지하 막장에서 로동자-대학생들의 생산을 지도하며 밤에는 대학 강의실에서 그들에게 선진 기술 지식과 리론을 배워 주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 더 잘 알고 걸린 문제,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서는 장소와 시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토론하고 지체없이 해결해 나가는 기풍이 점차 수립되여 가고 있다.

이러한 기풍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기술자-교원은 생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 주며 로동자-대학생들은 걸린 문제를 지체없이 제기하여 서로 협조하고 합심하여 기술 혁신을 더욱 활발히 촉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장 대학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을 혁명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공장 대학의 교원들과 학생들을 더욱 혁명화하면 할수록 그들은 학습과 사업, 생산과 로동에서 더 높은 자각적 열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공장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우월성들을 충분히 발양시킬 것이다.

우선 교원들을 혁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지난 2월 고등 교육 성당 총회에서 한 교시에서 《교원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자를 육성할 수 없다》고 간곡히 말씀하였다.

교원들의 혁명성은 그들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모저모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교원들이 혁명성이 높고 기술 혁신에서나 학생들에 대한 교수 사업에서나 열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학업과 생산 활동에서 더 높은 책임성과 열성을 발휘하도록 고무할 것이다.

교원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항상 로동자들 속에 들어 가서 대중의 혁명성을 배우면서 동시에 그들을 도와 주며 학생 군중 속에서 이신작칙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은 학생들을 부단히 혁명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공장 대학 학생들을 모두다 난관을 맞받아 나가는 강의한 의지와 무궁무진한 창발력, 들끓는 혁명적 열정과 완강한 전개력을 가진 일'군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교원들과 학생들이 모두 혁명화될 때 공장 대학의 교수 사업에서는 더 큰 전변이 일어 날 것이며 기술 혁명 수행에도 더 잘 이바지할 것이며 로동 계급 속에서 기술 인재를 더 잘 육성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

공장 대학의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자면 성 및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장 대학에 대한 지도와 방조 사업을 일층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학생들이 일을 하면서 훌륭히 공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교수 교양 사업에 필요한 교육적 설비들과 시설들 특히 실험실을 잘 갖추어 주고 학습 시간과 통학 조건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돌려야 한다. 현실은 학습 조건이 훌륭히 보장된 대학들에서는 례외 없이 더 큰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공장 대학 졸업생들이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수행하도록 그들을 계통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특히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이 공장 대학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장당 위원회들은 공장 대학 교원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자질을 부단히 제고하며 교수 사업의 질을 보장함과 함께 교수 사업이 계획 대로 진척되도록 지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공장 대학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할 때 공장 대학은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은 참으로 생산의 거지일 뿐만 아니라 기술 인재 양성의 튼튼한 거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것이다.

직물 고지 점령은 경공업 부문의 중심 과업

림 계 철

오늘 우리 당은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 질을 짧은 시일 내에 선진적 수준에 올려 세우며 7 개년 계획에 예견된 직물 고지를 어김 없이 점령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직물 고지—이것은 직물에 대한 증대되는 인민 경제적 수요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것을 예견하는 매우 높은 고지이다. 이것은 비단 량적으로만 달성하자는 목표가 아니라 그 구성을 다양하게 하며 질 좋은 직물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것을 지향하는 목표이다.

당은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전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질 좋은 직물이 풍부히 차례지게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입는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려고 한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천을 더 많이 요구할 뿐 아니라 그것도 계절 별, 성 별, 년령 별, 직업 및 지대별 특성과 기호에 맞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상 직물 생산 목표를 량적으로 달성하는 것 만으로는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으며 직물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않고는 우리의 경공업이 당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당의 시책과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 인민들의 구매력은 최근 년간 급격히 증대되였으며 특히 농민들의 생활이 급속히 향상됨과 관련하여 직물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직물 고지의 점령은 날로 늘어 가는 인민들의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사회주의 제도에 상응한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7 개년 계획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미 우리 당은 경공업 특히 방직 공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입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도를 제시하였으며 직물 고지 점령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예견성 있게 마련해 주었다.

7 개년 계획의 첫 3 년 간에만 하여도 우리 당은 세계 1 등급의 2.8 비날론 공장을 건설한 데 뒤이어 청진 화학 섬유 공장의 개건 확장 공사와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의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튼튼한 섬유 원료 기지를 조성하였

오며 함흥 모방직 공장, 개성 방직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방직 공장의 건설과 개건 확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방대한 규모의 생산 능력을 새로 조성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또한 방직 공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일'군 양성과 과학 연구 사업의 발전에 두터운 배려를 돌려 준 결과 오늘 방직 공업은 높은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확고히 올라 서게 되였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 방직 공업은 오늘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질 좋은 직물을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경공업 부문 로동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한 새로운 예비와 가능성들을 적극 탐구 동원하여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 앙양을 이룩하고 있다.

평양 방직 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방직 공장들과 직물 공장들에서는 7 개년 계획에 예견된 강령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예비들이 탐구되여 이미 그 첫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평양 방직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주어진 원료를 더 잘 가공하여 실을 가늘게 뽑아 내여 올해에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급 직물을 짜낼 예비를 찾아 내고 결의를 실천하는 길에 들어 섰다. 함흥시 퇴조 직조 공장 로동자들은 지방 원료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설비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지난 4월 25일 현재로 상반년 계획을 넘쳐 완수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직물 고지 점령의 확고한 전망을 주고 있다. 문제는 경공업 부문의 모든 지도 일'군들이 지어진 조건과 로동자들의 앙양된 기세에 튼튼히 의거하여 탐구된 증산 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 잘 하고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도를 따라 세우는 데 있다.

계획화 사업, 생산 조직 사업과 보장 사업 등 모든 사업에서 지도 일'군들이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발양하며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면 대중의 열의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그들이 찾아 낸 생산의 잠재력은 남김 없이 실현될 것이며 직물 고지 점령에서 결정적인 승리가 이룩될 것이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사업에서 혁명가적 기풍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영예로운 과업을 기어코 수행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 조직을 빈틈없이 짜고 들어야 한다.

*　*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 조직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모든 생산 단위들과 매개 고리들에서 계획화 사업을 잘 하는 것이다.

면밀히 타산된 객관적이고 동원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첫 출발로 된다. 특히 직물 고지 점령에서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직물에 대한 수요는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그것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부단히 변화한다. 또한 직물 생산에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공에서 정밀성을 요하는 설비들과 다양한 소재들이 리용되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참가한다.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한 중요 예비는 바로 현존 설비를 잘 리용하고 원료를 제때에 보장하며 생산에 참가하는 복잡한 고리들을 잘 맞물리는 데 있다.

오늘 직물 생산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주민들의 질적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며 탐구된 증산 예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계획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물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장악하고 직물 구성별로 문양과 색갈도 다양하게 철에 따라 정확히 생산하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에 예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인민들의 수요를 일상적으로 연구하며 특히 그들의 기호, 취미 등을 세밀하게 타산하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잘 알자면 주민들의 생활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며 상품 류통 부문 일'군들과의 정상적인 련계를 통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한 계획화에서 이 고리가 잘 풀려야 7 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실생활에서 더 잘 구현될 수 있다.

당면하여 모든 단위의 지도 일'군들과 계획 일'군들 앞에는 월 계획, 분기 계획을 작성함에 앞서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를 충분히 연구하여 여러 가지 질 좋은 천들이 제때에 인민들의 손에 들어 가도록 철을 앞당겨 생산을 세밀하게 계획화하는 것이 중심적 과업으로 나선다.

수요에 맞게 제때에 옷감을 짜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 일'군들이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완전히 책임 지는 립장에 서서 높은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는 것은 객관적 요구에 맞는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이며 무진장한 생산 예비들을 정확히 계획에 반영하고 철저히 실행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만일 지도 일'군들이 손쉽게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의 생산과 량적 계획 수행에만 관심하고 질 좋은 천을 다양하게 생산할 데 대하여 주의를 적게 돌린다면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추가적 생산 예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방직 공업 부문 일'군들은 옷감 한 메터, 실 한 토리를 생산하여도 더 좋고 다양하게 만들며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탄탄하고 맵시 있는 옷감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예비를 찾아 내고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설비, 원료, 자재, 로력

등 생산 조건을 정확히 타산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지도 일'군들이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의 요구대로 직접 기업소와 생산 현장에 내려 가 생산자 대중과 함께 전투 계획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

특히 현시기 직물 생산 계획의 작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여야 할 문제는 각종 문양 설비, 부속품과 기묘품 생산 계획을 직물 생산 계획과 정확히 맞물리며 직물 가공에 필요한 염료와 보조약제의 생산과 공급을 선행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쟈카드, 도비 장치와 북, 바디, 잉아, 침류를 비롯한 일체 기묘품의 소요량을 전면적으로 타산하며 새로운 기묘품 생산 기지를 꾸리고 전문 생산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도처에 중소 화학 공장을 꾸리고 직물 가공에 필요한 각종 염료와 침투제, 고착제, 축염제, 완염제, 계면 활성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보조 약제들을 풍족하게 생산하도록 계획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산 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기술 준비, 자재 보장 및 제품 공급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련관시켜 철저히 맞물리는 원칙에서 계획화를 바로 하는 토대 우에서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를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 *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에서 중요한 조직 사업의 하나는 계획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 등 물질적 조건들을 정확히 보장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 집행하는 것이다.

전후 년간 방직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 방직 공업의 생산 설비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평양 방직 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중앙 공업 부문의 방직 기업소들에 조성된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직물의 3분의 2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설비 관리와 생산에 대한 조직 사업을 잘 하여 현재 방직 공업에 조성된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데 설비 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가 있다.

방직 공업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일'군들은 새로운 설비를 더 도입할 것을 타산하기 전에 현존 설비들을 더 잘 리용하는 데 선차적 력량을 돌려야 하며 필요한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에도 새 건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존 생산 면적을 잘 리용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 하여 정방기와 직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근 1~2년 내에 선진 수준에 끌어 올리며 현존 생산 면적의 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직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를 더 잘 보수 정비하고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며 방직 설비 부속품 전문 생산 공장과

방직 기업소의 공무 직장을 잘 꾸리고 추당 부속을 비롯한 부속품 가공에서 질을 높이며 이와 관련된 부문에서는 규격 소재들을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방직 설비들은 기구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다. 이런 조건에서 가공의 정밀도와 재질의 기술적 조건을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방기의 추당 부속은 1분 간에 1만 회전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높은 기술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으로 방직 부속품은 하나를 만들어도 정밀한 가공이 요구된다.

모든 방직 공장들에서는 설비 부속품을 보수에 선행시키고 주기에 따라 보수를 정확히 실시하며 설비 관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을 잘 함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며 특히 중요 설비인 정방기의 리용률은 9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는 사업과 함께 틀어 쥐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새로운 방직 능력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금년에는 함흥 모방직 공장의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년내로 완공하고 그의 생산을 시급히 정상화하며 구성, 청진, 개성, 원산 등지의 기존 방직 공장 확장 공사를 추진시키는 동시에 명년에는 새로 7만~8만 추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직 설비 생산 부문에서는 10만 추 증설에 필요한 일부 설비들과 부속품들을 제작하여야 하며 고도의 조직성과 기동적 련계,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제기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하여서는 그에 필요한 섬유 원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섬유 원료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직물 생산을 정상화하고 부단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생산 조직 사업의 하나이다.

원래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고 자연 기후적 조건이 면화 재배에 불리한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서 섬유 원료 문제는 방직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그 창설 초기부터 항상 첨예하게 제기된 문제의 하나였다.

우리 나라에서 방직 공업의 원료 문제 해결은 단순히 자연 섬유 원료 생산 기지를 확장하는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훨씬 벗어 나서 화학 섬유 원료를 기본으로 하는 방직 공업의 원료 구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방직 공업을 창설하는 초기부터 자립적 원료 기지를 창설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돌려 왔으며 특히 화학 섬유 원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리 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방직 공업은 튼튼한 자립적인 섬유 원료 기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화학 섬유의 인구 1인당 생산량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오늘 방직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높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섬유 원료 문제의 원만한 해결

이 계속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사실 상 오늘 직물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문제는 섬유 원료의 해결 여부에 적지 않게 의존되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초보적인 타산에 의하더라도 많이 내세운 직물 생산 목표를 달성하자면 약 10만 톤의 섬유 원료가 필요하다.

우리는 필요한 섬유 원료를 대부분 국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이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켜 온 화학 섬유 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2.8 비날론 공장과 청진 및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들에서 화학 섬유의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1967년에 가서 생산 능력을 7만 톤 수준에 도달시키는 데 계속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 나이론 섬유와 니트론 섬유의 생산도 조직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적지 적작의 원칙에서 면화와 아마 재배 면적을 더욱 확장하며 단위 당 수확고를 높이며 뽕밭 면적을 전망적으로 조성한 데 기초하여 양잠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누에고치의 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

원료 문제 해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체의 원료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절약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지방 공업 부문에서 자체의 섬유 원료 기지를 확대하면서 노박덩굴을 비롯한 야생 섬유를 더 많이 동원 리용하며 고포, 가위'밥 등 재생 섬유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섬유 원료의 실수률을 높이며 절약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방직 공업 부문에서 원료의 실수률을 1% 높이는 것은 500만 메터의 직물을 짤 수 있는 원료를 더 얻어 내는 것과 같다.

모든 방직 공업 기업소들에서는 공정 손실을 극력 축감시키며 찌끼를 남김 없이 재생 리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기술 관리 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설비 관리를 잘 하고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방적사의 생산에서 고번수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방적사의 평균 방출 번수를 1 번수만 높인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주어진 원료를 가지고 700만 메터 이상의 직물을 더 짤 수 있는 셈을 얻게 된다.

지도 일'군들은 이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고 고번수 방출을 위한 투쟁에 로동자, 기술자들을 조직 동원할 뿐 아니라 한 그람의 솜, 한 오리의 실이라도 극력 아껴 쓰는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섬유 원료의 실수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주어진 원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이 부문의 모든 생산자들이 최대한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도록 정치 사업을 부단

히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로동 행정 사업과 후방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아는 것처럼 방직 공업 부문에서는 기본 생산 활동의 거의 대부분이 녀성 로동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것은 방직 공업 부문에서의 로동 행정, 후방 공급 사업 등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인민 경제 부문보다 더욱 중요한 사업이며 세심한 부문에까지 주의를 돌려야 할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녀성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더 잘하며 그들의 특성에 맞게 로동 행정 사업,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오늘 우리 일'군들이 녀성들의 사회 진출이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오늘 녀성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보장하고 그들이 마음 놓고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여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는 문제는 단순히 당면한 로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데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녀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 보장하고 로동 조건을 원만히 해결해 주는 것은 그들이 생산 활동을 통하여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의 사상 정치적 수준을 더욱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들은 녀성들이 로동자들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경공업 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방직 공업 부문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잘 하는가와 많이 관련된다.

따라서 이 부문의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제 해결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철저히 인식하고 로동 행정, 후방 공급 사업 등을 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로력의 류동을 방지하고 고급 기능공을 고착시키며 핵심 로동자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로동 조직을 바로 해야 한다.

간접 로력과 비생산 로력을 축소하여 기본 생산 부문의 비중을 높이며 작업반의 편성에서 가정 부인과 처녀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며 특히 다년간 공장에 근무한 가정 부인 숙련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을 자기 직종에 고착시켜 기능공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여야 한다.

로동자들 속에서 기술 학습과 기능 전습 체계를 확립하여 무기능공은 기능공으로, 기능공은 고급 기능공으로, 고급 기능공은 기수, 기사로 육성하며 로동자들과 기술자들과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발명 및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을 계속 광범히 전개하는 것은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방직 공업 부문 일'군들은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부단히 제고하는 데 가장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핵심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항상 천리마 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와 함께 지도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주택 조건과 통근 상 편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이 안착되여 일할 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휴게실, 개별 위생실을 비롯한 후생 시설들을 잘 꾸리고 정상적인 관리 운영에 대하여 책임 지고 보살펴야 한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후방 공급 사업은 중요한 정치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 사업에 항상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특히 가정을 가진 녀성들에게 생활 상 편리하도록 식량 공급, 부식물 공급 및 연료 공급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문화 봉사 시설을 더 잘 꾸려 그들이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세심히 돌보아야 할 것이다.

*　　　*

당이 경공업 부문 앞에 제기한 직물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실로 영예롭고도 방대한 과업이다.

직물 고지 점령의 성과 여부는 군중의 창조적 지혜와 열성에 튼튼히 의거하여 지휘관들이 능숙하게 지휘하는가 못 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모든 단위들과 매개 초소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 관리 지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고 우에서 아래를 실속 있게 도와 주며 현장에서 이신작칙하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 주는 혁명적 사업 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 들고 제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 목표를 기어이 완수하며 직물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주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자.

궁지에 빠진 미제의 동남 아세아 정책

고 순 일

동남 아세아, 바로 이 지역에서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들과 민족적 독립과 자유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한 혁명 력량 간의 투쟁이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 보다도 치렬히 전개되고 있다.

격렬한 투쟁으로 새 날이 밝는 이 지역에서 인민들의 혁명적 각성은 비상히 높아 지고 있으며 미제의 침략 정책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동남 아세아는 현시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기타 지역과 함께 미 제국주의자들의 검은 마수를 꺾어 버리는 격렬한 전투장으로 되고 있다.

미 상원 군사 위원회 위원장 리챠드 러쎌은 《나는 우리가 현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 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자신의 립장을 평가할 때가 왔다》고 비명을 울렸으며 영국의 한 부르죠아 출판물은 미제가 《범의 잔등에 올라 앉아 그대로 타고 있기도 난처하고 뛰여 내리기도 곤난한 처지》에 있다고 비난하였다.

사실 상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 《십자포화》에 걸려 녹아 나고 있으며 절망적인 운명에 놓여 있다.

* *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후 이 지역에서 줄곧 실시하여 온 신식민주의 정책과 무력 간섭 정책은 오늘 밑뿌리 채 뒤흔들리고 있으며 전면적인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미제 침략자들이 당하고 있는 군사 전략적 패배에 의하여 설명된다.

동남 아세아에서 미제의 군사적 패배, 이것은 이 지역에서 그들의 침략 정책이 궁지에 빠지고 있는 주되는 내용이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 특히는 남부 웰남에서의 《특수 전쟁》을 《세계 전략》의 주요한 일환으로 간주하면서 그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압살하고 웰남 민주 공화국과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한 전략적 《지탱점》을 구축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는 《경험》을 얻으려고 망상하였다.

이러한 야망으로부터 백악관의 관리들과 펜타곤의 장군들은 온갖 전략과 전술을 바꾸어 가면서 막대한 자금과 군사력을 동원하여 남부 웰남에서 류혈적인 살륙 전쟁을 감행하여 왔다.

미제는 자기들의 《최신 기술》과 압도적인 병력에 의하여 손쉽게 이 지역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던 것이다.

그러나 1961년 봄부터 18개월 이내에 남부 웰남을 《평정》할 것을 예견했던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을 비롯한 전략적 및 전술적 계획들이 영웅적인 남부

웰남 인민 무장대의 투쟁에 의하여 어떻게 파탄되고 말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제는 이 기간에 이른바 《특수 전쟁》에서 척저한 남부 웰남 인민 무장력에 의하여 4,366 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34만 1,000여 명의 군사 인원, 2,079 대의 비행기, 1,000 척의 군함 및 무장 선박, 5만 3,800 정의 각종 무기, 2,200여 대의 군용 차량과 150여 대의 차량을 손실 당하였다.

남부 웰남 인민 무장력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이미 남부 웰남 령토의 4분의 3 이상과 1,000만 이상의 주민이 해방되였으며 해방군은 농촌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산간 지대에서 평원 지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반미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있다.

남부 웰남 해방군과 유격대의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괴뢰군의 사기가 대대적으로 저락되여 염전 사상이 더욱 농후해지고 있으며 인민의 편으로 의거해 오는 수가 날마다 격증되고 있다.

지난 4 년 간에 탈출하였거나 해체된 괴뢰군의 수는 15만 명에 달하며 작년 첫 4 개월 간에는 그 수가 6만 명에 달하였다. 적수 공권으로 투쟁에 궐기했던 남부 웰남 해방군이 오늘과 같이 강대한 무기로 장비하게 된 데는 남부 웰남 괴뢰군의 무기 《공급》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부 웰남 괴뢰군이 무능력한 군대로 되여 더는 그들에게 의거할 수 없게 된 지금에 와서 미제는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배후로부터 더욱더 전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리 하여 오늘 남부 웰남에서의 《특수 전쟁》은 사실상 미군과 남부 웰남 인민들 간의 전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패배와 인민 대중으로부터 미제와 반동 괴뢰들이 고립됨으로써 남부 웰남 괴뢰 정권은 극도의 정치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식민지 통치의 지주로 되고 있는 괴뢰 정권이 와해 직전에 처하게 되여 남부 웰남에서 미제의 정치적 지반은 극히 약화되고 있다.

미제의 주구였던 느고 딘 디엠 형제가 그의 상전에 의하여 비극적인 종말을 고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부 웰남에서는 무려 10여 차의 군사 정변이 일어 났는바 이것은 사실 상 남부 웰남에 《안정된 정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 타임스》지가 남부 웰남 정계의 혼란에 대하여 미국은 《기록이라도 해 놓지 않고는 누가 들어 앉고 누가 물러 났는지 분간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남부 웰남에 지탱할 만한 《안정된 정부》가 없는 이상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특수 전쟁》을 계속하기는 극히 곤난하며 이러한 사태는 그들의 군사적 패배를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제는 남부 웰남에서 뿐만 아니라 라오스에서도 군사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미제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으며 미국의 《원조》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괴뢰들은 풍전 등화의 처지에 있으며 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여 있다. 이 지역에서 력량 관계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도구인 《말레이시아》를 분쇄하기 위한 인

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강력히 전개되고 있으며 미제의 군사, 정치적 공갈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캄보쟈 인민들의 투쟁도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 이 지역에서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반미 투쟁은 하나의 강력한 전선을 이루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미 제국주의자들을 헤여 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에 의한 미제의 패배는 《그 민족들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놀랄만한 기술과 군사 기술을 투쟁에 리용하는 구라파의 압박자들의 위력이 아무리 불패의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피압박 민족들이 수행하는 혁명 전쟁은, 그것이 수백만 근로자들과 피착취자들을 실지로 각성만 시킨다면, 동방 각 민족의 해방을 현재 실지로 완전히 실현시킬 그러한 가능성과 기적을 내포하고 있》(레닌 전집 제 30권, 172 폐지)다는 레닌의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증하여 주고 있다.

동남 아세아에서 미제의 군사적 패배는 이 지역에서 그들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킴으로써 식민지 리권을 위한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미제의 동남 아세아 정책을 둘러 싼 미국과 프랑스 간의 전면적인 충돌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이 지역에서 옛지위를 회복해 보려고 망상하고 있는 프랑스는 미제의 동남 아세아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섬으로써 동남 아세아에서 미제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는 《미국은 동남 아세아에서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제 2 전선은 프랑스와 진행하는 침묵리의 진정한 전쟁인데 공산당과의 전쟁과 같이 격렬하다》고 하였으며 서부 베를린 신문 《텔레그라프》까지 《드 골의 중립화 제의는 미국을 후면으로 습격한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동남 아세아에서 미제의 군사적 패배가 더욱 명백하게 되고 《동맹국》들에서 그들의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 미제가 이 지역에서의 침략적 공간으로 간주해 오던 세아토는 내부 모순과 의견 충돌로 하여 와해 상태에 빠지고 있다. 지난 5월 런던에서 진행된 세아토 각료 리사회 회의도 《동맹국》들의 의견 대립으로 보조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파키스탄은 세아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을 더욱 큰 곤경에로 몰아 넣었다.

이러한 추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는바 미국의 온화한 《안식처》로 되여 오던 필리핀에서까지 반미 기운은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반미 투쟁의 선풍이 일어 나고 있으며 남부 윁남에 《지원병》을 파견할 데 대한 미국의 요구가 필리핀의 광범한 사회계의 규탄을 받고 있다.

이것은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진보적 인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맹국》들에서까지 고립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적 지위가 《동맹국》들에서 더욱더 뒤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군사 정치적 패배와 함께 미제의 경제 및 사상 문화 침투 정책이 이 지역 정부들과 인민들로부터 단호히 배격당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원조》를 미끼로 신생 독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 있으

며 온갖 퇴폐적인 사상 문화를 류포시키며 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는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주고 다른 손으로는 우리의 등에 칼을 찌르는 이러한 정부(미국)로부터 과연 우리가 원조를 받아야 하겠는가?…미국의 〈원조〉는 진짜 아편이다…자살 행위와 다름 없는 치욕적인 해결책인 〈원조〉의 재개를 결코 요구하지 않겠다…이러한 조치로 하여 우리는 더 가난해질 수 있으나 더 자립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 《원조》의 침략적 본질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미국인 소유 석유 회사의 생산 시설과 고무 재배원 등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고 부대 조건이 붙는 미국의 《원조》를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각성된 동남 아세아 민족 국가들에서 미국 영화 상영과 미국의 방송 청취를 금지하였고 침략의 길잡이들인 《평화군》이 축출 당하고 있으며 사상 문화 침투의 소굴인 미국 《공보원》이 폐쇄 당하고 있다.

특히 유엔에서의 인도네시아의 탈퇴, 캄보쟈 정부의 미국과의 외교 관계 단절은 미제의 어떠한 책동도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동남 아세아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동남 아세아에서 미제의 전쟁 확대 책동이 로골화되고 그들의 침략적 본질이 더욱더 드러남에 따라 미국 인민들 속에서도 통치 계급들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의 동남 아세아 정책이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있으며 그들이 이 지역에서 진퇴 량난의 궁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동남 아세아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처지는 미국 지배층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으며 그들의 위기를 가일층 심화시키고 있다.

동남 아세아에서 미제의 군사 전략이 전면적으로 파산됨으로써 세계 제패를 위한 그들의 《기본 전략》은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전쟁 이후 특히 《전면적 핵 전쟁》과 《국부 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특수 전쟁》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여 왔다. 그리 하여 《특수 전쟁》은 사실 상 그들의 《기본 전략》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여 왔다.

그러나 남부 웰남의 《특수 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심대한 패배를 당함으로써 그들의 《기본 전략》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군사 전략적 패배와 함께 그들의 신식민주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파탄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제의 지반은 더욱 축소되고 있으며 그들의 식민지 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여 가고 있다.

실로 동남 아세아에서의 사태 발전은 미제가 이 지역에서 종국적으로 쫓겨나게 될 날이 가까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배층들이 동남 아세아에서의 사태 발전에 대하여 그처럼 불안해 하고 있으며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다.

동남 아세아에서 미제의 이러한 처지는 그들이 다년간 이 지역에서 감행

해 온 침략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동남 아세아에서 미제가 다년간 감행해 온 침략 정책은 이 지역에서의 민족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총칼로 피압박 인민들을 위협하며 식민지 통치를 강요하는 조건에서 미제와 이 지역 인민들 간의 모순은 상용할 수 없는 첨예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투쟁이 어느 정도 성숙된 형태에서 또 어느 정도 첨예하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모순의 심각성과 함께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력량의 준비 정도와 적지 않게 관련되는 것이다.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의 첨예성과 함께 그 모순의 해결을 위한 주체적 력량들이 준비되여 있지 않다면 성숙된 투쟁에 대해서, 더구나 투쟁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바로 동남 아세아에는 이 혁명 투쟁을 감당할 만한 주체적 력량이 충분히 준비되여 있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9년간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웰남 인민과 화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서부 이리안을 해방한 인도네시아 인민을 비롯하여 풍부한 투쟁 경험을 가진 혁명적 인민들이 있으며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세련된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들이 있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에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지니고 있는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오직 무장 투쟁을 포함한 온갖 형태의 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부 웰남 인민들은 《노예로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이라는 구호 하에 한 사람 같이 일떠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처럼 용감하게 싸우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한꺼번에 열 개의 제국주의가 덤벼 들어도 그것을 분쇄하고야 말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이 지역에서 혁명과 반혁명, 진보와 반동 간의 력량 관계는 혁명의 편에, 인민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결코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떠서 싸우는 동남 아세아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혁명적 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으며 결국 오늘과 같은 궁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오늘 동남 아세아에서 정세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그들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가일층 심화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참패를 만회하고 궁지로부터 벗어 나기 위하여 더욱더 모험적인 정책에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무력을 증파하여 이 지역에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방법으로 민족 국가들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신생 독립 국가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자주, 자립의 지향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있은 존슨의 동남 아세아에 관한 정책 연설과 그에 뒤이어 호노룰루에서 진행된 미국 호전 장군들의 전략 회담은 이를 잘 말하여 준다.

미 국방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휠러, 남부 웰남 주재 미국 대사 테일러, 극동 담당 미 국무 차관 윌리암 번디 등 악명 높은 호전 장군들이 모여 이른바 전략 회담을 벌여 놓고 남부 웰남에 미군을 증파하고 괴뢰군을 대폭 증가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는 자기들의 《우세한》 군사력으로 동남 아세

아 인민들을 위협하며 굴복시켜 보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제는 《평화 공세》를 대대적으로 취하고 있는바 지난 4월 9일 존슨은 월남 사태와 관련하여 그 무슨 《무조건 협상》을 내걸면서 《동남 아세아 개발》을 위하여 10억 딸라를 제공하겠다는 등 새로운 궤변을 꾸며 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사기적 행위이며 《평화》의 감언리설로써 세계 사회 여론을 오도하고 외교적 주도권을 장악하여 동남 아세아에서의 침략 전쟁을 합법화하며 몇 푼의 딸라로 이 지역 인민들을 매수하려는 기만 술책이다.

이와 함께 미제는 동남 아세아 민족 국가들을 위협하고 그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반미 투쟁을 약화시키며 질식시켜 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체 《원조》를 단절하였고 《말레이시아》에 더 많은 군사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인도네시아를 반대하는 데로 내몰고 있으며 캄보쟈의 《자유 크메르》 분자들을 사촉하여 캄보쟈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소동을 부단히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떤 모험적인 군사 정책으로써도, 그 어떤 기만 술책으로써도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동남 아세아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으며 이 지역에서의 궁지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총칼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을 위협하고 피 묻은 딸라로 강도적 요구를 흥정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결코 미 제국주의자들와 전쟁 공갈 정책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더러운 딸라에 매수 당하지 않을 것이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날이 갈수록 각성하고 있으며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하고 있다.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는 더욱 유리하게, 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더욱더 불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의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이 더욱 앙양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광범한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이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동맹국》들로부터도 더욱더 고립되여 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인민들의 반제 투쟁은 더욱 앙양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동남 아세아에서 계속 침략책동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더욱더 헤여나올 수 없는 깊은 궁지에 빠지게 될 것이며 만회할 수 없는 참패를 당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동남 아세아에서의 궁지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길은 이 지역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중지하고 자기 군대와 전쟁 수단 그리고 일체 침략 수단을 걷어 가지고 돌아 가는 길 뿐이다.

근 로 자 제 11 호(루계 273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6월 3일 발 행 • 1965년 6월 5일

ㄱ—530306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6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5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2 호 (274)
1965년 6월 (하)

차 례

당 정책 관철에서 혁명가적 기풍을 발양하자

오늘 우리 당은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인민의 살림살이와 국토 관리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과학적 령도 방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이후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성, 군들뿐만 아니라 지방 당, 정권 기관, 경제 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분야를 포함한 전 전선에서 앙양을 일으키며,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도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물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하여 왔으며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서는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순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문제들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반드시 새로운 전변을 가져 와야 한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가 현명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명백한 방향과 그 수행 방도들이 제시되여 있는 조건에서 이 문제들의 성과적 해결 여부는 우리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 기풍을 발양하는가 못 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일'군들의 혁명가적 기풍을 높이는 것은 당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성과 있게 관철할 수 있게 하는 관건적 고리로 된다.

우리는 당이 제기한 모든 정책을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 기풍을 높이 발양함으로써 현시기 당이 강조하고 있는 문제들을 성과 있게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시기에 들어 섰다. 우리 앞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할 일이 태산 같이 쌓여 있으며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이 연거퍼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일'군들이 당이 제기하는 모든 정책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어느 하나도 빠짐 없이 호상 맞물려 철저히 관철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로부터 내려 오는 많은 과업들과 자체 내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성 있게 해결하여야 할 지방 일'군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당이 매개 부문, 매개 단위, 매개 지방에 제시하고 있는 모든 방침들은 례외 없이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되여야 할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들이다.

당의 방침들은 호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련관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을 이루고 있다. 당의 방침들을 호상 련결시켜 철저히 관철하지 않고 어느 한 문제만을 집행하려 한다면 자기 분야에 제기된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도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없다.

당의 정책과 방침들을 어느 하나도 빠짐 없이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하여야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관철하는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 기풍이 섰다고 말할 수 있다.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당이 제기한 매개 방침들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모든 방침들을 호상 련관시켜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의 정책적 요구들을 매개 문제의 과거와 현재, 전망을 대비하면서 그리고 모든 문제를 호상 련결시켜 연구하여야만 당이 매개 방침을 통하여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당의 방침들이 어떻게 련결되여 있고 서로 작용하는가를 정확히 리해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며 례외 없이 견지되여야 할 태도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도 농촌 경리 위원회 등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들과 지방 공업, 건설, 계획화 사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방 경제 지도 기관들을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당의 방침도 바로 인민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방침들과의 유기적 련관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를 비롯한 지방 경제의 전문적인 지도 기관들을 창설하고 그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당의 요구는 생산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 장비 수준이 부단히 높아지는 조건에서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만일 지방 경제 지도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와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를 떼여서 생각한다면 지방 주권 기관들의 기능을 높여 지방의 전반적 경제, 문화 건설을 순조롭게 진척시키는 사업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것을 비롯한 인민 위원회들의 본신 임무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 건설에 녀성들을 인입할 데 대한 당의 방침도 전 사회의 혁명화, 로동 계급화 문제와 련관시켜 파악하여야 하며 녀성들을 로동 계급의 대렬에 인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각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적 혁명 운동으로 보

아야 한다. 이렇지 못할 때는 녀성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할 데 대한 당의 깊은 의도를 실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당이 제기하는 모든 방침들을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밀접히 련결시켜 폭 넓게 연구하여야만 현 단계에서 이런 요구가 제기된 까닭은 어데 있으며 이것이 당의 다른 정책적 요구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똑똑히 알고 정확히 관철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일'군들이 당 정책을 전반적으로 료해하지 못 할 때는 당이 한 발'자국 밀면 한 발'자국 나가고 두 발'자국 밀면 두 발'자국 나가고 이 쪽을 밀면 저 쪽이 삐뚤어지고 저 쪽을 밀면 이 쪽이 삐뚤어지는 것과 같은 편향을 범하게 된다**고 가르친바 있다.

당이 매 시기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앞에 구체적인 문제들과 그의 명확한 수행 방도까지를 제시해 준다는 것은 결코 우리 일'군들이 머리를 쓰지 않고 기계적으로 사업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당이 제시한 모든 방침들을 호상 밀접히 결합시키고 이미 집행하고 있던 문제와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을 잘 련결시켜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하여야만 당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다.

례컨대 당은 매개 생산 단위들 앞에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과 함께 로동 안전 및 로동 보호 사업, 군중 문화 사업 등을 개선 강화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개 단위들에서는 응당 생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로동 안전 및 로동 보호 사업, 군중 문화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전면적으로, 끝까지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생산을 강조하면 로동 안전 및 로동 보호 사업을 돌보지 않으며 로력 관리 문제를 제기하면 군중 문화 사업을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은 편향을 범하게 된다.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호도 반단함이 없이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립장에 서야 한다.

우리 당이 제기한 로선과 정책들을 관철하는 과정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당 정책의 관철은 필연적으로 낡은 것과 새것과의 투쟁을 동반하게 되며 장기간에 걸친 인내성 있는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당 정책은 어떠한 애로와 난관 앞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와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에 의하여서만 훌륭히 관철될 수 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에 착수하는 사람들의 사상적 준비가 첫째 가는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당 정책을 관철하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 인민을 더 잘 살게 하자는 데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이 일단 정권을 잡은 이상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 지며 그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체계적으로 항상 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우리 일'군들이 모든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이 궁극적 목

적을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완강히 밀고 나가는 강의한 정신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못 해 낼 일이 없을 것이다.

국토를 관리하며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주며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문제들을 례로 들어 보자. 이것들은 모두 우리 당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직접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다. 당은 이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 있게 추진시키고 인민 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키며 조국의 강산도 더 아름다운 락원으로 전변시키려고 한다.

당의 이러한 의도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기어이 해결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는다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나게 될 것이다. 만일 일'군들이 하면 하고 말면 마는 태도로 당 정책을 대한다면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들조차 원만히 실현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당원들, 특히 도, 시, 군 간부들이 당 정책을 실정에 맞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애를 쓰면서 일해야 한다. 하면 하고 말면 마는 태도로 혁명에 참가하는 눅거리 공산주의자가 돼서는 싸움을 못한다».

일'군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아득바득 노력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심이 생기고 혁명적 기백이 샘 솟아 나게 되며 방법도 풀려 나가게 될 것이다.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방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상적으로 접수한 기초 우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따라 세워야 한다.

당 정책은 일반적 호소나 강조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속 있는 조직 사업이 안받침될 때에만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될 수 있다.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비중을 동일하게 보고 그것들을 단꺼번에 실현하려고 력량을 여기 저기에 분산시켜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선후차와 경중을 가리고 중심 고리를 찾아 내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면서 기타의 모든 문제들도 이와 결합시켜 해결하여야만 당 정책은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될 수 있다.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 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조직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 일단 시작한 일이 끝장날 때까지 끌고 나가야 한다.

당이 제기하는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 나가야만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주관적 각오도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들은 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포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의 실행 과정을 수시로 총화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해결함으로써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제 아무리 세밀히 타산하여 포치한 사업도 그의 집행 과정에서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는 만큼 부단히 재료해, 재포치하지 않는다면 시작한 일을 훌륭히 결속 지을 수 없게 된다.

료해—포치—재료해—재포치, 조직 사업은 이렇게 끊임 없이 반복되면서 심화되여 나가야 한다.

더 많은 기름과 채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피마주, 해바라기, 역삼 등의 재배 면적을 확장하며 사철 채소를 떨구지 말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현하는 사업도 바로 그러하다. 이 모든 사업은 해당 시기의 수요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유지 작물과 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의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성 있게 해결해 주면서 용의주도하고 인내성 있게 끌고 나가야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사상적으로 접수할 뿐만 아니라 조직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킴으로써 당이 제기하는 모든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 정책 관철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함에 있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일체의 지도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는 군중 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 방법이며 사업 체계이다. 이 사업 방법과 사업 체계는 주관주의를 극복함이 없이는 관철될 수 없다.

주관주의는 모든 문제를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과 상론하여 해결할 대신에 개인 독단과 소총명에 사로잡혀 주관적 의사를 내려 먹임으로써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의 관철을 저애한다.

우리는 지도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당 정책을 정확히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찾아 낼 수 있다.

우리 당은 항상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광범한 군중의 의견에 기초하여 자기의 정책과 로선을 작성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매 시기 사회주의 건설의 매개 부문 앞에 제기하는 구체적 방침들이 례외 없이 가장 과학적인 로선, 정책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그 자체가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방도들도 철저하게 과학적인 것으로 될 것을 요구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방도들이 객관 현실과 군중의 의사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의 로선과 정책도 자기의 생활력을 발휘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고도로 째여지고 조직화된 사회이다. 여기에서는 엄격한 타산과 과학적인 결론에 의거하여 모든 문

제를 처리할 것이 요구된다. 주관주의적 사고 방식에 기초한 비과학적인 낡은 사업 방법으로써는 이 사회를 정확히 운영해 나갈 수 없으며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이 제기하는 정책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방도들은 우선 해당 단위의 실정과 조건에 딱 맞아야 한다.

현실은 전국적 범위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매개 단위마다 그의 실정과 조건이 각이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기후 풍토를 놓고 보아도 이것은 지방마다, 골짜기마다, 지어는 한 포전에서도 구역마다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농작물의 품종을 배치하고 경종법을 도입함에 있어서 지대적 조건과 농민들의 전통적 경험을 무시하고 선진적인 것이라 하여 그것을 일률적으로 내려 먹인다면 주관주의적 오유를 면할 수 없다.

물론 새로운 과학 기술과 선진 경험들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신중한 시험 단계를 거쳐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증하고 대중이 그의 우월성을 파악했을 때 도입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당의 모든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해당 단위의 구체적 실정과 조건을 고려함이 없이 그 어떤 《유일 처방》을 기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한다면 그를 위한 정확한 방도를 도저히 찾아 낼 수 없으며 그것을 정확히 실현할 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방도는 또한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타산하고 분석한 데 기초하여 수립되여야 한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는 만큼 어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그 문제만을 절대화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의 련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 내야 한다.

그러므로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는 응당 전국적 리익과 국부적 리익, 큰 리익과 작은 리익, 전망적 리익과 당면한 리익, 다른 부문의 리익과 그 부문의 리익을 밀접히 결부시켜 타산한 데 기초하여 수립되여야만 과학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한편에만 치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주관주의를 범할 수 있다.

례컨대 산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동시에 다른 사업들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들과 련관시키지 않고 눈 앞의 리익만 보고 잘못 추진시킬 때는 국가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산을 발가벗기면 홍수에 사태를 일으켜 하상(河床)을 높이게 되고 하상이 높아지면 평야 지대의 옥토를 침수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우리는 오직 지도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모든 문제를 해당 단위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구체화하며 객관 현실과 사물의 련관 법칙을 정확히 타산한 데 근거하여 과학적인 실현 방도를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할 수 있다.

당 정책 관철에서 주관주의는 커다란 해독을 끼친다. 이것은 크고 작은 강물의 원천이 샘(泉)인 것과 같이 관료주의, 형식주의, 보수주의, 공명주의 등 일체의 그릇된 사업 태도와 작풍을 낳는 근원으로 된다.

《주관주의자들은 객관적 현실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의 주관만 내려 먹이기 때문에 결국 관료주의를 범하게 된다》(김 일성,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그리 하여 주관주의, 관료주의는 당 정책을 외곡 집행하고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마비시키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당 정책 관철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객관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하여야 한다.

현실을 료해하지 않고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김 일성 동지는 가르치였다.

우리는 당이 제기한 모든 방침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의상적으로 현실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분석하며 거기에서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찾아 내여 그의 집행 방도를 세워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 속에서 검증하고 보충 완성함으로써 과학적인 결론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 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지도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현실과 대중의 준비 정도에 맞는 과학적인 방도를 찾고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다.

당 정책 관철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지도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현실에 정통하여 있으며 생동하고 창조적인 풍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근로자 대중이다. 근로자 대중 속에 들어 가 당 정책과 당의 의도를 철저히 침투시켜 그들의 창조적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만 문제 해결의 정확한 열'쇠를 찾아 낼 수 있다.

과학적인 방침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키는 동시에 대중의 광범한 의견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대중이 당의 의도를 파악하기만 하면 그들 속에서는 무수한 창발적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다. 대중 속에서 나온 의견들은 그 절대 다수가 가치 있고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과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군중의 의견 가운데서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가려 내고 집체적 협의를 거쳐 그것을 종합하며 그에 기초하여 방침을 세우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였다: **《생동하고 창조적인 지혜는 군중 속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물론 처음에는 단편적이고 불충분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제때에 포착하여 집체적 협의를 통해서 보충하고 체계화할 임무가 당 일'군들에게 부과되여 있다》**(《강서군 당 사업 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우리는 대중의 광범한 의견에 기초하여 정확한 방침을 세우는 동시에 지체없이 그것을 대중 속에 침투시켜 대중 자신이 자각적으로 발동되여 철저히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어떠한 편향도 범함이 없이 당 정책을 성과 있게 관철하여야 한다.

당 정책 관철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여야 하며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급속히 제고시켜야 한다.

일'군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주관주의를 낳는 중요한 근원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군중의 위대성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군중과 토의하여 해결하는 문제도, 사물과 현상을 변증법적으로 고찰하는 문제도 다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주관주의를 없앨 데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사물과 현상을 변증법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사물과 현상에 대한 유물 변증법적 관점과 방법이 확립되여야만 주관주의는 성과 있게 극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에서 이러저러한 오유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군중 속에 들어 가 철저하게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할 뿐만 아니라 당 생활과 실천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을 부단히 단련하는 동시에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을 소유하며 당 정책의 본질을 체득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할 수 있으며 언제 어데서나 확신을 가지고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끝까지 관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우리 앞에는 금년도 계획과 7 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함으로써 전반적 국내외 혁명 정세의 요구에 상응하게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조성된 정세와 우리 앞에 제기된 이 과업은 모든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이 긴장된 태세를 계속 견지하며 혁명을 하는 시대에 맞게 일하며 살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직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 기풍을 철저히 확립할 때에라야만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성을 더욱 높이고 자기 앞에 제기된 모든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어 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을 계속 견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 위업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과 외화 문제

리 주 연

오늘 우리 나라의 국내외 사정은 국가 관리에 참가하는 일'군들에게 외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릴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는 국가의 장성하는 외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은 무역 일'군들과 수출품을 생산 수송하는 일'군들 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앞에 제기한 과업인 것이다. 외화 문제는 나라의 살림살이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광범한 군중의 관심 하에 있어야 한다.

외화란 대외 경제 관계에서 일반적 구매 및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외국 돈을 말한다. 오늘 세계에는 크고 작은, 사회 제도와 발전 정도가 서로 다른 근 200 개의 나라가 있다. 따라서 외화의 종류도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세계 시장의 신세적 형성 발전의 결과로 루블과 몇 개의 자본주의 국가 화폐가 많이 통용되고 있다.

신생 독립 국가들은 무역과 대외 활동에서 외화를 쓰지 않을 수 없고 외화를 수입할 길은 넓지 못한 까닭에 외화 문제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제의 소위 원조의 올가미에 걸려 들기 쉬운 원인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주로 외화 부족에 있다. 신식민주의는 신생 독립 국가들의 외화 부족을 혹심하게 만들고 그 약점을 도로 리용하는 악랄한 수법을 쓴다. 자본주의 길, 중립주의 길을 걷는 적지 않은 나라들은 제국주의 독점들의 심한 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출은 억제되고 수출품 가격은 저락되고 잉여 상품 투매가 강요됨으로써 외화 바란스는 상시 역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만성적인 《외화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 그들은 자력 갱생의 길만이 정확한 길인 것을 깨닫고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대렬에 들어 서게 된다.

박 정희 도당은 민족 경제의 파탄과 미제 《원조》의 후과로 심한 《딸라 기근》에 봉착하여 《수출이냐 죽음이냐》하고 절망적인 비명을 올리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외화 벌이 딸라를 얻어 먹으려고 역적의 길을 서슴지 않고 걷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단한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면서 민족 경제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과 대외 활동에 소요되는 외화 예비를 충분히 축적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에 외화 문제 해결에서 철저한 자주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자기 활동에 필요한 외화를 보장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취하였다. 우리는 외화 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국

가의 외화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외화는 주로 무역 부문에서 수입되며 무역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외화 문제를 말하면서 무역 문제를 주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무역은 국가 인민 경제 계획의 일 부분인 수출, 수입 계획에 의하여 진행된다. 우리의 외화 지출 계획에는 상품 및 일식 설비 수입비, 각종 대외 활동비, 재일 동포 교육비, 각종 국제 부담금, 외국에 지불하는 운임 통신비, 차관 상환액 등 모든 외화 지출이 포함된다.

우리의 국가 생활에서는 외화를 쓰는 기관도 많고 외화를 쓰는 용도도 많다.

외화 수지 바란스도 국내 자금 바란스와 같이 수입은 좀 더하고 지출은 좀 적게 함으로써만 공고히 보장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외화 문제에 대하여 응당한 리해를 가지고 응당한 노력을 할 때에 나라의 외화 사정은 펴워 나가며 외화 바란스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모든 부문 일'군들은 자기가 외화를 쓰는가 안 쓰는가, 많이 쓰는가 적게 쓰는가, 절약하는가 랑비하는가를 일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외화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국가의 주인인 근로자들 전체가 다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 *

외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 당이 견지하여 온 원칙은 **《자력 갱생을 위주로 하고 외부의 지지 성원은 부차적인 것》**(김 일성)으로 하는 원칙이다.

우리의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에서 매개 민족 경제가 강화되고 정치적 독립이 공고화될 때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도 강화될 것이다.

사실 상 어떠한 나라도 동떨어진 섬에서 혼자 경제를 건설하는 나라는 없다. 오늘 매개 민족 시장이 세계 시장과 련결되여 있는 조건에서 경제 발전의 필연성은 나라들 간의 유무 상통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은 수입하고 여유 있는 것은 수출하여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수입한 물자들은 국내 원천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건설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라 안에 있는 부원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민족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탄력 있는 외화 정책을 실시하여 자기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여유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평등한 기초 우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를 강화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나라에 얽매여서 자주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우리의 발전 속도를 높이며 외화를 지불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 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무역의 국가 독점은 적들의 소위 원조의 올가미와 민족 시장의 교란과 민족 경제의 파괴를 방어하는 공고한 수단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였다: 《우리는 국가들 간의 경제 협조를 반대하거나 문을 닫아 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경제 협조>와 <국제 분업>을 구실로 하여 다른 나라 경제의 자립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억제하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들의 경제를 자기에게 얽어 매려는 대국주의적 경향이다. 우리는 매개 나라가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우에서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들 간의 경제 협조를 부단히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다》 (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우리 인민은 자립 경제 건설과 경제 협조를 옳게 결합함으로써 남에게 의존하거나 부담을 지움이 없이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온 나라가 재'더미였던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도 어디까지나 자력을 위주로 하였다.

자립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새로운 제품이 계속 생산되여 나라의 수출 규모는 계속 장성되고 대외 시장도 확대되였다. 1964년에 우리 나라의 수출액은 1956년에 비하여 3 배로 장성되였으며 무역 대상 국가는 70여 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에 적으나마 경제적 원조를 주고 있다.

우리가 만약 자주적인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 수출하는 많은 제품들을 수출하기는 고사하고 아마 그 대부분을 오늘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였을 것이다.

우리 인민의 힘과 내부 자원에 의거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고 필요한 외화를 자기 힘으로 보장하는 자주적 정책과 그 경험은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은 반제 투쟁을 전개하면서 종전에 자기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우리 나라와 같은 나라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주 독립을 수호하는 모범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 거래를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는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통상 협정에 의하여 무역 관계를 맺고 무역 대표들을 교환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이 나라들 간의 무역은 호상 리익의 원칙에서 발전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고객으로 될 수 있으며 우리도 그들과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일부 자본주의 국가 상사들은 호상 유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공장 일식'설비들을 우리에게 납입하고 있다. 몇몇 소위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은 과잉 생산품을 처리할 자기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무역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미제의 소위 경제 봉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명백히 보여 준다.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소위 봉쇄 정책이 우리의 발전을 저지시키기는커녕 도리여 우리들의 자력 갱생 정신을 더 공고히 해주었으며 우리 경제의 종합적인 공업화를 촉진시켰다. 우리의 수출품도

다양하게 되였으며 무역액도 높아졌고 상대국도 많아졌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들의 수출 무역 확대는 훌륭한 반제 투쟁이라고 말씀하셨다.

지난 3월에 캄보쟈의 수도 프놈뻰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 수출 상품 전람회는 대외적으로 조직된 첫 전람회였으나 캄보쟈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자립 경제를 건설한 천리마 조선의 경제력에 대한 높은 찬양이였으며 량국 인민들 간의 공고한 친선과 협조에 대한 열렬한 념원이였다.

* *

오늘 우리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인 7 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다. 우리들은 7 개년 계획의 완수를 위한 외화의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나라의 경제가 발전되고 국제 활동이 활발하게 될수록 외화를 쓸 일은 많아질 것이며 외화를 수입할 길도 더욱 광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콕스탄, 연유, 생고무, 목화, 양모, 원피, 사탕, 식물성 기름, 주석, 망간 광석, 린회석 등을 수입하여야 하며 일부 계기, 시약, 의약품, 정밀 기계, 대형 기계들을 사와야 하며 현대적 공장 설비들 및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얻은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인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지 원조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그들을 원조하는 데 지출되는 외화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여야 한다.

외화를 쓸 일은 참으로 많으며, 수출품 생산자들과 무역 일'군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근로자들은 국가의 무역 활동을 돕기 위하여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당의 대외 정책에 확고히 립각하여 수출을 몇 개 나라에 편중시키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동남 아세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발전시키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산업은 대외 시장의 수요에 상응하게 수출품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산업은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복무하면서 광범한 나라들과 호상 유리하게 거래를 발전시키는 데 복무한다.

외화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법은 외화를 더 수입하는 것이며, 외화를 더 수입할 수 있는 조건들은 조성되였다. 문제는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도 다른 사업에서와 같이 광범한 군중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야 한다. 정치 사업은 모든 사업에서 첫 공정이다. 특히 수출품은 다양하고 국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 농촌, 어촌과 관계가 있으며 수출품의 설계, 생산, 검사, 포장, 출하, 수송에 이르기까지 환절이 복잡하며 한 개 환절에서 잘못되면 국가의 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까닭에 전체 근로자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근로자

들이 수출품 생산과 무역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정치 사업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수출품이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게끔 자각적으로 노력하도록 되여야 한다.

외화의 용도, 수출이 가지는 의의, 수출품 질 제고의 필요성, 대외 계약의 존엄성들을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수출 계획을 완수하게 하여야 한다. 최근 함흥 전기 기구 공장에서의 정치 사업 경험은 우리들을 고무해 준다.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궐기한 이 공장 로동자들은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60여 종의 전기 조작 기구를 새로 생산하고 계속 생산을,확대하고 있다. 대중이 우리 당의 호소를 마음으로 접수하고 궐기할 때 못할 일은 없으며 궐기하는 것을 막을 힘도 없다. 어느 나라에는 무엇을 수출하고 어느 나라로부터는 무엇을 왜 수입하는가, 우리 수출품과 외국 수출품이 어떤 점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최근 세계 경제와 세계 시장의 요구는 어떤가 등에 대하여 생산자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래야 수출품의 질 제고와 수입품의 애호 절약 운동에 군중적 기초가 생기며 문제는 풀려 나올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수출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발전 속도에 있어서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 앞서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대외 무역의 장성 속도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 도처에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자원이 풍부히 있다.

수출 원천을 동원하는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업 부문에서는 중소 광산과 기존 광산들을 개발 확장하여 철광석, 동, 연, 중석 기타 여러 가지 유색 금속, 희유 금속 광물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며 새로운 원천을 탐구하여야 한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강재들의 종류와 규격을 다종 다양하게 하며 내산 내열 내마모강을 더 많이 생산하고 강재의 질을 높여야 한다.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공작 기계, 전기 기계, 공구류 등의 품종을 확대하고 가볍고 견고하고 능률이 높고 보기 좋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해야 하며 선진 과학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여야 한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각종 섬유 제품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 문화용품의 품종을 확대하여 새로 수출을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성진 제강소와 같은 대규모 수출품 생산 기지 뿐만 아니라 신의주 타올 공장과 같은 중소 규모의 수출품 생산 기지를 많이 꾸려야 한다.

앞으로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수출품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게 될 때 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대 중 소 규모의 수출품 생산 기지는 전국 도처에 창설될 것이다. 공업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여야 수출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수출 잎담배와 과실 생산에 힘을 넣는 한편. 약초, 모피, 축산 부산물, 토산품 등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개 농장, 매개 리, 기관, 학교, 도시 인민반들에서는 이미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 수세미 오이, 역삼, 해바라기, 피마주 등의 생산 과제를 완수할 것이다. 지난해에 잎담배를 21 정보에서 정당 2톤 300키로 그람씩 수확하여 수출한 함북도 유선군 유선읍 협동 농장, 역삼 씨를 1,000여 톤이나 수매하여 수출한 혜산시 수매 사업소, 약초를 심고 토끼를 쳐서 얻은 수입으로 전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마련해 준 평남도 룡강군 옥도 중학교 등의 사업 경험은 일'군들이 짜고 들어 노력하면 어떤 기관, 기업소에서도 다 외화를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본가들의 무역에서는 합법적 사기와 부등가 교환이 특징적이다. 현대 노예주들인 국제 독점들은 무역을 통하여 남의 나라 경제를 잠식 파멸시키며 남의 나라 인민들을 착취 지배하려고 음흉하고 집요하게 시도한다.

사회주의 무역은 사회 제도의 우월성으로 하여 두터운 신용과 정당한 거래와 호상 협조, 진정한 평등 호혜의 원칙이 특징적이다.

무역에서 국가 간의 신의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은 그것을 말 그대로 존중한다. 본의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남을 해치고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꾸밀 의사가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무역의 절대 부분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이다. 청산 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무역에 대하여 말한다면 량국 정부 간에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량국 상사들 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쌍방에는 약정된 물자를 어김 없이 납입하고 대금을 어김 없이 청산할 국제적 의무가 발생한다. 만일 어느 일방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상대방에 손해를 끼치게 되며 나라의 대외적 신의는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남과 약속한 물자에 대하여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정된 품질, 규격, 수량, 납기 등을 절대로 어길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무역 규율을 준수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가 주자고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꼭 주어야 하며 또 주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어야 한다…무역에서 신용을 잃고 우리 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537 페지).

우리 당은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며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고 우선적으로 수송할 데 대하여 계속 강조한다. 무역은 대외 관계이기 때문에 국내 관계와는 다르다. 국내의 수요 공급자 간에는 직접 독촉 추궁할 수도 있고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기집 칩의할 수도 있으나 무역에서는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이 어김 없이 리행될 것으로 서로 믿고 먼 거리에서 각자 사업을 조직하는 까닭에 계약 의무 리행은 절대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수출을 우선적으로 완수하여 신용을 서로 지킴으로써만 국가 간의 신의를 보장할 수 있다. 수천 수만 키로메터의 원거리에 있는 외국의 수요자들 즉 우리의 고객들이 제때에 우리의 수출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출품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수출 계획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강하고 훌륭한 규률을 확립해야 한다.

수출품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수

출품 원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들, 협동 생산품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질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한다. 수출품의 품질을 부단히 제고하며 원가를 부단히 저하시켜 우수하고 값싼 제품을 국제 시장에 내보냄으로써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한다. 국제 시장에는 전통적으로 이름 높은 수출품이 많으며 심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수출품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품 전문 공장(직장, 작업반)을 잘 꾸리고 기능공들을 고착시키며 작업 기준량과 수출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정할 것이다. 우리의 몇 가지 수출품들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기술 경제적 대책이 강구되여야 한다. 흑연 진국과 같은 것이 그 례로 될 것이다.

또한 경쟁이 심한 국제 시장에서 모두 수출품은 상대국의 기호에 맞아야 하며 기후적 및 기타 조건에 적합한 질을 보장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수출품의 포장은 견고하고 문화성이 높아야 한다. 국제 려행사, 평양 상점, 외국 선박 대리 회사, 항 상점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봉사 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여 그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외화 절약은 외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외화를 적게 쓰는 것은 그 만큼 수입한 것과 같다.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수입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수입 대체품의 국내 생산을 극력 조직해야 하며 수입 자재의 소비 기준을 저하시키며 수입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부대비와 비무역 외화를 절약하여야 한다.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책임 일'군들이 직접 수입품 주문 사업을 틀어 쥐고 경중과 선후차를 가려 요긴한 물자를 주문하며 최신식 기계 설비와 과학 기술 성과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품 생산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넉넉히 국내에서 생산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손쉽게 얻기 위하여 외국에 주문하는 일이라든가 수입한 설비 기재를 잘 쓰지 못 하고 사장 랑비하는 일은 없애야 한다. 우리가 현재 수입하는 상품들의 품종은 너무 많다. 나라의 공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수입 품종은 점차 적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중소 화학 공장, 제약 공장, 정밀 기계 공장, 의료 기구 공장, 악기 공장들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많은 물자들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수출할 수도 있다. 자기 부문이 무슨 수입품을 쓰는가, 국내품 생산을 조직할 수 없겠는가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오늘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은 훌륭한 애국자의 행동으로 될 것이다. 수입 자재들의 원단위 소비 기준을 계속 저하시키기 위하여 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야금 공장들에서는 국내단 배합, 원유 취입, 산소 도입 등으로 수입 콕스단을 극력 절약

해야 한다.

수입품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수입품의 검수 사업을 잘 조직하여 계약 내용과 어긋나는 물자가 입하되였을 경우에는 즉시로 해당 무역 기관에 제기하여 해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역품 수송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과 무역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송량은 증대되였으며 항로는 더욱 연장되였다. 1만 2,000 마일의 원거리에 있는 뽈스까의 그드냐항과 1만 마일 밖에 있는 아바나항 등 세계의 많은 항구들과 일상적으로 수송이 진행되고 있다. 나라의 관문들인 항구들을 물질 기술적으로 잘 꾸리며 상하선 작업을 기계화하며 항 기관들의 봉사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수송 기관은 수출입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오늘의 국제 정세와 대외 시장 형편은 우리의 무역 발전에 유리하게 되고 있다. 우리 나라 무역의 발전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것이며 나라의 외화 예비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와 무역 관계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날로 늘어 간다.

무역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따라서 외화 예비를 넉넉히 조성할 가능성도 많다.

훌륭한 목적과 휘황한 미래는 대중의 무진장한 정열과 창조력을 불러 일으킨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근로자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외화 고지 점령에 온갖 열성과 지혜를 다 바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들 속에서 심화 발전되고 있는 대중적 애국 운동

심 재 성

(1)

지난해에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은 7 개년 계획을 완수하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위대한 대중적·애국 운동의 거세찬 불'길을 일으켰다.

개성 기계 종합 공장 김 재렬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혁명의 승리를 추진하며 남반부 형제들을 구원하려는 열화 같은 심정에서 원쑤와 싸우다 쓰러진 남조선 애국 청년 리 윤식을 작업반 성원으로 등록하고 그가 다하지 못한 투쟁의 몫까지 더 일하며 더 생산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김 재렬 천리마 작업반원들의 이러한 애국적 발기는 우리 혁명의 장래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는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심장에 불씨를 뿌렸다. 그리 하여 이것은 삽시간에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퍼져 나가 전 사회적인 대중적 운동으로 타번져 갔다.

도처에서 우리의 로동 계급은 리 윤식, 김 주렬, 정 순덕 등의 애국 투사들을 자기 집단의 성원으로 등록하고 그들과 함께 살며 싸우는 마음으로 살고 일하면서 증산과 절약에, 기술 혁신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였다. 공장과 건설장에서, 지하 막장과 산판에서, 고기'배 우에서 사람들은 《통일호》, 《상봉호》 기대를 설정하였으며 《4.19》와 《6.3 봉기》의 이름을 가진 돌격대를 조직하였으며 남반부의 수백만 류랑 고아들과 실업자들, 병마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건지려는 심정으로 더 많은 천과 옷과 신발을 만들고 종이와 약품을 만드는 경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운동은 또한 농민들을 불러 일으켰으며 인테리들, 학생들, 인민반의 가정 부인들, 늙은이들에게까지 파급되였다.

운동은 그의 확대 과정에서 또한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반제 전사들을 지원하자는 운동과도 밀접히 결부되여 발전하였다.

그리 하여 온 북반부가 남녘 형제들을 구원하며 국제 혁명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들끓게 되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혁명 대오에서 싸우다가 돌아 간 선렬들의 몫을 위하여;

남녘 땅에서 적과 싸우다가 쓰러진 전우들의 몫을 위하여;

남에서 들어 온 사람들의 고향 친지들과

모든 이웃들의 몫을 위하여;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놈들에게 희생당한 애국자들의 몫을 위하여;

미제를 족치는 웰남의 형제들과 반제 전선에서 싸우는 모든 국제적 혁명 전사들의 몫을 위하여

더 일하고 더 만들고 더 아껴 쓸 것을 결의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

남녘 형제들을 잊지 않으며 돌아 간 혁명 선렬들과 공동의 투쟁 전선에 서 있는 전우들을 잊지 않는 우리 근로자들의 열렬한 애국심, 의리, 국제적 련대성이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려는 실제적인 몫으로서 산 표현을 보고 있다— 여기에 바로 이 애국 운동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발생과 발전은 오늘 우리 조국이 처한 내외 정세와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그 대로 반영하고 있다.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진지 20 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되고 있으며 특히 남녘땅 형제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되고 있다.

남녘의 겨레들을 하루 속히 건져 주려는 것은 북반부 인민들의 한결 같은 념원이며 막을 수 없는 동포애의 심정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발악은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 놈들은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남부 웰남의 형제들을 살륙하기 위한 대포'밥으로 내몰고 있으며 박 정희 매국 도당은 또 하나의 상전—일제—을 끌어 들이면서 나라를 2중의 식민지로 팔아 넘기고 있다.

현실은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 통일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지체함이 없이 전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재렬 천리마 작업반원들에 의하여 발기된 애국 운동이 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중의 심장을 틀어 쥐였고 료원의 불'길마냥 확대되여 나간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대중 자신의 절박한 념원을 자극하였기 때문이였다.

이리 하여 평도 계급의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 붉은 혁명 전사로서의 또 하나의 선구자적 운동의 발기자로 된 것이다.

이 운동은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우리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표현이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려는 그들의 혁명가적 자각의 새로운 구현이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전 과정에 걸쳐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높이며 혁명성을 배양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하여 왔다. 남녘땅 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사상은 오늘 우리 인민의 모든 행동과 생활을 꿰뚫고 있다. 김 재렬 천리마 작업반에서 시작된 대중적 애국 운동은 당의 이와 같은 사상 교양 사업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 도덕 생활에서 자라 온 혁명적 열정의 필연적 결실이다. 그들의 혁명가적 자각이 스스로 자신들의 새로운 천리마적 생활 방식을 창조한 것이다.

특히 혁명 전통 교양의 폭을 넓히며 대중 속에서 혁명가적 자각을 일층 높일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1961년 11월 7일 교시는 이 운동 발생의 직접적인 계기로 되였다. 당의 교양에 의하여 자신들

이 위대한 혁명 투쟁에 참가한 혁명가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상적인 생산 활동을 남반부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 투쟁과 직접 결부시키게 되였다.

운동의 확대 발전은 우리 혁명의 전진을 위하여 커다란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기술 혁명을 촉진하여 긴장된 7 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케 하는 힘찬 추동력으로 되며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인 북반부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추동력으로 된다.

사람들은 지금 이 운동을 통해서 조국 통일에 이바지하는 구체적인 몫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여 더욱 긍지를 가지고 힘과 지혜를 발휘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결의를 구체적인 기술 혁신과 결합시키고 있다. 낡은 기대를 갱신하며 몇 배나 더 능률이 높은 새 기계를 만들며 저마다 머리를 써서 도처에서 예비들을 찾아 내고 있으며 이 운동에 들어 선 첫 시기부터 계획 과제를 성과 있게 실행하고 있다. 운동의 초시기에 있어서 한 두 사람의 애국자들을 등록하고 그들의 몫을 더 하기 위하여 투쟁하던 집단들이 오늘은 사람마다 자기 전우의 몫을 따로 가지고 투쟁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이리 하여 이 운동은 오늘 1 인당 생산액을 2 배로 높일 데 대한 당'적 과업을 실현하는 투쟁과 결합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운동에 확고히 의거하며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긴절한 과업들을 실천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혁명 기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이것은 북반부를 희망의 상징으로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는 남반부의 혁명 투사들과 청년 학생들, 전체 남반부 형제들에게 더욱 큰 힘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줄 것이며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게 할 것이다.

이 운동은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각계 각층 군중을 당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 세우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이 자신을 혁명가의 위치에 놓고 사고하며 일하는 행정은 곧 공산주의자로서의 자각을 높이는 행정으로 된다. 우리 근로자들은 이미 대오에 없는 전우들과 전체 남녘 동포들의 몫을 더하려는 결의 밑에 증산 투쟁을 강화하면서 지난 시기 적지 않게 가지고 있던 개인주의, 리기주의적 잔재들을 극복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혁명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은 혁명 전통에 대한 학습에 더 열의를 높이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혁명가란 바로 어떻게 살며 싸우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 쓰고 있다. 이 모든 것으로 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나고 있으며 애국 운동은 계속 발전의 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국 운동은 또한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을 보여 준다.

이 운동이 발기하면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혁명가 유가족들과 남반부에서 들어 온 사람들을 더욱더 살뜰하게 돌

보아 주는 기풍이 서게 되였으며 그 사람들 자신은 또 그 사람들 대로 혁명가로서의 긍지와 자각을 높이면서 혁명을 위하여 더 일하려는 열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남반부에 가족과 친척, 친우들을 둔 사람들 속에서 혁명적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 정치 생활이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 속에서 더욱더 당을 믿고 당을 따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려는 각오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혁명가로서 서로 믿고 이끌면서 당의 주위에 굳게 뭉쳐 혁명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한결 같이 떨쳐 나서고 있다.

이리 하여 이 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 통일, 당과 대중과의 통일을 굳건히 하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힘찬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2)

오늘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 널리 전개되고 있는 애국 운동은 그것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대중적인 경쟁 운동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새로운 발전으로 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새로운 발전은 지난 시기 우리 혁명의 전진에 따라 그에 적응하게 부단히 발전하여 온 이 운동의 필연적 결과이며 그 결실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당의 천리마 총로선을 심장으로 받아 물고,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에 상응하게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살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 각오와 고상한 지향을 반영한 군중적인 혁신 운동이며 인간 개조의 훌륭한 학교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종전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과 구별되는 기본 특징은 그것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데 제 1 차적인 의의를 부여하면서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것을 통하여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데 있다.

당의 정확한 지도와 근로자들의 날로 앙양되는 정치적 열의에 의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계속 심화 발전되여 왔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발전의 초시기에는 인간 개조에 있어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것이 중심 과업으로 나서고 있었다.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는 새 사람들을 배출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시대의 요구에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였다. 낡은 생활 습성과 기풍은 새로운 생활 제도에 상응할 수 없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 방해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천리마 기수들이 집단적 생산, 기술 혁신 운동과 더불어 뒤떨어진 사람들의 교양 개조를 위하여 투쟁하는 데 주되는 힘을 돌린 것은 응당한 일이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이 공산주의적 구호가 바로 그들의 좌우명으로 되였다. 진 응원, 길 확신, 리 신자와 같은 훌륭한 공산주의 교양자들은 이러한 구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 뜨거운 심정과 사랑으로 뒤떨어진 사람

들을 이끌어 주고 그들이 심금을 울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개조하는 길에로 들어 서게 하였다. 이처럼 뒤떨어진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영예로운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대오에 들어 서게 하였으며 실천 투쟁 속에서 자신들을 새 사회의 주인공으로 단련 육성케 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인간 개조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된 것은 항일 빨찌산들의 생활적 모범과 천리마 기수들 자신의 이신작칙, 동지를 위해서라면 피와 살도 아끼지 않는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통한 감화였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발전의 길이 열려져 있고 서로 이끌어 주는 참된 인도주의가 구현된 우리 사회에서 인간 개조의 가장 힘 있는 방법으로 되였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의 이러한 성과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 앞에 나선 새로운 과업들은 이 운동을 더 전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모든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데로 나아갔다.

말썽'군들이 점차 개조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보다 자각적으로 떨쳐 나서게 된 조건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바로 사람들이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전면적인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사상 혁명 과업이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됨과 아울러 이에 적응하는 사람들을 키워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람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는 또한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에 적응한 새 형의 사람들을 부단히 키워야 할 요구로 보아도 중요한 것이였다.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높은 혁명적 자각과 고상한 도덕, 높은 기술 수준, 문화 수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되였다.

천리마 기수들은 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서나 근로자들의 전반적 수준 제고에 힘을 기울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대렬에서는 공산주의 교양과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이 강화되였으며 동시에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에 대한 학습이 강화되였다.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는 학습이 사람들 호상간에 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는 대중 자신의 군중적 운동으로 전환되였다. 우리의 천리마 기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준 제고의 뚜렷한 목표를 세워 주고 짜고 들어 교양하는 데로 사업을 심화시키였다.

이리 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과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공고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되게 하는 데로 나아갔으며 그들을 높은 문화 수준과 기술 수준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데로 나아갔다.

오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이와 같은 성과에 기초하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가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하는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행정에서, 특히 혁명 전

동 교양을 통하여 공산주의적 혁명 의식, 계급 의식을 높이는 행정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이 결코 단순한 기술-경제적 사업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의 계속이며 남반부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 기지를 닦는 심각한 혁명 투쟁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다.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가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한 혁명적 기풍을 가지게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물질적 성과로써 남반부를 해방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각오를 튼튼히 다지게 하고 있다.

남반부 형제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더 많은 몫의 일'감을 맡고 그것을 해내자는 애국 운동이 그렇게도 빨리 전국 각지를 휩쓴 것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모든 사정은 우리 인민의 혁명 의식, 정신 세계, 사상적 각오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새로운 경지에로 올라 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리 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람들이 혁명을 위하여 해야 할 바를 더 찾아 내고 그의 해결에로 심혈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모두가 자신을 더 자각적이고 혁명적인 인간으로 되게 하는 힘 있는 교양 방법으로 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이러한 발전은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동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데 있어서 이 운동이 노는 위대한 생활력을 더 한층 과시하여 준다.

(3)

오늘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적 애국 운동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전진시키는 행정을 통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비상히 높여 주고 있으며 그들을 천리마의 새로운 고조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 직맹 단체들 앞에는 이 운동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깨닫고 그것을 적극 지지하며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모든 대중 운동이 그러하듯이 이 운동도 그에 옳은 지도가 안받침되여야만 보다 훌륭한 결실을 가져 올 수 있다.

매개 단위에서 운동의 발전 과정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그리 하여 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알맞게 이 운동의 내용과 방법을 계속 풍부화하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운동은 대중 속에서 발기된 대중 자신의 운동인 것 만큼 이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대중 자신의 혁명적 자각을 더욱 높여 주며 그들을 혁명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로동 계급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전면적으로 극복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답게, 령도 계급답게 당성, 계급성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을 보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어디서나 요구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로동 계급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으로 무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혁명적 기백으로 들끓게 하는 것이다.

혁명 전통 교양의 폭을 넓히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1930 년대의 혁명 전통에 대한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 뿌리를 철저히 깨우쳐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더라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를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자기들 앞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끝까지 해 내고야 말겠다는 완강한 혁명적 투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30 년대의 투쟁 전통과 더불어 해방 후 그것을 이어받은 수 많은 선진 투사들, 로동자, 농민들이 민주주의 혁명 시기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쌓아 올린 업적들, 천리마 기수들이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쌓아 올린 혁명적 업적들과 산 모범들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도 혁명에 참가한 투사들이라는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근로자들 속에서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 처지와 남반부 정세를 계통적으로 해설 침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남조선을 해방하는 혁명 대오에 서 있다는 책임감을 더욱 높이게 하여야 하며 남조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렬한 혁명적 각오로 충만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재렬 2중 천리마 작업반에서는 작업반 성원들이 혁명가의 자각을 가지면서 모두가 선동원의 역할을 놀게 되였으며 그리 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인민반, 학교, 상점, 가두에 나가서 선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혁명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 행정에서 또한 선전 사업의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사람들의 혁명화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다. 혁명가의 중요한 징표는 바로 어디에 가나 사람들 속에서 혁명적 영향을 줄 줄 아는 것이며 교양 사업을 진행할 줄 아는 것이다. 애국 운동의 참가자들은 이 운동을 통하여 김 재렬 작업반의 천리마 기수들처럼 선동원의 수준에 올라 가야 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각종 군중 문화 수단들을 적극 동원하여 사람들의 교양에 목적 의식적으로 리용함으로써 그 명중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대중적 애국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 운동을 일시적인 깜빠니야 사업으로 되게 하거나 행정 실무적 사업으로 대치하지 말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자면 이 운동을 근로자들 속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교양, 전반적 기술 문화 수준 제고와 옳게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모든 단위에서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특히 로동 계급의 세계사적 사명을 철저히 깨닫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떠한 시련과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조국 통일 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의 승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나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직맹 조직들은 일정한 전망 계획

을 세우고 기술 학습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남반부를 해방하기 위한 념원에서 우선 자기 기대에 정통하고 무기능공은 기능공으로, 기능공은 고급 기능공으로, 기수는 기사로 모두가 짧은 기간 내에 한 등급씩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다방면에 걸친 과학 문화 지식을 가지도록 짜고 들어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성을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기술 문화 수준을 한 계단 높임으로써만 애국 운동을 항구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 혁명의 성과적 수행에 복무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 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 운동을 현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이 제기한 정책적 요구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로 철저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운동을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증산 투쟁을 구체적인 기술 혁신안과 밀접히 결부시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로력과 자재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평양 전선 공장에서는 통일된 후 개성과 서울, 인천, 부산 간 등 남조선 전역에 고압 송전선과 통신선, 군에서 리까지의 유선 방송선, 전화선 등을 가설해 주자는 결의 밑에 그 실현을 위하여 온 공장이 기술 혁신에 달라붙고 있다. 그리 하여 이미 고무 절연선 직장 선별 작업반에서는 《상봉호》 선별기를 수동체로부터 전동체로 기계화하였고 연신 직장의 연신 작업반에서는 복잡하고 정밀한 수백 종의 부속품이 드는 세심 연신기를 자체로 만들었으며 전력 통신선 직장에서는 아마사 권선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여 손로동을 없앴다. 결과에 이 공장에서는 생산 능률을 훨씬 높이면서도 종전에 비하여 제품의 질도 한결 높일 수 있게 되였다.

성흥 광산에서는 통일된 후 남반부의 구봉 광산을 현대 설비로 꾸며 줄 데 대한 결의를 다지고 그 결의의 실천을 위하여 매개 로동자들이 《구봉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피광을 수집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것이 작업반에서는 《구봉 함》 운동으로, 직장적으로는 《구봉 창고》 운동으로 확대되여 서로 막대한 예비를 찾아 내고 축적하는 사업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좋은 실례들은 어떤 공장, 기업소들에서나 다 찾아 볼 수 있다. 모범적인 운동들과 새싹들을 당'적 요구의 수준에서 일반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이 운동에 대한 총화 사업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 총화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고 그것을 일반화하기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며 새로운 모범 창조 운동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다. 경험은 전 공장, 기업소적으로는 한 개의 직장을, 직장적으로는 한 개의 작업반을, 작업반에서는 훌륭한 로동자를 전형으로 추켜 세워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의 모범을 일반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생산과 절약에

대한 결의 목표의 실행 정형을 단계 별로 총화하고 거기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아 내며 있을 수 있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 주면서 더 높은 생산과 절약 목표들을 부단히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망라된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짜고 들어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하며 실정에 적응한 개별 교양을 꾸준히 진행하며 매개 성원들과 작업반 단위로 면밀히 타산된 구체적인 투쟁 목표와 수행 방도들을 내세우고 분공을 조직하며 그 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공고화하면서 운동을 부단히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대중적 애국 운동을 통하여 각계 각층 군중을 교양 개조하며 당 주위에 묶어 세우는 데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야 한다.

지금 대중적 애국 운동을 통하여 특히 복잡한 계층의 사람들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적 열의가 비등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상적 단련과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생활력을 보여 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붉은 일색으로 꾸릴 데 대한 당의 방침과 교양 사업이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응당 이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북반부 혁명의 발전을 위해서 귀중할 뿐만 아니라 남반부 인민들을 우리 당 주위에 묶어 세움에 있어서, 또 조국이 통일된 후 남반부 근로자들을 개조함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문제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은 복잡한 계층들 속에서의 사상적 변화에 대하여 최대한의 주의를 돌리면서 사소한 무관심성이나 좌우경적 편향도 발로되지 않도록 제때에 시정 대책을 세워 주며 사람과의 사업을 보다 심중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 이것은 이 운동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대중의 비등된 혁명적 열의와 충천된 기세를 계속 견지하고 이 위대한 대중적 애국 운동을 가일층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7 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조국 통일을 더욱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의 전쟁 정책의 경제적 기초

리 종 섭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국내외에서 처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반대하는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더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그들은 최근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과 신생 독립 국가들을 반대하는 데 돌리고 있으며 노도와 같이 일어 나고 있는 아세아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막아 보려고 망상하면서 이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

미제는 지난 조선 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오늘 우리 조국 남반부를 의연히 강점하고 원자 및 유도 무기를 비롯한 각종 신형 무기들을 반입하여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각종 군사적 도발 책동을 끊임 없이 감행하고 있다.

특히 미제는 남부 웰남에서 당하고 있는 궁지로부터 벗어 나오기 위하여 《계단식 확대》 정책을 추구하면서 인도지나와 아세아 전 지역에 침략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만일 미제가 조선 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조선 전쟁에서 당한 패배보다 더욱더 만회할 수 없는 참패를 당할 것이며 그들은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불'길 속에서 타버리고야 말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은 바로 군사적 궤도에서 고도로 팽창된 경제의 군사화, 자체 팽창에 대한 독점 자본의 끝 없는 지향 그리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미증유의 발전에 그 경제적 기초를 두고 있다.

레닌은 일찌기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독점 자본의 《직할 사무소》로서 그들의 리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필연적 산물이며 그 어떤 개별적인 집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근원은 제국주의에 있으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 제국주의이다》(김 일성).

전쟁 정책, 그것은 미제가 존재하는 한 변화할 수 없는 속성으로 되고 있다.

*　　*

미제의 전쟁 정책은 고도로 팽창된 독점 자본의 지배 특히 군사적 궤도에서 극히 기형적으로 발전한 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 경제의 군사화가 가장 기형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이루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의 군사화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가일층의 심화와 국가 독점 자본주의 발전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성의 표현이다.

독점 자본가들은 첨예화되고 있는 생산과 시장 간의 모순을 해결하며 절망적인 경제 위기에 《환기》를 불어 넣기 위하여 인위적인 경기를 조성하는 데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 조치 즉 부단히 강화되는 경제의 군사화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에 더욱 파국적인 위기를 배태케 하며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성을 가일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미국 경제에서 군사화의 특징은 그것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데 있으며 군비 확장의 규모와 심도 그리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비상히 크다는 데 있다.

다음의 표는 미국의 국가 예산에서 군사비 지출이 얼마나 빨리 장성하였는가를 보여 준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 군사비 지출액과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회계년도	금 액 (백만 딸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회계년도	금 액 (백만 딸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1939	1,075	12.2	1956	40,723	61.5
1945	81,216	82.6	1957	43,360	62.9
1948	11,779	35.7	1958	44,234	62.0
1949	12,900	32.7	1959	46,491	57.9
1950	13,000	32.8	1960	45,691	59.7
1951	22,400	50.8	1961	47,494	58.3
1952	44,000	67.3	1962	51,103	58.2
1953	50,442	68.1	1963	52,755	57.0
1954	46,900	62.2	1964	△ 55,297	56.2
1955	40,695	63.2	1965	△ 53,979	55.1

※ △ = 추산 수자

미국 정부 당국이 발표한 우의 통계 자료(국방비 지출액)에는 국가 행정 예산 중의 《국방》 한 개 항목만이 들어 있고 기타 항목들에 내포되여 있는 은폐된 군사 관계비와 방대한 간접적 군사비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우의 표에서 군사비 지출의 일반적 추세를 엿볼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 의하더라도 제국주의로 이행하기 전인 1871년에 미국 련방 정부의 직접적 군사비 지출액은 5천523만 딸라(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18.8%), 2 차 대전 폭발 직전인 1939 회계 년도에 그것은 10억 7천 500만 딸라(예산의 12.2%)에 불과하였던 것이 2 차 대전을 계기로 급격히 팽창하여 1945 회계 년도에는 812억 딸라 이상(예산의

82.6%)에 달하였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 군사비 지출액은 2차 대전 후 방대한 전쟁 수요의 두절로 일시 축소되였으나 조선 전쟁을 계기로 또다시 급격히 팽창하여 1953 회계 년도에는 504억 딸라 이상(예산의 68.1%)에 달하였다.

조선 전쟁 이후 미국 정부의 국가 예산은 계속 전시 예산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비 지출은 더욱 증가하였다. 즉 조선 전쟁 기간에 미국 정부의 직접적 군사비 지출액은 년 평균 389억 딸라(예산의 58.6%)에 달하였던 것이 조선 전쟁 이후에는 년 평균 470억 딸라(예산의 64%)로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군사비의 절대액이 부단히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부문의 경제적 발전 정형과 대비하여 볼 때도 군사비 지출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50~1961년 간에 미국에서 국민 총생산은 83%, 국내 사자본 투자는 39%, 정부의 비군사적 지출은 141% 각각 증가하였는데 직접적 군사비 지출은 244%나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1961년 이후의 케네디-존슨 시기에 와서 직접적 군사비 지출액은 년 평균 533억 딸라로 더욱 팽창하여 조선 전쟁 기간보다도 년 평균 144억 딸라를 más가하였다. 이에 간접적 군사비를 포함하면 실로 년 평균 750억 딸라에 달하며 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80%를 초과하는데 이는 고도의 전시 예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절대 수'자에서 볼 때 현재 미국의 직접적 군사비 지출은 2차 대전 직후의 5배, 2차 대전 전의 50배에 달하며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전 직후의 2배, 대전 전의 7배 이상에 달한다.

미국에서의 군사비 팽창은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직접적 군사비 지출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으며 그 절대액은 기타의 7개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총 군사비 지출액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비 지출의 대폭적인 팽창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경제의 군사화를 급속도로 촉진시킨 중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고도로 군사화되고 있는 것은 또한 공업 생산이 군사비 지출에 크게 의존하면서 주요 공업 부문들이 모두 군사화되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이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1961년 1월에 미국은 이미 《하나의 대규모적이며 항구적인 군수 공업》을 건설하였다고 떠벌렸다. 아래의 도표는 미국에서 중요 공업 부문의 군수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 준다.

중요 공업 부문의 군수 생산에 대한 의존도

공업 부문별	총 생산고 중 군수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미국 (1958년)
원자 — 로케트	100%
비행기 및 부속품	94%
조선	61%
무전 및 통신 기계	38%
수송 기자재	38%
전기 기계	21%
정밀 기계	20%

군수품 생산에 대한 공업의 의존도는 그 후 더욱 제고되였는데 그것은 군사비 지출의 분배 내용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군사비 지출의 분배 내용의 변동

항 목	1950~1951 회계 년도		1959~1960 회계 년도	
	금액 (억 딸라)	%	금액 (억 딸라)	%
1. 활 동 비 용				
ㄱ. 군사 인원 비용	93	38.4	117	28.2
ㄴ. 활동 및 유지비	86	35.4	102	24.4
소 계	179	73.8	219	52.6
2. 국방 건설 지출				
ㄱ. 군수 공장 및 군사 시설 건설	6	2.4	17	4.0
ㄴ. 설 비				
무기 및 장비 구입비	48	20.0	147	35.4
군사 기술 연구 및 발전비	9	3.8	33	8.0
소 계	63	26.2	197	47.4
총 계	242	100.0	416	100.0

우의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군사비 지출에서 더욱더 많은 부분이 군수 공장과 비행장 신축 등의 군사적 건설, 무기 구입, 군사 기술 연구 및 발전 부문에 돌려지고 있다. 1951 회계 년도에는 이 부문에 대한 지출이 전체 군사비의 4 분의 1에 불과하였던 것이 1960 회계 년도에 와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비 지출이 무기 구입과 군수품 생산 부문에 더욱더 많은 비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원자-로케트와 같은 새로운 공업 부문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이미 미국에서 최대의 신흥 공업 부문을 이루고 있다.

현재 미국의 중공업 부문 총생산에서 군수품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 총생산의 4 분의 1 이상이 군사적 수요에 돌려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공업 생산에서 군수품 생산은 불가분리의 중요 구성 부문으로 되여 있으며 미국의 공업은 군수품 생산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여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 민간 생산국의 자료에 의하면 2 차 대전 기간에 미국에서 군수 공업에 대한 새로운 설비 투자액은 230억 딸라에 달하였는데 그 중에서 항공기 공업 등 《평화 시기에는 완전히 불필요한 설비》에 투자된 것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미국에서 공업 부문의 군사화는 과학 연구의 군사화와도 밀접히 련관되고 있다.

미국에서 과학 연구 부문에 투입되는 자금의 절대적 부분이 군사 부문에 돌려지고 있으며 과학 연구 부문의 군사화가 급속도로 촉진되고 있다. 미국에서 1960~1962년 간에 과학 연구 부문에 투입되는 자금 중 60%는 대륙간 탄도 로케트 제작에, 20%는 원거리 폭격

거 제작에 돌려졌다.

또한 매개 공업 부문에서 연구 및 발전 비용이 가장 많고 정부의 절대적인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문도 역시 군수 공업으로 되고 있다. 1959 회계 년도에 각 공업 부문에서 지출된 연구 및 발전 자금 중 정부가 지출한 자금은 57.4%에 달하였는바 그 중 비행기, 전기 기자재 및 운수 부문에 지출된 것이 55%를 차지하였다. 1962 회계 년도에 와서 미국 정부의 연구 및 발전비 지출액 중 90%가 국방총성과 원자력 위원회 및 항공 우주국의 3 개 부문에 돌려지면서 과학 연구 부문의 군사화는 더욱 촉진되였다.

군수 공업에 대한 정부 지출에서 연구 및 발전 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많은 과학자, 기술자의 취업도 군수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오늘 미국에서 전국 과학자, 기술자의 75%가 군수 공업 부문에 직접, 간접으로 종사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고도로 군사화되고 있는 것은 또한 로동자들의 취업 실태에도 반영되고 있다.

1962년에 미국에서 군수 생산과 직접 관련된 부문의 취업 로동자 수는 630만 명,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의 취업 로동자 수는 640만 명에 달하였는바 이 량자를 합한 로동자 수는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8.7%에 달하였다. 또한 1963 년에 미국 정부의 국방 관계 기관에 종사한 사무원 수는 련방 정부 각급 기관의 전체 사무원 수의 약 47%에 달하였다.

이렇듯 방대한 사회적 로력 인원이 군수 공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만약 군수 생산이 대폭 감소되여 대량적인 실업군이 추가적으로 조성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방대한 실업군이 있는 미국에서 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사회적 구매력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여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을 극도로 첨예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제반 사실은 미국에서 경제의 군사화가 급속도로 촉진되여 경제 구조에서 군사적 편파성과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서 군수 공업이 극히 중요한 중추 부문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에서 경제의 군사화는 경제 전반의 균형적 발전과 공업 부문 간의 유기적 련계를 파괴하고 군수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기형적 발전을 극도로 조장시킨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다.

1947~1955년 간에 미국에서 항공기 생산은 417% 장성하였으나 모직물 생산은 30%나 감소하였다. 최근 3 년 간에 전략적 핵 무기 생산은 150% 장성하였으나 선철 생산의 장성은 10%도 되지 못 하였다.

이와 같이 고도로 팽창한 군수 공업은 부단한 전쟁 소동과 군비 확장이 없이는 원만히 유지될 수 없다.

최대한의 리윤을 부단히 추구하는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가장 유리한 치부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군수 공업을 확사코 유지하기 위하여, 《황금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는 군수품 시장을 계속 확대하기 위하여 불가피적으로 전쟁 정책을 부단히 강화하는 길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 군수 독점체들은 군수 생산을

통하여 막대한 리윤을 획득하고 있는바 미국에서 일반 공업 회사들의 전반적인 평균 리윤률이 13.6%(1950년)였다면 군수 공업 회사들의 리윤률은 보통 50~100%, 그 중 원자 공업 분야의 리윤률은 그 보다도 훨씬 더 높다. 1964년에 군비 확장의 강화로 미국 독점 회사들의 리윤은 680억 딸라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2차 대전 시에 최고 리윤을 보장하였던 1943년의 246억 딸라에 비하여 276%로 장성하였다. 이러한 군수품 주문은 거의 군수 공업 독점체들에 돌려지고 있다. 미 국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1년 말에 국가 군수품 총주문액의 73.8%는 100 개의 회사들이 차지하였으며 이 회사들의 대부분은 10 개의 대군수 독점체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 하에 있었다. 대군수 독점체인 《록키드》 회사의 생산물의 86%, 《더글라스》 회사의 생산물의 88%, 《글렌마틴》 회사의 생산물의 99.2%는 국가에서 주문 받은 군수품들이였다.

기형적인 경제의 군사화는 필연적으로 정치에서 극도의 파쑈화를 초래하게 되는바 독점 자본은 군사 파쑈 기구를 통하여 더욱더 인민 탄압에로 나아가며 정치적 반동의 길로 나아간다. 이리 하여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며 그의 멸망은 촉진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국내 생활과 반동적인 대외 정책은 바로 그것을 실증하여 준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경제가 고도로 군사화하였으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파쑈화와 침략과 전쟁 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미국에서 경제가 더 전면적으로 군사화되고 군사 폭력 기구가 미증유로 팽창된 것은 미 제국주의 발전의 특수성과도 관련되여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력사는 대외 침략과 전쟁의 력사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미국 독점 자본은 부단히 치부하였으며 팽창하였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독점적 고률 리윤을 보장하여 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였다.

끊임 없는 침략 전쟁은 군수품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대시켰으며 미국 부르죠아지들은 이것을 리용하여 가혹한 착취 제도와 략탈 제도를 강화하면서 생산과 자본의 집적을 강행하였다.

미국은 늦게 자본주의 발전의 실에 들어 섰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수요의 급격한 증대와 관련하여 특히 야금 공업과 기계 제작 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의 발전이 촉진되였고 생산과 자본의 집적이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으며 그 과정에 독점 자본이 급속히 형성되였다. 19 세기 90 년대 초에 미국의 공업과 은행에서 독점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였는데 그것은 시초부터 주로 트레스트와 콘체른의 형태를 취하고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의 유착 과정이 급속도로 촉진되면서 금융 과두의 지배가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현재 가장 큰 전기-원자 독점체인 《제네랄 엘렉트릭》은 이미

1892년에 수개의 대콘체른을 통합하여 세계적인 군수 독점체로 되였고 강철 독점체 《유나이테드 스테이츠 스틸》도 당시에 10억 딸라의 자본을 집적한 공업 트레스트로 되고 있었다. 1901년에 벌써 미국에는 440 개의 공업 및 운수 트레스트가 있었다. 또한 은행업 분야에서도 당시 독점이 형성되여 20 개의 대은행이 전국 은행 예금 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전국 화폐 자본의 거대한 량이 소수 은행 독점들에 집적되였다.

실례로 1903년에 모르간과 록펠러의 대콘체른은 112 개의 은행, 공장, 철도 회사, 보험 회사들을 통솔하고 있었으며 그 자본은 220억 딸라를 초과하였다.

금융 자본가들은 자기의 경제적 권력을 리용하여 국가 기구를 예속시키고 국가의 모든 대내외 정책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금융 파두의 지배가 제국주의에로의 이행 시초부터 강화되였다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이 시초부터 극히 악랄성을 띠고 가장 란폭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자본을 토대로 하여 자라 나는 경제외적 상부 구조 즉 금융 자본의 정책, 금융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식민지 탈취에 대한 열망을 강화한다》(레닌 전집 제 22 권, 1958년 판, 341 페지).

미국에서 생산과 자본과 원료를 장악하고 정치,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한 금융 파두들은 최대한의 독점 고률 리윤의 법칙에 따라 불가피적으로 새로운 나라들을 식민지 노예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미제는 1894년에 하와이 군도를 강점하고 태평양으로 팽창하는 통로를 개척하였으며 1898년에는 서반아 식민지인 포에르토 리코와 필리핀을 강탈하였으며 꾸바를 자기의 예속국으로 만들었다.

당시 미 상원 의원 헨리 카보트로치는 1901년 초에 《아메리카 인민과 또한 모든 것의 기초로 되는 경제력은 우리들을 세계에 대한 경제적 제패에로 이끌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떠벌리면서 당시부터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 와서 특히 1 차, 2 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미국 경제는 군사적 궤도에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군수 공업은 국가 경제 체계에서 중추 부문을 이루게 되였다.

1 차 세계 대전 기간에 미제는 구라파 렬강의 교전 쌍방에 무기와 군수품을 독점적으로 조달하여 막대한 전시 초과 리윤을 획득하고 일약 채무국으로부터 채권국으로 전변되였다. 당시 미국은 구라파 국가들로부터 45억 딸라의 부채를 걸머지고 있었던 것이 불과 1 년 반 후의 대전 종결 시에는 구라파 국가들에 대한 군수품 판매의 미회수 채권액만 해도 100억 딸라에 달하였다. 1 차 대전 기간 미국의 군수 공업 생산력은 현대적 규모에서 가일층 발전하였고 군수품 수송과 관련하여 선박 톤수는 10 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국 독점 자본은 2 차 세계 대전 시기 경제의 군사화를 고도로 강화하였다. 대전 기간 미국 공업 총생산은 40% 장성하였으나 군수 공업 생산은 120% 장성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비행기 생산은 16.5 배, 선박 건조 톤수는 26 배로 대폭 장성하였다.

아이젠하워가 《우리의 경제는 전쟁의 경제이며 우리의 번영은 전쟁의 번영》

이라고 실토한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2 차 대전 후 미제는 국내에 조성된 경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경제의 군사화 촉진에서 찾으면서 군사비를 대폭 증가하는 한편 군수 공업 발전을 위한 각종 《특혜》 조치를 실시했다.

미국 정부는 조선 전쟁 기간에 군수 공업의 확장을 더욱 촉진할 목적으로 군수 공업에 대한 새로운 설비 투자에 《촉진 상각 제도》라는 우대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1954년에 《원자력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원자-로케트 군수 공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착수하였다.

이 분야에 지출된 금액은 1951～1955년의 36억 딸라로부터 1956～1960년에는 292억 딸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 경제의 군사화와 군사 폭력 기구의 전례 없는 팽창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추동력으로 되는 것은 미국에서 빈번히 폭발되는 심각한 경제 위기이다.

특히 제 2 차 대전 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심각화의 새로운 조건 하에서 미국 경제는 더욱더 파국적인 위기에로 줄달음치고 있다.

빈번히 일어 나는 공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경기 순환의 주기가 단축되고 있으며 생산의 침체가 만성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공황 후 생산 장성의 최고 수준도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1948～1949년 공황 후에는 그것이 34%였다면 1957～1958년 공황 후에는 불과 8%였다.

미국 독점체들은 파국적인 경제 위기에서 속히 벗어 나며 《병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경제를 더욱더 군사화하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로 나아갔다.

제국주의자들이 공황으로부터의 출로를 경제의 군사화에서 찾고 있는 것은 그것이 경기 앙양을 유발하는 일시적 《수혈》로 되기 때문이며 군수 공업 독점체들로 하여금 첨예화되는 생산과 시장 간의 모순 속에서도 군수 공업의 생산력을 유지하면서 독점적 고률 리윤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독점 자본은 전후 일관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가장 유리한 《반공황 대책》으로서 이것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력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의 첫 공황에 의하여 제 1 차 세계 대전이 일어 났으며 두 번째 공황에 의해서는 제 2 차 세계 대전이 일어 났다.

미국이 1 차 대전에 참가한 바로 한 달 전인 1917년 3월에 당시의 영국 주재 미국 대사 파이즈는 대통령 윌손에게 보낸 전문에서 《독일에 대한 우리(미국)의 선전 포고는 공황을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된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미국 경제는 1907년에 폭발하였던 혹심한 공황의 파괴적 후과를 가시지 못 하고 심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고 1 차 대전 폭발 당시 미국의 강철 공업은 설비 능력의 50%만이 조업하고 있었다.

1 차 대전의 폭발은 세계 경제 공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게 하였으나 그것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고 보다 엄중한 파괴적 후과를

가져 왔다.

특히 미국 경제는 2 차 세계 대전 시의 방대한 전쟁 수요가 두절됨에 따라 미국 력사 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가일층의 심화와 관련하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 도발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 소동을 부단히 일으키고 경제의 군사화를 가일층 촉진하는 길로 나아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일어 난 1948~1949년 공황은 미국의 국민 총생산을 단 한 해 동안에 22%나 감소시켰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파국적인 이 엄중한 공황으로부터 벗어 나기 위하여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에서의 침략 전쟁의 도발은 미국 경제의 군사화를 가일층 촉진시키고 군수 독점체들의 무기 생산을 대대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위기를 일시적으로 뒤로 밀리게 할 수 있었으며 독점체들을 더욱 치부케 하였다. 조선 전쟁에서 미제는 군사, 정치, 도덕적 참패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1953~1954년의 전후 2 차 공황의 엄중한 타격을 받았다.

미제는 2 차 공황이 폭발한 후 남조선과 대만 해협에서 전쟁 도발 책동을 부단히 강화하는 한편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로골적인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다. 1957~1958년의 전후 3 차 공황 폭발 시에는 《아이젠하워주의》로 알려진 《중동에 관한 특별 교서》에 의거하여 요르단, 수리아, 레바논,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특히 1960~1961년 공황 폭발 후 미제의 침략은 더욱 악랄하여졌다.

그러나 미국 독점 자본이 가장 유력한 《반공황 대책》으로 간주하여 온 전쟁 정책과 경제의 군사화도 공황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반대로 공황은 더욱 빈번히 폭발하였고 그 파괴적 심도는 확대되면서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1 차 대전 후의 18 년 간에 세 차례의 공황이 있었다면 2 차 대전 후의 16 년 간에는 이미 네 차례의 공황이 폭발하였다. 미국의 한 통계학자가 전후의 1 차, 2 차 및 3 차 공황에 의해서만도 미국 경제가 입은 직접적 피해액은 1천 150억 딸라에 달하며 생산 장성 속도의 저하에 의하여 입은 간접적 피해액은 3천억 딸라 이상에 달하였다고 실토한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부단한 전쟁 소동과 경제의 군사화에도 불구하고 공황이 더욱 빈번히 거듭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 경제가 극도로 취약해 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전쟁 정책과 부단한 군비 확장의 강화, 방대한 군사비 지출의 증대와 경제의 군사화의 촉진 등 그 어떠한 인위적 조치도 경제의 파국적 위기를 바로잡을 수 없다.

공황의 기본 원인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 간의 모순에 있는 만큼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청산함이 없이는 공황의 근원을 제거할 수 없다.

2 차 세계 대전 후 미국에서 폭발한 경제 공황

	공황 전 최고 생산월	공황기의 최저 생산월	생산의 회복월	공황기의 공업 전체 생산 감소률(%) ※(1)	공황 후의 생산 상승 기간
전후의 1 차 공황	1948년 10월	1949년 7월	1950년 4월	8.6	>45 개월
2 차 공황	1953년 7월	1954년 2월	1955년 4월	9.9	>35 개월
3 차 공황	1957년 8월	1958년 4월	1959년 2월	14.3	>23 개월
4 차 공황	1960년 5월	1961년 2월	1961년 6월	7.1	
중간 공황		1962년 ※(2)			

※1; 공황 전 최고 수준과 공황기의 최저 수준과의 차이

※2; 증권 시장에서의 대파동으로 표현된 화폐 공황

*　　　*

독점 자본은 자기의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고 국내 생활 전반에 대한 전횡을 확립함이 없이는 독점적 고률 리윤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자기 팽창에 대한 욕망을 마음 대로 실현할 수 없다.

독점 자본은 필연적으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로 발전하며 독점체들은 국가 기구를 장악 리용하는 다양한 체계를 형성한다.

오늘 미국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였으며 독점과 국가 고위 관료와의 인적 결합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제 2 차 대전 후 미국 독점 자본이 국가 기구를 자기에게 종속시킨 과정은 우선 독점 자본가 자신이 직접 국가 행정 및 군사 기관의 요직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1944년 1월에 벌써 《제네랄 엘렉트릭》 회사 사장 윌슨은 미국 포병 협회 회의에서 《전후의 평화 시에도 부단한 군비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군사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펜타곤의 체계 내에 독점체들의 대리인들을 조직적으로 침투시킬 데 대한 《강령》을 내놓았다.

이 《강령》에 의하여 펜타곤의 모든 요직에 군수 공업 독점체들의 무기 상인들이 직접 임명되는 제도가 수립되였다.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독점체들은 국가 기구의 다양한 고리를 통하여 최대한의 리윤 획득을 보장 받고 있으며 그들의 대내 대외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백악관의 모든 정책은 곧 월가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며 펜타곤의 침략과 전쟁 계획 역시 리윤에 대한 탐욕을 반영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제반 사실은 미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제는 어떠한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으로써도 이미 부패하고 사멸하여 가는 저들의 제도를 구원할 수 없다.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 (제 1 부)에 대하여

방 연 승

혁명적 작품 특히 혁명적 대작을 왕성하게 창작할데 대한 지난해 11월 7일의 강령적인 교시에서 김 일성 동지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을 폭 넓게 반영한 작품의 창작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무력 침공을 물리치고 승리한 우리 인민의 조국 해방 전쟁은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국가 존망의 일대 시련이였으며 조선 인민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애국주의를 전례 없이 집중적으로 보여 준 위대한 사변이였다.

이 위대한 력사적 사변을 대서사시적으로 재현한 작품은 우리 인민을 계속 혁명의 투사로 교양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전쟁에 직접 참가하여 간고한 전투의 불'길 속에서 조국을 사수한 인민군 전사들과 광범한 인민들에게 혁명가로서의 긍지를 높여 주며 그들을 가렬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혁명의 온갖 시련을 굴함 없이 뚫고 나가도록 추동한다. 또한 그것은 한 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함에 있어서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혁명가들의 자체답게 높은 긍지를 간직하고 전투적으로 살며 성장 준비되도록 교양함에 있어서 거대한 사상-미학적 견인력을 가진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을 서사시적으로 반영하는 장편 소설을 창작하는 것은 원쑤를 격멸하는 혈전의 직접적 참가자이며 전쟁의 포화 속을 뚫고 나온 체험자인 우리 시대 작가들의 고상한 시대적 의무이다.

석 윤기 작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 (제 1 부)은 이 영예롭고도 무거운 창작 과업 수행에서 거둔 성과의 하나이다.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의 인식-교양적 의의는 작자가 혁명적이며 현대적인 주제를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한 데서, 풍부한 예술적 개괄력으로 시대의 면모를 폭 넓게 반영한 데서, 영웅적 주인공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 형상들을 전형적으로 생동하게 창조한 데서 그리고 시대와 그 주인공들에 대한 작자 자신의 끓어 넘치는 주정으로 예술적 화폭을 독특하게 채색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독자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작품의 사상-주제적 구조의 심오성과 독창성이다.

작자는 조선 인민이 오랜 원쑤이며 첫째 가는 적인 미제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사회주의

적 애국주의의 주객관적 바탕을 폭 넓게 그리면서 . 미제에 대한 조선 인민의 승리를 《새 시대》의 탄생으로 특징 짓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밝혀 내려고 하였다.

3 년 간의 전쟁에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 같이 뭉친 조선 인민은 수세기를 내려 오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 먹고 살진 해적이며 세계 반동의 괴수로 《위풍》을 뽐내던 미제를 쳐 물리침으로써 자기의 슬기롭고 강의한 민족 정신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으며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여 놓았다.

작자가 이름 지은 《시대의 탄생》—그것은 조선 인민이 바로 우리 시대에 와서 오랜 옛적부터의 피 맺힌 원쑤인 미국 침략자들과 판가리를 짓는 위대한 승리를 말하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 인민의 불굴의 힘 앞에서 미제가 거꾸러지고 침략자와 계급적 원쑤들의 총붕괴가 촉진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을 의미한다. 작자는 남반부의 량심적인 인테리 윤 하응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력사는 얼마나 뿌리 깊고 집요한 것인가? 또한 그러고 보면 오늘의 이 시대가 얼마나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의 진통을 거쳐서 탄생된 것인가? 참으로 위대한 시대가 시작되였다》.

작자는 새 제도를 목숨으로 지키는 조선 인민의 꺾을 수 없는 힘 앞에 무릎을 꿇은 미제의 심대한 패배가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거역하고 력사의 수레바퀴를 역행시키려는 낡은 것이 새것 앞에 당하는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고 있는바 이것은 이 작품의 사상-주제적 내용의 핵으로 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불'길 속에서 탄생한 새 시대와 그의 주인공들을 서사시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을 관통하는 생활 철학이 있다.

작자는 이러한 독창적이고 거대한 주제를 웅대하고 심오하게 천명하기 위하여 조국 해방 전쟁에 대한 《백과 전서적》인 예술적 반영을 시도하였다.

인민사적인 폭을 가진 서사시적 화폭을 창조하기 위하여 작자는 전방과 후방, 상부와 하부 그리고 북반부와 남반부와의 련관 속에서 조국 해방 전쟁의 전 인민적 움직임과 면모를 일반화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아군 진영과 함께 적 진영을 폭 넓게 보여 주면서 량 진영의 유기적 교차 속에서 화폭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전쟁에서의 전 인민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방대하고도 다각적인 련관 관계를 설정하면서도 작자는 그것을 예술적으로 구체화하며 동시에 극적으로 집약화하기 위하여 응당한 중심을 옳게 설정하고 실현하였다.

즉 이 작품은 전방과 후방과의 련관을 보여 주면서도 전방을 중심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그것도 전 학민 련대와 개별적으로는 세철이가 속한 중대를 핵으로 하고 있다. 또 우로는 최고 사령부로부터 아래에는 전사에 이르기까지의 유기적 련관을 보여 주면서도 최전선에서 나가는 지휘관들과 전사들 간의 련관을 중심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적아의 두 진영을 유기적 교차 속에서 보여 주면서도 아군 진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 사건은 겸산'벌의 생활에서부터 벌어지면서 전방에서는 서울을 해방하고 대전을 해방하는 전투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장편 소설은 등장 인물들의 선택과 련계의 체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근로자

들과 그들의 아들딸로 구성된 인민군 용사들의 광범한 대표자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항일 투사인 련대장 전 학민, 광산 로동 청년이며 인민군 전사인 박 세칠, 그의 애인이며 농촌 처녀인 김 보패, 광산 기사이며 후에 인민군 전사로 용약 출전한 안 휘태, 인민군 정찰 중대장 오 덕칠, 문화 부중대장 류 경환, 세칠이 어머니 최 필녀 등 중요 인물들을 비롯하여 로동자, 농민 및 인민군 장병 등 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적 진영을 보면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미 국무성 고문 덜레스, 미 첩보 기관 장교 골드빈, 검산'벌의 대지주였던 민 성직과 그의 아들들, 괴뢰군 련대장 박 인엽, 간첩 송 치호 등과 기타 다수 군상들이 나온다. 이 밖에도 작품에서는 남반부의 대학 교수 윤 하응과 그의 딸 윤 설란과 같은 인물들이 묘사되고 있다.

장편 소설은 전쟁에 참가한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광범한 등장 인물들의 련계의 체계를 통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그를 극복하는 치렬한 투쟁을 폭 넓고 독창적으로 반영하면서 특히 적대되는 두 인물 계렬 간의 대립과 충돌로 표현되는 갈등 관계를 집단적인 군사적 충돌로서만이 아니라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얽혀진 갈등 관계로 구체화하고 있다.

즉 《유엔군》 총사령관 다그라스 맥아더는 일제의 조선 침략을 비호하고 지원한 미제의 척후병으로서 이미 로일 전쟁 당시에 일본군 측의 관전 무관이던 아버지 아더 맥아더 장군과 함께 검산 땅에까지 들어 와서 장차 조선을 침략할 야망을 품고 아름다운 산천에 눈'독을 들인 자이다. 아더 맥아더는 조선을 먹지 못한 자기 상전들의 《실수》에 대해서 만신에 격분을 느끼는 자로서 아들에게 반드시 조선을 삼켜야 한다는 야망을 고취한다.

그 때 일제의 진군로를 닦는 부역에 끌려 나왔다가 맥아더 부자와 맞선 억쇠와 갑수의 후손이 오늘 검산 땅의 주인인 세칠이를 비롯한 그 곳 로동자, 농민들이다.

그리고 그 때 맥아더 부자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추태를 부린 봉건 량반이며 일제의 앞잡이이며 지주인 민 태환의 아들이 바로 오늘의 대지주이며 미제의 앞잡이이며 《국회 의원》인 민 성직이고, 민 태환의 사환'군으로서 당시 맥아더 부자의 마사원처럼 말고삐를 쥐고 굽신거리던 송 경팔의 자손이 간첩 송 치호이다.

또한 그 때 원쑤들 앞에서 애국적인 지조를 지킨 봉건 서생 벽제 윤 합집의 아들이 바로 남반부 대학 교수 윤 하응이다.

작품의 중심에 놓여 있는 세칠이를 놓고 말하면 그의 어머니는 검산 땅에 선교사의 탈을 쓰고 기여 들었던 미국놈 제임스 골드빈의 골프채에 맞아서 다리 병신이 되였고 그의 형은 원쑤를 갚겠다고 달려 들었다가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멀리 집을 떠났다. 바로 이 세칠이가 다름 아닌 그 골드빈의 아들인 미 첩보 기관 장교 윌리암 골드빈과 조선 전선에서 맞다든다.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은 이러한 독창적 갈등 관계를 통하여 바로 미제야말로 19 세기 후반기부터 조선을 저들의 아세아 침략 기지로 삼켜 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갖은 책동을 다해 오다가 마침내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북반부로 침공해 들어 온 력대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라는 것을 생활적으로 밝혀 내는 동시에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사수하고 남반부를 해방하며 나아가서 미국 침략자들을 이 세상에서 종국적으로 쓸어

버리는 것은 로동당 시대의 조선 인민에게 지워진 가장 숭고한 민족적, 국제적 의무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그리 하여 이 작품은 민족적, 계급적 해방 전쟁으로서의 조국 해방 전쟁의 사회 계급적 본질과 정의적 성격을 비반복적인 예술적 축도로 반영할 수 있었다.

갈등의 이와 같은 전형성과 예술적 독창성은 이 작품이 심오한 인식-교양적 의의를 가질 수 있게 한 기본 담보의 하나로 되고 있다.

우리는 이 작품의 서사시적 화폭의 특성에 대하여, 새 시대가 탄생되는 폭 넓은 무대와 다양한 인간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시대에 대한 작자의 심오한 예술적 개괄력에 대하여 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 인민사적 폭을 보장하기 위한 서사시적 구성에서 나타나고 있거니와 그 과정에서 작자는 조선 전쟁에 대한 과학적 자료와 력사적 문헌을 예술적으로 개괄하여 서사시적 화폭의 유기적 구성 요소로 능숙하게 전환시키고 있다.

작자는 해박한 력사적 자료에 기초하여 19 세기 하반기 미국의 《슈벨트 계획》으로부터 시작하여 미제의 조선 전쟁 도발 계획과 38 연선에서의 덜레스의 전쟁 지시에 이르기까지, 맥아더 사령부의 막후 책동과 수원 계선에서의 맥아더의 진두 지휘, 압록강 계선까지 올리 밀고 중국, 쏘련 등 사회주의 동방을 단숨에 삼키려는 호전 장군들의 《전략》에 이르기까지 적들의 침략 음모와 전쟁 도발, 무력 침공 과정을 예술적 화폭으로 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동한 력사적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개괄하여 도입하고 있다.

작품은 이것을 통하여 조선 전쟁이 미제에 의하여 도발되였으며 미제가 바로 조선 인민과 세계 피압박 민족과 진보적 인류의 주되는 원쑤이라는 것을 력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확증하고 있다.

작자는 또한 최고 사령관 김 일성 동지의 연설과 명령, 우리 정부의 성명과 최고 사령부의 포고문을 서사시적 구성의 유기적 요소로 인용하였다. 이것은 우리 립장의 정당성과 전쟁의 정의적 성격과 우리 인민의 의지를 힘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작품의 정론적 성격을 강화하고 그 인식-교양적 의의를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작품의 서사시적 구성이 조국 해방 전쟁에 대한 《백과전서적》인 폭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작자는 당시의 전반적 령역을 포괄할 수 있는 전후방과 적아 간의 광범한 련계를 축도적으로 그려 내는 형상 체계와 갈등 관계를 설정하고 문헌적 자료를 예술적 화폭에 정론적으로 도입하는 등 장편 소설의 풍부한 가능성을 독창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힘썼고 비교적 좋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여기서 상술한 모든 예술적 특성들을 통하여 이미 스스로 해명된 이 작품의 풍부한 인식적 의의를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실주의 문학의 교양적 의의는 시대와 인간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 그의 발전의 경향과 진리를 진실하게 밝혀 내는 인식적 의의와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

일찌기 엥겔스는 하크네스에게 보낸 유명한 서한에서 발작크의 《인간 희극》에 대하여 말하면서 《불란서 <사회>의 가

장 현저한 사실주의적인 력사를 명시》하고 《불란서 사회의 전체 력사를 분류하고 있는 바… 경제적인 세부…라는 의미에서조차, 전문적인 력사가, 경제학자, 통계학자들의 전체 저서에서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아 내였다》고 극찬하였다. 또한 레닌은 로씨야 혁명의 거울로서의 레브 똘스또이에 대하여 말하면서 《혁명의 본질적 측면들 중에서 비록 몇 가지나마》 반영하지 못 한다면 위대한 예술가의 사회적 사명에 대하여 지적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대서사시적 화폭으로서의 사실주의적 장편 소설은 시대와 인간 생활의 본질적 련계와 합법칙성을 폭 넓게 반영하는 《사실주의적 력사》이며 수 많은 주인공들의 다면적인 사회적 행위와 극적 운명을 통하여 시대의 정신과 생활의 진리와 인간의 리상을 긍정하는 위력한 거울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작자가 자기의 장편 소설에서 조국 해방 전쟁에 대한 《사실주의적 력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기울인 의도와 실현된 열매는 우리의 사회주의적 장편 소설의 인식-교양적 기능을 제고함에 있어 유익한 시도로 되며 성과로 된다.

그러면 준엄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 이 땅 우에 미제를 타승하고 새 시대를 열어 놓은 력사의 창조자, 위대한 시대의 《산파》는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슬기로운 조선 인민이며 그의 참다운 아들딸로 조직된 조선 인민군이다. 작자는 이것을 영웅적 주인공들의 다양한 형상과 전형적 성격을 통하여 힘 있게 보여주고 있다.

항일 투사이며 련대장인 전 학민은 이 작품의 긍정적 주인공의 한 사람이다. 그의 형상은 작품의 전반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한 성격으로, 당'적 인간의 특질을 체현한 시대적 전형으로 빛을 뿌린다.

과거에 그는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항일 빨찌산 대오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웠으며 해방 후에는 세계 반동의 괴수인 미제를 반대하여 계속 투쟁의 선두에 서서 나간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 버릴 때까지 손에 무장을 들고 나가는 과감하고 열렬하고 철두철미한 조선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 형상화되였으며 뿐만 아니라 새 세대들에게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계속 혁명의 사상을 물려 주는 혁명 선배의 귀감으로 전형화되였다.

혁명 선배로서의 그의 품성은 세철이의 사회-계급적 눈을 띄여 주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해방은 되였으나 그저 순진하기만 하고 좁은 테두리에서 밖에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세철이에게 그는 조선 인민의 민주적, 계급적 원쑤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 미국 침략자를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

그는 전사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직무상 관계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과 자식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려는 어비이 심정으로 성실하고도 따뜻하게 대한다. 그것은 서울로 노도와 같이 진격하는 행군'길에서 찌프차를 타지 않고 도보로 걸어 가며 전사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데서, 혼전 중에 고삐를 끊고 달아 나다가 적탄에 맞아 죽은 소를 구원하지 못 했다고 안타까와하던 나머지 대대장에게 주인을 찾아서 다른 소를 대신으로 주라고 간곡하게 타이르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 학민 련대

각의 원칙적이고도 절절한 사랑은 그대로 전사의 가슴에 파고 들어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전투적 사기를 북돋우어 주는 위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전 학민 련대장의 성격적 특질은 또한 서울 해방 전투와 대전 진공 작전 시에 그가 보여 주는 능숙한 지휘와 예민한 정황 판단과 기동적이고도 과감한 혁명적 전개력에서도, 시대와 그 창조자에 대하여 위풍당당하게 말하는 그의 명석한 예지와 풍부한 리성 앞에서 낡은 계급의 《지성인》들이 말문이 막혀 버리는 통쾌한 장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항일 투사로서의 그의 높고도 풍부한 성격적 풍모는 전사들과 인민을 보살피는 계급적 관점과 군중 관점의 높이에서, 정세와 정황을 판단하는 통찰력에서, 혁명 앞에서 끝까지 책임 지고 용감하게 나가는 당적 의무감과 충실성과 혁명적 전개력에서 그리고 풍부한 지성과 번득이는 예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상-주제적 과업을 천명하는 견지에서 보면 전 학민 련대장은 항일 전우의 동생인 세칠이를 혁명의 후계자로 인도하는 인물로 특히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고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을 계승한 인민 군대의 위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밝힘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는 인물로 형상화되였다. 작품에서 그는 미제를 쳐 물리치고 새 시대를 창조함에 있어서 누가 그 선두에 서 있으며 어떤 힘에 의하여 그 시대가 탄생되는가를 확증하는 그런 주제의 무게가 걸린 주요 인물로, 동시에 인민 군대의 지휘 성원의 전형으로 감명 깊게 부각되였다.

전사 박 세칠이는 이 작품의 중심 주인공이다.

그는 작품의 서두에서 보면 광산의 로동 청년이고 새 제도의 지반 우에서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대학에 갈 열망에 불타기도 하는 순진한 청년이다. 그는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모르는 어린 청년이다.

그러나 그는 어리고 순결한 청년이였지만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서슴지 않고 바칠 줄 아는 계급적 바탕과 정열을 지닌 조선 청년의 전형으로 그려졌다.

세칠이는 형의 전우이던 전 학민을 통하여 비로소 집을 떠난 형의 소식을 알게 되며 형이 골드빈을 찌르지 못하고 가지고 떠난 칼을 유물로 전해 받는 한편 전 학민 련대장의 영향으로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며 진보와 반동 간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폭풍우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원쑤들이 전쟁을 도발하자 놈들을 종국적으로 물리치고 판가리를 지어야 할 시대적 의무를 지닌 세대라는 것을 더욱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바로 여기에 치열하고 준엄한 전화 속에서 새 시대를 열어 놓고 있는 우리 전사들의 사회-계급적 자각이 있으며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양하는 시대적 자각이 있다. 이것은 작자가 이 작품의 기본 주인공 세칠의 성격 발전을 통하여 1부에서 천명하려고 하는 기본 사상이다.

전쟁이 일어 나자 대학 시험 준비를 하다 말고 용약 입대한 세칠이는 남반부를 해방하는 가열한 전투의 길에서 이 시대적 책임감을 더욱 절실하게 느

끼게 된다. 원쑤들이 도망치면서 재'더미로 만든 농촌 마을의 참경, 원쑤들의 만행으로 무참히 죽은 아들애를 부르는 봉돌 어머니, 복수를 부탁하는듯 한 할머니의 눈'길을 보고 느낄 때마다 세철이는 고향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니의 영상을 뚜렷이 보며 제국주의를 쓸어 버리라는 형님의 유언을 가슴 깊이 되새기는 것이다. 이처럼 고상한 자각과 원쑤 미제를 당장 요정 내지 않고서는 참을 길 없는 극적 체험이 넘쳐 넘치기 때문에 그는 신입 대원이면서도 전투에서 용감하였으며 대전 해방 전투에서 영웅성을 발휘하게 된다. 그는 대전 뒤'산에서 부상 당한 몸으로 윌리암 골드빈과 맞다들게 되며 여기에서 대대로 내려 오던 원쑤를 갚게 된다.

작자는 전사 세철이의 성격 발전과 그의 계기를 통하여 소박하고 순진한 근로자의 아들이 전쟁의 불'길 속에서 어떻게 미제를 타승하는 시대의 영웅으로 등장하는가를 추구하고 있다.

류 경환 문화 부중대장의 판병 일치 사상, 오 덕칠 정찰 중대장의 기민하고 대담하며 해학적이고 락천적인 성격의 미, 문 기수 전사, 리 마동 분대장 기타 인민군 용사들의 영웅성 등은 우리 인민 군대의 정치-도덕적 위력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작자는 이들의 대중적 영웅주의가 바로 그들의 사회-계급적 자각과 원쑤에 대한 불붙는 증오와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평범한 근로자들의 아들딸인 그들의 내면 세계의 추구에 주목을 돌렸으며 영웅적 성격 창조에 힘썼다. 그리 하여 이 장편 소설은 새 제도의 지반 우에서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과 그들의 자제들인 인민군 용사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를 각이한 개성의 생활적 바탕과 다양한 성격의 화랑을 통하여 보여 주고 있다. 즉 작자는 영웅적 군상을 통하여 대중적 영웅주의의 서사시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작자는 또한 부정 인물들의 전형적 성격을 통하여 력사의 필연적인 전진을 거역하는 자들의 정체와 발악과 멸망에 대해서도 생동하게 그렸으며 토회한 원쑤들의 야수적 본성과 정신적 무능력, 도덕적 부패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잘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성과적 측면을 지적할 때 우리는 부정 인물의 형상화에서 거둔 성과를 당당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와 덜레스를 비롯한 미국의 최고위급 전쟁 상인들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본성이 성격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작자는 38 연선의 괴뢰군 전초선에서 진두 지휘하는 악명 높은 랭전의 고취자이며 전쟁 상인인 덜레스의 검은 속심과 음모가적 풍격을 예리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전호'가에 핀 오랑캐꽃을 잡아 뽑고 내던졌다가 다시 구두'발로 짓'이겨 놓고야 차에 올라 타는 행위는 그의 흉악한 야수적 본성을 일격에 드러내고 있다. 이 자의 형상은 《공산주의 침략》의 위험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미 제국주의야말로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반박할 여지 없이 폭로하고 있다.

작자는 또한 도꾜에 있는 미 극동군 사령부에 들어 앉아서 조선 전쟁을 하루 속히 일으키지 못해 안절부절을 못하는 맥아더를 통하여 미국의 살인 장군들의 호전성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수원 계선에서 패주하는 부대를 긁어 모아 놓고 진두 지휘하는 맥아더

의 허장성세를 통하여 미국에서 이름 난 전쟁 청부업자의 야수적 발악과 패전 장군으로서의 취약성을 적발해 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전선 사령관으로서 포로가 된 패전 장군 띤의 추잡하고 가련한 형상은 각성한 조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보지 못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말로가 구경은 어떻게 되는가를 통쾌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밖에 악착한 대지주이며 민족 반역자인 민 성직의 계급적 본성과 악랄성, 허물어져 가는 착취자의 처지를 연장하기 위하여 아득바득 덜벼 드는 괴뢰군 대대장 민 삼광, 착취 계급의 지유주의적 방향아인 그러면서도 본성에 있어서 계급적 처지를 벗어 날 수 없는 민 환규, 부르죠아 사상을 완전히 벗어 던지지는 못 하였으나 량심적이고 애국적인 력사학자 윤 하응 교수, 예민한 처녀의 감수성과 량심의 충격으로 하여 새것에 대한 동경을 가지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의 딸 윤 설란 등 개성적이며 전형적인 인물들의 형상은 조선에서의 계급 관계와 계급 투쟁의 복잡성, 준엄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제 1 부)은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낡은 것의 멸망과 새것의 필연적 승리를 폭 넓게 보여 주면서 이 위대한 새 시대의 탄생이 어찌하여 오늘에 와서야 가능했던가를 밝혀 내고 있다. 그것은 조선 인민의 향도적 력량인 조선 로동당과 그의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혁명의 민주 기지인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새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11월 7일 교시를 관철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을 주제로 한 대작 창작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창작에서 좋은 경험으로 될 이 작품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말하면서 동시에 다음 부들에서 더 잘 해결되여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것이다.

조국 해방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중심 주인공의 성격 발전과 그 계기를 뚜렷이 설정하고 그의 운명을 극적으로 추구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서사시적 회폭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 기본 주제의 천명에서 중심 주인공에게 무게가 많이 걸리게 하며 성격의 규정성과 다면성을 드러내는 생활을 많이 부여하며 그의 운명선에서 문제성을 추구하야 한다는 것, 서사시적 회폭의 전개에서 지나친 주정 토로는 그 조형성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 등은 매우 교훈적이다. 물론 시대와 그의 주인공에 대한 작자의 정신적 련계를 밝히는 철학적 사색과 주정 토로 그리고 원쑤들에 대한 규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체의 정론적 특성은 이 작자의 우월성이지만 동시에 지나칠 경우에 그것은 약점이기도 하다. 특히 성격 묘사에서 성격의 객관적 론리에 의거하기보다 작자의 주정이 앞서며 그 등장 인물의 심리가 작자의 주관적 사색과 주정으로 채색됨으로써 성격의 론리에 손상을 줄 때 그것은 결함으로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음 부들에서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될 것이다.

장편 소설 《시대의 탄생》(제 1 부)은 조국 해방 전쟁에 대한 《백과전서적》인 폭을 가진 서사시적 회폭을 창조하는 데서 거둔 일련의 좋은 성과와 창조적 경험으로 하여 독자들 속에서 인식-교양적 사명을 마땅히 수행할 것이며 그들에게 위대한 시대를 탄생케 한 혁명가들이라는 긍지를 높여 주는 동시에 치열한 투쟁과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마련한 이 시대의 위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굴함 없이 싸우려는 굳은 결의를 안겨 줄 것이다.

문답 학습

실용주의 《진리관》에 대하여

실용주의는 미국 독점 부르죠아지의 무제한한 치부욕을 반영한 철학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에 들어 선 1870 년대에 미국의 챨스 피어스에 의하여 제창된 후 윌리암 제임스에 의하여 리론화되고 죤.듀이에 의하여 완성되였다.

오늘 이 철학은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자본주의 나라들에 많이 류포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도 큰 해독을 미치고 있다.

실용주의 철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진리관》이다. 《진리관》은 철학적 인식론과 직접 관련되고 있다.

《진리관》의 반동적 본질을 파악하자면 실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리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인식론에서 인식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며 파악하는 것은 진리를 인식하는 기본 열'쇠로 되며 인식의 대상이 곧 진리의 객관적 내용으로 되기 때문이다.

실용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철학을 《철저한 경험론》이라고 하면서 《경험》을 인식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는 유일한 실재를 《경험》이라고 한다. 제임스는 《세계에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유일한 원시적 소재나 재료가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순수 경험〉이라고 한다》라고 말한다.

실용주의자들의 론거 대로 세계가 《순수 경험》으로 구성되였다면 집, 광물, 사과, 동물 등 모든 개별적 사물들은 모두 《경험》이라는 것에 귀착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리론적 모순으로부터 듀이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대로 감성 실재의 흐름을 각종 사물로 나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실용주의자들에 의하면 객관 세계는 《〈경험〉의 흐름》, 《의식의 흐름》, 《감각의 흐름》으로 된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사물 현상은 《〈경험〉의 흐름》, 《감각의 흐름》을 《우리의 마음 대로》 제조한 것으로 된다.

이것은 마하주의자들이나 버클리가 주장하던 《경험》론의 현대판에 불과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버클리는 《존재는 곧 지각된 것》이라고 하였다면 듀이는 《자연은 곧 경험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을 뿐이다.

보는 바와 같이 실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험》이란 사람들이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주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추상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험》이 물론 세계를 구성하는 《원시적 소재》로, 인식의 대상으로는 될 수 없다.

인식의 대상이 인간의 주관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실용주의자들은 진리에 대한 견해에서도 관념론적 립장에 선다. 실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의 대상 즉 진리의 내용이 정신적 추상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도 인간의 주관적 산물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다.

실용주의자들의 관념론적 본질은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교묘하게 외곡하고 있는 데서도 명백해진다.

실용주의자들은 《허위가 관념과 실재와의 불일치를 의미》한다면 《진리는 관념과 〈실재와의 일치〉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유물론적 언사로 자체의 관념론적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수

법이다.

실용주의자들은 《객관적 존재는 진실》이 아니고 다만 《있다고 생각》할 뿐이며 관념만이 실제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진리는 우리들의 관념 속에서의 어떤 물건의 특성》이며 《진리는 한 관념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즉 《실재》는 우리들의 관심에 의존하며, 인간의 《마음과 관심》 등 주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실용주의자들의 《경험》론에서 이미 명백히 된 바와 같이 그들이 설교하는 《실재》는 사람들의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서 고안해 낸 것이다. 머리에서 고안해 낸 《실재》와 관념과의 《일치》는 진리가 아니라 허위이다.

실용주의자들이 《실재》와 관념과의 《일치》를 표방해 나서는 것은 지식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객관적 물질 세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진리의 객관적 내용을 주관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객관적 진리를 거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남조선과 같은 불합리하고 모순에 가득찬 사회의 근원을 그 사회 제도 자체에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주관적 의식에서 찾게 함으로써 무너져가는 식민지 통치 제도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실용주의 《진리관》의 반동성은 진리의 기준을 외곡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실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사회 활동 즉 계급 투쟁과 생산 활동이다. 그런데 실용주의자들은 실천의 중요한 측면인 계급 투쟁의 의의를 말살하는 한편 인간의 생산 활동을 외곡하여 개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임의의 행동이 곧 진리의 기준이라고 묘사함으로써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를 설교하고 있다. 실용주의자들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은 인간의 행동의 결과 《유익한 것》, 《효과성 있는 것》, 《보수가 있는 것》 등이라고 주장한다.

남조선의 한 실용주의 신봉자는 《어떤 개념이 우리들에게 어떤 실제적 결과를 주느냐 즉 관념이 가지는 현금 가치가 관념의 진리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가 세계 도처에서 감행한 침략과 략탈, 살인, 강도 행위를 로골적으로 변호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실용주의자들은 《진리는 실제적 결과를 얻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객관적 진리와 허위 간의 차이는 없으며, 나아가서 허위도 《진리》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용주의자들의 이러한 《리론》은 오직 《유익한 것》, 《효과성》 있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리론》의 부당성은 종교도 《유익한》 경우에는 《진리》라고 설교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실용주의자들은 《만일 신학의 관념이 구체적 생활에 대하여 가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실용주의 상에서 진리인 것이며 이 한도에서 진리》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유물론적 언사로 자체를 위장하려고 시도하던 실용주의자들이 로골적으로 관념론을 설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종교는 과학과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종교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무지와 몽매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사회 계급적 근원을 가진 것으로서 객관 세계를 외곡하여 반영한 것이다. 객관 세계를 외곡하여 반영한 종교가 과학적 진리를(객관적 진리)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종교가 《실용주의 상에서 진리》이며 《유익》하다는 실용주의자들의 설교는

착취 계급이 자기의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근로 인민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기만하는 도구로 종교를 리용한다는 것을 변명할 따름이다.

실용주의자들은 또한 《실천》에다 《미신과 같은 선험적 체계》, 《실험》, 《꿈》 등 온갖 잡탕을 다 넣고 있다. 이것은 실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혼란시키자는 시도이다.

이와 같이 실용주의자들이 진리의 기준을 행위의 결과 《유익한 것》이니 《실천》이니 무어니 하는 것은 진리의 유익성 일면을 절대화하고 외곡하면서 다른 목적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실용주의자들이 진리의 기준을 외곡하는 것은 미제의 침략과 략탈을 리론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실용주의자들의 론거에 의하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과 그들의 살인 강도 행위, 침략과 략탈 정책도 또한 양키에게 아부 굴종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 넘기는 괴뢰 도당의 매국 행위도 모두가 진리로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모든 행위의 결과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유익》하고 《효과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은 생지옥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4천 년 래의 민생고》를 겪고 있다. 근로 인민들에게는 생지옥과 죽음을 가져다 주며 오직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에게만 《유익한 것》—이것이 실용주의 《진리》의 계급적 본질이며 바탕이다.

객관적 사실들은 실용주의자들이 설교하는 《진리》가 근로 인민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리익에 알맞게 재단된 허위라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기준 즉 《유용한 것》, 《효과성 있는 것》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강도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적합하게 꾸며졌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결국 실용주의자들이 떠드는 진리의 기준이란 미제의 침략과 략탈, 야수적 만행의 《유익성》, 《효과성》을 측정하는 척도에 불과하다.

남조선 어용학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괴뢰 도당의 매국 행위와 미제 침략군의 강점을 정당화하며 인민들에게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고취시킴으로써 단결을 파괴하고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무마해 보려는 데 있다.

미제의 《황금 만능》 사상을 대변하는 실용주의자들은 또한 객관적 진리의 한 측면 즉 상대적 진리에 매달려 《진리관》의 정당성을 론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실용주의자들에 의하면 《절대적 진리는 없다. 우리들 인류가 필요한 지식은… 이 시간, 이 상황(狀況), 이것이 우리의 진리》로 된다. 남조선의 한 실용주의 신봉자는 이 리론을 되풀이하면서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요, 그 때 그 때의 행동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실제적 유용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 진리를 거부하는 실용주의자들이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리론적 귀결이다. 왜냐 하면 실용주의자들에 의하면 진리는 인간의 주관적 산물이며 또한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객관적 진리에는 상대적 진리가 있다. 상대적 진리는 《그 때 그 때의 행동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 세계의 변화 발전에 의해서 규정된다. 왜냐 하면 상대적 진리는 인간의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현상을 정확히 반영한 객관적 진리의 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즉 **《상대적 진리는 인류로부터 독립한 객체의 상대적으로 진실한 반영이다… 매개의 과학적 진리에는 그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진리의 요소가 있다》**(레닌 전집 제 14 권, 412 페지).

상대적 진리는 자체 내에 절대적 진리의 알맹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은

부단히 절대적 진리에로 도달하는 과정이며 일정한 발전 단계이다.

실용주의자들은 이 객관적 진리의 상대적 측면을 절대화하여 상대적 진리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론거에 의하면 진리는 매개인의 생각에 따라, 시간마다 달라지며 오늘의 허위가 래일에는 진리로 되며 또 그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 진리는 없다고 한다.

실용주의자들이 설교하는 상대적 진리에 대한 이 리론은 미제가 남조선 인민들에 대하여 감행하는 야만적인 살인 강도 행위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면서 《그 때 그 때의… 실제적 유용성》, 《이 시간, 이 상황》이 진리라고 설교하는 리론은 남조선에서 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용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미래도 전망도 생각지 말고 다만 《그 때 그 때》에 제기되는 《상황》에 순종하면서 오직 추구하는 목전의 자기 리익만 《만족》하게 되면 나라도 민족도 필요 없다고 설교한다. 즉 미제의 식민지 통치나 괴뢰 도당의 매국 행위에 주의를 돌릴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때》 미제가 주는 몇 푼의 《원조》나 받고 영원히 양키의 노예로 되라는 것이다. 실용주의자들의 설교로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제의 기만 선전과 매국 역적들의 간교한 술책에 우롱 당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 속에서 실용주의 리론의 황당성은 더욱더 폭로되고 있다.

실용주의 《진리관》의 반동성은 객관적 진리를 거부하며 그를 외곡하면서 미제와 괴뢰 도당을 변호하는 데만 국한하지 않는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실용주의 《진리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동적 교육 리론에 의하여 청소년들이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로, 미제에게 순종하는 저속한 노예 사상으로 교양되고 있으며 《미국식 생활 양식》의 범람으로 고유한 조선 민족의 미풍 량속은 양키의 군화 밑에 짓밟히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실용주의 《진리관》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제한한 치부욕을 반영한 철학이며 월가 백만장자들의 야수적 탐욕 사상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무기이다. 따라서 실용주의자들이 고창하는 《진리관》은 미제의 리익에 알맞게 꾸며진 것이며 실용주의자들의 주관적인 《조작물》에 지나지 않는다.

실용주의 신봉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와 노예적 근성을 주입시키며 미제의 침략과 주구들의 매국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무너져 가는 식민지 통치 제도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사태 발전은 어용학자들이 그 어떤 실용주의 리론을 끌어 들인다 하더라도 인민들의 단결을 약화시킬 수 없으며 반미 투쟁 의식을 마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김 동 철

근 로 자 제 12 호(루계 274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6월 17일 발행 • 1965년 6월 20일

ㄱ—530341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3호 7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5

근로자

제 13 호(275)

1965년 7월 (상)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전 법 호

인민 정권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이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이다.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에서 유기적 구성 부분을 이루는 인민 정권은 당의 령도 밑에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과 적대 분자들에 대한 진압의 기능을 수행한다.

당의 인전대로서의 인민 정권은 다른 인전대들과는 달리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 대중을 망라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대중적 조직으로서 모든 근로 대중의 리익과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키고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강유력한 무기로 된다. 특히 인민 정권은 국가 권력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실현하는 정치적 주권 기관으로서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위력 있는 인전대로 된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유일적으로 확립된 조건에서 당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새 환경에 적응하게 지방 정권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정권 기관들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게 하였다.

또한 당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지방 인민 위원회로부터 지방 공업, 농업, 건설에 대한 지도 기능을 분리하여 그것을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를 비롯한 지방의 경제 관리 체계를 창설하였다. 이리 하여 정치적 주권 기관인 지방 정권 기관들은 해당 지역 내 호주로서 공급 사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 로동 행정 사업, 국토 관리 사업, 도시 경영 사업 등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독 통제적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1962년 1월 22일에 황해 남도 시, 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과 한 담화에서 인민 정권 기관들 특히 군 인민 위원회들의 임무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였다. 이 교시는 지방 정권 기관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된 조건에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강령적 지침으로 되였다.

이와 함께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군의 역할의 제고는 지방 정권 기관 특히 군 인민 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만 옳게 보장될 수 있다.

문제는 당이 취한 제반 조치에 따라 지방 정권 기관들이 새 환경에 적응하게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사회주의 경리 체계가 유일적으로 확립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그 요구에 상응하게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이지 않고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 축적을 계획적으로 하면서 사회주의 경리에 망라된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 지고 옳게 조직 운영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특히 행정 조직 지도적 기능과 감독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더우기 오늘 우리 앞에는 7 개년 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방대한 과업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가일층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최근에 김 일성 동지는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하게 교시하였다.

오직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가일층 제고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급속히 증진시킬 수 있다.

* *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지방 정권 기관들의 감독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 정권 기관들의 감독 통제적 기능을 제고하는 문제는 오늘에 와서 비로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방 정권 기관들이 국가 기관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연적 요구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방 정권 기관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 체계의 유기적 구성 부분이며 해당 지역에서의 정치적 주권 기

관이다.

지방 정권 기관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통일적이며 전반적인 주권적 지도를 실현한다. 그리 하여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법령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며 인민 경제 계획과 예산을 집행하며 경제, 사회 및 문화 부문의 모든 활동을 지도 감독하며 국가 및 사회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지방 정권 기관들의 이러한 위치와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지방 정권 기관들은 해당 관할 지역 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대한 감독 통제적 기능을 실현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지방 인민 회의와 인민 위원회들은 주권 기관으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며 법적 통제를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지방의 일체 재정 활동, 경제 계획, 건설 등 모든 사업들이 반드시 해당 지방 주권 기관들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교시하였다.

지방 공업, 농업, 건설 기관 등이 지방 인민 위원회로부터 분리되여 나왔다 해서 지방 정권 기관들의 감독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것은 오히려 지방 정권 기관들로 하여금 그 기관들에 대한 감독 통제적 기능을 일층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조건 지어 준다.

왜냐 하면 지방 정권 기관들이 그 기관들에 대한 감독 통제적 기능을 옳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내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민의 주권의 실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정치적 주권 기관은 유일하다. 지방의 정치적 주권 기관은 인민 회의이며 인민 회의가 휴회하는 기간에는 인민 위원회가 주권 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주권의 실현은 인민들 자신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 정권 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인민 정권 기관 외에는 그 어떤 기관도 그것을 대행할 수 없다.

시, 군의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나 지방 공업 경영 위원회 등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업 관리 기관이지 결코 주권 기관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민 정권 기관들은 해당 지역 내 전문적인 지방 공업, 농업, 건설 기관 등을 례외 없이 감독 통제하여야 하며 그 기관들은 인민 정권 기관들의 감독 통제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방 정권 기관들의 감독 통제적 기능은 해당 지역 내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수행된다.

이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인민 경제 계획과 재정 예산에 대한 지방 정권 기관들의 감독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 계획은 곧 법이다. 그러므로 계획에 규정된 항목들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 규률의 위반으로 된다.

지방 정권 기관들은 인민 경제 계획의 수립으로부터 채택된 계획의 집행에 이르는 전 행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

여야 한다.

해당 지역 내의 종합적인 인민 경제 계획은 계획화 사업에 대한 일원화 체계에 의하여 전문적인 계획 기관인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 계획 위원회들이 직접 작성한다. 그러므로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계획 기관들이 해당 지역 내의 종합적인 인민 경제 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우에 올려 가거나 채택된 인민 경제 계획을 분할 시달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 회의 혹은 인민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인민 경제 계획 수립에서 당성, 군중 로선, 객관성 원칙들을 철저히 관철하는 동시에 해당 지방의 인민 경제적 수요가 그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관할 지역 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의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제때에 강구하여야 하며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마음 대로 변경하거나 계획 외 공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계획 규률을 위반하는 경향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정 예산에 대한 감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 경제 계획과 국가의 제반 인민적 시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정 예산에 대한 감독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로 하여금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재정 예산을 정확히 세우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리는 모든 것이 인민의 소유이며 인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인민이 벌어 들인 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로 썼는가를 반드시 따져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데 무엇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인민 회의 또는 인민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 정권 기관들은 재정 검열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부기 계산 및 결재 규률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예산 납부 규률을 위반하거나 자금 리용에서 제정된 절차와 질서를 위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며 항목을 류용하거나 국가, 협동 단체 재산을 부패 변질시키며 탐오 랑비하는 등 현상들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특히 협동 농장들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 정권 기관들의 감독 통제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국토 관리, 로동 행정 등 부문에 대한 감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 관리, 로동 행정은 지방 정권 기관들이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본 임무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 정권 기관들 혼자 힘으로써는 할 수 없으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책임적으로 집행함으로써만 옳게 보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 정권 기관들은 국토 관리, 로동 행정 사업을 직접 조직 집행하는 한편 관할 지역 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이 사업을 잘 하도록 감독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관리에 대한 감독 통제에서는 무엇보다도 토지 관리 및 리용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고 토지 보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한 평의 땅도 묵이거나 류실됨이 없이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통제하는 동시에 산림을 잘 관리하여 한 그루의 나무도 손실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단속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강하천 관리를 비롯하여 주택, 공공 건물, 시설물, 문화 유적, 공원, 유원지, 명승 고적 등의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 정권 기관들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 특히 협동 농장들에서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하는 동시에 로력을 랑비하거나 류용하며 무원칙하게 류동시키는 등 현상이 없도록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지방 정권 기관들의 감독 통제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부문에서 국가 규률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국가 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설복 교양하는 것과 함께 국가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들에 대하여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의 국가 규률은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인민 대중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각성에 의하여 준수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국가 규률을 강화하는 기본 방도로 되는 것은 설복과 교양이다.

그러나 국가 규률을 강화하는 데는 설복하고 교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에는 제재가 옳게 배합되여야만 국가 규률의 준수를 철저히 보장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적 제재의 적용은 국가 규률 위반자들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국가 규률 위반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며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데도 중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 정권 기관들은 근로자들 속에서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규률의 준수 정형에 대한 검열 통제 사업을 강화하고 국가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들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따라 행정적, 물질적 제재 등 해당한 법적 제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지방 정권 기관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국가 규률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지방 정권 기관들의 행정 조직 지도 기능을 일층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 조직 지도 기능을 강화함이 없이는 지방 정권 기관들이 자기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지방 정권 기관들의 행정 조직 지도 기능은 지방 정권 기관 체계 내의 매개 단위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도(직할시)는 중앙과 직접 련결된 나라의 중요한 행정 구역 단위로서 나라의 사회주의 경제, 문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직할시)가 차지하는 이러한 위치로부터 출발하여 도(직할시) 인민 위원회는 중앙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들에 대한 지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기에게 직속된 기관, 기업소들을 직접 조직 운영하는 집행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도(직할시) 인민 위원회의 행정 조직 지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도(직할시) 인민 위원회는 자기에게 직속된 기관, 기업소를 직접 조직 운영하면서 주로는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행정 사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 로동 행정 사업, 국토 관리 사업, 도시 경영 사업 등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 지역 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 해당 인민 회의 결정, 또는 자체 도(직할시) 인민 위원회의 결정을 옳게 집행하도록 적극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과 관련하여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의 행정 조직 지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군은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를 지도하며 농민들과 로동자구 주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 있는 행정적인 말단 지도 단위이며 지방의 경제 문화 발전의 종합적 단위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다.

그러므로 군이 사업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 농촌 및 로동자구의 발전, 인민 생활의 향상이 크게 좌우된다.

군이 차지하는 이러한 위치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해당 지역의 호주로서의 군 인민 위원회의 행정 조직 지도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가 매우 절실하게 제기된다.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의 행정 조직 지도 기능 수행에서 집행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상업을 옳게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상업을 잘 하여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제때에 공급하여야만 그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자기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는 주민들의 수요와 지대적 특성에 따라 상점들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상품

배정을 정확히 함으로써 각종 부식물과 생활 필수품들을 주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 및 로동자 지구를 중심으로 매개 시, 군이 식료 상품 생산 및 공급 기지를 축성하고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공급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들은 수매 량정 사업을 강화하여 식량과 공업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는 동시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들을 더욱 확장하고 주택 조건을 일층 개선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주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책임적으로 해결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는 또한 국토 관리 사업, 도시 경영 사업,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을 잘 함으로써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꾸리며 기술 문화 혁명 과업을 적극 추진시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시에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을 옳게 집행하기 위하여 산하 기관, 기업소들의 계획 작성 사업과 계획 실행을 위한 물질 기술적 보장 사업, 기술 설비 관리와 로력 및 자재 관리, 제품 처리와 자금 지출 등 경영 활동의 모든 고리들을 틀어 쥐고 조직 지도하여야 한다.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의 행정 조직 지도 기능을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지도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는 지방 정권 기관 체계에서의 말단 지도 단위로서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를 지도한다. 그런데 협동 농장이 리 단위로 통합되고 리가 하나의 생산 단위로 된 조건 하에서 사실 상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는 지역 내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말단 행정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는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들에 결정서, 지시문이나 내려 보내고 방향이나 주는 식으로 지도할 수는 없다.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는 직접 리(읍, 로동자구)에 내려 가 걸린 문제를 현지에서 풀어 주며 제기되는 사업을 리(읍, 로동자구) 일군들과 같이 조직해 주며 그 실행을 위한 조건을 옳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 사업을 대행할 것이 아니라 리(읍, 로동자구) 일군들을 배워 주고 도와 주면서 그들의 사업에서 독자성과 창발성을 발양시켜야 한다.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의 지도적 기능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에 직접 속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한 지도적 기능을 옳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의 감독 통제적 기능과 밀

접히 관련되여 있다.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는 자기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 상급 인민 회의 또는 인민 위원회의 결정, 해당 인민 회의 또는 자체 결정이 다른 기관, 기업소들에서 철저히 집행되도록 그 실행에 대한 지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초급 행정 기관들로서 군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리(읍, 로동자구)의 정권 기관들 특히 농촌 리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 행정 단위와 생산 단위가 일치되고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협동 농장 관리 위원장을 겸임하게 됨으로써 리 인민 위원회는 국가적 리익과 농장원들의 리익을 옳게 결부시켜 농민들의 생활을 더 잘 돌보게 되였다.

문제는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리 행정 사업과 협동 농장 관리 운영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집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하나도 경시하지 말고 리 정권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협동 농장 관리 위원회 사업이 잘 되도록 보장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회의를 정상적으로 옳게 운영하여야 한다.

인민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만 대중의 창발적 지혜에 의거하여 지방 정권 기관들의 집체적 지도를 보장하고 주권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지방 인민 회의들은 주로 회의를 통하여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들을 토의 결정함으로써 관할 지역 내에서의 경제 문화 건설에 관한 모든 활동을 조직 지도하는 것 만큼 인민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서는 주권 기관의 활동을 정상화하고 집행 기관인 인민 위원회 및 그 부서들과 관할 지역 내 기관, 기업소, 단체들 그리고 하급 인민 회의와 인민 위원회들에 대한 지도를 옳게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지방 주권 기관 구성법에 립각하여 각급 인민 회의 정기 회의를 제때에 소집하고 옳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인민 회의들에서 해당 지역 내 인민 경제 계획과 예산의 채택, 경제 문화 건설과 행정 조직 지도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과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의 집행 대책의 수립, 국가 사회 재산의 보호, 사회 질서의 유지 및 공민들의 권리의 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도 등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설정하고 제때에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회의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양되도록 그 준비 사업을 잘 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회의 준비에서 대의원들의 책임성과 역할

을 높여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인민 회의에서 일단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된 문제는 관할 지역내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 회의 결정은 그 집행 기관인 인민 위원회가 결정 집행을 위한 행정 조직 지도 사업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따라 그 집행이 크게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의 집체적 지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또한 부서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방 정권 기관들의 모든 사업은 결국 그 사업의 일정한 부문을 담당 수행하는 부서와 그 일'군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지방 정권 기관 책임 일'군들은 부서들이 자기의 기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도록 일상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지방 정권 기관들의 감독 통제적 기능과 행정 조직 지도 기능을 제고하고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 *

지방 정권 기관들이 정치적 주권 기관으로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그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정권 기관 일'군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인민 정권을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지방 정권 기관들은 당의 간부 선발 배치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간부 대렬을 실제 사업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그리고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질적 구성을 부단히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계속 강화하며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임에 있어서는 우선 그들이 우리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체계적으로 심오하게 연구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 과업을 능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지방 정권 기관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할 수 있도록 국가 건설과 법률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며 정권의 운영과 경제 관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전 당이 학습할 데 대한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그들 속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학습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책임 일'군들이 정무원들의 학습 조건을 옳게 보장해 주고 상학조, 강습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 운영하며 실제 사업을 통하여 그들을 꾸준히 인내성 있게 배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리 하여 지방 정권 기관 일'군들이 단순한 《행정 실무가》가 아니라 정치 활동가로서 자기 앞에 제기된 모든 문제를 넓은 정치적 안목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 정권 기관들이 정치적 주권 기관으로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새 환경에 적응하게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정권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철저히 확립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의 다양한 생활상 요구를 알아 낼 수 없으며 그것을 제때에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 정권 기관들은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사업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 가서는 해당 당 조직에 적극 의거하여 사업하게 하는 동시에 아래 일'군들과 합세하여 군중 속에 들어 가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과학적인 사업 방법과 사업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항상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기초 우에서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며 주관주의를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퇴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 정권 기관들이 정치적 주권 기관으로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또한 일'군들 속에서 인민적 사업 작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정권 기관 일'군들이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는 것은 인민 정권의 기본 사명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연적 요구이다.

우리 인민 정권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그러므로 지방 정권 기관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아득바득 애쓰며 그들의 요구와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하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 정권 기관들에서 정무원들로 하여금 인민의 충복답게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며 모든 활동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뿐 아니라 인민들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따뜻이 포섭하고 돌보아 주며 대중 앞에서 항상 소박하고 겸손하며 례절이 바르고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할 때 지방 정권 기관들은 정치적 주권 기관으로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생산과 규률

리 기 섭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매개 생산 단위들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더욱 튼튼히 확립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혁명적 규률의 강화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사회주의적 생산은 고도로 조직화된 대규모 생산이다. 여기에서는 전 사회적 규모에서 유일한 의지의 철저한 관철이 요구되며 모든 생산 환절들을 중앙 집권적인 엄격한 규률과 질서에 의거하여 움직여 나갈 것이 요구된다. 레닌은 일찌기 《…더욱더 엄격한 규률이 있기 전에는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레닌 전집 제 27 권, 381 페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생산이 고도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전제로 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적 생산 조직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그 규모가 커지고 내부가 째여지면 질수록 더욱더 강화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 규모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기술 장비도 급속히 제고되고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 운동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생산 단위들이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규률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부과된 임무를 훌륭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대중이 찾아 낸 무진장한 예비를 끝까지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 조건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생산에서 규률과 질서의 확립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래 동안의 경험에서 실증된 바와 같이 질서가 서 있고 규률이 있는 데서는 의례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공장에 가 보아도 생산 계획이 훌륭히 실행되는 데서는 규률이 째이고 질서가 서 있다. 째인 규률과 정연한 질서가 서 있는 데서 훌륭한 사업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김 일성).

생산에서 규률과 질서가 확립되여야만 잠재하는 생산적, 로력적 예비를 최대한 동원할 수 있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고 로동 생산 능률과 설비 리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속 대중을 혁명적 고조에로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매개 생산 단위들에서 규률과 질서를 보다 튼튼히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생산 관리 조직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생산과 관리의 모든 행정에서 이미 수립된 질서와 제도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군중 로선의 원칙에 기초한 생산 지도 사업, 자재 보장 사업, 후방 공급 사업 등 새로운 관리 체계의 모든 기능과 활동

을 더욱더 강화하게 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규률의 강화는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 생산 발전의 필연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혁명 정세의 요구이기도 하다.

오늘 조성된 국내의 혁명 정세는 추호의 안일성과 해이성도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 도발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을 탄압하면서 틈만 있으면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고 책동한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혁명적 규률을 강화함으로써 적들의 책동에 걸음마다 타격을 가하며 어떤 형태의 도발 음모가 있더라도 제때에 분쇄할 수 있는 항상 준비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실로 오늘 규률과 질서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는 것은 우리 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과 조성된 혁명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단위들의 사업을 개선하고 7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과 금년도 계획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　*

사회주의적 생산에서의 엄격한 규률과 질서의 확립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 태도를 극복하는 완강한 사상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일적 지배가 보장된 조건에서도 생산 과정에서는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사상 잔재와 생활 관습의 영향이 오래 동안 남아 있게 된다. 사'적 소유에 기초한 착취 사회의 유물들인 낡은 사상 잔재들은 일조일석에 근절되지 않으며 또한 수세기 동안 억압과 강제적 규률에 시달며 오는 과정에서 사람들 속에 형성된 낡은 생활 습성들도 단꺼번에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요구에 맞게 생산의 모든 환절들과 생산자 대중의 모든 활동을 통일시키고 조직화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된다.

사회주의적 규률은 사람들 속에 남아 있는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 생활 태도의 영향을 극복하고 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단위들과 일'군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통일시키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는 것 만큼 그것을 확립하는 과정은 낡은 사상, 관습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규률과 질서, 제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인 것이 아니라 생산 행정의 매개 고리마다에서 발로될 수 있는 온갖 낡은 사상, 관습을 반대하는 부단한 사상 투쟁 과정으로 된다.

이러한 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생산 현실에 맞게 규정과 규범을 작성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혁명적 대책들을 정확히 세울 수 있으며 사소한 무규률적 현상도 철저히 극복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에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모든 일'군들이 당이 제기하는 과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혁명적 사업 기풍, 생활 기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생산 체계 내의 매개 단위들을 정연한 질서와 엄격한 규률로 무장된 전투 대오로 꾸리기 위

한 선결 조건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각자가 자기 맡은 부문의 일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질서와 규률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422 폐지).

모든 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서 맡은 임무를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책임성과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을 소유하고 그것을 실천 활동에서 옳게 구현한다면 사회주의적 규률과 배치되는 그 어떤 편향도 철저히 방지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사업 기풍이 설 때에만 맡겨진 일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자유주의적 사업 태도도 능히 극복될 수 있으며 되는 대로 일하고 되는 대로 사는 절도 없는 생활 태도도 머리를 추켜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규률에 배치되는 안일성, 해이성도 바로 이러한 기풍이 확립되는 조건에서만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

당과 국가로부터 받은 생산 계획을 매일, 매월, 매 분기 지표 별로 수행하는 문제도, 로동 행정 규률을 비롯한 모든 규정, 질서들을 엄수하는 문제도 바로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인 사업 기풍, 생활 기풍을 확립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인민 경제 계획은 전체 인민의 통일적 의사와 혁명의 매개 단계, 매개 시기에 당 앞에 나서는 정치, 경제적 과업들을 구체화한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생산 계획 수행에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 단위들과 일'군들이 당과 혁명이 제기하는 임무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자기의 온갖 정력을 다하여 끝까지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투지를 발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산 계획 수행에 높은 책임성이 없이 림할 때에는 사소한 난관 앞에 굴복하거나 동요할 수 있으며 결국 계획 규률을 위반하는 데로 떨어지게 된다. 일'군들이 혁명 과업에 대한 높은 당'적 책임성을 발휘하고 혁명적인 사업 기풍과 생활 기풍을 확립함으로써만 월말이나 분기말에 가서 계획을 《돌격식》으로 《실행》하며 하거나, 금액 상 계획 수행에만 급급하면서 품종 별, 지표 별 계획 수행에는 관심을 덜 돌리며, 무원칙한 계획의 공사를 벌여 놓는 것과 같은 현상들을 철저히 근절할 수 있다.

또한 480 분 로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동 안전 규정과 기타 모든 로동 행정 규정, 질서들을 준수하는 문제도 일'군들 속에서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들을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 사업 기풍을 확립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매개 생산 단위들과 일'군들은 낡은 사상, 관습의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적인 사업 기풍과 생활 기풍을 튼튼히 확립함으로써 생산과 관리의 모든 고리들과 측면들에서 사회주의적 규률의 제반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생산과 관리는 모든 고리들과 측면들에서 질서 정연한 활동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자기의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다. 만일 어느 한 고리나 어느 한 측면에서라도 사회주의적 규률의 요구가 정확히 준수되지 못 한다면 생산과 관리의 전반적 활동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 매개 생산 단위들에서는 생산 계획 수행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 계획 수행에서도 엄

격한 규률을 세워야 하며 제품 생산량을 계획 대로 엄격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로동 생산 능률, 원가, 수익성 계획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품종 별 계획에서도 다른 모든 지표들과 함께 특히 수출품 생산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수출품 생산 규률은 국가의 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 만큼 이것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철저히 준수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 규률 뿐만 아니라 표준 조작법, 설비 관리 규정, 재정 활동 규정 등을 포함한 모든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반적 측면에서 제도와 질서가 엄격히 확립되여야만 사회주의적 생산과 관리는 시계 바늘과 같이 맞물며 돌아 갈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급속히 발전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규률의 자그마한 한 조항이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다른 사업에 이러저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생산과 관리의 정상화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높은 당'적 책임성은 모든 고리와 모든 측면에서 단 하나의 무질서한 현상도 발생되지 않도록 규률과 질서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발현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전반적 측면에 걸쳐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여야 우리는 엄격한 사회주의적 규률이 섰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당과 국가 앞에서 맡은 과제를 책임성 있게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일'군들이 당'적, 국가적 립장에 튼튼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적 생산은 거기에 참가하는 매개 단위 내부에서 질서와 규률이 확립되여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 단위들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들도 정확히 준수되는 조건에서만 정상적으로 급속히 발전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매개 단위들은 동지적 협조와 방조의 원칙에서 호상 긴밀히 련결되여 있는 유일한 생산 체계 내의 개개의 환절들이다.

사회주의적 규률은 바로 생산 단위들간의 이러한 호상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모든 생산 단위들의 조화로운 련계와 협조를 부단히 강화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생산 단위들 간의 규범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들이 협소한 기관 본위주의적 사업 태도를 철저히 근절하고 전 국가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의 사업을 조직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관 본위주의는 모든 활동이 전 국가적인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리와 량립될 수 없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을 구체화한 사회주의적 생산 단위들의 활동 준칙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기관 본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협동 생산 규률, 물자 공급 규률, 재정 규률 등과 같은 사회주의적 생산의 중요한 규률들이 정확히 준수될 수 있다.

일'군들이 기관 본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지 못 한다면 협동 생산 과제와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의 수행에 대하여 적은 관심을 돌리며 다른 생산 단위들에 넘겨 줄 물자의 공급 의무는 정확히 수행하지 못 하면서 일방적인 요구만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로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매개 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서 지닌 자기의 임무를 옳게 인식하지 못 한 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매개 생산 단위의 일'군들의 임무는 자기 앞에 부과된 생산 과제를 정확히 수행함으로써 전반적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다. 아무리 생산물을 많이 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 응당한 기여를 하지 못 했을 때에는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생산 관리에 참가하는 모든 일'군들이 협소한 자기 단위의 사업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견지에서 항상 문제를 보고 전반적 생산의 앙양을 위하여 머리를 쓰는 사업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 기풍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산 과제를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타 기업소에 대한 계약 의무의 수행에 더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협동 생산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행하며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가장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고 항상 국가적, 당'적 견지에 서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매개 생산 단위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생산 단위들의 호상 관계에서도 엄격한 혁명적 규률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 *

사회주의적 생산에서 규률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에 대한 교양과 무규률적 현상에 대한 행정적, 법적 통제를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하에서 규률을 강화하는 방도는 경찰과 채찍에 의한 강제, 벌금과 해고의 위협, 회유와 기만 등과 같은 착취 사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여기에서는 해설과 설복, 정치 사업의 선행이 기본 방도로 된다.

우선 모든 일'군들에게 사회주의적 규률의 성격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적 규률은 자본주의적 강제적 규률과는 달리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이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공동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근로자들 자신의 동지적 규률이며 자각적 규률이다.

사회주의적 규률은 광범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의식성에 튼튼히 의거하는 것으로 하여 과거 착취 사회의 그 어떠한 규률에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위력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근로자들 자신의 자각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큰 위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규률이 근로자들 자신의 자각적 규률이라 하여 그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무조건 복종하여야 할 혁명적 규률이다. 이 규률의 사소한 위반도 그것은 당과 혁명의 리익에 직접 손실을 주는 행동으로 되며 당과 혁명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규률은 과거의 그 어떤 규률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고 엄격한 규률로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규률의 이러한 특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근로자 대중 속에서 당과 혁명의 리익에 대한 자

각을 높이고 그에 무한히 충실하기 위하여 자각적으로 투쟁하는 동시에 당과 혁명에 손실을 끼치는 사소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 속에서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규률성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 기풍을 확립하며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 정신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발양시키고 사회주의적 준법성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인내성 있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단한 사상 교양 과정에서만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낡은 생활 태도와 사업 태도가 철저히 근절되고 모든 지도 일'군들로부터 전체 근로자 대중에 이르기까지 생산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제도와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설 수 있다.

생산에서의 사회주의적 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교양과 함께 무규률적 현상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행정 기관들 특히는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통제적 역할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모든 단위에서의 생산 계획 수행의 매걸음마다를 당 정책에 엄격히 립각하여 진행되도록 하며 당 정책과 법 및 행정 질서에 대한 사소한 위반 행위도 제때에 적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 정권 기관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인민 경제 계획과 재정 예산 지출안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비준하며 그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한 현상을 엄격히 방지하며 해당 지방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이 당과 국가가 준 임무를 정확히 집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통제의 한 형태로서의 기업소 호상간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공급 계약 규률, 협동 생산 규률 등과 같은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이와 함께 각종 법적, 행정적, 재정적 통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 조직들의 교양과 행정적, 법적 통제가 옳게 결합되여 전면적으로 강화될 때 모든 일'군들은 생산에서의 사회주의적 규률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며 생산과 관리에서의 정연한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적 생산은 더 빨리 장성될 것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지도 일'군들의 이신작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규률과 질서를 지키는 데서 지도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수십 건의 지시나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지도 일'군들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규률과 질서의 요구에 엄격히 의거하는 기풍을 솔선 수범하여야 하며 또한 청산리 방법으로 광범한 근로자 대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을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로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모든 지도 일'군들과 전체 생산자 대중이 사회주의적 규률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은 더 빨리 추진될 것이며 우리 앞에 나선 혁명 과업들은 빛나게 수행될 것이다.

설비 리용률 제고의 중요 고리

—부속품 생산 공급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임 창 선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7개년 계획 수행의 결정적 시기인 지금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 과업은 예비 부속품 생산을 확고히 선행시키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지난 시기 특히 금년 상반기의 경제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부속품 생산 공급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시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지금 모든 부문에서 이 사업을 강화하여 3개월 분 이상의 예비 부속품을 반드시 확보하며 설비의 점검 보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할 것을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소 경제 지도 일'군들이 이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는 데서 부속품 생산을 선행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기계 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 보수의 진행, 돌발적인 사고의 방지, 보수로 인한 기계 설비 휴지 시간의 축감, 대중적인 설비 점검 사업의 보장 등 설비 리용률 제고의 제 요인들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본 고리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기계 설비를 보수하며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은 기계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 된다. 아무리 현대적인 기계 설비라 하더라도 제때에 그것을 보수하며 부속품을 갈아 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만일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과정에 서로 마찰되고 충격을 받아 부단히 마모되는 기계 설비들의 갖가지 부속품과 부분품들을 제때에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미리 충분하게 마련하여 두지 않는다면 기계를 세워 놓고 그것들을 깎는 현상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예방 보수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운다 하여도 실현할 수 없고 보수로 인한 휴지 시간도 단축할 수 없다. 부속품 생산의 선행은 보수의 질을 제고하며 돌발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수 주기를 연장시킴으로써 설비의 성능도 최대한 제고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지난해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의 경험은 부속품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기업소의 계획 수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각종 치차류를 비롯한 예비 부속품들을 재질 별, 규격 별로 선행시키는 데 힘쓴 결과 지난해 전선 직장의 압연기 보수에서만도 그 기일을 종전보다 10 분의 1 이하로 단축시켰다. 그리 하여 이것만으로도 기업소에서는 한 달 동안에 생산하여야 할 압연 제품의 근 30%를 보장할 수 있었고 전반적인 생산 계획 수행에 큰 도움을 받았다.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자립적 중공업이 자동차, 뜨락또르, 엑스까와또르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인민 경제 각 분야에 해마다 더욱더 많이 공급하고 있는 만큼 부속품 생산을 강화하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제기되리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실로 부속품 생산의 선행은 공장, 기업소의 설비 관리 사업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 사업의 하나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기술 관리 사업을 잘 하는 것이다.**

공무 동력 직장을 강화하고 설비들에 대한 점검 보수 체계를 확립하며 예비 부속품들을 규정된 대로 보유하고 각종 기계 사고들을 미연에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그러면 현시기 부속품 생산 공급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속품 문제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잡는 것이다.

왜냐 하면 공장, 기업소를 관리 운영하는 일'군들이 기본 생산 과제의 중요성만을 보면서 부속품의 확보에는 덜 관심을 돌리거나 부속품 생산을 부차적인 일처럼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좀처럼 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일'군들이 자신부터 먼저 부속품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생산 조직 사업의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대중들에게 잘 알려 줄 때만이 3 개월분 이상의 예비 부속품을 확보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군들이 부속품 생산에 대한 옳은 관점에 선다면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처럼 조립품이나 생산액이 높은 지표를 생산하는 데만 힘을 돌리며 부속품은 여유 시

간이 나야 깎으며는 것과 같은 현상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부속품 생산 공급 사업을 강화하려면 일군들이 전 국가적, 전 인민 경제적 립장에 확고히 서는 문제가 또한 필요하다.

부속품 생산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기관 본위주의의 작은 표현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다른 부문 기업소들이 요구하는 각종 부속품들을 품종과 규격, 지표에 따라 약속한 시일 내에 어김 없이 보내 주는 강한 제도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일군들이 다른 기업소들에서 받아 올 설비나 자재 등에 대해서만 머리를 쓰며 자기가 보내 주어야 할 부속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덜 느끼게 된다면 다른 기업소의 사업과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에 큰 지장을 줄 것은 정한 리치이다. 기관, 기업소들에서 협동 생산 의무를 잘 준수하지 않게 되면 다른 기업소의 생산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결국은 자기 기업소에서 받아 와야 할 설비나 자재도 제때에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만큼 이 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협소한 기관 본위주의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 국가적, 전 인민 경제적 립장에 확고히 서며 상대방 기업소를 성심 성의 도와 주는 동지적이며 책임적인 사업 기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에서 생산과 공급 사업을 짜고 든다면 부속품 문제는 더욱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2

우리 당은 오늘 부속품 생산 공급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부속품을 규격화하며 그 생산을 점차 전문화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김 일성 동지는 자동차와 뜨락또르 공장들에서 부속품 생산까지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부속품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완성품 생산에도 일정한 지장을 주는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대중소 규모의 부속품 생산 전문 공장을 더 많이 꾸릴 것을 교시하였다. 이 교시는 부속품에 대한 증대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며 완제품 생산 공장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중요한 기계 설비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부속품을 규격화하며 그 생산을 전문화하는 일은 서로 밀접한 련계 하에서만 잘 풀릴 수 있다. 부속품 생산의 전문화는 계획화 사업을 강화하고 규격화를 그에 안받침할 때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규격화와 전문화를 잘 하는 것은 계획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제로 된다.

우선 부속품 생산에 대한 계획화를 더욱 개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은 부속품 생산을 계획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개 단위들에서의 부속품 소요량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기가 써야 할 부속품의 수량과 품종을 기계 설비의 낡은 것과 새것 간의 차이

라든가 부속품의 수명과 마모 상태, 작업 시 받게 되는 각이한 부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확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존 기계 설비의 보유 대수에만 의거하여 계산한다면 절실히 필요한 부속품들은 해결하지 못 하면서도 적지 않은 량을 체화시키는 현상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성진 제강소의 경험이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수년 전만 하여도 이 기업소에서는 기계 설비들의 부속품 마모 상태를 과학적으로 판정한 데 의하여 그 소요량을 타산하지 못 하였다. 결과 한편에서는 부속품이 남아 돌아 가도 일부 필요한 것들은 없어 보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적지 않았다. 1961년에 이 기업소에서 계획에 예견하여 생산한 부속품들 중 실제로 사용한 것은 계획 건수의 27%, 계획 종수의 30%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오늘 이 기업소에서는 부속품의 소요량을 구체적인 작업 조건에 따라 규격과 품종 및 재질 별로 확정함으로써 부속품 생산 계획은·물론 설비의 예방 보수 계획도 과학 기술적 자료에 근거하여 세울 수 있게 되였다. 그 뿐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매해 생산하여야 할 부속품의 총량도 해마다 줄어 든다는 것을 이 기업소의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1963년을 100으로 할 때의 다음과 같은 자료가 그것을 실증하여 준다:

(%)

년도	상시 마모품		3개월 예비 부속품		보수용 부속품		계	
	건수	개수	건수	개수	건수	개수	건수	개수
1964	50.2	70.7	41.3	60.4	81.7	57.4	74.0	53.4

지금 이 기업소에서는 해마다 부속품 생산의 총량이 줄어드는 조건에서도 부속품이 없어 기계를 멈추는 일은 없게 되였고 설비의 리용률도 부단히 높아지고 있다. 성진 제강소에서는 지난해에 그 전해보다 야금 설비 시간 당 리용률은 3%, 전기로의 종합적 리용률은 8.6% 더 높아졌다.

부속품에 대한 정확한 수요의 연구는 개별적 단위에서만 아니라 인민 경제 부문 또는 전국적 범위에서도 진행되여야 한다. 인민 경제 부문 또는 전국적 범위에서 부속품의 수요를 계통적으로 연구하고 그 해결 대책을 미리 취하는 것은 부속품 생산의 전문화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전제로 되며 기계 설비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들을 예견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부속품 생산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은 앉아서 수요자들이 기술 문건을 가지고 올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대방 기업소에 찾아 가서라도 기술 합의를 신행하는 사업 기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업소의 설비 능력, 그 부하 정도,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기업소 설비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도 하지 않고 기술 조건도 모르며 도면도 없이 부속품 생산 계획을 작성한다면 그 계획은 지상 공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성, 국들은 부속품 생산의 계획화에서 생산액과 중량 상 계획만을 시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지표 별 수량과 선후차까지 규정하여 주고 그 실행에 대한 총화 평가 사업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부속품 생산의 전문화를 추진시키자

면 계획화 사업을 강화하는 데 기초하여 가능한 한 모든 부속품들을 규격화하여야 한다.

부속품을 규격화한다는 것은 같은 종류와 규격의 부속품들을 여러 설비와 기대들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속품의 품종을 감소시키며 계획화 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부속품 생산의 전문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규격화 문제는 우리 나라의 기계 설비들이 일제 시기의 것, 전후 여러 형제 나라로부터 들어 온 것, 우리가 자체로 만든 것 등 여러 가지 종류와 규격으로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부속품들도 규격화되여 있지 못 한 까닭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매개 기업소의 공무 동력 직장을 잘 꾸려 필요한 부속품들을 될수록 자체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부문에서 점차 규격화된 부속품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이미 규격화된 부속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종은 다른 부문 기업소들에서 다시 만들지 않아도 전국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한 지역이나 단위 별로 기계 설비의 형, 례하면 뜨락또르나 자동차의 차종을 통일시키는 조치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조건에서도 공장, 기업소 별로 같은 형, 같은 규격의 설비들을 통일시킨다면 해당 공장, 기업소의 공무 동력 직장 범위에서는 전문화된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의 품종들만을 가공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대형 뜨락또르를 비롯한 주요한 기계 설비들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될수록 우리 나라에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규격이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부속품의 규격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이다. 이미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설비들 중에서도 그 대수가 많지 않은 낡은 설비들은 대보수나 부속품을 교체할 때 될수록 규격화된 부속품들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품종을 점차 정리하여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부속품의 종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게 할뿐더러 아직 일부 수입하고 있는 부속품들도 점차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부속품의 규격화 정도와 우리 나라 기계 공업 발전의 수준에 상응하게 생산을 점차 전문화하는 것은 부속품 생산 공급 사업 개선의 결정적 고리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부속품 생산을 전문화할 데 대한 방향과 그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선 지금 매개 공장의 공무 동력 직장들에서 제각기 생산하고 있는 볼트와 낫트, 치차 등 공통적으로 리용되는 부속품들을 하나 혹은 몇 개의 기계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하여야 하겠다. 볼트, 낫트, 치차 등을 전문적인 기계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면 전문 설비들도 도입할 수 있고 지금보다 생산성도 훨씬 높일 수 있고 자재도 절약할 수 있고 부분품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분품 생산을 전문화하면 현존 공무 동력 직장들의 설비를 더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부속품 생산의 전문화에서는 이미 꾸려진 전문 공장들의 능력을 최대한 동원 리용하면서 새로 전문 공장, 직장, 작업반들을 조직하며 수리 공장들에서도 일정한 품종들을 담당하여 생산하는 것이 요구된다.

부속품 생산을 담당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우선 기업소 내부 전문화를 심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기술 공학적으로 보아 동일하거나 류사한 품종들을 선별하고 그 규모에 따라 전문 직장 또는 작업반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기술 장비 수준을 높이고 일'군들을 고착시켜야 한다.

전문화의 조직에서는 특히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같은 품종의 부속품들을 통합하여 생산의 중복성을 없애며 치차류, 축류, 메달류, 계기류, 고무 제품 등 비교적 같은 성격의 품종 별로 생산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 조직되는 전문 공장이나 직장의 경우에는 기업소의 설비 능력과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에 알맞도록 생산 공정이 간단한 품종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하고 정밀한 부속품들을 생산하는 데로 이행해야 한다.

부속품 생산의 전문화를 실현하는 데서 중소 규모 공장들을 많이 꾸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중소 규모 공장들을 잘 꾸려 매 공장들이 한두 가지의 부속품이라도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게 되면 완제품 생산 공장들의 부담을 훨씬 덜어 주어 이 기업소들에서 기본 생산에 더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할 것이다.

경험은 뜨락또르, 자동차 등 일련의 큰 기계 설비들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중소 규모의 공장들에서 간단한 설비로 만들 수 있는 부속품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대중소를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부속품 생산 분야에도 전'적으로 해당된다.

일'군들이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소극성을 없애고 자그마한 공장이라도 잘 꾸려 한두 종류의 부속품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 만큼 예비 부속품 문제는 더 잘 풀려 나갈 것이다.

3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부속품의 질을 높이며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부속품의 질 제고는 설비 리용률 제고의 중요 요인으로 될 뿐 아니라 많은 자재와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부속품의 량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기본 고리로 된다. 그것은 외화를 극력 절약하는 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부속품 전문 공장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기술 혁신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품종을 확대하며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기술적 조건과 정밀도를 요구하는 품종들을 더 많이 만드는 투쟁을 통해서만 부속품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기술도 더 발전할 수 있다. 힘들다고 하여 남에게 의존하거나 이미 생산하는 지표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기술은 그

만큼 더디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가 기술 장비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한다면 부속품 생산 기지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 현존 생산 능력도 더 높이 발휘시킬 수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지 못한 것들도 속한 시일 내에 자체로 해결할 수 있다.

부속품의 질을 높이자면 금속 공장들에서 각종 강재를 재질과 규격에 따라 책임적으로 생산 공급해 주는 한편 그것을 쓰는 기업소들에서 재질과 용도에 맞게 합리적인 열 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 처리 문제는 지금 부속품 생산에서만 아니라 금속재를 가지고 가공품을 만드는 모든 곳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현재 유색 금속을 쓰는 적지 않은 부문들에서도 열 처리 문제를 잘 해결하면 많은 유색 금속을 절약하고 그 대신 흑색 금속을 리용하면서도 질이 훨씬 더 높고 수명이 긴 금속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할 수 있다.

부속품 생산의 경우에 열 처리의 우월성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일례로 부속품 생산에서 합리적인 재질의 선택과 침탄, 질화, 류화, 청화 등 선진적 열 처리 방법의 도입은 메달이나 치차, 차륜 같은 부속품의 수명을 3~5 배 더 연장시킬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재질을 잘 선택하고 열 처리를 철저히 하면 이전에는 3~5 개를 쓰던 것도 1 개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열 처리의 도입은 강철의 기계적 성질을 변화시킴으로써 금속 제품이 각이한 작업 조건 하에서도 믿음성 있게 리용될 수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제품의 중량도 감소시키고 수명도 연장시키는 중요 방도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열 처리 기술 공정을 개선 강화하려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 관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매개 부속품에 대한 공정표를 정확히 작성하여 생산자들이 그것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적극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부속품의 질을 높이자면 이 밖에도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해당 부속품의 치수, 규격, 재질 등 모든 기술 조건들을 정확히 합의해야 하며 시제품 생산을 선행시키며 엄격한 검사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속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에 있어서 낡은 부속품들을 적극 재생 리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부속품 생산에서의 내부 예비를 동원하는 것으로 될 뿐 아니라 특히는 공작 기계 설비들의 부담을 덜어 주며 부속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지난해 교통 운수 위원회 륙운 총국에서는 460여 톤의 부속품을 재생 리용하여 국가에 큰 리익을 주었으며 기계 공장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매우 교훈적이다.

부속품의 재생 리용에서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은 지금 인민 경제 각 분야에 널리 도입되고 있는 내마모 용착법을 더욱 광범히 일반화하는 것이다.

내마모 용착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기술 공정이 단순하며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높다.

지난 기간 무산 광산의 경험은 그 우월성을 잘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이 광산에서는 내마모 용착법을 도입함으로써 종전보다 굴착기 바가지의 보수 주기는 4 배, 주행 부분의 보수 주기는 6 배 이상으로 연장하였다.

내마모 용착법은 채굴 공업, 건설 건재 공업, 금속 공업, 철도 운수, 농업 부문 등 어디서나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확증되였다. 그런 만큼 지금 문제로 되는 것은 일'군들이 그것을 도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것이다. 경험은 아무리 선진적인 기술이나 생산 방법도 그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써는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새 기술, 새 방법의 우월성을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는 사업과 함께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안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마모 용접봉과 용접기 등 그것을 도입하기 위한 물질적 보장 조건을 앞세우며 부속품의 수리 질서와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닳아서 쓸모 없이 된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하며 새것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낡은 것을 회수하는 대품 제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부속품 생산 공급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부속품 상사를 비롯한 이 부문 전문 기관과 부서들, 수송 기관들이 놀아야 할 역할이 자못 크다. 이 부문 일'군들은 부속품 생산 공급을 위한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기업소 생산 계획 작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생산자들과도 일상적으로 접촉하여 당 정책도 해설해 주고 걸린 문제도 같이 풀어 나감으로써 협동 생산의 지휘자적 역할을 충분히 놀아야 한다.

부속품 생산 공급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일'군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사업에서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설비 리용률의 제고와 생산의 정상화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 계급의 혁명적 동지애

리 형 우

오늘 우리 나라 사회 성원들의 정신-도덕적 풍모는 참으로 몰라 보게 아름 다와졌다. 로동 계급을 비롯하여 농민, 인테리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 미풍이 꽃 피여 나고 있으며 특히 혁명적 동지 우애심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우리 사회 성원들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혁명적 동지 우애심은 한 일터, 한 마을의 벗에 대한, 친우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우정으로, 세계의 모든 혁명 전우와 동맹자에 대한 전투적 우의로 발현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로동자와 농민, 인테리들이 혁명의 전우로서, 형제로서 동지적으로, 인간적으로 공고히 결합되고 있으며 서로 어깨겯고 서로 도와주며 있는 힘과 지혜를 합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은 조국 남반부 인민들의 구국 투쟁을 지원하는 애국 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미제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웰남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 벗들의 투쟁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 성원들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이러한 혁명적 동지 우애와 전투적 우의는 참으로 귀중하다. 이 숭고한 정신적 풍모는 우리 앞에 놓인 제반 혁명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 *

혁명적 동지애는 혁명 전우를 신뢰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의 하나이다.

혁명적 동지애는 로동 계급에게 고유한, 로동 계급의 사상, 도덕을 체현한 사람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도덕 품성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사회 생활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며 인간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게 될 때 사람들 간에는 벗으로서의 우정이 싹트게 되고 동지적인 관계가 맺히게 된다. 그러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 리윤 추구를 최고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정한 동지적, 우의적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각자는 자기를 위하여》, 《사람은 사람에게 승냥이》라는 략탈자의 륜리가 지배한다.

사람들 간에 진정한 동지적 관계가 형성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가 정치 사상적으로 결합되여야 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진실한 방조가 오가야 하는 것

이다.

로동 계급은 자기들이 처한 계급적 처지의 공통성, 사상과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함께 투쟁하는 행정에서 혁명적인 동지적 관계를 맺게 되며 인류 력사 상 어느 계급에게서도 찾아 볼 수 없었던 그런 고상한 동지 우애심을 발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진정한 동지애는 같은 사상, 같은 목적을 가진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공동 투쟁을 하는 행정에서 형성되며 공고화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혁명적 동지애는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초보적인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정권을 쟁취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반 행정에서 발양된다.

로동 계급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은 참으로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는 치렬한 투쟁 과정이다. 로동 계급이 이러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힘의 원천은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오직 단결에 있다. 로동 계급은 단결할 때만이 무장한 부르죠아지를 타도하고 정권을 전취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단결은 정치-사상적 단합으로써 뿐만 아니라 혁명적 동지애로, 전투적 우의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불패의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은 자기 혁명 활동에서 항상 혁명적 동지애, 전투적 우의를 초석으로 여겨 왔다. 로동 계급은 혁명 활동에서 서로 계급적으로, 동지적으로, 인간적으로 굳게 결합되였으며 혁명 전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였고 필요하다면 혁명과 전우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사는 혁명가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혁명적 동지 우애의 수 많은 미담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전 세계의 위대한 혁명의 스승들인 맑스와 엥겔스의 생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전우의 관계는 혁명적 동지 우애의 전형적 모범으로 된다. 그들은 40여 년 동안 변함 없는 열렬한 동지적 우의 속에서 활동하여 왔다. 그들이 이룩한 과학 상의 위대한 발전과 세계 로동 운동 발전에 기여한 불후의 공적은 두 전우의 태양과도 같이 뜨거운 동지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옛'이야기는 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실례를 이야기하여 준다. 구라파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과학은 학자이며 투사인 두 사람이 창시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인간적 우정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모든 옛'이야기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레닌 전집 제 2 권 1 분책, 17 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혁명적 동지애의 전형이 이룩되였다. 항일 빨찌산들에게서 발현된 고상한 혁명적 동지애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참으로 높이 발양되였다: 고난의 행군 속에서 한 홉의 미시'가루를 놓고 오고 간 마음들, 한

혁명 동지를 간호하기 위하여 돈화의 밀림 속에서 70여 일 간의 간고한 시련을 이겨 낸 김 명화 어머니의 피어린 투쟁, 리 제순, 박 록금 동지들이 지하 공작을 하다가 체포되였을 때 전우의 책임까지 맡아 나서 서슴없이 단두대에 오른 자기 희생성 등에서 우리는 그들의 높은 혁명적, 전투적 우정과 진정한 동지애를 력력히 본다.

항일 빨찌산들이 15 성상 백두의 밀림 속에서 후방도 없이 실로 100만의 대군을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은 중요한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렇듯 진정한 혁명적 동지애는 사회의 선진 계급인 로동 계급에게서, 로동 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혁명가들, 공산주의자들에게서 가장 높이 발현되며 또 이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로동 계급이 정권을 쟁취하고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한 이후에 있어서는 비단 로동 계급과 혁명가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서 혁명적 동지애가 높이 발양되여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 성원들이 정치적 자각성, 창조성에 기초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만 건설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 사상적으로 통일되여야 하며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단결되여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몸바쳐 일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개인 본위적이고 비동지적, 비우의적 행위는 근절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주의적 생활 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의 목적 실현을 방해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함께 나가는 모든 사회 성원들이 혁명적 동지 우애심을 발양하는 것은 생활의 객관적 요구로 된다.

한편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 성원들 속에서 혁명적 동지 우애심을 개화시켜 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 수단의 소유자로 됨으로써 집단과 개인의 리익, 사회 성원들 호상 간의 리익이 통일되여 있다. 여기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행동이 주는 영향은 그 사람 자체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전 사회의 리익, 다른 사람의 리익에 직접, 간접으로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일을 남의 일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일로 생각하여야 하며 호상 돕고 받들고 나가는 것을 생활의 준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 성원들이 호상 진심으로 결합되여 합심하고 호상 방조하는 것—이것은 사회주의 제도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 우월성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 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 데 있다》(김 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오늘 우리 나라는 실로 세인을 경탄시키면서 천리마의 높은 발전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 우리 나라가 이러한 높은 속도로 내닫는 비결도 바로 우리 제도 하에서 당에 의하여 교양된 길 확실, 리 신자, 리 홍렬 등의 천리마 기수들과 김 재엽 2중 천리마 작업반 성원들과 같은 높은 혁명적 동지애, 인간성을 체현한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들이 자라 나고 있는 데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풍모가 점차 전 사회의 성원들 속에 보편화되여 가고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치 사상적으로 통일되고 동지적으로,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되며 전 사회가 생기발랄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전변될 때 우리 사회는 참으로 불패의 힘을 가지게 된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제반 과업들: 7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긴장되게 투쟁하는 것도 바로 우리 사회 성원들이 혁명적 동지 우애심과 있는 지혜, 힘을 발휘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　　*

혁명적 동지애는 혁명적 실천 행정에서 형성되며 발현된다.

혁명적 동지애의 형성의 기초는 혁명적 실천이다. 혁명적 동지 우애심은 혁명 동지들이 혁명의 한 대렬에서 어깨 겯고 함께 싸워 나가는 행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공산주의적 동지애는 혁명적 실천을 떠나서 그 어떤 개인들의 기호나 취미에 의해서 맺어진 《우정》과는 인연이 없으며 또 개인의 취미에 기초한 《동지애》란 사실 상 공허한 것이며 빈 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로동 계급의 혁명적 동지애는, 계급 사회에서는 부르죠아지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권을 잡은 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에서 형성되며 발현된다.

로동 계급의 혁명적 동지애는 혁명적 실천에서, 혁명적, 전투적 분위기 속에서, 혁명 투쟁이 긴장되면 될수록 더 높이, 더욱 뜨겁게 발현된다. 그것은 로동 계급의 혁명 활동에 있어서 동지애, 인간성은 혁명성, 전투성과 통일되여 있기 때문이다.

혁명성, 전투성에는 당성, 계급성과 더불어 인간성, 동지 우애심이 내포되여 있으며 인간성, 동지애는 혁명적 실천에서 혁명성, 전투성을 요구한다.

자기 전우, 자기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아끼는 진정한 인간성, 동지 우애심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혁명 활동에서 불요불굴성, 전투성을 발휘케 하며 또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혁명적 실천에서 용감성, 자기 희생성이 발휘되는 행정에서는 동시에 진정한 동지애가 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적 동지 우애심은 혁명적 실천 속에서 혁명성, 전투성과 통일됨으

로써 정확하게, 또 높이 발현된다.

만일 혁명성, 전투성과 인간성, 동지애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거나 지어 상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리론적으로 착오일 뿐 아니라 혁명적 실천 활동에서 필연코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혁명적 실천에서 혁명성, 전투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차적인 요구이다. 우리의 혁명 사업은 항상 긴장되고 복잡한 투쟁이며 따라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과 애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혁명성, 전투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더욱더 뜨거운 인간성, 동지 우애심을 발휘하는 것은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는 관건적 문제로 된다. 혁명성, 전투성을 계속 견지하면서 인간성, 동지 우애심이 그에 상응하게 높이 발현되여야만 사회 성원들의 전투 사기도 올라 갈 수 있으며 제기된 모든 난관과 애로들이 극복되고 전투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만일 긴장된 투쟁이 진행된다고 하여 《혁명성》, 《전투성》만 강조하면서 혁명 동지들에 대한 응당한 배려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다운 혁명가—로동 계급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매우 해로운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의 혁명성을 제고할 수 없으며 집단의 분위기를 혁명적 랑만으로 들끓게 할 수 없으며 결국 사회의 화목과 통일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업이 바쁘고 긴장되면 될수록 혁명성, 전투성을 높이면서 인간성, 동지 우애심을 더욱 발휘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진정으로 돌봐 주고 인간적인 배려를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진정한 혁명적 동지애는 혁명적 실천 속에서 형성되고 가장 아름답게 피여 나는 것이다. 이러한 동지애에 기초함으로써만 사회의 정치-도덕적 통일은 공고하게 되는 것이며 이 힘은 불패의 위력을 낳게 되는 것이다.

혁명적 동지애는 또한 모든 사회 성원들이 인간 관계를 다만 자기 맡은 사회적, 행정적 위치에서 행정 실무적으로만 맺는 낡은 사상, 생활 인습을 극복함으로써 옳게 형성되며 발현된다. 특히 혁명의 지휘 성원인 지도 일'군들이 인민들과 아래 사람들과의 관계를 행정 실무적으로 뿐 아니라 동지적, 인간적 관계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 성원들의 동지적 단결, 화목을 조성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웃사람이 인민들과 아래 사람들과의 관계를 행정 실무적 관계로만 맺는 것은 부르죠아적 관점이며 낡은 사회의 생활 인습이다. 부르죠아 사회에서 통치배들, 관리들은 인민들과 아래 사람들을 다만 자기의 고용인으로, 착취 대상으로만 본다. 따라서 부르죠아 사회에서 사람들의 호상 관계는 경제적 타산에 기초하여 행정 실무적으로만 맺어진다. 그 이상 달리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적 륜리는 지도 일'군들과 인민들, 아래 사람들과의 관계를 행정 실무적 관계로 보기 전에 우선 혁명적

우의 관계로 볼 것을 요구한다.

지도 일'군들은 대중 속에서 나와 대중에게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따라서 지도 일'군들이 자기를 길러 준 인민들과 아래 사람들을 혁명 동지로서, 전우로서 여기는 것은 응당한 도리이다.

지도 일'군들이 인민들과 아래 사람들을 혁명 동지로, 혁명 전우로 대하는 진정한 혁명적 동지 우애심이 있을 때 아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 전반을 책임 지고 돌봐 주려는 혁명적 의리와 책임감이 발휘된다. 또 지도 일'군들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써 인민들과 아래 사람들의 생활을 돌봐 줄 때 그 배려와 생활 대책은 참으로 진실성 있고 실속 있게 되는 것이다.

가령 지도 일'군들이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영예 군인들의 생활을 돌봐 주는 문제를 놓고 보아도 그렇다. 그들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당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 부모,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친 우리 당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혁명 동지들이다.

지도 일'군들이 그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돌봐 주려면 그들은 모두 어제'날에 자기와 함께 어깨겯고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 전우의 가족들이며 영예로운 부상을 당한 혁명 동지라는 뜨거운 동지 우애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이 항상 웃음과 환희로 차게 하며 혁명적 랑만으로 차서 계속 꽃이 피도록 하려면 지도 일'군들이 그들을 혁명 동지로, 전우로서 진실성 있게 대하고 진정한 동지적 관심과 배려를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 우리 당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녀성들의 사회 진출 문제도 역시 그것을 해결하는 고리는 전'적으로 녀성들을 혁명적 관점, 동지적 관점으로 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지도 일'군들이, 녀성들은 과거 혁명 투쟁 시기도 그랬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도 함께 어깨겯고 투쟁해 나가야 할 혁명 동지라는 관점을 정확히 가질 때 그들을 사회 활동에 적극 진출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그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만일 지도 일'군들이 녀성 문제를 단순한 로력 문제로만 보고 행정 실무적으로만 타산한다면 그들을 직장에 인입하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사업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탁아소, 유치원 문제, 밥 공장, 소아 병동 문제들도 시끄러운 부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오직 지도 일'군들이 녀성들을 혁명 동지로, 혁명 전우로 여기고 진정으로 돌봐 줄 때 녀성들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 령역에 적극 진출하여 혁명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혁명적 동지애는 한 일터, 한 마을의 혁명 동지와 전우에 대한 배려, 사랑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혁명 동지에 대한, 세계의 모든 혁명 전우에 대한 전투적 우의로까지 폭 넓게 맺어지며 발현된다.

로동 계급의 혁명적 동지애는 그 본

질에 있어서 애국주의적인 동시에 국제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로동 계급의 혁명적 동지애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전 세계 피압박 인민을 위한 공동 투쟁에서 어깨겯고 싸우는 벗이라면 그가 지척에 있건, 수백 수천리 먼데 있건 관계하지 않으며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 하여 멀리하지 않는다. 공동의 적을 타승하기 위하여 서로 있는 정신적, 물질적 성원을 다하며 필요하다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 가서 싸우는 그러한 국제주의적인 우의이다. 여기에 로동 계급의 혁명적 동지애의 높이와 가치가 또한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 성원들 속에서는 남반부 인민들의 구국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애국 운동이 치렬히 전개되고 있으며 웰남 인민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운동이 널리 전개되고 있다.

개성 기계 종합 공장, 락원 기계 공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공장과 농촌에서, 산판과 바다에서 우리의 천리마 기수들은 미 일 제국주의의 침략 책동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행위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구국 투쟁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남반부의 애국자, 피살자들을 자기 작업반에 등록하고 그들의 몫까지 해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 속에서는 웰남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지원하여 총을 메고 지원병으로 갈 것을 련일 탄원하여 나서고 있다.

이 숭고한 애국적 및 국제주의적 운동의 밑바닥에는 로동 계급의 고상한 혁명적 동지애가 흐르고 있다. 자기의 겨레와 전 세계 피압박 인민 대중을 구원하려는 진정한 로동 계급의 혁명적 동지애, 전투적 우의가 있음으로 하여 이 숭고한 애국적, 국제주의적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혁명적 동지애는 이렇듯 심오한 사회성을 띠고 있으며 사회의 혁명 력량 결속에, 제반 혁명 과업 수행에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 사회 성원들 속에서 혁명적 동지 우애심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면 시킬수록 사회의 정치-도덕적 통일은 더욱 불패의 것으로 될 것이며 모든 사회 성원들은 혁명적 실천에서 혁명성, 전투성을 높이 발양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남조선 《국군》은 민족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되여야 한다

박 광 선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파국에 처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군》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들을 새 전쟁 준비에로 내몰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매국적 《한일 회담》을 결속하고 일본 군국주의 침략 세력까지 끌어 들이기 위한 책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더우기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국군》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남부 웰남 침략 전쟁에 대량적으로 내모는 범죄적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남조선 《국군》이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수치스러운 처지에서 벗어 나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밑에 궐기한 인민들의 투쟁과 합세하는 것은 절박한 민족적 의무로 된다.

남조선 《국군》은 민족의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미제 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용감히 떨쳐 나서야 하며 진정한 민족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되여야 한다.

* *

군대는 일반적으로 전쟁과 호상 불가분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전쟁은 폭력 수단에 의한 이런 또는 저런 계급의 정치의 연장이다.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 군대는 바로 폭력의 주요 도구이며 전쟁을 위한 수단이다.

군대의 계급적 본질은 그 군대가 어느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으며, 어느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가에 따라 규정되는바 무엇보다도 그 군대를 도구로 리용하는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그 군대를 조직한 계급의 정책에 의존된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자로 된 착취 계급은 자기들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군대를 조직한다.

착취자 국가의 군대는 자국 내 근로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대외적으로는 타국을 침략하고 타국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사명을 수행한다.

그러나 력사는 지배 계급들의 반인민적이며 강탈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 되여 있는 착취자 국가의 군대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전체 인민들과 함께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여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함으로써 전 민족적 방위의 진보적인 사명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외적의 빈번한 침공을 물리친 과거 우리 나라의 군대가 바로 그러하였다.

고구려 봉건 국가의 군대는 을지 문덕 장군의 지휘 하에 300만에 달하는 수 나라 침략군을 격파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수호하였고 고려 인민들과 군대는 서 휘, 강 감찬 장군의 지휘 하에 영웅적으로 싸워 침략자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었다.

16 세기 말 일본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임진 조국 전쟁에서 리 순신 장군의 지휘 하에 조선 해군의 영웅적 투쟁은 우리 인민의 반 침략 투쟁 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유구한 력사 행정에서 우리 민족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일이 없으며 인민과 군대가 일치 단결하여 외적의 빈번한 침공으로부터 자기 조국을 영웅적으로 수호하는 빛나는 애국 전통을 수립하였다.

바로 우리 민족은 이러한 애국 전통을 지닌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다.

그런데 남조선 《국군》은 미제의 철저한 괴뢰군으로서 민족 보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미제와 반동 지배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 인민 대중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 있으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의 도구로, 탄알받이로 리용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60여 만에 달하는 남조선 《국군》의 반동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이와 같은 방대한 군사력은 **민족 보위와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그것은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의 도구로 되고 있을 뿐이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남조선 《국군》의 본질은 우선 인민 탄압의 도구로, 내란 도발의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착취 계급 국가 군대는 《…**어데서나 어떠한 나라에서나 외적을 반대하는 데 복무하기 보다는 오히려 내적을 반대하는 데 복무한다**》(레닌 전집 제 10 권 1 분책, 66 페지). 《국군》도 식민지 고용 군대이기는 하나 이 점에서 례외로 될 수 없다.

《국군》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진출을 무력으로 탄압 말살하는 데 리용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해방 후부터 1950 년 1월까지만 해도 《국군》 총병력의 약 44%를 동원하여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해 나선 남조선 인민들을 수십만 명이나 학살하는 데로 내몰았다.

남조선 《국군》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반미 구국 투쟁에 궐기한 제주도 총 주민 수의 4 분의 1에 해당하는 7만 5,000 여 명을 학살하는 데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려수, 순천, 거창 동지에서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

남조선 《국군》의 본질은 또한 미제의 침략 정책 수행의 충실한 도구로 복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만들기 위하여 식민지 인민들을 강제로 징모하여 군대를 편성한다. 남조선 《국군》이 바로 미제

의 식민지 고용 군대 가운데서도 그 전형으로 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식민지 통치를 무력으로 유지하고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군》을 조작하였으며 그 통수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통수권을 누가 틀어 쥐는가 하는 것은 그 군대의 성격과 본질을 규정하는 기본 문제의 하나로 된다.

미제는 벌써 1945년 11월 13일 부 《군정 법령 제 28 호》로서 《국군》의 전신인 《국방 경비대》를 조작하였을 때 그의 사령관으로 미군 장교를 들여 앉혔으며 이를 《국군》으로 개편한 다음에도 《국군》의 륙해공군 참모부로부터 시작하여 각 군단, 사단 등 판하 부대들에 미 《군사 고문단》을 배치하였다.

미제는 《국군》의 조직 편성과 훈련 계획의 수행은 물론 군사 시설의 관리,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임의로 결정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국군》의 인사 배치와 조동, 후방 공급 사업, 심지어는 탄알 한 발, 휘발유 한 통을 지출하는 것까지도 저들의 비준이 없이는 처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국군》의 이러한 처지에 대하여 미국의 공식 군사 잡지 《군사 평론》까지도 《국군》은 《우리 자신의 무장력의 연장이며 보충물》이라고 로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 《국군》이 미군의 작전적 부속물이라는 것은 그의 병력 구성과 편성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토착 군대를 기형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저들의 군사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나라 군대의 독자성을 잃게 하며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탄알받이로 손쉽게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적 목적에 상응하게 륙군을 기본으로 하여 《국군》을 편성하였다. 즉 《국군》 총병력의 94%가 륙군을 비롯한 지상군으로 구성되였으며 해군, 공군은 6%에 불과하다. 이것은 남조선 《국군》이 얼마나 미제에게 예속되여 있으며 민족 군대로서의 독자성이 얼마나 없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 《국군》이 미국의 식민지 예속 국가 고용 군대 가운데서도 가장 값싼 녹거리 군대로 되여 있는 것도 바로 그 통수권이 미제에 장악되여 있으며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괴뢰 군대라는 것과 관련된다.

미제가 남조선 《국군》을 길며 내는데는 미군의 25 분의 1, 희랍 또는 이란 고용병의 절반 이하의 비용 밖에 들이지 않고 있다.

악명 높은 이전 《유엔군 사령관》 밴플리트는 《미군 병사는 매끼 고기를 주어야 하지만 남조선 병사는 된장에 콩나물이면 만족하고 봉급에 있어서도 미군의 최하급 병사가 1 개월에 100 딸라를 받는데 남조선 병사는 15 쎈트(1 딸라는 100 쎈트)만 주어도 된다》고 떠벌리였다.

이것은 미제 침략군에 의하여 완전히 예속 지배되고 있는 남조선 《국군》이

미제 독점 자본의 리익에 충실히 복무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 상 미국 억만장자들은 미국 병사들 대신에 남조선 《국군》을 값싸게 고용함으로써 여기에서만도 매년 수십억 딸라 이상의 리득을 보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도발한 조선 전쟁에서 남조선 《국군》은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충실한 침략 도구로, 대포'밥으로 리용되였다. 전쟁에서 66만 7,000여 명의 《국군》 장병들이 미제 침략 전쟁의 희생물로 되였다.

미제 침략군과 함께 공화국 북반부에 일시 기여 들었던 남조선 《국군》은 신천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몸서리치는 인간 살륙 만행을 감행하는 데 리용되였다.

오늘 미제는 아세아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 수치스러운 침략의 총알받이로서 《국군》을 더 많이 내몰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미제는 1958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반역 도당의 반란을 지지하여 《지원병》을 파견할 데 대한 소동을 일으켰으며 특히 최근에는 남조선 《국군》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남부 웰남 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 끌어 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제와 그 주구 박 정희 도당은 남부 웰남에 파병된 2,000여 명에 추가하여 새로 수개 전투 사단을 더 증파함으로써 제들의 참패를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 《국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 수행의 충실한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는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용한 투쟁에서 이룩한 선조들의 애국 전통을 모독하는 것이며 조국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것이다.

* *

오늘 남조선 《국군》이 한 조상의 혈통을 이은 부모 형제들을 배반하고 그들의 애국 투쟁을 탄압하는 도구로, 미제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리용되고 있는 것은 그 통수권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된 데 있으며 또한 남조선 괴뢰 정권과 《국군》 내 상층 반역 도당들의 매국 배족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국군》이 진정한 민족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되기 위해서는 미제의 통수권에서 벗어나야 하며 박 정희 괴뢰 정권과 《국군》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극소수의 친미 반역 도당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야만 민족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될 수 있다.

지금 남조선 《국군》 내에는 심각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착잡하게 엉켜 있다.

일반적으로 착취 계급 사회에서의 군대는 그의 인적 구성에서 압도적 다수가 근로 인민의 자제들로 구성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장력이 극소수의 반동 지배층을 위하여 절대 다수 인민 대중을 탄압하는 데 리용되기 때문에

심각한 계급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남조선 《국군》의 경우에는 그가 반동 지배층에 복무할 뿐만 아니라 미제의 예속 하에 있는 전형적인 식민지 고용 군대로서 조선 민족의 리익을 반대하는 미제 침략자들에게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적 모순과 함께 첨예한 민족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군》 내에는 미제 침략군과 그에 철저히 예속 아부하는 《국군》 상층 반역 장교들을 일방으로 하고 사병을 비롯하여 대다수 하층 장교까지 포함한 광범한 《국군》 장병들을 타방으로 하는 량자 간에 심각한 모순이 존재한다.

남조선 《국군》 상층 장교의 절대 다수는 지주, 예속 자본가들과 련결되여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반역한 자들이다. 이들은 높은 물질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대부분은 미제의 침략 정책에 적극 복무하고 있으며 그의 충실한 주구로 되고 있다.

이와 반면에 하층 장교의 대다수와 사병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의 자제들이다. 그들은 절대 다수가 미제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국군》에 강제로 끌려 나왔다.

《국군》의 이러한 구성 상 제 특징은 그들 속에서 날카로운 민족적 및 계급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들은 미제 침략군의 고용병으로서 심한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으며 고된 군사 훈련과 노예적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다.

《국군》 하층 장교들과 사병들은 미국 강점군에게서 말할 수 없는 민족적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다. 《국군》 장교들은 아무리 직급 상으로는 상급에 속한다 하더라도 미군 《고문》들의 명령,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하며 《사업 보고》를 하여야 한다. 《국군》 병사들은 미군 병사의 침실에도 마음 대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여 있다. 경상 북도 왜관에서 미군 부대 내 《국군》 병사들이 보초를 서기 위해 미군 식당에서 먼저 식사를 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죄》로 양키들에게 야수적인 폭행을 당한 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 도당은 미국 침략군을 《한국의 은인》이라고 떠받들면서 놈들의 야수적 만행을 적극 비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기 주둔》을 애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국군》 사병들은 미국 침략자들 뿐만 아니라 상층 반역 장교들로부터도 심한 수모와 학대를 받고 있다. 이른바 《기합》은 《국군》 통솔의 기본으로 되고 있다. 사병들은 《엎드려 뻗치기》, 《제트기 기합》, 《란타》 등 육체적 고통을 주는 체형과 함께 《밥그릇 핥기》에 이르기까지 참을 수 없는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사회 정치 서적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척들에게 편지조차 마음 대로 보낼 수 없는 심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등으로 《말 잘 듣는 도구》로, 몽매한 희생물로 될 것을 강요 당하고 있다.

《국군》 사병들에게 차례지는 식량과 부식물은 상층 반역 장교들이 저마다 가로채 먹는 바람에 실제 입에 들어 가는 것이란 보잘 것 없는 것이다. 《국군》 사병들 속에서 먹는 국을 가리켜 《나이롱

탕》, 《무사 통과탕》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국군》 사병들과 하층 장교들 속에서 오만무례한 미제 침략군과 박 정희 도당의 죄행을 반대 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미국 《고문》들에 대하여 《그 새끼들을 보면 먹은 것도 살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미군의 공개적인 내정 간섭과 《국군》에 대한 통수권 행사, 극심한 민족적 멸시에 항거하여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국군》 병사들이 그처럼 삼엄한 경계와 감시 속에서도 《국군》살이를 벗어 나 광명한 공화국 북반부를 찾아서 의거 입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 《국군》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모순으로 하여 다수의 《국군》 하급 장교들과 병사들은 비교적 쉽게 정치적으로 각성될 수 있으며 일단 그들이 각성되기만 하면 미제와 그 주구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는 데로 돌아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이 누구보다도 《국군》이 민족의 군대로, 인민의 군대로 전환되는 데 대하여 절실한 관심과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남조선 군대는 인민의 애국적 운동과 민주주의적 운동을 진압하며 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맹목적인 도구로 되는 것을 그만 두고 외래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족의 군대로, 인민의 군대로 되여야 한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남조선 《국군》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민족의 군대로, 인민의 군대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민족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군》 내의 민족적 모순과 이를 호도하기 위하여 미제가 감행하고 있는 교활한 신식민주의적 수법을 부단히 폭로함으로써 《국군》 장병들의 민족적 각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침략》이니,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니 하면서 저들의 남조선 강점과 아세아 침략을 합리화하려고 흉책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반공》 선전과는 반대로 공화국 북반부에는 남조선 인민 대중과 《국군》 장병의 그 어떤 원쑤도 없으며 이미 오래 전에 로동자, 농민을 억압 착취하던 지주, 예속 자본가 등 반동 세력은 청산되였다. 남북 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한 조상의 피를 나눈 동포 형제들이다. 그러므로 북반부 인민들은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며 남반부 형제를 구원하려는 열화 같은 심정으로 애국적 열성과 온갖 희생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의 민족적 각성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은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여 영용하게 투쟁한 빛나는 애국 전통을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라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리 하여 《국군》 장병들로 하여금 조선 인민은 누구도 동족 상쟁을 원치 않으며 《국군》과 조선 인민의 원쑤는 바로 미 제국주의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도록 함으로써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탈환하는 투쟁에 용감하게 나서도록 하여야 하다.

한 나라의 주권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통수권이 전'적으로 강점군에게 장악되여 있는 곳에서는 그 어떤 주권 국가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국군》 장병들은 미국 《고문》들의 지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상층 반역 도당의 명령과 통제를 반대하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으로부터 《국군》의 통수권을 탈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국군》 장병들은 미제의 전쟁 준비를 반대 배격하며 《월남 파병》을 단호히 거부하고 동족을 죽음터로 내모는 박 정희 도당과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에게 총'부리를 돌려야 한다.

다음으로 《국군》이 민족적 군대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군》 장병들 속에서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남반부에 수립된 식민지 테로 통치의 반동적 본질을 정확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일 수 있다.

《국군》 장병들은 식민지 테로 통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의 애국적 운동과 민주주의적 운동을 진압하는 도구로 되는 것을 그만 두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의 편에 돌아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국군》 상층 반역 장교들의 정체를 똑똑히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 《국군》 상층부에 들어 앉은 한 줌도 못 되는 반역 장교들은 미국 독점 자본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국군》 장병들을 억압 착취하고 학대하는 계급적 원쑤들이다.

그러나 다수 하층 장교들과 사병들은 기본 계급의 출신으로서 그들의 계급적 리해 관계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인민 탄압에 대한 미군과 상층 반역 장교들의 명령,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여야 하며 그들의 하층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밑에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다.

남조선 도처에서 로동자들의 대중적 파업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광범한 농민들이 미제와 지주, 예속 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의 략탈을 반대해 나서고 있으며 청년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범죄적 《한일 회담》과 《한미 행정 협정》의 체결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남조선 《국군》 장병들은 이 성스러운 투쟁을 총칼로 탄압하는 데 동원될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들의 투쟁을 무장으로 옹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군》 장병들은 당면한 생활상 요구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반동적인 병역제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용감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남조선에 수립된 병역 제도는 미국 독점 자본가와 남조선의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 수립된 것이다. 때문에 치욕적인 괴뢰군살이를 면

하기 위하여 반인민적인 병역제를 철폐하고 파쑈적 군사 제도를 민주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군》 장병들은 민족을 반역하고 미제와 결탁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 넣고 있는 박 정희 매국 역적들과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박 정희 도당의 군사 파쑈 테로 정권을 분쇄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국군》 장병들이 정의의 애국 투쟁에 용감히 일떠서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과 손을 굳게 잡고 전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미제를 몰아 내는 반미 구국 투쟁에 용감히 합세하여 투쟁할 때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견디여 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민족의 념원을 반영한 절박한 요구이다.

《국군》 장병들은 민족적 예속과 억압, 비인간적 학대와 박해로부터 벗어 나 참된 민족의 무장력으로, 인민의 군대로 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최대의 숙망인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배격 당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 정책

장 지 재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은 제 2 차 대전 후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전후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미 아프리카에는 30여 개의 독립 국가들이 출현하였으며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세찬 불'길은 오늘 전 대륙을 휩쓸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위대한 혁명적 전환이 일어 나고 있다.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사에 있어서 오늘과 같이 광범한 지역과 인민들이 투쟁에 일떠서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령역에서 투쟁이 그처럼 심각히 전개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민족 해방 투쟁의 전례 없는 앙양 앞에서 더는 종전의 방법 대로 식민지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주의적 착취와 지배를 새로운 방법과 형태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보다 교활하고 은페된 방법으로 구식민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아프리카 인민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는 한편 자신을 아프리카 인민의 《벗》으로 가장하면서 구식민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저들의 식민지적 《세력권》과 지배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현재 아프리카 인민의 가장 큰 위험으로 되고 있으며 그들의 첫째 가는 원쑤로, 투쟁 대상으로 되고 있다.

오늘 미제는 구식민주의자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로부터 고립되고 있으며 배격 당하고 있다.

뒷'문으로 기여 든 미제

제 2 차 대전 후 미제는 영국, 프랑스, 벨지끄 등 구식민주의자들의 지위가 약화되고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세를 차지하게 된 조건을 리용하여 경제, 군사, 정치, 사상,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아프리카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에 침투함에 있어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대륙에 전통적인 식민지

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패로 내세우면서 자신을 아프리카 인민의 《벗》으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의 《동정자》로 가장하여 나섰다. 그들은 서구라파 식민주의자들과는 달리 아프리카에 아무런 식민지적 리해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아프리카 인민들의 번영을 위하여 《협조》할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떠벌려 왔다. 즉 미제는 보다 기만적인 외피를 쓰고 구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여 아프리카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였던 것이다. 한 승냥이가 앞문으로 쫓겨 나가자 보다 음흉하고 교활한 다른 하나의 승냥이가 뒤'문으로 기여 든 격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대륙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는 것을 저들의 세계 《제패》 계획 실현의 중요한 고리로 간주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제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에 귀중한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는 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아세아와 미주 다음 가는 큰 대륙으로서 세계 륙지의 5 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광대한 대륙에는 자연 부원이 무진장하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는 금, 금강석, 크롬광의 매장량이 세계에서 첫 자리를, 그리고 우라니움 매장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자연 부원을 략탈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1957년에 미 상원 외교 위원회가 발표한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책자에서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적 요소가 첫 자리를 차지한다》고 지적한 것을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새로운 광산 자원이 계속 개발됨에 따라 아프리카의 전략적 광물 자원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아프리카가 수출하는 희유 금속도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은 군비 경쟁에 미쳐 날뛰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실로 중요한 관심'거리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프리카 담당 미 국무 차관보 윌리암스는 《아프리카의 일부 광물 자원들은 미국의 과학과 기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침략적 야욕을 드러내 놓았다.

지금 미국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략 광물 중에서 우라니움의 대부분, 코발트의 4 분의 3, 망간의 2 분의 1, 크롬의 3 분의 1을 아프리카에서 략탈하고 있다. 미국의 첫 원자 폭탄도 콩고(레)에서 략탈한 우라니움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대외 팽창 정책에서 아프리카를 경제적으로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군사, 전략 상으로도 이 대륙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들은 아프리카를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구라파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 도발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한 군사 리론가는 《구라파와 아프리카는 한 개 전술 구역의 일부이다. 아프리카는 사실 상 구라파 방위를 위한 열'쇠이다》라고 하였다.

미제는 아프리카에 더욱더 조밀한 군사 기지망을 포치하면서 이 기지들이 마치도 아프리카의 《방위》를 위하여 필요한듯이 떠벌리고 있다.

현재 미 제국주의자들은 리베리아, 리비아, 콩고(레), 에티오피아 등에 수다한 군사 기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 도발을 위한 발판으로,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및 군사적 간섭의 거점으로 리용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아프리카에 상시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국 무력만 하여도 3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미국 군대는 서방 동맹자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있는 17 개의 나토 공군 기지와 8 개의 나토 해군 기지도 리용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아프리카의 비행장들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이미 아프리카에 있는 400 개의 비행장들을 분사식 군용기들이 쓸 수 있는 현대적 활주로를 가진 비행장들로 재건할 데 대한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미제의 정책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미국이 지배하는 《자유 세계》에 철저히 얽어매며 이 대륙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제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이 철저하게 혁명적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로막으며 《독립》 후에도 미국 독점 자본의 리권이 손상 당하지 않고 괴뢰들을 통하여 식민지적 지배를 유지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미제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적 리해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바 이것은 아프리카가 세계 《제패》를 위한 그들의 세계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여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여 준다.

제 2 차 대전 전야인 1939년에만 하여도 아프리카에 단 하나의 대사관도 가지고 있지 못하던 미국이 오늘 35 개의 대사관, 7 개의 총령사관, 14 개의 령사관, 1 개의 령사 대표소, 2 개의 대사관 지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아프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투는 1950 년대 후반기부터 일층 강화되였는데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일련의 중요한 전략 자원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국제 무대에서 아프리카의 발언권이 강화된 것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침략에서 《보수적이거나 비관적이여서는》 안 되며 오직 《기동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대륙을 저들의 세계 전략에 긴밀히 결부시키기 위하여 《보다 더 강력하고 조절된》 아프리카 계획을 추구하고 있으며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신식민주의 수법에 매달리고 있다.

신식민주의 수법

본래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구식민주의자들의 《계속적인 통제에 의거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략탈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이였다. 당시 미제는 아프리카에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을 로골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50 년대 후반기에 들어 서면서 아프리카에서 민족 해방 투쟁이 전례 없이 앙양되고 수많은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게 되자 미 제국주의자들은 종전과 같은 로골적이며 직접적인 낡은 수법에 의거해서는 식민지 체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 조건에서 《기동적》으로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식민주의 수법, 이것은 식민주의 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전술 상 변경을 반영할 뿐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종전의 식민지 통치 수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대전 후 그들에게 불리하게 변화된 정세와 관련되여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 수법은 그것이 보다 기만적이고 교활하고 악랄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것은 이른바 《비식민지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의 아프리카》라는 구호 밑에 저들의 정체를 은폐하면서 기만과 공갈, 괴뢰 정권에 의거하는 무력 간섭 등 량면 전술로 일관되여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 정책에서 우선 주되는 것은 《원조》 정책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침투의 주요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의 《원조》 정책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관들을 리용하여 그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고 있다.

1946년에 미국의 대외 《원조》 계획이 시작된 이래 아프리카에 대한 몫은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1946~1963년 간에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와 군사 《원조》 총액은 24억 500만 딸라에 달하였다.

원조 배당에 있어서도 주로 미제의 군사 기지나 혹은 나토의 군사 기지가 있는 나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나라들에 대한 《원조》액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총액의 75%에 달하고 있다.

군사 《원조》는 물론 일부 경제 《원조》도 실지에 있어서는 미제의 군사 전략 과업을 해결하는 데로 돌려지고 있으며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대상들에 융자하거나 또는 저들의 잉여 농산물을 팔아 먹기 위한 데 배당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미제의 경제 《원조》는 특별 《원조》와 기술 《원조》의 두 형태로 제공되는데 특별 《원조》는 본질상 국방에 대한 《원조》이다. 미제는 특별 《원조》라는 간판 밑에 비행장, 체신, 항만, 도로 시설 등 전략적 건설 대상에 리용할 설비들을 공급하고 있다. 1958~1961년 기간에 미 국제 협조처에서 제공한 특별 《원조》만 하여도 3억 7천 800만 딸라에 달한다.

기술 《원조》는 미국 기술자들을 대대적으로 아프리카에 침투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제는 《원조》를 신식민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로 하여금 미국 자본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투자법을 만들게 하고 또 투자 보호 협정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제는 또한 저들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은행, 국제 금융 공사, 국제 개발 협회 등 국제 기구를 통하여서도 아프리카에 대한 침투를 꾀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을 미국의 리익에 맞게 리용할 수 있으며 또 어느 정도 미국 독점 자본의 아프리카 침투에 대한 구식민주의자들의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신식민주의 정책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흔히 적용하는 수법의 다른 하나는 유엔에서의 저들의 지배적 지위를 리용하여 그것을 아프리카 침략의 도구로 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아프리카를 침략함에 있어서 유엔을 《중심 도구》로 리용해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말한 바 있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반동 세력을 규합하여 미국에 복무케 할 수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 인민들이 무기를 놓고 유엔이 《선사》하는 《독립》을 앉아서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꽁고(레)가 독립한 후 이 나라에서 일어 난 비극적인 사건은 유엔을 아프리카 침략에 리용한 미제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 놓고 있다. 1960년 7월 벨지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꽁고(레) 인민의 투쟁이 앙양되였을 때 미제는 꽁고(레)에 대한 벨지끄의 무장 간섭을 묵인하였으며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여 이른바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는 간판을 들고 꽁고(레)에 기어 든 후 합법적 정부 수상인 루뭄바를 살해하고 괴뢰 정권을 조작하는 범죄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그 후 미제는 애국적 꽁고(레) 인민의 무장 투쟁에 의하여 쏨베 괴뢰 도당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벨지끄, 영국 등 구식민주의자들 및 국제 반동 세력과 결탁하여 꽁고(레) 인민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적 련합을 형성하여 가지고 《스탠리빌 작전》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구 식민주의자들과 국제 반동 세력이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서로 련합할 수 있으며 또 실지 련합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꽁고(레)의 비극적 사태는 미제가 아프리카 인민의 《벗》이나 민족적 독립의 《지지자》가 아니라 교살자이며 그들의 흉악한 원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으며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쟁취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미제는 또한 구식민주의자들을 사촉하고 그들에게 《원조》를 줌으로써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가 프랑스 식민주의자들과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에게 막대한 군사 원조를 주어 알제리 인민과 앙골라 인민을 살해케 한 사실만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의 토착 반동 세력을 적극 리용하며 《토착 대리인》을 양성하는 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미제는 이와 같이 하여 아프리카 인민들이 혁명의 방법으로 제국주의의 통치를 분쇄하며 혁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나 가로막아 보자는 것이다. 그리 하여 미 국방성은 아프리카 나라들의 군대, 경찰 기관들에 미국 군인들과 미 중앙 정보국 성원들을 파견할 특별 계획을 세우고 현지에서 반동 세력을 규합하며 《토착 대리인》들을 양성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미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군사, 정치적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문화, 교육, 종교 등 사상 문화 수단을 적극 리용하고 있다. 1957년에 조직된 《아프리카 십자로 계획》과 1961년에 케네디에 의하여 발족한 침략의 길잡이인 《평화군》은 《미국 공보원》과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의 중요한 공간으로 되고 있다. 현재 북아프리카에서만도 무려 3,200여 명의 《평화군》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미제의 아프리카 침략의 초병으로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아프리카에서 인민들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중요 도구이다. 《월스트리트 져널》지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아프리카에 파견한 기독교 선교사 수는 8,000여 명에 달하며 천주교 선교사 수는 미국 대사관, 령사관 총인원 수의 4 배에 달한다고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침략 도구로써 아프리카 인민들 속에 반공 숭미 사상, 퇴폐적 미국식 생활 양식을 류포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의식과 계급 의

식을 마비시키고 고유한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아프리카 학생들을 미국의 신식민주의 정책의 옹호자로 만들려고 타산하고 있다. 미국은 해마다 6,000 명의 아프리카 류학생들을 받아 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일종의 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케네디는 《그것은 일종의 투자로서 장차 미국으로 하여금 친선, 무역 및 국가적 안전의 증진 등 각 방면에서 수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오늘 미제는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신식민주의 수법에 의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며 자기의 식민지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는 어떤 술책으로써도 아프리카에서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는 식민지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미제는 배격 당하고 있다

전후 아프리카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그것을 반대하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새로운 식민주의 두목으로 대두한 미제는 이 대륙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함으로써 식민주의자들과 아프리카 인민들 간의 모순을 더욱더 첨예화시켰으며, 아프리카 인민들 속에서는 미제의 신식민주의 정책의 본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간의 노예적 생활을 통하여 식민주의의 본질을 명백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렬한 투쟁 속에서 각성된 아프리카 인민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교활한 수법으로써도 저들의 신식민주의적 정책을 은폐할 수 없으며 그들은 날이 갈수록 아프리카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배격 당하고 있다.

오늘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것이 강력한 반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미제의 무장 간섭을 반대하며 인민들 간의 전투적 련대성과 단결 그리고 호상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 등은 현 시기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외국 군대를 몰아내며 외국 군사 기지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1963년 아디스 아베바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외국 군사 기지들을 철폐하며 아프리카 나라들과 외국 간에 체결된 군사 협정들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이것은 이 대륙에서 반제 반 식민주의 투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투쟁은 외교, 문화 분야에서도 고조되고 있는데 미제는 도처에서 아프리카 인민들로부터 배격 당하고 있다.

작년 탄자니아에서는 미국 대사관 성원들이 쫓겨 나고 가나에서는 139 명의 《평화군》, 수단에서는 300 명의 미 영 선교사들이 추방되였으며 수단 대학생들에 의하여 하르툼에 있는 미 공보원 도서관이 파괴되였다.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은 미제의 《원조》를 더욱더 배격하고 있으며

자주 자립의 길로 확고히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 나라들에서 식민주의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은행, 공장, 기업소와 토지를 국유화하여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농업 협동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민족 간부를 육성하고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서 표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의 침략 정책은 아프리카에서 서구라파 식민주의자들의 리익을 위협함으로써 미국과 구식민주의자들 간의 모순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들 간의 싸움은 극히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나아가서 신구 식민주의자들과 아프리카 나라들 간의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

제 2 차 대전 후 미제는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면서 이 지역에서 영국, 프랑스, 벨지끄 등 구식민주의자들의 세력 범위를 쟁탈하고 있는바 경제적 분야에서 그들 간의 모순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1962년에 프랑스는 아프리카 나라들에 7억 딸라, 영국은 1억 6천만 딸라의 《원조》를 제공하였는데 같은 해의 미국 《원조》액은 3억 5천만 딸라로서 이미 영국을 릉가하였다. 1963년에 미국의 《원조》는 5억 딸라로 증가되여 이미 프랑스에 거의 접근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 《원조》의 증가가 그 속도에 있어서 구식민주의 나라들보다 훨씬 앞질러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자본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45년에 1억 600만 딸라이던 미국의 사자본 투자액은 1963년 현재 14억 2,300만 딸라로서 실로 13.4 배로 장성하였다.

이미 미국은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꽁고(레) 등 지역의 일부 중요한 광산 채굴을 통제하게 되였으며 대외 무역에서도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 구식민주의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로골적인 침투는 구식민주의자들의 불만과 반항을 야기시키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영 파운드 지대》, 《프랑 지대》를 통해서와 《관세 특혜제》 및 《수입 한도액》 등 제한 조치를 통하여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증가하는 등 각종 방법으로 미국의 경제 침투를 방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의 미국의 활동을 로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1961년 초에 미 국무 차관보 윌리암스가 아프리카에서의 영국의 식민지 통치는 《잔혹한 통치》라고 말한 데 대하여 영국 관리들과 출판물들은 일치하게 윌리암스의 담화는 영국 식민지 행정 업무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프랑스 대통령 드 골도 미국은 《서아프리카에 간섭하지 말》라고 로골적으로 말하였다.

미국은 유엔을 리용하여 앙골라와 영령 중앙 아프리카 식민지 내정에 간섭하려다가 역시 영국과 뽀르뚜갈의 반대를 받았다.

아프리카에서의 신구 식민주의자들의 모순은 꽁고(레) 사태를 둘러 싸고 더욱 첨예하게 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벨지끄 등 신구 식민주의자들은 꽁고(레)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기 위한 책동에서는 서로 련합하였으나 잠시도 세력 범위의 쟁탈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꽁고(레) 문제에서와 기타 아프리카 문제에서 프랑스는 더욱더 독자적인 길을 표방하여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꽁고(레) 문제에서 한편으로는 《불간섭》의 구호 밑에 유엔을 통하여 감행한 미국의 군사적 간섭을 보이코트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배후에서 미국의 담'벽 밑을 파는 데로 나왔다. 미국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기회를 타서 프랑스는 또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영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아프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이 갈수록 궁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전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일환으로서 호상 지지 성원과 굳은 련대성 속에서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다.

조선 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깊은 동정을 가지고 항상 열렬히 지지하여 왔으며 또 지지하고 있다.

각성된 아프리카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침략 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 할 것이며 아프리카 인민들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은 력사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며 아프리카 인민들은 자신의 투쟁을 통하여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근 로 자 제 13 호 (루계 275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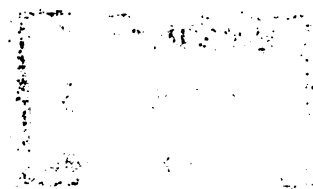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7월 3일　　발행 • 1965년 7월 5일

ㄱ—530369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4호 7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5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4 호 (276)

1965년 7월 (하)

차 례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라 근 모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1 차 전원 회의가 제기한 과업들은 당 창건 20 주년을 앞두고 금년도 증산 결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일떠선 전체 근로자들을 더욱 힘찬 로력적 투쟁에로 고무하고 있다.

전원 회의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는 열 및 전력 관리를 더 잘 하고 연료와 전력을 절약하여 생산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수많은 새 예비들이 탐구되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이 진척되고 있다.

지금 각급 당 조직들 앞에는 금번 전원 회의 결정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더 깊이 침투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 동원함으로써 이 과업을 더욱 힘 있게 관철시켜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이후 전반적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에서 일어 나고 있는 전환을 더욱 심화시키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업 관리는 설비 관리, 자재 관리, 로력 관리, 후방 사업 뿐 아니라 동력 관리를 잘 하는 경우에라야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현대 산업의 기본 동력인 열과 전력을 충분히 생산, 공급하고 그 관리를 잘 하여야만 생산을 정상화하고 부단히 확대 발전시킬 수 있으며 기술 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공업 발전의 력사는 동력의 생산과 리용의 력사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열과 전력의 리용 분야를 확대하며 그에 대하여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한다. 열 및 전력 관리를 기술 공학의 요구에 따라 세워야만 현대 과학과 기술이 달성한 성과들을 도입할 수 있으며 공업과 운수를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열 관리와 전력 관리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나라의 연료 동력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가 열 관리와 전력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보다 적은 열과 전력으로 더 많이 생산한다면 이것은 그 만큼 사회적 로동을 절약하는 것으로 된다. 한 그람의 연료와 한 와트시의 전력이라도 아껴 쓰며 나라의 연료 동력 자원이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일상적인 관심을 돌리는 것

우 사회주의 경리 운영의 본질적 요구이다.

경제 부문, 공장, 기업소는 물론 기업소 내의 하나 개 자그마한 생산 단위에서도 동력의 관리 상태는 생산 설비들의 능력과 기타 모든 생산 요인들의 효과적인 리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따라서 열, 전력 관리는 공장, 기업소의 관리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첫째 가는 과업으로 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연료 공업과 전력 공업을 선행시키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고 나라의 연료-동력 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는 한편 항상 열 및 전력 관리를 개선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 왔으며 우리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인구 1 인 당 석탄과 전력의 생산량이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 경제, 문화 건설에 필요한 석탄과 전력을 충분히 생산,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더욱더 새로운 현대적 기술과 설비들로 장비되고 있는 현실은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인민 경제는 날로 더 현대적인 고온, 고속, 고압의 동력 설비들로 장비되고 매개 생산 단위들의 동력 경리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공업, 농업 등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열과 전력의 리용 분야도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연료-동력 기지가 확대되여 연료와 전력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열 및 전력 설비들이 더 현대화되고 열과 전력의 리용 분야가 넓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응당 그 관리를 더 잘 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열 관리, 전력 관리를 개선 강화함으로써 얻어 낼 수 있는 예비가 많다. 열 설비의 관리를 개선하고 석탄의 보관 관리와 보이라의 용수 처리를 잘 하여 열 효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력의 생산과 소비에서 엄격한 제도를 세우고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도 커다란 예비를 찾아 낼 수 있다. 또한 열 설비와 전기 기계 설비의 생산을 발전시키고 현존 설비의 기술적 개건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전반적 부문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제품 단위 당 석탄 및 전력의 소비 기준을 낮춘다면 생산에서 더 큰 목표를 내다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열 및 전력 관리를 개선 강화하는 것은 현시기 나라의 경제 관리, 지도에서 가장 주되는 고리로 되고 있으며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 생산과 관리의 전반적 사업을 책임진 각급 당 조직들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심적 과업으로 된다.

특히 열 및 전력 관리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고리가 단순한 기술 경제적인 대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일군들의 사상 관점을 똑바로 세우는 데 있다는 것과 관

련된다. 지난 시기의 실천적 경험은 열 및 전력 관리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 여하가 열과 전력의 생산, 공급, 리용의 모든 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한 결정적 고리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금번 전원 회의는 이 부문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 데 대한 혁명적 사상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선차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것은 열 및 전력 관리를 개선 강화하는 사업을 기술 실무 일'군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 조직이 주인이 되여 튼튼히 틀어 쥐며 당'적 교양과 지도를 통하여 전체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 문제를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구체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은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사업이다.

열과 전력의 생산과 소비에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참가하고 있으며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적 노력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매개 지도 일'군들로부터 전체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열과 전력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열 및 전력의 관리를 급속히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 조직들의 지도 밑에 모든 국가 기관, 기업소, 협동 농장, 근로 단체들의 응당한 노력이 요구되며 전체 지도 일'군들은 물론 모든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각급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며 이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전원 회의 결정서에서).

각급 당 조직들과 당 일'군들은 열 및 전력 관리를 개선 강화하는 것이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경제 관리 운영에서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당'적 과업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당이 제기한 방침을 모든 분야에서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 *

열 및 전력 관리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1 차 전원 회의 결정과 전원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해석 침투시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열 및 전력 관리 사업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방침과 의도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데 사상적으로 동원될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열 및 전력 관리는 무엇보다 먼저 지도 일'군들과 기술자들, 매개 근로자들의 사상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업인 것만큼 여기에서는 당 조직들의 꾸준하고

인내성 있는 교양 사업, 사상 동원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 조직들은 금번 전원 회의의 결정을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의 정신과 밀접히 결부하여 대중 속에 깊이 해석 침투시킴으로써 모든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문제가 가지는 의의는 어데 있으며 그의 해결을 위하여 당이 제기한 방침은 무엇이며 이 사업에서 매개 일'군들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가를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개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혁명적 사상 관점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모든 집단 내에서 한 그람의 석탄, 한 와트시의 전력이라도 아껴 쓰고 그것으로 더 많은 생산을 내는 강한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은 결국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석탄과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더 빨리 추진시킴으로써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의 살림살이를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만약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 조직들이 일'군들 속에서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쓰며 참다운 나라 살림'군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해 나가는 기풍을 확립한다면 열 관리, 전력 관리는 훌륭히 해결될 것이다.

특히 당 조직들은 매개 일'군들로 하여금 석탄과 전력은 많은 공을 들여 생산해 낸 전체 인민의 귀중한 재부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귀중한 밑천이라는 인식을 똑똑히 가지고 그것을 절약하는 구체적 활동 과정에서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발양하게 하여야 한다.

사실 석탄과 전력은 자연과의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생산해 낸 것이다. 석탄을 소비하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나가 다 지하 깊은 막장에서 자연과 직접 맞서 어려운 투쟁을 진행하는 탄부들의 수고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며 전력을 쓰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선을 늘이는 데 바쳐진 전체 인민의 로력과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한 와트시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 부문 로동자들의 노력을 응당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한 석탄과 전력을 쓰는 모든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한다면 그것으로 나라와 인민들을 위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바로 이런 자각을 떠나서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이와 같이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걱정하고 그것을 더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데서 높이 발양되여야 한다.

모든 지도 일'군들, 기술자들, 근로자들이 이런 립장에 서서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그 누구나 귀중한 로력의 열매

인 석탄 한 그람, 전력 한 와트시라도 함부로 써 버리지 않을 것이며 열과 전력은 얼마를 쓰든 생산만을 높이려는 것과 같은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당 조직들은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는 열과 전력이 얼마나 드는가, 관개 용수 한 톤을 끌어 올리는 데는 전력이 얼마나 소비되는가, 그 석탄과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얼마나 큰 힘이 들었는가, 석탄과 전력 소비를 1%만 낮추면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더 낼 수 있는가 등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될수록 열과 전력을 더 아껴 쓰고 더 잘 관리하여 더 많은 생산물을 내겠다는 결의에 가슴을 불태우게 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이 과정에서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되는 대로 하는 낡은 사상, 관습 등을 극복하는 대중적 투쟁을 불러 일으키며 매개 단위 내에 열과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예비는 얼마나 되며 그것을 어떤 방도로 동원하여 생산을 얼마나 더 올리겠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따지는 사업을 대중적으로 토의하게 하여야 한다.

열 및 전력 관리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 조직들이 이 부문 일'군들에게 당 정책에 립각하여 사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며 그 집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하는 것이다.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은 구체적인 조직적 대책이 똑바로 서야만 급속히 개선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매개 단위의 당 조직들은 이 사업에 전체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발동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앙양된 열의를 물질적 결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우선 당 조직들은 매개 단위의 열 및 전력 관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기초 우에서 그것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급속히 끌어 올리기 위한 구체적 사업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1 차 전원 회의 결정에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열 관리, 전력 관리를 개선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침들이 제시되여 있다. 전원 회의는 열 설비들에 대한 관리 사업을 개선하며, 연료 관리와 보이라 용수 처리를 잘 하며, 열 관리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석탄 절약 투쟁과 제품 단위 당 석탄 및 증기의 소비 기준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는 문제들을 현시기 열 관리 사업의 중심적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력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전원 회의는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부문에서 절약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전력의 도중 손실을 감소시키며, 현존 발전 설비들의 리용률을 제고하며, 전력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며, 전기 기계를 비롯한 기계 설비들의 생산을 일층 개선 강화할 데 대한 구체적 방도들을 명시하였다.

당 조직들은 전원 회의 결정에 지적

되여 있는 이러한 대책들을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서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우선 어느 고리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고리를 틀을 것인가를 집체적으로 로의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전체 관리 일'군들, 기술자들, 근로 단체 일'군들과 나아가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이 금번 전원 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잘 끌고 나가기 위하여서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이후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동원하여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생산 및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킨 고귀한 경험과 성과를 정확히 총화하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열 관리, 전력 관리를 개선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하여 경제 관리 운영 전반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대중적 예비 동원 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또한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은 당면한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것을 부단히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그것이 우선 당면한 우기에 전력 원천을 더 많이 확보하며 금년 겨울철 생산을 정확히 보장하고 금년도 하반년 계획과 래년도 계획을 잘 수행하며 나아가서 7 개년 계획 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모든 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뿐 아니라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의 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도, 시, 군당 위원회들은 자기 지역 내의 모든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열 및 전력 관리 정형을 수시로 료해하고 그것이 당 정책적 방향에 엄격히 립각하여 집행되도록 지도 통제하여야 한다. 특히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은 매 분기마다 열 및 전력 관리 정형에 대하여 당 회의나 직맹 회의 혹은 종업원 회의들에서 토의하는 제도를 세우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편향들을 바로잡고 당의 결정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조직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열 및 전력 관리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모든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열 관리, 전력 관리 방법을 똑똑히 가르쳐 주는 것이다.

열 및 전력의 리용 범위가 넓어지고 열 설비들과 전력 설비들이 더욱더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있는 조건에서 지도 일'군들로부터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 대한 기술에 정통하여야 할 필요성은 날로 더욱 절실하여지고 있다. 모든 일'군들이 열, 전력 관리에 정통하여야만 열 관리, 전력 관리를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적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

당 조직들은 일'군들 속에서 학습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동시에 시범 상

학, 강습 등을 수시로 조직하여 모든 일'군들이 보이라에 불을 때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보다 규모가 크고 높은 기술 장비를 갖춘 고압, 고속, 고온열 설비, 전력 설비들의 관리 운영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열 및 전력 관리 사업과 함께 전반적인 기업 관리 운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범을 창조하여 그 경험을 널리 보급하며 기업소 관리 일'군들에게 관리 운영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하여 그 경험을 널리 보급하는 것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 행정에서 전통적으로 적용하고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여 온 훌륭한 방법이다. 이것은 생동한 사실을 통하여 일'군들을 가르쳐 주고 그 본을 따서 전반적 단위의 사업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이 아주 높은 방법이다.

우리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모든 지도 일'군들에게 공업로와 보이라는 어떻게 관리하며 배관과 계량 계측 기구들은 어떻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하며 또한 전력 설비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한다.

각급 당 조직들은 인민 경제 부문별로 또는 기업소 내에서 유능한 지도 력량, 기술 력량을 집중하여 한 단위에 열 및 전력 관리의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통하여 일'군들을 가르쳐 주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특히 성, 국 책임 일'군들이 산하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을 위한 상학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배인을 비롯한 모든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에게 열 및 전력 관리 방법과 기타 모든 기업 관리 운영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열 및 전력 관리에서 기업소의 모든 일'군들 특히 지배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지배인은 로력 관리, 열 및 동력 관리, 설비 관리, 자재 관리, 후방 사업 등 기업 관리의 모든 측면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열관리와 전력 관리 사업은 반드시 지배인이 책임 지고 지도하여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에 전체 기술자, 로동자들을 발동시키는 문제도 지배인의 역할 여하에 많이 달려 있으며 또한 열 및 전력 관리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대책도 지배인이 직접 세워 줘야 한다.

따라서 당 조직들은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에 대한 기업소 지배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급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은 하부 지도에서 열 및 전력 관리 부문에 대한 지도에 가장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는 사업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 청진기를 심장에 제일 먼저 대 보는 것처럼 모든 지도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의 기술 상태와 생산 준비 정형을 료해하기 위하여서는 응당 먼저 동력 부문부터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공업로와 보이라로부

터 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열 설비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연료가 생산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될 수 있게 공급되는가, 배선으로부터 모터에 이르는 모든 전력 시설들이 기술 규정에 엄격히 의거하여 운영되는가, 생산에 선행되여 동력이 공급되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알아야 전반적 기술적 지도를 잘 할 수 있으며 설비 능력의 리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열 및 전력 관리 부문의 일'군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각급 당 조직들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열 및 전력 관리 부문의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의 심장과도 같은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역할 여하에 따라 공장의 전반적 기계 설비들이 자기 능력껏 돌아 가는가 못 돌아 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며 생산의 정상화와 급속한 발전이 좌우된다. 따라서 이 부문 일'군들 속에서는 응당 당성 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 부문은 기술 기능 수준이 높고 공장, 기업소의 전반적 살림살이에 대하 파악이 있는 유능한 일'군들로 꾸려져야 하며 그 대렬은 고착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이 부문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속히 높이는 데 세심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들이 자기 부문의 기술에 정통할 뿐 아니라 해당 공장, 기업소 전반의 기술 상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은 열 및 전력 관리 부문 일'군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높이고 그들이 로동 계급의 핵심으로서의 영예감과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모든 열 및 전력 관리 부문 일'군들이 자기가 생산 공정의 기본 동맥을 담당하였으며 자기의 활동 여하가 다른 일'군들의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지를 간직하게 될 때 자기의 무겁고도 보람찬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애쓰게 될 것은 명백하다.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당'적 지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석탄과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모든 일'군들과 열 및 전력 설비 기계들과 그 부속재들을 생산하는 부문 일'군들의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급속히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 조직들은 우선 석탄과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부문 일'군들 속에서 석탄과 전력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탄광들에서 버력 선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석탄의 단위 당 칼로리를 높이며 석탄을 생산 공정의 기술적 특성에 맞게 용도 별로 정확히 공급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만 열 관리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당'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으며, 전력의 생산과 공급에서 전압과 주파수를 기술 규정 대로 엄격히 보

장하여야만 전력 관리 사업도 성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동시에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열 및 전력 설비들의 생산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금번 전원 회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나라 연료 조건에 맞게 보이라와 공업로들의 규격화, 표준화 사업을 강화하고 점차 능력이 크고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각종 보이라들을 더 많이 생산해 내야 하며 동력 기계 제작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화력 발전 설비를 비롯하여 효률이 높은 수차들과 기타 일련의 전기 기계들의 생산을 확대하며 각종 계량 계측 기구들과 보온재와 같은 부속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더 질 좋게 더 많이 생산해 내야 한다. 과학 연구 기관들에서는 새로운 열 및 전력 설비의 생산을 비롯하여 연료와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 연구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열 및 전력 관리 부문 일'군들은 물론 이와 련관된 모든 부문 일'군들의 창조적 지혜를 고도로 발휘시킴으로써 금번 전원 회의의 결정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각급 당 조직들은 금번 전원 회의의 결정을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단위에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금년 10월 전으로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 하여 생산의 정상화와 급속한 확대 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연료, 전력의 예비를 조성하며 한 그람의 연료, 한 와트시의 전력이라도 다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수행과 전반적 7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데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의 혁명화 문제

하 홍 식

혁명에서 주권을 잡은 로동 계급은 국가를 관리 운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자체의 인테리 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하며 그들을 부단히 혁명화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을 교양 개조하고 혁명화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 기간에 걸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전략적 과업의 하나이며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는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금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1 차 전원 회의는 고등 교육 및 과학 연구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면서 인테리들의 혁명화 문제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이 노는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항상 높은 평가를 주면서 인테리들의 사업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우리 당은 근로 인민 출신의 새로운 민족 간부를 대량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을 믿고 포섭 교양하여 그들의 힘과 지혜를 혁명 위업 수행에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방침을 계속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방침은 식민지 나라 인테리들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을 능히 혁명적 인테리, 로동 계급의 인테리로 교양 개조할 수 있으며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그들이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바쳐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 주었다. 다른 한편 그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교양하며 단련하는 사업을 인내성 있게 진행하여 왔다.

우리 나라 인테리들은 **당에 의하여 혁명 실천 투쟁에서 교양 개조되고 우리 당의 믿음직한 붉은 인테리들로 자라 났다.** 그들은 지난 시기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온갖 간고한 시련들을 이겨 냈다.

인테리들은 로동 계급과 함께 해방 후 당을 창건하고 인민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 당의 령도 밑에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인테리들은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인민군 용사로, 혹은 정치 공작원으로, 혹은 종군 작가와 예술단 성원 등으로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다. 특히 일시적 후퇴의 준엄한 시기에 그들은 멀리 락동강 계선으로부터 짚신을 신고 포탄이 비오

듯 하는 사선을 헤치면서 당을 따라 수천 리 고난의 장정에 참가하였다. 인테리들은 전후 폐허 우에서 인민 경제를 복구 건설하며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자기들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였다. 인테리들은 국제 국내적으로 어려운 정세하에서 진행되였던 반종파 투쟁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력 갱생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단련되였으며 당의 믿음직한 전사들로 자라 났다.

인테리들은 혁명의 간고한 로정을 거쳐 당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튼튼한 각오를 다지였으며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에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였다.

오늘 우리 당이 인테리들 속에서 혁명화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게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즉 해방 후 20 년 동안 당을 믿고 당을 따라 혁명 대렬에서 믿음직한 붉은 인테리로 자라 난 그들을 계속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철저히 혁명화하자는 것이다.

《인테리를 혁명화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소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그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진정한 로동 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혁명 투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 일성).

이것은 우리 당이 그들을 혁명의 길' 동무로서가 아니라 로동 계급의 혁명가로, 당에 무한히 충실한 투사로 끝까지 키우자는 것이며 영원히 공산주의에로까지 함께 가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테리들에 대한 우리 당의 무한한 신뢰, 극진한 배려, 두터운 사랑이 깃들어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며 그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물질-기술적 요새를 점령해야 할 뿐 아니라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물질-기술적 요새란 생산 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며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상적 요새란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적 요새의 점령은 물질적 요새의 점령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사업이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전면적 기술 혁명을 주되는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7 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최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과업

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술 혁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테리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과학-기술적 자질을 높이며 그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인테리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기술 혁명에서 그들의 적극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인테리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들에게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생각이 부족할 때에는 그런 지식, 그런 기술은 무용지물로 될 수도 있다. 당이 인테리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인테리들의 혁명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은 또한 그들에게 사물 현상을 혁명적 립장에서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배양함으로써 습득한 리론을 실천 활동에서 효과있게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과도 관련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은 바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관점으로 된다. 그러므로 인테리들이 로동 계급의 계급적 립장에 굳건히 서면 설수록 객관 세계 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인테리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과학 기술의 역할을 높이는 기본 고리이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낡은 사상 잔재는 다소간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나 다 있으며 특히 인테리들 속에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인테리들은 누구보다도 낡은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데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 인테리들의 혁명화 문제에 더욱 힘을 넣어야 할 요구가 절실하게 제기된다.

왜 인테리들 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 있게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변혁에 비하여 사상 의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은 과거에 비교적 유족한 생활을 하면서 낡은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부르죠아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근로 대중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선진적 사상의 전파를 포악하게 탄압하였으며 특히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리론에 대하여 악독한 허위 선전과 중상과 비난을 다하여 왔다. 또한 일제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외곡된 <맑스주의 서적>들의 류포는 우리 나라 인테리 층에게 사상상 나쁜 영향을 끼쳤다》 (김 일성 선집 제 4 권, 223 페지).

또한 사상 의식의 변화가 낡은 유물과의 력사적 사회적 계승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인테리들은 그들의 부모, 형제, 친척, 친우 등 가정적, 사회적 련계로 하여 낡은 관습과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오랜 인테리 뿐 아니라 해방 후 자라 난 새로운 인테리들 속에도 낡은 사상 잔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특히 해방 후 자라 난 우리의 젊은 인테리들의 대부분은 자본가와 지주들의 야만적 본성과 착취를 실지로 체험하지 못 하였으며 세찬 혁명적 시련과 사회적 풍파 속에서 굳건히 단련되지 못 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세계와 특히 우리의 경우에 미제와 그 괴뢰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남조선으로부터 부단히 부르죠아 사상이 침습될 수 있다. 외부로부터 양풍도 들어 올 수 있고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배치되는 사상들도 들어 올 수 있다.

이 모든 사정들은 만일 우리가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가 되살아 날 수 있으며 외부에서 들어 오는 낡은 사상도 그들의 머리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테리들의 혁명화는 그들의 직업 상 특성으로부터도 절실하게 제기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테리는 그들의 직업 상 특성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조직성과 규률성이 약하고 혁명적 전개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좋지 못한 본성에서 나오거나, 더우기 악의에서 나온 것은 전혀 아니며, 생활의 모든 습관에서, 그들의 로동 환경에서, 과로에서,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의 비정상적 분리 등등에서 나오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26 권, 507~508 페지). 인테리들은 그가 어떤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를 막론하고 다수 경우에 생산 로동, 생산자 대중과 떨어져서 정신 로동에만 참가하고 있다. 그들의 로동 환경은 비교적 조용하고 온화한 분위기에 싸여 있으므로 생산자 대중들보다 단련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 뿐 아니라 정신 로동은 많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하루 종일 일하여도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질량적 한도를 똑똑히 잴 수 없다. 매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성적으로 일하였는가 하는 것도 평가하기 힘들다. 이러한 데로부터 인테리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 문제는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되며 이것은 그 만큼 그들의 혁명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한다.

인테리들의 혁명화 문제는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7 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과 현 시기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서도 절박하게 제기된다. 7 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은 어렵고 방대하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 과업은 인테리들 속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며 안일성과 해이성도 허용하지 말며 더욱 긴장된 투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인테리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그 어떤 역경에 처하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여 혁명적 지조를 지키고 일편단심 당을 따라 헌신적으로 싸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그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

여야 한다.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낡은 사상 잔재가 사업에서 그렇게 큰 문제로 되지 않았으나 오늘에 와서는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낡은 관습과 습성, 전통과 편견은 우리 혁명의 전진을 저애하는 장애물로 되고 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그들을 공산주의까지 이끌어 갈 수 있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우선 개인 리기주의와 사소유자적 심리, 편견, 습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그들이 자기의 재능과 지식과 정력을 오직 당과 혁명에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 리기주의는 사'적 소유에 기초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하여 온갖 정열과 재능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개인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일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집단과 국가의 리익도 서슴지 않고 저버리는 사상이며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할 것을 요구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기풍과는 배치된다. 우리는 결코 자신만을 위하여 일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동지를 위하여, 집단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전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로동에서 자신만을 위한 기준량이나 보수에 구애되지 않으며 진심으로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한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쳐 투쟁하였으며 온갖 간난 신고들을 극복하면서 불타는 혁명적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쳤다.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간고하지만 혁명가들은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며 정열로 차 있다.

공산주의의 붉은 기'발을 들고 싸우다가 쓰러지는 것은 혁명가로서의 최대의 영광이다. 앞서 나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또 그 기치를 들고 투쟁을 계속한다. 이렇게 하여 결국 혁명은 승리하고야 마는 것이다》(김 일성).

우리 인테리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이다. 특히 오늘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인테리들의 사명과 역할은 중요하다. 인테리들의 모든 활동은 영예로운 혁명 사업이다.

인테리들이 자기 앞에 제기된 영예로운 혁명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리기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한다.

보수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인민을 위하여, 공산주의 미래를 위하여 일하는 진정한 혁명가로 되여야 한다. 인테리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리익과 직업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서재에 들어 앉아 안일한 생활만을 희구할 것이 아니라 혁명의

세찬 흐름 속에 대담하게 투신하여 당과 인민이 아파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혁명가답게 헌신 분투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소부르죠아적 자유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주의는 생산의 무정부성, 자유경쟁에 기초하여 개성의 절대적 자유를 고창하는 부르죠아 사상의 한 형태이다. 자유주의는 개인 리기주의가 조직생활 령역에서 나타난 것이다. 자유주의는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것을 방해하며 당의 정책을 사람들의 협소한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케 하며 제정된 규률과 질서의 엄수를 방해하며 당의 통제, 대중의 통제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된다.

자유주의는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약화하며 로동 계급의 조직성과 전투력을 약화한다. 자유주의가 허용되는 곳에서는 각종 부르죠아 사상과 생활 양식이 침습될 수 있으며 자본주의 요소들이 되살아 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테리들은 자유주의의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철저히 투쟁하며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은 혁명화하기 위하여 또한 공명 출세주의, 《소총명》 등과 투쟁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상 병'집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할 수 없게 하며 개인의 명예, 개인의 권위, 개인의 공로를 위하여서만 일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개인 리기주의와 상통한다. 공명 출세주의에 물젖게 되면 항상 모든 사업의 성과와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게 되며 자기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 나누려 하지 않게 되며 항상 상대방을 멸시하면서 자신의 《소총명》만을 내세우게 된다. 개인 영웅주의, 《소총명》, 자고자대—이것은 군중을 깔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나아가서는 당 정책을 이러저러하게 재면서 비위에 맞는 것은 접수하고 비위에 맞지 않는 것은 시비하게 한다.

오늘 인테리들 속에서는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임으로써 자신을 혁명화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당성이란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며,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각성이며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이다. 우리 인테리들은 당성, 혁명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리익과 일시적 안락을 돌보지 않고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일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 관철하는 투사로 되여야 한다.

* *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은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 세계관을 철저히 확립하는 장기간에 걸치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것은 일시적 깜빠니야나 단순한 행정 실무적 조치로써는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인테리들의 혁명화는 그들 속

에 남아 있는 착취 사회의 낡은 사상 잔재와 수 세기 동안 뿌리 박혀 온 낡은 사회의 유습을 청산하는 복잡하고도 심각한 사상 혁명이다.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리기주의와 개인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것은 장기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투쟁을 요하는 어려운 과업이다》(김 일성).

따라서 이 사업은 일시적 흥분이나 《비타협적인 투쟁》으로가 아니라 꾸준하게 힘을 넣어 완강하고도 계통적으로 끌고 나감으로써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또한 장기간에 걸치는 목적 의식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그리고 꾸준한 자체 수양과 사상 투쟁, 실천 활동을 통한 혁명적 단련을 통해서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인테리들 속에서의 혁명화는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의 자각성과 각오 여하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인테리들 속에서 당의 인테리 정책의 정당성과 혁명화 방침의 진의도를 깊이 침투시키고 그들의 사상적 각성을 높임으로써 이 사업을 그들 자신의 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당 조직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 조직 생활은 곧 정치 생활이며 혁명 활동이다. 당 조직 생활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용광로》라고 말할 수 있다. 당 조직 생활에 충실히 참가하여야만 조직과 동지들의 충고, 비판을 통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찾을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 임무를 옳게 수행할 수 있고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에 적응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야만 혁명의 동반자로 되지 않고 공산주의까지 함께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인테리들은 당 조직을 통하여 당 생활을 강화함으로써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부단히 당성을 단련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은 자신의 당성 단련을 위하여 항상 자기의 모든 것을 당 조직에 복종시키며 당 규약 상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문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당 결정과 당적 위임 분공을 어김 없이 수행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세울 것이며, 자기의 사상적 결함을 씻고 당성을 단련하기 위하여 당 생활에 목적 의식적으로 참가할 것이다. 우리 인테리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접수할 뿐 아니라 로동 계급의 혁명적 조직의 성원으로서 강철 같은 규률을 지킬 줄 알아야만 진정한 로동 계급의 혁명가로 될 수 있다.

인테리들은 혁명화하며 그들의 당성을 단련함에 있어서 비판과 자기 비판은 중요한 무기이다.

인테리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자체 수양과 개별적 충고의 방법과 집단적인 비판과 사상 투쟁의 방법을 배합함으로써만 더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테리들은 비판을 두려워 하지 말고 자기의 결함을 대중 앞에 솔직히 내놓는 것을 겁내지 말며 남을 비판하는 것을 싫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리 하여 인테리들 속에서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당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인테리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원리 교양과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테리들이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적 실천에 적극 참가하려면 반드시 혁명 리론을 깊이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의 인테리들은 계급 투쟁의 법칙,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법칙, 사회주의 혁명의 법칙을 깊이 인식하고 그 법칙을 실천 활동에 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 하여 인테리들은 단순한 과학 기술의 전문가로가 아니라 높은 정치적 식견과 당성을 가진 훌륭한 정치 활동가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한다.

인테리들은 자신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특히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을 심오히 연구 체득하고 그것을 끝까지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 있으며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조선의 혁명가들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 과업과 투쟁 방향이 명시되여 있다. 당 정책은 우리 사업과 생활의 지침이며 척도이다. 당 정책에 대한 태도—이것은 당적 사상 체계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테리들은 자기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당 정책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연구 체득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피와 살로 만들고 사업과 생활에서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야 한다.

인테리들은 책을 몇 권 읽었다고 하여 공산주의적 수양을 다 쌓은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는 책을 얼마나 읽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있게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 활동에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있다. 맑스-레닌주의 명제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의 사상으로 만들지 못하고 실천 활동에 구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여 혁명 선렬들의 산 모범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무장 투쟁과 생활에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혁명적 사상, 혁명적 사업 방법, 고상한 도덕 품성들이 전면적으로 체현되어 있다. 우리 인테리들은 혁명 전통에 대한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뿌리를 명확히 알며 항일 빨찌산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 고상한 공산주의적 품성을 귀감으로 삼아 자신의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화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이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성

과 계급성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테리들은 혁명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을 통해서만 그리고 자기의 모든 활동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근로 대중의 혁명 투쟁과 그 승리와 결부시킴으로써만 공산주의를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인테리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복무하며 또한 간고한 혁명 투쟁 행정에서 자신을 더욱 세련시키고 단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인테리들은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생산자 대중 속에, 로동 계급 속에 깊이 들어 가야 하며 그들에게서 높은 혁명 정신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배워야 한다. 인테리들 속에서의 혁명화는 결국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등을 체득하는 사업이므로 로동 계급 속에 들어 가 그들의 사상과 생활 감정을 배우는 것은 그 중요한 방도로 된다. 즉 인테리들은 생산 현장에 들어 가서 로동 계급에게서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며 어떠한 곤난과 애로가 있더라도 당이 준 과업을 기어코 해 내고야 마는 강의한 혁명 정신,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배우며 고열로 앞에서, 지하 수백수천 메터의 막장에서 힘든 로동을 하면서도 로동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학교에 나가 선진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정열적으로 학습하는 혁명적 생활 기풍을 배워야 한다. 물론 생산 현장에 내려 간 인테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문화 지식들을 생산자 대중에게 가르쳐 주는 사업을 조금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 두 측면이 다 옳게 결합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로동 계급은 인테리들한테서 지식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며 또한 인테리들은 로동계급의 혁명 정신을 배우고 강한 조직성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배우면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338 페지).

인테리들은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로동 계급 속에 들어 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과 소박성 등 영웅적 로동 계급의 사상과 생활 감정, 풍모들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은 우리 당의 혁명화 방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들을 로동 계급의 진정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반드시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

군중 속에 들어 가는 것은 일'군들의 사상 단련의 훌륭한 방도

한 인 환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체의 사상을 부단히 단련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조성된 혁명 정세는 복잡하며 제기된 혁명 과업은 방대하다. 조국 통일의 혁명 위업은 20 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 이룩되지 못 하고 있으며 그것은 미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의연히 복잡성, 간고성, 장기성을 띠고 있다. 또한 미제를 괴수로 하는 국제 반동들은 세계 도처에서 침략 정책을 로골화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 우리 앞에는 7 개년 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혁명의 지휘 성원인 일'군들의 사상을 부단히 단련하지 않고서는 그들 속에서 계속 긴장된 태세를 견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기된 방대한 혁명 과업의 수행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 일'군들의 사상을 부단히 단련하는 문제는 전 사회를 혁명화해야 할 기본 요구로부터 절실하게 제기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상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사상 문제가 옳게 해결되여야 물질 기술적 토대도 튼튼히 구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사상 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항구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전 사회를 혁명화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 사회를 혁명화함에 있어서 혁명의 지휘 성원인 일'군들의 혁명성을 제고하는 문제는 관건적 고리로 된다. 일'군들을 혁명화해야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혁명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 사회를 혁명화하는 문제를 옳게 풀어 나갈 수 있다.

일'군들의 사상을 부단히 단련하는 것은 그의 출신 성분이나 정치적 준비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이다.

비록 그가 로동 계급 출신 간부라 하더라도 자기를 낳은 군중 속에 들어 가지 않을 때에는 본래의 우수한 바탕이 녹이 쓸 수 있다. 하물며 비로동 계급 출신 간부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

다. 만일 그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을 배워 주는 과정을 통하여 사상 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을 때에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가 로동 계급 출신 간부이거나, 비로동 계급 출신 간부이거나를 막론하고 그들의 사상을 부단히 단련하지 않고서는 혁명이 장기화되고 간고해짐에 따라 그들 속에서 초래될 수 있는 안일성, 해이성, 권태증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

더우기 오늘 우리 일'군 대렬에는 과거에 혁명 시련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보충되는 조건에서 일'군들의 사상 단련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일'군들 속에서 사상 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그들이 혁명 수행에서 차지하는 자기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며 자기의 낡은 사상, 습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다.

일'군들의 사상 단련은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고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사업인 만큼 결코 짧은 기간에 저절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장기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된다.

우리 당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군들의 사상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하여서는 그들 속에서 당 조직 생활을 강화하며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당 정책 학습을 심화하며 그들이 군중 속에, 혁명적 실천 활동 속에 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도 특히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는 것이 사상 단련의 훌륭한 방도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사상적인 병'집을 고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군중 속에 들어 가는 것이다…간부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간성은 우선 당 세포 회의와 초급 당 회의들에서 그리고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 속에서 부단히 검열되고 단련되여야 한다》.

일'군들의 사상 수양은 혁명적 실천 활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광범한 근로 대중 특히는 로동 계급의 실천 활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사상 수양이란 몇 권의 책을 읽거나 빈 말'공부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군들이 실천을 통하여 단련할 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일'군들은 착취 계급 사회의 《관리나으리》와는 달리 대중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당과 대중을 련결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의 사상 수양은 과거 지배 계급들의 《수양》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그들의 《수양》은 실천과 유리된 것이였다. 그들은 추상적인 《선량한 마음》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론적 유심론적 견해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일하는 충복인 만큼 군중 속에 들어 가야 하며 혁명적 실천 활동 속에서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를 낳고 길러 준 본래의 계급적 바탕을 잊지 않고 항상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을 견지할 수 있으며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풍모를 갖출 수 있다.

* *

우리는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야 그들의 투쟁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생활의 교양과 대중적인 비판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성을 부단히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야 우선 그들의 투쟁 모습을 목격하고 혁명성을 배울 수 있다.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로동 계급의 전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조직성과 규률성, 강의성과 원칙성, 불요불굴의 투지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강하다.

특히 우리 당이 군중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결부시켜 강하게 진행하여 온 결과 우리 시대의 전형인 천리마 기수들의 대렬이 날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오늘 그들은 당이 준 임무라면 어떤 애로와 난관에도 굴함 없이 온갖 창의 창발성을 다하여 끝까지 수행하고야 만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오직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키면서 모든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야 우리 시대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의 투쟁 모습을 목격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을 배양할 수 있다.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는 것은 비단 그들의 투쟁 모습을 목격하고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생활의 교양을 받아 혁명성을 배양할 수 있게 한다.

일'군들은 항상 군중 속에 들어 가야 그들의 생활에서 자극을 받고 자신의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면 그들이 생활에서 요구하는 점, 애타하는 점을 보게 된다. 그런 것을 보면 자연 안일한 생각도 없어지고 생활도 검박하여지며 그들을 위하여 더 일할 생각도 나오게 된다.

도내 일부 일'군들이 농촌에 나가 협동 농장원들과 힘든 로동을 실지 같이 해 보고 그로부터 강한 자극을 받아 자체 결함을 심각히 뉘우치면서 농기구를 개선하고 기계화를 도입하기 위하여 온갖 창의 창발성을 다하게 된 것은 하나의 실례로 된다.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야 생활의 교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비판을 받음으로써 혁명성을 배양할 수 있다.

군중 속에 들어 간다는 것은 그들과 침식을 같이 하고 로동을 같이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단위의 당 조직에 속하여 생활하는 것은 군중 속에 들어 가는 중요한 측면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군들이 당성, 계급성, 인민성 등 혁명성을 단련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대중적 비판을 통하여 일'군들이 단련되여야 군중의 힘을 알고 허심하게

되며 항상 당 조직과 대중에 의거하여 사업하게 된다.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는 것은 바로 사상 단련의 《용광로》에 뛰여 드는 것이다. 군중은 일'군들의 거울이다. 일'군들 자신이 자기의 결함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군중은 쉽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 해당 단위의 당 조직에 속하여 당 회의를 비롯한 기타 각종 모임에 참가하면 로의 과정에 그들의 애로와 요구, 사업 과정에 나타난 결함들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에서 결함을 찾아 낼 수 있다. 또한 군중의 직접적인 비판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비판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불에 맞아 교양될 수 있다. 따라서 일'군들은 당 회의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 적극 참가하여 대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들의 비판을 허심하게 접수하고 결함을 대담하게 고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야 그들에게서 힘을 얻고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 배워서 혁명적 전개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혁명 과업 수행은 간고하고 복잡하다. 혁명 과업 수행 과정에는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견치 않았던 난관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야 얻을 수 있다.

군중 속에는 물론 여러 계층이 있다. 그들 중에서도 오랜 로동 생활을 통하여 단련된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과거에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어렵게 살던 기본 군중은 당에 무한히 충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 들어 가기만 하면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 배우고 그들에게서 힘을 얻어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는 군중에게서 배우며 군중에게서 힘을 얻어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516 페지).

군중에게서 배우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이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해 제시된 혁명적인 사업 방법으로 해서 우리는 혁명 과업 수행에서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었다. 어지돈 관개 공사와 같은 대자연 개조 공사를 기한 전에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은 것도, 황해 제철소 6 호 평로를 기한 전에 완공할 수 있은 것도 바로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 그들의 힘을 믿고 그들을 옳게 조직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군중 속에 들어 가야 또한 일'군들이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 작풍을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권위 있는 선생은 바로 근로 대중이다. 그들은 무엇이나 다 잘 알고 있다. 농사'일은 농민이 제일 잘 알고, 고기잡이는 어로공이 잘 알며, 제철에서는 용해공이 선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 속에 들어 가 그들과 같이 살며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여야 현실을 깊이 료해하고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따라서

혁명 과업을 옳게 풀어 나갈 수 있다.

군중을 떠나고 현실과 떨어져 책상 머리에만 앉아 있어 가지고는 군중의 힘을 알 수 없고 현실에서 무엇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알 수 없다. 결국 군중과 리탈하고 현실과 유리되여 빈말만 하는 사람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면할 수 없다.

일'군들이 관료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래'사람들을 도와 줄 대신에 욕설로 대하면서 상부에는 아첨하고 허풍을 치며 군중의 창발적인 제의들을 접수할 대신에 말살하며, 군중을 설복 교양하고 그들을 조직 동원할 대신에 호령하고 명령하며, 실정도 모르고 내려 먹인다. 또한 그들은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도 없이 남의 바람에 들떠서 못 할 것도 하겠다고 큰 소리 치며,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며,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갈 대신에 《큰》 것만 쳐다보며 이것 저것 사업들을 번잡하게 늘어 놓고 력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결국 어느 하나도 똑똑히 해결하지 못 하고 무사분주하게 뛰여 다니다나니 사업에서 거둘 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 한다.

오직 군중 속에 들어 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결론을 지을 때만이 주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 작풍을 퇴치할 수 있다.

* *

우리는 군중 속에 들어 가는 것이 일'군들의 사상을 단련하는 훌륭한 방도의 하나라는 것을 초보적으로나마 일정한 경험을 통하여 체득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당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 진미를 알기 시작한데 불과하다. 군중 속에 들어 가는 것이 일'군들의 사상을 단련하는 훌륭한 방도로 되게 하자면 우리는 앞으로 많은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 사상을 부단히 단련할 수 있도록 그들 속에서 혁명적 군중 관점을 철저히 확립하는 문제이다.

군중에 대한 옳은 견해와 태도가 설 때에라야만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는 문제가 원만히 풀릴 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믿고 존경하며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며 그들이 애타하는 문제를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풀어 주기 위하여 애쓰며 그들로부터의 비판을 허심하게 접수하고 자체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오직 일'군들 속에 혁명적 군중 관점이 철저히 확립될 때 그들은 군중 속에 들어 가 유람식, 행세식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배워 주고 그들에게서 배우면서 자신의 사상을 부단히 단련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 하며 로동에도 성실하게 참가하는 문제이다.

침식을 같이 하여야 일'군들이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체의 본

연의 풍모를 잃지 않고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게 되며 안일, 부화를 반대하고 검박하게 살며 군중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게 된다. 또한 로동을 같이 해야 일'군들이 그 과정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며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집단주의 정신과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교양될 수 있으며 군중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일'군들이 대중의 높은 존경과 신망을 얻을 수 있으며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고 상하가 혼연 일체가 되여 제기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특히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 하며 로동에 참가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습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고 사상 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 나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 나타난 사상 상 결함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를 제때에 정화히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일'군들이 항상 군중 속에 들어 가 살면서 자체를 혁명적으로 부단히 단련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가 사상을 부단히 단련할 수 있도록 그들의 당 조직 생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내에는 높고 낮은 당원이란 있을 수 없다. 일'군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당 세포 생활을 통하여 자체를 혁명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일'군들이 당 조직 생활에서 유리될 때에는 대중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주의적 경향에 빠지게 되며 나아가서는 당도 군중도 모르고 안하무인격으로 행세하게 된다.

일'군들은 자기가 속한 당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아래에 내려 가서도 해당 당 조직에 속하여 당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당원 대중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그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극복하고 자체를 단련할 수 있다.

경험은 1:1로 되는 수공업적인 충고나 방조보다도 대중적인 비판이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는 강유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일'군들이 당원 대중의 통제를 의식적으로 받으며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성실하게 접수하고 자신의 부족점을 제때에 극복해 나갈 때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제고하고 자체를 부단히 혁명화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군들이 당 조직 생활에 항상 충실하며 특히 당 세포 회의를 자기 당성 단련의 학교로 인정하고 회의에 참가해서는 자기의 사업과 결부시켜 본질적인 결함을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체의 사상 상 병'집을 고칠뿐만 아니라 동무들의 당 생활에도 방조를 주도록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혁명가적 자질을 부단히 높이고 전 사회를 혁명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과 지방 공업

홍 승 은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함께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발전시키는 행정에서 우리 당은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경공업 부문에서는 그 경제 기술적 특성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장과 중소 규모의 공장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지방 공장들을 광범히 건설하는 것은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소비품 생산의 장성과 전반적인 공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방 공업의 건설은 또한 나라의 모든 지방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특히 공업을 농업에 접근시키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이 명제는 해방 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쌓은 풍부한 경험을 집약적으로 개괄한 것이며 뒤떨어진 경제 형편에서 최단 기간 내에 자립적 인민 소비품 생산 기지를 창설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을 밝힌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나라 공업이란 보잘 것 없는 것이였다. 특히 경공업은 그 토대조차 거의 없었으며 전래의 수공업마저 심히 파산 당하였다. 해방 후 국토의 량단으로 인하여 공화국 북반부 지역의 경공업 토대는 더욱 한심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경공업의 락후성을 퇴치하며 우리 인민들의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체의 생산 기지를 축성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절실한 과업의 하나로 되였다.

당은 우리 나라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는 첫 시기부터 경공업의 골간으로 되는 대규모 중앙 공업을 건설하고 그 기술 장비를 튼튼히 꾸리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 형편으로 보아 대규모 경공업 공장들을 단번에 많이 건설할 수 없었고 규모가 큰 공장을 건설하는 데만 힘을 넣어 가지고는 경공업 자체의 락후성을 빨리 퇴치할 수도 없었으며 급격히 늘어 가는 인민들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리 하여 우리 당은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자립적 경공업 기지를 축성하며 인민 소비품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함께 발전시키는 방도를 처음부터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 나라 지방 공업은 전쟁 전 시기

와 전후 복구 시기에 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을 뿐 아니라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2년 반 앞당겨 수행할 수 있게 한 중요 담보로 되였으며 7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오늘에도 나라의 경제 발전을 추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 소비품 생산 분야에서 뿐 아니라 금속, 전기, 석탄, 화학 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중공업 부문들과 기타 부문들의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김 일성 동지의 명제에 근거하여 대규모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왜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합리적인 길로 되며, 그것이 전반적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데서 지방 공업이 어떤 역할을 노는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려 한다.

* *

경공업 부문에서는 그 경제 기술적 특성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장과 중소 규모의 공장을 배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소비품에 대한 수요는 대중적 성격을 띤다. 그것은 전국 각지에서 끊임 없이, 상시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며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되여 있는 까닭에 기동성 있게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것은 매개 지방의 기후, 풍토, 관습, 전통 및 기호 등등에 따라 더욱 다양하다.

이로부터 대규모 중앙 경공업 공장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중소 규모의 지방 공장들을 전국 각지에 많이 조직하여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는 것은 소비품 수요의 특성에 완전히 부합된다.

한편 경공업은 다른 공업 부문보다 기술 체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생산을 보다 쉽게 조직할 수 있는 유리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경공업은 그에 소요되는 원료의 적지 않은 부분을 농촌 경리에서 공급 받는다. 농촌 경리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있고 그 생산 조건이 각이하므로 경공업의 원료 생산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그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폐설물들도 인민 소비품 생산의 중요한 원료 원천으로 된다. 이와 같이 도처에서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원료는 전국 각지에서 소비품 생산을 광범히 조직할 때 성과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

우리 당은 소비품에 대한 수요 및 소비품 생산의 기술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경제 발전의 매 시기마다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밀접히 결합시켰으며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 소비품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였다.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배합하여 발전시키는 데서는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 간의 부문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대규모 중앙 경공업과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이 다같이 인민 소비품을 생산하는 데 복무하지만 그 수요를 해결하는 면에서는 서로 일정한 특성을 띠고 있다는 사정에 의하여 설명된다.

보통 소비품 중에서 소비 기간이 가장 짧고 보다 일상적 성격을 띠는 것은 식료품이다. 따라서 지방 주민들의 수요에서 일반적으로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며 또한 세소 일용 필수품에 대한 수요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요는 각 지방의 자원에 의거하는 중소 규모 공장들의 생산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직물과 같은 전국적 의의를 갖는 생활 필수품의 수요는 비교적 복잡한 현대적 기술에 의거하는 대규모 공장들에서 대량적으로 생산 충족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경공업은 전반적으로 보아 심히 락후하였고 그 중에서도 응당 경공업의 기간적 토대를 이루어야 할 방직 공업을 비롯한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생활 필수품 생산 부문은 거의 없었다.

이 모든 조건들을 타산하여 우리 당은 방직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의 기간적 토대 창설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지방 공업이 주민들의 생활에서 보다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식료품, 세소 일용품에 대한 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키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 중에서도 당은 지방 공업 창설의 첫 시기 우선 일용품 생산에 보다 큰 주의를 돌렸다. 이것은 이 시기 우리 나라 지방들에서 식료품 수요에 비하여 일용품 수요가 더 컸다는 사정과 함께 그 때까지 다소 남아 있던 수공업적 기술도 주로는 일용품 생산 부문과 많이 관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은 세소 일용품의 생산으로 지방 공업의 첫 터전을 마련하고 점차 소비에서 일상적 성격을 띠는 식료품 생산 부문을 창설 발전시켰다.

우리 당은 또한 중앙 경공업 토대를 축성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여 이 과업을 기본적으로 완성한 기초 우에서 지방 공업의 토대를 대대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의 실현에서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은 것은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였다.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국가의 추가적 투자를 거의 들이지 않고 전 인민적 운동으로 지방 공업을 크게 발전시킬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 시기 지방 공업의 대대적 발전은 경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공고화하는 데서는 물론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더욱 빨리 추진시키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당시 더욱 고조되는 전체 근로자들의 높은 생산 열의를 전국적 범위에서 세매에 조직화하고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

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놀았다.

전 인민적 운동에 의하여 지방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조성된 제 조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큰 국가적 투자 없이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토대의 축성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며, 다른 편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한층 조직화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현명한 방침이였다.

6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의 각처에서는 불과 수개월 동안에 1,063 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고 그 91%가 조업을 개시함으로써 전국 소비품 생산액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8년에 이미 37%, 1959년에는 39%, 1960년에는 일약 56%에 달하였다. 특히 전원 회의 후 지방 공업의 생산 품종이 지방적 수요를 보다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 확대됨으로써 지방 공업은 중앙 경공업과 함께 더욱 급속히 발전할 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지방 공업은 중앙 경공업과 함께 소비품 생산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당은 지방 공업의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면서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그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밀접히 따라 세웠다.

지방 공업을 창설하고 그것을 중앙 경공업과 옳게 배합하여 발전시킨 우리 당의 방침과 매 시기의 구체적 조치들은 빈 터전 우에서 짧은 기간 내에 자립적인 소비품 생산 기지를 축성하고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에 최대한 복무할 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소비품 생산 분야에서 대규모 중앙 공업과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배합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 건설의 그 어떤 일정한 시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 과정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지방 공업을 중앙 공업과 병진시키는 방침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고 있으며 7 개년 계획의 강령적 과업을 실현하는 오늘 지방 공업은 더욱더 큰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 있다.

*　　　*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광범하게 발전시킨 우리 당의 방침은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증대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전반적 과정을 촉진시키는 중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지방 공업은 사회적 재생산의 높은 속도와 균형을 보장하는 경제적 공간의 하나로서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의 관철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기본 원천으로 되는 것은 축적이며 인민 경제 내부 예비의 동원은 확대 재생산의 추가적 원천을 이룬다.

인민 경제 내부 예비의 동원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그 하나가 현존하는 생산 요소들의 합리적 리용이라면 다른 하나는 아직 리용되지 않고 있는 생산 요소들을 동원 리용하는 것이다.

이 두 측면은 다 같이 추가적 투자에 의존함이 없이 생산을 확대시킬 수 있게 한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동시에 전자가 선행 단계의 투자와 관련되며 현존하는 생산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 기초한다면 후자는 대체로 선행한 단계의 투자와 관련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생산 요소들을 재생산에 추가적으로 인입하는 것으로 생산을 확대시킨다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 내부 예비 동원의 이 두 측면을 옳게 배합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 축성이 전면에 제기되였던 전후 시기에 아직 확대 재생산 과정에 인입되지 않고 있던 지방적 예비를 광범히 동원하는 데 큰 주목을 돌렸다. 5 개년 계획 시기에 들어 와서 당은 현존 생산 공장들의 내부 예비를 동원하는 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적 예비를 동원하는 전 인민적 운동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달성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불과 수개월 동안에만도 근 3만 2,000 대의 각종 유휴 설비들이 탐구 동원되고 100만여 평방 메터의 생산용 건물이 지방 자재에 의하여 자체로 건설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 원료 원천이 대대적으로 탐구 동원되여 지방 공업 생산액 중 지방 원료 원천에 의한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8년에 58.8%, 1959년에 60.5%, 1960년에는 62.5%로 계속 장성하였다. 1960년도 소비품 생산액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달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5 개년 계획 기간 소비품 생산액의 상당한 부분이 국가의 추가적 투자 없이 지방 공업에 의한 생산의 급속한 확대로 달성되였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지방 공업은 우선 매해 국민 소득의 소비 부분을 추가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국민 소득 리용에서 생산 확대를 위한 축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국민 소득을 추가적으로 지출함이 없이 Ⅱ부류 생산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응당 소비에 돌려져야 할 부분을 절약하게 하고 그 만큼 축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한 데서 볼 수 있다.

지방 공업은 또한 생산 확대를 위한 축적 증대에 직접적으로도 기여하였다. 지방 공업 기업소들은 건설 기간이 짧고 직접 원료 원천지와 제품 소비지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생산 및 류통 기간을 보다 단축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 이것은 지방 예산 수입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지방 예산 조절에 대한 중앙 예산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가 축적에 보다 많은 자금을 돌릴 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 부문의 기본 건설 투자 중 중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는 3 개년 계획 기간의 81.1%로부터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82.6%로 높아지고 경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는 18.9%로부터 17.4%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업 총생산액 중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년 평균 장성 속도가 3 개년 계획 기간의 59.4%와 28%로부터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37.7%와 34.9%로 현저히 접근할 수 있은 것은 그 과정을 확증하여 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지방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있는 예비를 동원하여 자금을 덜 들이고도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인민 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고 많은 국가 자금을 중공업의 발전에 돌릴 수 있었다》(김 일성, 《전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지방 공업의 발전은 로동력의 부단한 확대 재생산을 동반한다.

지방 공업의 발전은 로동력을 류동시킴이 없이 로동력 분포의 지역적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성하며 각 지방들에서 로동 계급의 대렬을 새롭게 확대한다. 또한 광범한 지방 일'군들의 로동 숙련과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며 기업 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도 적지 않게 기여한다.

지방 공업 부문 로력의 압도적 다수는 종래 부양 가족으로 있던 녀성들이다. 이것은 지방 공업의 발전에 의한 로동력의 재생산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녀성 로력의 광범한 리용은 인민 경제 로력 바란스의 긴장성을 푸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그들을 사회적 로동에 인입하여 종국적인 사회적 해방을 달성케 하는 력사적 과업 수행과 직접 련결되고 있다.

녀성들을 사회적 로동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지방 공업이 중요한 형태의 하나로 되는 것은 우선 그것이 《녀성들의 체질과 소질에 맞는 경공업 부문》(김 일성 선집 제 4 권, 36 페지)이며 광범한 녀성들의 거주 조건에 적응하게 각 지방에 널리 분포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방 공업 공장들은 또한 각 지방의 공업화된 《주방》, 일용 필수품의 공급자로서 녀성들이 부엌과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소소한 가정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리 하여 지방 산업 공장들은 《녀성 로동을 대대적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그것을 요구하며 또 사'적 가내 로동을 점점 더 사회적 생산 활동으로 전화》(맑스 엥겔스 선집 제 2 권, 358 페지)시킨다.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의 생산 활동을 통하여 광범한 녀성들은 부양 가족의 처지를 벗어 나 남자와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며 로동 계급의 사상, 기

술, 문화를 배운다.

이것은 지방 산업 공장들을 통하여 전반적 기술, 문화, 사상 혁명 수행에서 매우 어려운 과업의 하나가 해결되여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지방 산업 공장을 많이 세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남자, 녀자 다 나가 일하도록 해야 한다. 남자, 녀자 다 나가 일하면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녀성들이 사회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녀자들이 집단적으로 로동하고 집단적으로 생활하게 되면 그들의 정치 수준과 계급 의식이 높아지고 그들은 당당한 사회주의 건설자의 영예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녀자들이 나가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496 폐지).

우리 당은 지방 공업의 발전을 사회주의 생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과업과도 밀접히 련결시켰다.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시기 당은 지방적 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키는 분야에서 개인 상공업을 리용하는 동시에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제 조건을 성숙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지방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기본 과업으로 하는 지방 공업은 개인 상공업의 활동 령역에 깊이 침투하여 과도기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기본 요구를 관철하는 중요 공간의 하나로 이바지하였다.

당은 지방 공업을 두 형태로 발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생산 협동 조합을 통하여 개인 상공업자들을 흡수하여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혁하고 생산 과정에서 맺어지는 협업의 성격과 형태를 변경시켰으며, 다른 편으로는 국영 지방 공업을 통하여 개인 상공업의 마지막 지탱점인 소상품적 농촌 경리와 국영 경리와의 련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켰다.

우리 당은 생산 품종에 있어서도 지방 공업의 두 형태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 협동 조합은 많은 경우에 세소 일용 필수품 생산 부문에서 발전하였다면 국영 지방 공업은 일용 필수품의 생산과 함께 일상적 성격을 띠는 식료품 생산 부문에서 발전하였다.

생산 협동 조합이 주로 세소 일용 필수품 생산 부문에서 발전하게 된 것은 중요하게 생산 협동 조합을 통한 개조 대상이였던 많은 개인 상공업자들이 이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

이 조치에 의하여 우리는 개인 상공업자들을 쉽게 생산 협동 조합에 접근시키고 그들의 기술과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었으며 개인 상공업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그 개조 과정을 촉진시키면서 동시에 지방적 수요를 보다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확

별됨에 따라 지방 공업의 두 형태를 단일한 체계로 발전시키는 획기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공고화에서 지방 공업의 지위를 더욱 높이였다.

지방 산업의 대대적 발전으로 하여 국가적, 전 인민적 소유가 급속히 확대 강화되였다. 각 지방에 광범히 포치된 지방 산업 공장들은 조밀한 그물로 전국을 련결하는 국가 소유의 물질 생산적 기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각 지방 특히 군 단위에서 물질적 생산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부단한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 공업 기지를 통하여 각 지방들에서는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이 한층 더 높아지고 농민과의 친선적 뉴대가 강화되여 가고 있다.

또한 지방 산업의 발전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 간의 련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협동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일'군들의 로동의 사회화 수준을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로 부단히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방 산업의 발전은 농민들을 비롯한 각 지방 주민들의 구매력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그것을 제때에 실현시켜 생산물 분배 분야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 호상간 및 각 지방들 간의 차이를 현저히 축소시킨다.

오늘 우리 나라 지방 공업은 전반적인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직접 이바지하고 있다.

* *

지방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대규모 중앙 공업과 중소규모 지방 공업을 배합하여 발전시킴에 있어서 인민 소비품의 생산과 농업 생산의 경제적 련계를 보장하는 한편 공업과 농업 간의 지역적 련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지방 공업은 대규모 기업소의 지역적 분포에서 있을 수 있는 제약성을 보충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 농촌 경리가 일정한 지역 단위로 집중화됨에 따라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는 농기계 작업소, 상품 류통 등 일련의 경제적 환절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었다. 지방 공업은 공업 생산을 직접 농촌에 접근시킴으로써 공업과 농업 간의 지역적 련계를 강화한다. 지방 공업은 경공업과 농촌 경리 간의 교류를 더욱 밀접하게 하며 중공업의 농촌 봉사 기지들과 함께 농업과의 생산적, 소비적 련계를 자체의 특성에 맞게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성한다.

우리 당은 지방 공업의 이와 같은 특

정을 고려하여 지방 공업 기업소들을 각 지방의 원료 원천지와 제품 소비지에 최대한으로 접근시켰다.

지방 공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방 원료가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 있는 만큼 지방 공업 기업소들을 농어촌 지역에 접근시키는 것은 이 지역의 풍부한 원료 원천들을 광범히 동원하며 지방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더우기 전쟁 전과 전후 시기 당우 빈농민들과 령세 어민들의 생활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였던 만큼 지방 공업을 농어촌 지역에 접근시키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우리 당은 또한 종래 공업 토대가 거의 없었거나 매우 미약하였던 지역들에서 지방 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는 조치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공업 배치의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고 지방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시켰다. 전국 각지에 중소 규모의 지방 산업 공장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은 공업 생산 배치의 균형을 보장할 뿐 아니라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지방 경제는 공업과 농업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완전히 승리한 이후보다 급속히 발전하였다.

공업과 농업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우리 당은 우선 지방 산업을 시, 군영의 형태로 군 단위로 조직하는 한편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 경리를 리 단위로 통합하고 그것에 대한 기업적 지도 기관으로서의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공업과 농업이 일정한 단위(군)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련계되도록 하였다.

지방 공업은 그 자체의 특성; 지방적 수요의 크기와 특징, 원료 원천의 분포 상태, 그 동원 리용의 효과성 정도, 지방 공업 기업소들의 기술적 조건 등으로 보아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군은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점이며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 된다.

지방 공업도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 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조직하고 지도한다》(김 일성; 《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군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만 지방 공업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 간의 련계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지방 공업이 도영 공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농촌 경리가 도에 의하여 직접 조직 지도되던 시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 간의 련계에서 불가피하였던 일정한 제약성은 오늘 완전히 극복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 공업은 지방의 소비품 생산 기지로서 군 내에서 조성되는 소비품의 수요는 물론 전국적 수요의 상당한 부분까지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지방 공업은 매개 지방의 자연 경제

적 조건의 종합적 리용을 크게 자극하고 농촌 경리의 발전을 추동하며 지방 주민들 특히 농민들의 수입 수준과 구매력을 높여 지방 시장의 용량을 확대시킨다. 지방 공업은 각 지방에 도시 문화를 보급하고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지방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켜 인구 분포에서의 지역적 균형을 보장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지방 공업 공장들은 군내 주민들 속에 로동 계급의 사상 의식, 현대적 기술 문명, 공산주의적 도덕 및 문화를 침투시키는 기지의 하나로서 전면적 기술, 문화, 사상 혁명 과업의 수행을 촉진시킨다.

김 일성 동지가 일찌기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이 공장들을 각지에 골고루 분포시킨 리유의 하나는 이렇게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급속한 시일 내에 없애자는 데도 있었다.

*　　　*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방 공업은 실로 거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현시기 지방 공업을 한 계단 더 발전시켜 그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긴절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 공업 부문 앞에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기술 혁신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지방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현대화하고 매개 부문, 기업소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생산 공정을 적극 기계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또한 로력 조직 및 로력 관리를 개선하여 현존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 리용하고 인'군들의 로력적 열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하며 품종을 계속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데서 획기적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지방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되고 있는 이 모든 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반적 과정과 밀접하게 련결되고 있다.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지방 공업은 지난 시기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7 개년 계획의 강령적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더욱 큰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후대 교양과 아동 문학

장 형 준

一

우리 나라에서 후대 교양 문제는 공산주의 리상의 실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함과 함께 그에 상응한 새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은 우리의 후대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육성하기 위하여 항상 거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나라에는 후대 교양을 위한 매우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이 지어져 있다.

전일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대중 자신이 자기의 사업으로 광범히 전개하고 있는 인간 개조 사업은 공산주의 교양을 위한 유리한 사회적 토대를 지어 주고 있으며 후대들에게 강력한 사상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압박과 착취를 모르며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된 우리 인민은 자녀들의 교육 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이 사업을 나라와 사회 앞에 지닌 공민의 중대한 의무로 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각종 기술 학교와 대학이 광범히 설립되였으며 후대들 앞에는 배움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 각급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아동들은 나라의 미래의 주인으로, 혁명의 계승자로 씩씩하고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어진 모든 유리한 조건과 수단을 다하여 후대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것은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하며 하루 속히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여야 할 우리의 혁명 임무와 국제 무대에서 혁명과 반혁명 간의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오늘의 정세로부터 절실하게 제기된다.

후대 교양에서 아동 문학은 좋은 가정과 훌륭한 교원과 규률 있는 조직 생활과 함께 대단히 큰 역할을 논다. 그것은 형상적인 수단들로 사람들의 사상 감정에 작용하는 문학의 고유한 인식-교양적 기능이 세계관과 성격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과 아동들에게 특히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동 문학은 후대들의 년령-심리적 특성에 적응한 다양한 형상과 형식을 통하여 생활의 미와 진리,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과 고상한 사회적 리상으로 후대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한다.

훌륭한 문학 작품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새것에 대한 지향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불러 일으키며 혁명의 길에 나서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김 일성). 우리는 청소년기에 읽은 혁명적 문학 작품이 일생을 통하여 그 인간의 사상적 장성과 생활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실례를 자주 보게 된다.

우리 아동 문학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이미 적지 않게 내놓았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나어린 독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의 교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후대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일층 강화해야 할 과업은 아동 문학 앞에 더욱 높은 사상-예술적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 ※

당은 후대들을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자로, 그 주인공으로 육성할 것을 지향하면서 그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당의 공산주의 교양 방향은 그대로 아동 문학의 주제 방향으로 된다.

그 중에서 우선 강조되여야 할 것은 혁명적 주제이다. 오늘 북반부의 청소년들을 계속 혁명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동시에 남반부의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킬 수 있는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는 문제는 아동 문학에 있어서도 중심적 과제로 되고 있다.

혁명적 작품 창작에 력량을 집중할 데 대한 지난해 11월 7일의 강령적 교시에서 김 일성 동지는 혁명 전통 교양을 일층 심화시킬 데 대하여 교시하면서 혁명적 주제의 방향과 그 폭을 넓힐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은 항일 빨찌산들의 무장 투쟁을 뿌리로 하고 혁명의 매 력사적 단계를 거쳐서 발전되고 풍부화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혁명 투사들의 대렬도 확대 장성되였다.

따라서 문학의 혁명적 주제의 생활 령역에는 혁명 전통의 발생과 풍부화의 전 과정이 포괄된다. 즉 1930 년대의 항일 무장 투쟁으로부터 해방 후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조국 해방 전쟁, 전후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 남반부에서의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혁명 투쟁과 생활이 바로 그것이다.

아동 문학 작가들은 1930 년대의 공산주의자들과 소년 투사들에 대한 형상화에 일차적 주목을 돌리는 동시에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우리 인민과 소년들의 영웅적 투쟁을 감명 깊게 보여 주며 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폭압을 반대하여 싸우는 투사들과 소년들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반제 투쟁에 궐기한 세계의 혁명적 소년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띤 아메리카 소년들의 혁명 투쟁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노래해야 한다.

아동 문학 앞에도 혁명적 대작을 창작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대작 창작에서는 긴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혁명 투사의 영웅성과 그의 성장 과정을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로 되여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대작 창작에서도 한 소년이 혁명가-투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성격 발전과 운명의 우여곡절을 통하여 잘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어느 한 력사적 시기의 혁명 투쟁을 폭 넓고 심오하게 개괄하면서 소년 혁명가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보여 주는 대작을 창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혁명적 주제를 개척함에 있어서 우리 아동 문학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편 소설 《소북하 마을 소년들》을 비롯하여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소년 아동들을 형상화한 혁명적 작품들에는 소년 혁명가-투사의 성격이 진실하게 전형화되여 있다.

소년 혁명가들을 전형화하기 위해서는 성격의 핵으로 되고 있는 영웅적 특질을 개성적으로 천명하고 그의 계급적 및 민족적 의식의 형성 과정을 심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격의 혁명적 특질을 영웅적 투

쟁과 극적 계기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동시에 조직과 집단 생활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장성하고 단련되여 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혁명가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미래에 대한 신념이며 아동 문학의 독자들은 바로 미래를 가진 새 세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혁명적 주인공의 성격에 미래를 시향하는 정신을 체현시키는 동시에 어떠한 곤난과 역경에 처하여도 락망하지 않고 씩씩하게 싸워나가는 혁명적 락관주의를 옳게 천명해야 한다.

혁명적 작품 창작에서 시인들 앞에는 전투적 기백과 혁명적 랑만으로 충만된 아동 시가를 창작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 있다. 특히 남반부의 광범한 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고무할 수 있는 혁명적 군중 가요를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창작하여야 한다.

열렬한 혁명 사상은 높은 계급 의식과 민족적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해방 후에 나서 자란 우리의 후대들은 부모들이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로부터 받던 억울한 처지와 심정을 직접 체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족적, 계급적 원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생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은 꾸준한 계급 교양을 통하여 나어린 세대들에게 지주, 자본가의 계급적 본성과 자본주의 제도의 본질을 인식시키며 원쑤에 대한 증오와 반제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킬 것을 가르치고 있다.

경험은 계급 교양에서 대비의 수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아동 예술 영화 《영이는 노래한다》는 이 점에서 좋은 실례로 된다. 이 영화는 일본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영이의 생활을 대비적으로 보여 주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추악상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진실하고 심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아동 문학 작가들은 해방 전과 해방 후, 남과 북의 생활을 이와 같이 대비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을 창작하는 데 더욱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나 남과 북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중심이 서야 한다. 대비의 목적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 주자는 데 있는 만큼 대비에서 중심도 오늘의 우리 북반부의 사회주의 현실에 두어야 한다.

아동 문학 앞에는 우리의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 시대의 천리마 기수들과 새 세대들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창작할 과업이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천리마 시대의 주인공들을 형상화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들의 집단주의 정신을 천명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은 공산주의적인 새 형의 인간들의 정신 세계와 호상 관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말해 주는 사상-도덕적 표징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생활 규범으로 될 뿐만 아니라 감정의 내적 요구로도 된다. 소년단과 사로청 생활의 교양적 목적도 청소년들에 대한 집단주의 교양에 바로 기본을 두고 있다.

우리의 아동 문학은 집단주의 교양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 왔으며, 모범 분단 및 천리마 학급 칭호 쟁취 운동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 등을 생활적 바탕으로 하여 새 시대의 인간-집단주의자의 전형적 성격을 적지 않게 창조하였다.

그러나 일부 작품들은 집단주의를 주심 주제로 하고 소년단과 사로청을 주심으로 한 집단 생활을 묘사하고 있으

면서도 집단주의자로서의 주인공의 성격과 사상 감정을 선명하게 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작품에 집단주의적 미거와 집단주의적 생활 현상들이 묘사되여 있지 않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현상적으로만 서술되였을 뿐 성격과 그들의 호상 관계 및 내부 세계를 통하여 심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아동 문학 독자들은 자신이 사로청과 소년단에서 집단 생활에 직접 참가하고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오빠, 언니들이 보여 주는 집단주의적 미덕을 목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상적 바탕을 깊이 천명하지 않고 사실을 현상적으로 전달할 때에는 독자들에게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되풀이하여 보여 주는 것으로 될 것이며 그들의 심장에 큰 감동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집단주의 교양에서 사상적 깊이를 보장하는 문제는 애국주의의 천명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이 일하며 배우는 작업반과 공장, 학급과 학교 등 생활의 모든 단위는 서로 합쳐서 하나의 커다란 집단, 사회주의 조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도 결국 집단주의 사상의 한 발현이다. 따라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하나로 융합되여 있다. 이것은 집단에 대한 사랑이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되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집단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화되는 데서 명백히 알 수 있다.

후대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그들에게 조국 보위에 대한 사상과 함께 향토에 대한 사랑과 향토 건설에 대한 크나한 포부와 긍지를 갖게 하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 지는 애국자로, 부모들의 사업의 훌륭한 계승자-교대자로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양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에 결연히 나서며 언제나 투쟁의 선봉에 굳건히 서 있도록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부모들의 위업을 영예롭게 계승하여 향토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의 들끓는 전투 초소에서 믿음직하게 일하고 있거나 이러한 초소에 진출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의 생활과 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화한 작품을 적극적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조국 앞에 지닌 책임의 무거움과 사명의 영예로움을 똑똑히 일깨워 주고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옳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

로동이나 학습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주제의 기초에 반드시 심오한 사상을 부여할 줄 알아야 한다. 로동이나 학습에 대한 묘사가 그 어떤 《단순한 근면성》에 대한 랭랭한 실무적 기록으로 되여서는 안 된다. 그 근면성도 그것을 밑받침하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높은 책임성, 로동에 대한 랑만적 희열, 곤난 극복의 열정 등등과 같이 련결시켜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동 문학 작가들은 조국과 사회의 운명을 자기의 어깨에 걸머진 애국자의 높은 책임감과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로동과 학습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만이 간직할 수 있는 높은 긍지와 희열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데 창조적 각광을 집중하여야 한다.

천리마 시대의 긍정적 주인공—집단주의자를 묘사함에 있어서 또한 류의해야

할 점은 자각성과 자립성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는 방법으로서는 긍정으로써 감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원래 좋은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제나 압력에 못 이겨서 좋은 일을 했다 하여도 그가 좋은 사람으로 개조된 것은 아니다》(김 일성, 《청소년들의 교양에서 교육 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공산주의 사상과 집단주의 정신의 발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결과와 아울러 그 일에 대한 태도와 그 일의 실천 행정을 통해서 검증해야 한다.

매개 개성이 자각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집단 내에서 자기의 존재와 의무를 자각하고 자기의 내부적 요구에 의해 공동 위업에 공산주의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자각성과 자립성이 개성을 어떻게 완성시키며 집단의 도덕적 기초와 힘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데 각별히 류의하여야 할 것이다.

⁂ ⁂

오늘 우리 나라는 전면적으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시대에 들어 서고 있다. 이러한 시대는 청소년들과 아동들에 대한 과학 기술 교양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 문학은 청소년들과 아동들을 인류가 축적한 고귀한 지식으로 무장시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것은 아동 문학이 인류가 도달한 과학의 상상봉에 서서 환상적 수단으로 과학의 미래를 내다 보면서 후대들에게 위대한 꿈과 희망을 안겨 주는 과학 환상 문학과 그들에게 과학의 성과를 인식시켜 주는 계몽적인 과학 통속 문학과 같은 특별한 양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쟝르의 작품들은 과학 기술로 청소년들과 아동들을 무장시키는 데 거대한 역할을 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물론적 세계관을 형성시켜 줌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 문학 작가들은 이미 적지 않은 과학 환상 문학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은 문학을 사랑하고 지식욕에 불타는 후대들 속에서 광범히 애독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후대들의 높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 쟝르의 작품들이 우선 량적으로 적게 나오고 그 사상-예술적 질도 높지 못하다. 더우기 과학 통속 문학은 아직도 거의 개척되지 않은 분야로 남아 있다.

과학 환상 문학과 과학 통속 문학 앞에는 실로 흥미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놓여 있다. 일찌기 고리끼는 이러한 주제로서 지구, 공기, 물, 식물, 동물, 인간의 사고, 불과 로동의 역할, 종교, 과학 등을 례거하고 특히 사유 재산의 발생과 그 해독성을 문학적으로 서술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한 주제들이다.

우리는 주체성과 현대성의 견지에 철저히 립각하여 우리 나라의 자연과 력사 및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천명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 혁명 수행의 현실적 요구에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물론 이 쟝르의 작품들에서는 자연과학과 기술 공학에 관한 주제가 주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이에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지주, 자본가들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는 것과 같은 과학 통속 문학 작품은 매우 절실한 창작 과제로 된다.

과학 환상 문학 작품의 창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작가가 과학적 성과에 확고히 기초하여 작품을 구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이미 달성한 성과만을 제시하고 해석하면서 그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는 데 급급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왜냐 하면 과학 환상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에게는 과학적 성과에 기초하여 미래의 과학 세계 즉 과학의 앞날을 예견하고 상상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작가에 의해서 묘사된, 과학의 앞날에 대한 예견과 상상도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예견과 가설로 즉 과학적인 개연성을 띠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환상에 의하여 묘사된 그 가설의 생활적 세계도 응당 개연적인 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작품들에서는 과학적 가설이 실현된 생활을 황당무계하게 보여 줌으로써 가설과 예견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진실성의 문제인 동시에 과학성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환상의 과학적 기초와 또한 그것이 실현된 환상적 현실에 대한 표상이 진실성과 과학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작품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더욱 잘 계발하고 그들을 자연 정복과 정의를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고무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 통속 문학은 새로운 탐구와 개척이 요구되는 분야인 것 만큼 아동 문학 작가들은 과학 환상 문학이 축적한 경험에 의거하면서 이 분야를 새로 개척하여야 한다.

과학 통속 문학 작품의 창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과학적인 내용을 쉽고 재미 있게 서술하되 그것을 단순한 통속 기술 과학 서적으로 되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문학 작품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론리적으로, 직선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생동한 표상과 구체적인 정황과 계기를 통하여 형상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과학 환상 및 과학 통속 문학 작품의 창작에서 다같이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인물의 성격을 명료하게 밝히며 과학 탐구의 진지한 과정을 심각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쟝르의 작품들에서는 등장 인물이 과학적인 지식을 설명해 주는 수단으로만 되여 개성과 운명이 성격화되여 있지 않다.

이 쟝르의 작품들이 독자들 속에서 인식적 기능을 높아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지식의 퇴적으로 제시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고귀한 지식도 그것을 소유한 인간의 고상한 지향, 과학 탐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 꾸준한 노력과 함께 밝혀질 때에라야만 커다란 교양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과학의 성과를 전달하고 미래를 예견할 뿐만 아니라 과학 탐구의 집요한 과정 속에 독자들을 인입하여 주인공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모대기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후대들에게 과학 탐구의 열정과 곤난 극복의 희열을 감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식에 대한 열렬한 탐구 정신과 완강한 의지와 강의한 성격을 소유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이 쟝르의 문학 작품이 가지는 교양적 힘이 있다.

그러므로 이 쟝르의 작품 창작에서도 인간 성격을 명료하게 창조하고 슈제트를 옳게 조직하며 극적 행동과 풍만한 서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으로 심오하고 사상-예술적으

로 우수한 과학 환상 및 과학 통속 문학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아동 문학 작가들의 노력과 함께 과학 교육 및 생산 기술 일'군들이 이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가들과 해당 부문 전문 일'군들과의 창조적 련계와 협조를 강화하며 공동 저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

아동 문학이 후대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서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예술성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문학 중에서도 청소년들과 아동들을 위한 문학은 가장 예술적으로 완벽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공산주의적 성격 형성을 도와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되고 세련된 미적 관점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10년이나 20년 후에 생활을 더욱 훌륭하고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과 아동 독자들처럼 그렇게 문학을 열렬히 사랑하며 독서욕이 왕성하고 작품의 출판을 고대하는 독자층은 없고, 그들의 미학적 요구도 비상히 높다.

아동 문학이 후대 교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혁명적 대작을 창작할 데 대한 요구도 결국 《예술성으로 더욱 강화된 고상한 사상성》을 구현한 걸작을 창작해 냄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나어린 세대들은 사고의 형상성과 풍부한 감수성, 강한 모방성과 비상한 영웅심, 나래치는 상상력과 미래에 대한 랑만, 유쾌한 웃음과 발랄한 행동 등으로 특징적이다. 발전 도상에 있는 세대들인 것 만큼 그들의 생활과 호상 관계는 이러저러한 갈등과 극성으로 충만되여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아동 문학에 시와 극적 행동, 랑만과 웃음, 그림과 음악을 요구하며 그것이 가장 간결하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될 것을 요구한다.

이로부터 슈제트와 구성을 극적으로 조직하며 인간을 성격화하고 그의 행동과 내면적 체험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화하며 예술적 묘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동 문학의 예술성 제고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특히 설화적인 중세 문학의 잔재인 설화체 문장을 극복하는 것은 산문을 위시한 아동 문학 전반에 있어서 강조되여야 할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는 1962년 5월 3일 교시에서 청소년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할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서적 특성에 맞게 교육 교양 사업을 진행할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수상 동지의 이 교시는 아동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강령적인 교시로 된다. 아동 문학 작가들은 이 교시를 계속 관철하면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생활과 특성을 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 문학에 아직도 뿌리를 남기고 있는 도식주의, 교훈주의, 기록주의 등을 극복하고 아동 문학의 가일층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

아동 문학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점은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년령-심리적 특성을 잘 고려하는 문제이다. 후대들의 지'적-심리적 발전은 해를 따라 다르다. 우리는 보통 아동들의 년령층을 크게 학령전, 인민 학교, 초중, 기술 학교 등 4 단계로 구분한다.

이 4 개 년령층 중에서 오늘 아동

문학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기술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양이다. 그런데 이 년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작품이 아직 량적으로 적게 창작되고 있으며 이에 전문적으로 관계하는 작가들도 많지 못하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이 년령층의 청소년들을 교양하기 위한 작품 창작에 력량을 기울여야 하며 강력한 조직적 대책이 또한 강구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학령 전 아동들을 위한 동요와 현대적 주제의 동화 창작에 주목이 돌려져야 한다. 동화의 매력은 환상에 있는바 거기에 시와 철학이 있어야 하며 작품이 단순한 이야기로 되지 말아야 한다.

아동 문학은 후대들을 위한 큰 문학이다. 그것은 아동 문학 작가들만의 사업으로 국한되여서는 안 되며 전체 문학 력량이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작품 창작과 함께 이 분야에 대한 평론 사업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여야 한다. 아동 문학에 문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아동 문학 발전을 위한 사업이 일대 문학 운동으로 전개된다면 아동 문학은 어김 없이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아동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새로운 아동 문학 작가들을 육성하고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여야 한다.

아동 문학 작가들의 후비 원천은 실로 광범하다. 어른들은 모두 어린 시절을 거쳐 왔으며 자기의 자녀들과 동생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아동들을 위한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특히 교원들과 사로청 일'군들, 어머니들 중에서 많은 아동 문학 작가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당과 국가로부터 아동들을 교양할 사회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문학 서적을 계통적으로 보장해 주고 그들의 독서를 일상적으로 지도해 주며 이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의견을 작가들에게 제기하는 것은 후대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아동 문학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광범한 사회계가 문학을 통한 후대 교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 작가들은 후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문학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노력하여 우리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심장을 매혹할 수 있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 내자!

문답 학습

기업 활동에서 질적 지표는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질적 지표란 한마디로 말해서 공장, 기업소들이 주어진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즉 그것은 공장, 기업소 기업 활동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질적 지표는 크게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와 경제적 지표로 나눠볼 수 있다.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에는 용광로 내용적 1 립방 메터 당 하루 평균 선철 생산량, 주물 직장 1 평방 메터 당 주물품 생산량, 뜨락또르 하루 평균 작업량, 열 설비들의 시간 당 평균 열 생산량 등 기계 설비와 생산 면적의 리용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들과 각종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의 소비 기준과 실수률, 제품의 품위 등 지표들이 속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고정 폰드와 류동 폰드 리용의 효과성 정도와 제품의 질적 수준을 알 수 있게 하여 준다.

경제적 지표로서는 종업원 1인 당 생산액, 원가, 수익성 등 지표들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기업소 사업의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특징 지어 준다.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와 경제적 지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적 지표는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은 공장, 기업소 기업 활동의 개별적 측면들을 특징 짓는 지표들에서 일어 나는 혁신들이 모두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인 경제적 지표들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및 로동 조직의 개선, 기계 설비 리용률의 제고,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의 소비 기준 저하, 대용 자재와 폐설물의 합리적 리용, 비생산적 비용의 감소, 류동 자금 회전률의 촉진 등 기업 활동의 성과는 결국 1인 당 생산액의 제고와 원가 저하 등 종합적인 질적 지표 개선의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

종업원 1인 당 생산액 지표를 그 례로 들 수 있다. 어떤 기업소가 기술 공정을 개선하여 제품의 생산 주기를 단축하거나 교대 작업 조직을 잘 하고 480분 로동 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열 관리와 전력 관리를 잘 하여 연료와 동력의 소비 기준을 저하시키게 되면 종업원 수의 변동이 없는 조건에서도 생산량은 증대되며 결국에는 1인당 생산액이 높아지고 원가도 저하되기 마련이다.

경제 발전의 매 시기 도달된 질적 지표 수준은 개별적인 생산 단위 뿐 아니라 인민 경제 전반적 범위에서의 경제 관리 수준과 기술 발전 정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우리가 어떤 공장, 기업소의 기업 활동은 물론 인민 경제 전반의 경제 형편에 대하여 말할 때 국가의 량적인 계획 수행률과 함께 질적 지표 수준을 보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질적 지표의 개선은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부 예비를 백방으로 동원 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도의 하나로 된다.

다 아는 것처럼 내부 예비란 생산에 동원 리용되지 않고 있는 잠재력으로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현존하는 생산 요소들, 이를테면 생산 과정에 이미 인입된 원료와 자재, 설비, 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새로 조성되는 예비들이며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도 생산 과정에 인입되지 않고 있는 유휴 설비, 자재, 로력 등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예비들이다. 내부 예비의 이 두 가지 형태는 물론 다 같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생산의 증대를 보장한다는 데서 공통점을 가지나 그 동원 방법은 서로 다르다.

생산 과정에 아직 들어 오지 않은 숨은 형태의 생산 요소들; 유휴 설비, 유휴 로력, 유휴 자재 등은 그것들을 새로이 생산 과정에 추가적으로 인입하는 방법으로 동원 리용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동원 리용된 예비의 압도적인 부분들, 그 이후 전 군중적 운동에 의한 지방 산업 공장의 대대적인 건설로 동원한 수 많은 지방적 예비들이 주로 이러한 형태의 예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내부 예비의 다른 한 형태; 생산 과정에 이미 인입된 설비, 로력, 자재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부 예비는 기본적으로 질적 지표의 개선을 통하여 동원되는 것이다. 질적 지표의 개선은 새로, 추가적으로 생산에 인입되는 내부 예비도 보다 유효하게 리용할 수 있게 한다.

질적 지표를 부단히 개선하는 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현 단계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그 규모가 아주 방대하여졌을 뿐 아니라 해마다 더욱더 새로운 기계 기술로 장비되고 있으며 모든 부문, 단위들에는 사회주의 기업 관리 운영의 가장 선진적인 형태인 대안의 사업 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여 있다. 또한 생산자들의 생산 경험과 기술 기능, 기업 관리 수준이 전과는 대비할 수 없으리 만큼 향상되였으며 특히는 그들의 생산 열의가 날을 따라 계속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 발전과 경제 관리의 이러한 높은 수준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질적 지표의 개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예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는 물론 아직까지도 생산 과정에 인입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유휴 사장된 형태의 내부 예비가 적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지금 도처에서 전 군중적 운동으로 유휴 로력, 유휴 설비, 유휴 자재를 계속 동원하여 대규모 생산과 중소 규모의 생산을 병진시킬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러한 형태의 예비와 함께 특히는 모든 부문에서 질적 지표를 개선하여 생산의 급속한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예비를 더 많이 동원하는 데 커다란 주목을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실은 질적 지표의 개선을 통하여 얻게 되는 내부 예비의 의의를 날로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의 결정을 받들고 금년도 계획 대조 사업 과정에 탐구된 거대한 규모의 증산과 절약의 예비 중 압도적 부분이 바로 새 기술의 도입과 함께 현존 기계 설비와 생산 면적의 합리적 리용, 각종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의 원단위 소비 기준 저하, 로력의 합리적인 조직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최근에 있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1 차 전원 회의가 현시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할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한 리유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는 것이다.

사실 지금 열 설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석탄을 비롯한 각

죽 연료의 연소 효률을 높이고 열 설비의 시간 당 생산성을 제고하며 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현재 쓰고 있는 연료의 많은 부분을 절약하면서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추가적으로 얻어 낼 수 있다. 전력 관리 문제에 대하여서도 이와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가령 전력의 도중 손실을 방지하고 전해 및 전열 부문들에서 제품 단위 당 전력의 소비 기준 지표를 한층 더 저하시킨다면 이것만으로도 막대한 량의 전력 예비를 동원할 수 있다.

실로 질적 지표의 개선은 현시기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절약하며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고리로 제기되고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질적 지표의 개선은 생산 내부 예비를 백방으로 동원 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받은 량적인 계획 과제들도 훌륭히 초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 그것은 또한 기업소들로 하여금 자체의 내부 축적을 더 많이 조성하며 기업 리익금, 거래 수입금 등 국가 축적을 증대시키는 데 늘어 가는 사회의 순소득 부분을 계통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기업소가 국가의 량적인 계획 과제를 초과 수행하며 국가의 납부 의무를 보다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반드시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질적 지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어느 한 기업소의 다음과 같은 자료를 놓고 말하여 보자.

(%)

지표 \ 년도	1961	1962	1963	1964*
공업 총 생산액	100	148.8	158	210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100	135	143	174
생산 계획 수행률	103.5	101.5	108.7	104.8

* 1964년 상반기를 1961년 같은 시기와 대비한 것임.

계산에 의하면 이 기업소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의 3 년 동안에만도 매해 생산을 평균 30% 이상씩 장성시켰다. 이처럼 기업소가 해마다 높은 생산 장성 속도를 달성할 수 있은 것은 오직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과 같은 중요한 질적 지표를 부단히 개선한 결과이다. 이 기간에 기업소는 생산 장성의 근 80%를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 즉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이곳 생산 집단은 매해 많은 기업소 기금을 적립하고 기업 리익금, 거래 수입금 등 국가 납부액을 1962년에는 그 전 해보다 4 배, 1964년 상반기에는 1961년 같은 시기보다 9 배로 장성시킬 수 있었다.

물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질적 지표의 개선 없이도 국가의 량적인 계획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례컨대 로동 생산 능률은 높이지 못하고도 로력자 수를 증대시키거나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 등의 원단위 소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량적인, 금액 상 계획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로력과 물자의 막대한 랑비를 가져오게 하며 원가를 높여 기업소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기업소가 비록 국가의 량적인 계획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질적 지표들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많은 물질적 및 재정적 곤난에 부닥치게 되며, 또한 그러한 기업소는 국가 계획을 완수한 기업소라고 말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가 일찌기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공장, 기업소든지 《총생산액에서 뿐만 아니라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원가를 낮추는 데서도 계획을 완수하는 때에만… 계획을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김 일성 선집 제 2 권, 1964년 판, 86 페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장, 기업소들에서 질적 지표를 개선하는 것은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질적 지표의 개선을 위하여

현시기 우리 일'군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경제 관리 일'군들이 기업 활동에서 질적 지표가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부단히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질적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결국 나라의 물질적 및 로력적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내부 예비를 백방으로 동원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투쟁이다. 그런 만큼 이 투쟁에서의 성과 여부는 우선 그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과 태도 여하에 달리게 된다.

경험은 경제 관리 일'군들이 질적 지표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단순한 기술 경제적 사업으로가 아니라 매개 생산 단위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리는 사상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대할 때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생산 초소, 생산 단위에서 주어진 설비와 로력, 물자가 어떻게 리용되고 있으며 질적 지표의 현 상태가 어떠한가를 높은 당'적 책임감 밑에 하나하나 관심하며 사업을 이악하게 째고 든다면 기업 관리 운영의 전반적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지 못할 리유가 없다.

공장, 기업소의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 기계와 설비들은 바로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며 나라의 경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인 만큼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누구나 되는 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 만일 일'군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며 로력과 물자야 얼마를 쓰든지 간에 우선 생산 계획을 량적으로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한 단위들에서는 물자와 로력의 랑비가 조성되고 설비가 혹사되며 원가나 건설비 등 질적 지표들이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관리 일'군들은 기업 관리 운영의 모든 단위, 매개 고리들에서 항상 나라의 물질적 및 로력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질적 지표를 부단히 개선할 데 대하여 첫째 가는 주목을 돌리며 그것을 통하여 국가의 량적인 계획 과제도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한다. 경제 관리 일'군들은 현시기 특히 종업원 1인 당 생산액, 석탄과 전력을 비롯한 각종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의 원단위 소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깊은 주목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이미 가까운 년간에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2배 이상 제고하며 열 및 전력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고 물자 소비 기준을 전반적으로 30~50% 저하시킬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경제 지도 일'군들은 현시기 이러한 질적 지표들을 개선하는 데 주되는 관심을 돌리며 면밀한 조직 사업을 따라 세워야 할 것이다.

질적 지표를 부단히 개선하자면 일'군들이 기업소 재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이 또한 절실한 문제로 된다.

재정 활동은 모든 기관, 기업소의 경제 사업 성과를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기업 활동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다.

우리 당은 이미부터 모든 경제 관리 일'군들이 이 분야에 대하여 큰 관심을 돌릴 것을 늘 강조하여 왔으며 여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7개년 계획을 더 잘, 더 빨리 수행하자면 일'군들이 독립 채산제, 원가, 수익성 등 기업소 활동의 재정적 측면에 대하여 계속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경제 관리 일'군들은 그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항상 자지 부문 또는 기업소에 국가 자금은 얼마나 투하되였고 독립 채산제는 어떻게 되어 나가는가, 물자와 로력은 얼마나 소비되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와 수익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개선 방도를 마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이 오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기술 혁신, 로동 행정, 절약 사업 등 모든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질적 지표의 경제적 효과도 부단히 제고할 수 있다.

공장, 기업소 재정 활동을 개선하자면 일'군들이 그에 대한 일상적인 총화와 분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정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총화 분석 사업은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기업소 살림살이 전반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취할 수 있게 하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경제적 타산과 분석 사업에 대한 지식도 더욱 넓히고 공고히 할 수 있게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매월 재정 결산 심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고 1 인당 생산액, 각종 원단위 소비 기준, 제품의 질, 원가와 수익성 등을 집체적으로 토의 분석함으로써 제때에 그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성, 국들에서도 산하 공장, 기업소들의 실정을 전반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하여 적어도 매 분기에 한 번씩은 꼭 그러한 협의회를 열고 필요한 대책을 취하며 특히 뒤떨어진 생산 단위들의 기업 활동을 추켜 세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중요하게 그가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 운영하며 계획 실행을 어떻게 능숙하게 조직 지도하며 국가에 얼마나 큰 리익을 주는가에 따라 평가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공장, 기업소의 일체 재산과 생산, 건설, 로동, 재정 계획의 실행을 경제 관리 일'군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모든 부문, 단위의 경제 관리 일'군들은 매시기 제기되는 우리 당의 정책적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 기업 관리 운영에 대한 지식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연구 체득하며 언제나 나라의 착실한 살림'군답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한 채의 집을 지어도 더 값싸고 질 좋게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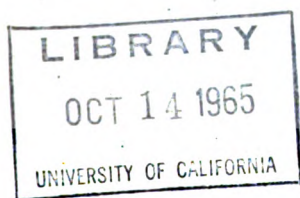
조 원 흠

근 로 자 제 14 호 (루계 276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7월 17일 발행 • 1965년 7월 20일

7—530403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5호 8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5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5 호(277)
1965년 8월 (상)

차 례

변혁과 창조의 20 년

조선 인민이 일제의 식민지 기반에서 벗어나 조국의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반만 년을 헤아리는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에서 20 년이란 매우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기간에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륭성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8.15 해방은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온 조선 인민의 근대 력사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였다.

해방 후 20 년 간에 지난날 주권이 없음으로 하여 갖은 학대와 멸시를 당하던 우리 인민은 나라의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쥐게 되였으며 수세기 동안 계속된 억압과 착취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주의 제도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다. 또한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룩할 수 있는 자립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았으며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 선진적인 사상과 문화를 가진 문명한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수천 년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해 놓았으며 모든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변을 이룩하였다. 나라의 면모는 일신되였으며 조국의 산천도, 사람들도 다 몰라 보게 달라졌다》(김 일성).

실로 해방 후 조선 인민의 20 년 력사는 당의 령도 하에 혁명이 부단히 심화되고 승리한 변혁의 력사였으며 민족적인 해방을 달성한 우리 인민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의식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것을 근본적으로 타파하며 새 것을 일떠세우는 창조의 력사였다.

뜻 깊은 해방 스무 돐을 맞이하는 이 시각에 우리는 이 땅에 펼쳐진 현실의 위대함을 새삼스레 느끼면서 지나온 투쟁과 승리의 로정을 자랑스럽게 돌이켜본다.

해방 후 우리 인민 앞에 나선 선차적인 과업은 민족적 해방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옳게 리용하여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창설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낡은 통치 기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페허 우에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전'적으로 옹호하며 실현하는 새 형의 정권—진정한 인민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는 조선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 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기원을 열어 놓았으며 새 사회 건설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되는 주권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지난날 조선 인민은 자기의 주권과 조국이 없음으로 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채찍 밑에서 짐승처럼 천대 받고 수모 당하였으며 어디 가서 쓰러져도 누구 하나 돌아 보지 않는 망국노의 서러운 처지에서 살아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생활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봉건 왕조의 수천 년과 일제 통치의 반세기에 걸쳐 오직 국가 권력의 희생자로만 살아 오던 조선 인민이 오늘에 와서는 국가 관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다.

정권 문제를 해결한 후 우리 앞에는 정치적으로 해방된 우리 인민을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는 절실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력사적인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해방 직후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와 봉건적 착취 관계를 철저히 청산하였으며 전후에 들어 와서 개인 농민 경리와 개인 상공업을 협동화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전일적인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확립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그처럼 념원하였으며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 흘려 싸운 사회주의 제도가 공화국 북반부에 창설되였다. 생산력은 낡은 생산 관계의 질곡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착취와 빈궁의 근원에서 영원히 해방되였다.

이것은 해방 후 우리 인민이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혁명에서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청산하는 동시에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고 생산력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인민은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무엇보다도 우선 조국의 번영과 자신의 행복을 자기의 손으로 마음대로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일제로부터 극히 편파적이고 기형적인 경제를 물려 받았고 그나마 3 년 간의 가혹한 전쟁으로 모조리 파괴된 조건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닦는다는 것은 실로 간고한 투쟁이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새 사회 건설의 첫날부터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물리치면서 이 사업을 추진시켰으며 전후에 당이 제시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이 력사적인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에 지금은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강대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가 건설되였다.

전후 10 년 간에 우리의 공업은 매년 평균 34.8%의 기록적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해방 후 20 년 동안에 공업 생산은 열 세 곱 이상으로 늘어 났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가 축성되고 전면적인 기술 혁명과 확대 재생산을

자립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중공업이 창설되였다. 우리는 자기의 중공업으로 기계 설비에 대한 국내 수요의 근 95%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토대에 기초하여 오늘 우리는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까지 해방하는 기술 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 상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는 튼튼한 경공업 기지도 창설되였다. 현대적인 중앙 공장들이 수 많이 일떠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지방 산업 공장들이 2,000여 개나 늘어 섰다. 한 때는 치솔 한 대 변변히 못 만들던 우리의 경공업 이였으나 지금은 크고 작은 공장들에서 사철 갈아 입을 옷감, 다종 다양한 일용품과 식료품이 다량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농촌에는 현대적인 기계와 기술로 장비된 사회주의 농업이 창설되였다.

사흘만 비를 못 보아도 거북이 등처럼 터 갈라지던 우리의 논밭이 오늘은 연연 수만 리의 수로에 휘감겨 석 달 왕가물에도 마르는 줄 모른다.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 짓는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은 지금 해방 전보다 2 배 이상의 알곡을 생산하고 있다.

자립 경제의 크나큰 위력은 인민들의 생활에서 은을 나타내였다.

오막살이 단간'방에서 토스레로 몸을 가리던 우리 인민, 기나긴 여름 날에 풀죽 한 끼로 허기진 배를 달래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집 걱정을 모른다. 모든 농민들이 중농, 부유 중농의 수준에 이미 올라 섰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전쟁 전보다 2 배 이상으로 증대되였다.

로동자, 근로 농민 출신의 새 민족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놓은 것은 우리 인민이 달성한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해방 직후 공화국 북반부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으며 964 명의 기사와 4,721 명의 기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98 개의 대학에서 15만 6,000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근 30만에 달하는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나라의 인민 경제를 자체의 손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지난날 가난하고 무력하였으며 문명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졌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현대적인 대규모의 공장들을 마음 대로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인류 과학의 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놀라운 발견과 발명들을 세상에 내놓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 인민은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운명을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밑천과 지혜를 가진 당당하고 위력 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낡은 사상 의식의 구속으로부터도 해방하는 것은 새 사회 건설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특히 수세기를 걸쳐 인민들의 머리 속에 뿌리 박힌 낡은 사상과 도덕, 생활 인습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적인 사상 의식으로 인민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은 이 어려운 과

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전변을 일으켰다. 우리 인민들의 사상 도덕 생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제도에 상응한 새로운 인간 관계와 생활 태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낡은 사상 잔재가 더욱더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생활 규범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미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혁명과 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 집단의 리익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 남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 안타까와 하는 사람, 20 년을 하루와 같이 자기의 혁명 초소를 굳건히 지켜온 무명의 영웅들, 우리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큰 부자가 되였다.

간고한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강철로 단련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새로운 혁명가의 대부대가 배출되였다. 이것은 몇 만 톤의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가장 고귀한 밑천이며 크나큰 승리이다.

실로 우리 인민은 해방 후 짧은 기간에 가난하고 락후하였던 이 땅에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락원을 일떠세웠으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이 창조와 변혁의 력사는 결코 순탄한 길을 밟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빈 터전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꾸려야 하였으며 원쑤들이 또한 안으로 밖으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섰다. 특히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 년 간의 전쟁은 조국의 존망을 판갈이 하는 일대 시련이였다.

그러나 제 아무리 《전승의 기록》을 가졌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 내외의 원쑤놈들의 악랄한 책동도, 새 사회 건설의 매 단계에서 중첩되였던 그 어떤 난관도 이 땅의 지심에 뿌리 박은 새 제도의 생활력, 해방된 조선 인민의 위력을 꺾을 수 없었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가 택한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하였다.

조선 인민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 위대한 변혁과 비약을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오직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써만 가능하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들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주체적 립장을 튼튼히 견지함으로써 혁명의 매 단계, 매 시기에 정확하고 현명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의 리익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당은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믿고 그들의 열성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혁명적 군중 로선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조선 혁명을 언제나 가장 가까운 승리의 길로 령도하여 왔다.

해방 후 조선 인민의 20 년 력사는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를 자기의 지도 사상으로 삼고 력사의 진정한 창조자인 인민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의 원천을 찾는 당의 령도가 있을 때 혁명은

확고한 승리의 길을 따라 부단히 전진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은 또한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두 손에 튼튼히 틀어 쥐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인민이 강력하고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의 주위에 굳게 뭉쳐 나갈 때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새 사회, 새 생활을 건설하는 간고한 실천을 통하여 빛나게 검증된 이 위대한 진리를 따라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 혁명의 승리를 계속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 혁명은 아직 전국적 범위에서 승리하지 못 하였다. 한날 한시에 해방된 남녘 땅은 오늘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화 밑에 짓밟히고 있다. 20 년 간에 걸치는 미제의 식민지 정책은 남조선 천지를 이름 그 대로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다.

해방 당시보다 공업 생산 수준은 85 %로, 농업 생산량은 3 분의 2로 축감되였다. 700만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해마다 이른 봄부터 100만 호를 넘는 농가의 쌀'독에 낟알이 떨어지고 있다.

사회 정치 생활에서 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마저 빼앗겼으며 남조선은 하나의 커다란 감옥으로 전변되였다.

그러나 북반부 인민들의 찬란한 성과에 고무된 남조선 인민들은 반동들의 류례 없는 폭압 속에서도 새 정치, 새 생활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줄기차게 전개하여 왔다. 20 년 간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불행의 화근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조선 인민들은 오늘 반미 구국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으며 혁명 대렬은 부단히 확대되고 투쟁은 더욱더 세련되여 가고 있다.

북반부의 혁명 력량이 급속히 장성되였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사실은 조국 통일의 대사변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의 전망이 확고히 내다 보인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20 년 간 조선 혁명에서 달성된 위대한 승리는 지난날 세계 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신을 비상히 제고시켰으며 오늘 세계 혁명 정세는 우리 혁명의 승리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이 부단히 장성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조선 인민들의 혁명 력량과 세계 혁명 력량의 급격한 장성에 의하여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쫓겨 나고야 말 것이며 조국 통일은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달성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더욱 철옹성 같이 다지여 조국 통일의 위업을 하루 속히 실현하며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세계 혁명 앞에 지닌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계속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 앞에 나선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4 차 당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현대적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킬 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7 개년 계획의 수행은 조국이 통일된 후 남반부의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며 남반부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원할 수 있는 더욱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축성하게 될 것이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을 것이다》(김 일성).

우리는 천리마 대진군의 혁명적 고조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여 7 개년 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해방 후 20 년, 우리는 당의 기치 따라 이 땅에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패배와 후퇴를 모르는 영웅의 력사, 천리마 조선 인민의 력사를 창조하였다. 그 어떤 요새도, 그 어떤 고지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반석 같은 사회주의 제도가 있으며 강력한 자립 경제의 토대가 있으며 붉은 마음, 붉은 뜻으로 굳게 뭉친 혁명가의 대집단이 있다. 우리의 선두에는 조선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는 조선 로동당이 있다.

당과 함께 전진하는 조선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 뿐이다.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뭉쳐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자!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

김 양 선

우리 력사에서 지난 20년 간은 가장 위대한 변혁의 시기로 특징 지어지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멍에를 벗어 던진 우리 인민은 자기 당, 자기 주권의 령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세기를 주름잡는 거보의 비약을 이룩하였다.

해방 후 20년 간에 우리 인민이 준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가장 고귀한 혁명적 전취물은 이 땅 우에 사회주의 락원을 꾸며 놓은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이 없어졌으며 근로 대중에 대립하여 맹목적으로, 파괴적으로 작용하던 온갖 사회적 힘과 그것으로 하여 수천년 간 지배하던 빈궁과 락후의 사회적 근원이 청산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 발전에서 전사(前史) 시대가 끝나고 창조적인, 진정한 력사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 대중이 사회의 주인, 자연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흥겹게 그리고 자각적으로 일하고 배우면서 행복을 창조하고 있다.

짧은 력사적 기간에 우리 나라는 강유력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전체 인민은 당의 주위에 하나의 대가정으로 단합되였다.

이리 하여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조선 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반석 같이 꾸려졌으며, 조국 통일 위업을 촉진하는 결정적 력량으로 되였으며,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위력한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오늘 전체 인민은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의 호소를 받들고 7개년 계획의 완수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눈부신 전진, 확고부동한 통일, 혁명적 고조는 바로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의 발현이며 우리 당 정책의 불패의 생활력의 시위로 된다.

과거 착취 제도 하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전변을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는 계급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와의 대비를 통하여 바로 무엇이 우리 제도 하에서 이와 같은 전변을 가져 오게 한 본질적인 우월성인가를 해명함으로써 이 제도의 공고 발전을 위하여 더 성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　　*

력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 대중과 그들의 활동이 놓이게 된다. 사회 력사는 바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 활동의 력사이다. 인간의 활동 특히 인민 대중의 활동을 떠난 사회 발전, 사회 력사란 있을 수 없다. 인민 대중은 사회 생활의 기초로 되는 물질

적 부의 생산자이며 모든 문화적 가치의 창조자이며 사회 혁명의 담당자이다.

일정한 사회 제도의 다른 사회 제도에 비한 우월성 여하는 결국 해당 제도하에서 인민 대중이 자기들의 실천 활동에 어떤 목적을 부여하며 그것이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람들이 사회적 실천 활동에 확고한 목적과 절실한 리해 관계, 고도의 혁명적 열의를 가지고 참가하게 될 때 력사의 수레바퀴는 비상한 속도로 달리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해당한 결과가 빚어진다.

각이한 사회 제도는 바로 대중의 활동에 각이한 성격, 각이한 내용, 각이한 목적과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과 모든 호상 관계의 밑바닥에는 사회 제도의 차이가 놓여 있으며, 그 차이를 특징 짓는 생산 수단에 대한 각이한 소유 관계가 놓여 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적대적 계급 사회에서는 근로 대중은 결코 자기 활동의 확고한 목적을 가질 수 없으며 그들은 잉여 가치의 생산과 리윤 획득을 위한 착취 계급의 수단으로, 희생물로 될 따름이다. 근로 대중은 자기 활동의 목적을 세우고 의식적으로 력사 창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자본가들을 위하여 잉여 가치의 생산에 종사하는 생산 과정의 맹목적 《요소》로 될 따름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산 활동의 매 행위는 생산 체계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의하여, 생산과 기술 공정에 의하여 그의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 없이 외부적으로 미리 규정되여 있다.

이리하여 착취 계급 사회에서는 로동이 근로 대중의 자각성, 창조적 적극성과는 무관계하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되며 채찍의 규률, 곤봉의 규률에 의하여 강요된다.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은 고되고 불영예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며 근로자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구화하는 강제이다.

사회 발전의 기초이며 근로 대중의 기본 활동 분야인 물질적 부의 생산에서 로동이 가지는 이러한 강제적 성격은 자본주의 하에서 근로 대중의 모든 생활을 비인간성의 나락에로 이끌어 가게 한다. 여기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진정한 인간적, 도덕적 관계를 떠나 물건들 간의 관계, 금전 관계, 매매 관계로 되고 만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가 강화될수록 이 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돈과 물건이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게 되며 마치도 인간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독특한 상태가 조성된다: 경제 분야에서 그것은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을 아랑곳하지 않는 《상품의 물신 숭배성》으로 나타나며, 정치 분야에서는 국가가 초계급적인 사회 조절자인양 신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신 생활 령역에서는 사람들을 현실 세계로부터 환상 세계에로 이끌면서 공포와 종교적 신앙, 관념론적 세계관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써 나타난다. 이 사회에서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물건, 황금이 판을 친다. 재산이 많고 적은 데 따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결정되며, 이성이 아니라 재산과 결혼하며, 과학 기술의 발명이나 예술적 창조도 자기 자신의 금전적 가치를 시위하기 위하여 진행된다.

이러한 사회 관계 하에서 특히 근로 대중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수동적인 물건이거나 기계에 가까우며 따라서 이들은 력사의 자유로운, 의식적인 창조자로 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지배 계급들도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의 합법칙성 앞에서 무력한 존재였다.

사'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생산 분야를 포함한 모든 령역에서 객관적 법칙이 사회로부터의 의식적

인 작용 밖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맹목적으로, 파괴적으로 작용하며 력사는 총체적으로 보아 사회적 통제 밖에 있는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에 필연적으로 조성되는 모순의 자체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사적 과정의 련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사회악—사회적 불합리, 법칙 앞에서의 무능력, 근로 대중의 육체적, 정신적 불구화와 빈궁화—을 과거 일제 통치 하에서 맛보았고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와 가깝게는 남조선 땅에서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만 이 모든 사회악은 밑뿌리 채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그것은 바로 이 제도의 경제적 기초에 의하여 마련되며 당과 대중의 혁명 투쟁에 의하여 현실성으로 전화한다.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사람들 간에 계급적 적대를 가져 오는 지반을 없애 버렸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생산 수단 간에 근본적 대립을 청산하였으며 조화로운 결합을 가져 오고 있다. 과거 사회에서 지배하던 사람들 간의 랭혹한 금전 관계, 매매 관계,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사라지고 이것 대신에 사람들 서로가 동지적으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참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수립되였으며 지배적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력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생산력의 미증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도덕적, 정치-사상적 자극을 낳게 하는 요인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제도의 결정적 우월성의 하나는 생산 증대의 목적과 수단이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우리 제도 하에서는 생산이 이 사회의 가장 고귀한 자본으로 되는 인간: 바로 근로하는 대중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벗들과 사회를 위하여 진행된다. 생산의 장성이 착취 계급을 부유하게 하고 근로 대중의 빈궁화를 심화시키던 때는 과거사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은 전 사회, 전체 사회 성원들의 장성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복종된다. 우리의 생산과 건설의 목적은 리윤인 것이 아니라 수요를 추구하는 사람들 자신의 복된 생활이다.

사람들은 생산의 장성을 위한 투쟁이 사회를 위한 투쟁인 동시에 자신들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생산력의 부단한 장성은, 그것이 오히려 절대적, 상대적 빈궁을 촉진하던 과거 사회에서와는 달리 생활 증진의 담보로 되며 따라서 우리 인민의 희망, 지향과 일치한다. 이리 하여 로동은 근로자들 자신과 사회를 위한 가장 영예로운 창조적 활동으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전면적 발전을 위한 기초로 되였다. 여기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이 로동 생산 능률을 장성시키며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며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데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최대한의 적극성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는 응당한 근거가 있다. 사회주의 제도에 고유한 생산의 목적은 곧 생산력 발전과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힘이기도 하다.

우리 제도의 기초에 놓여 있는 사회주의적 소유는 또한 사회 성원들 매개인의 리익과 사회적 리익의 일치를 보장하는 바탕으로 된다. 이것은 생산 활동의 목적의 공통성, 리해 관계의 공통성에서 오는 필연적 귀결이다. 우리 나라에서 매 사람들은 사회적 요구와 임무를 외'적 강요로써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사로, 자기들의 요구로 인식하며 섭수한다. 결과 사회적, 당'적, 국가적 요구는 곧 매 사람들의 행동과 품성의 자각적인 준칙으로 된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사회적, 국가적 의무와 법적 또는 도덕적 요구에 대하여 구속감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의 념원과 희망의

집중적 표현으로 리해하고 집행한다. 여기에 바로 우리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 실천을 위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하게 되는 리유의 하나가 있다.

로동 계급의 주권 하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의 토대 우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을 개선할 데 대한 세기적 숙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였다. 오늘 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물질-문화 생활은 더욱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그들의 사상 의식 수준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이 노는 역할이 날과 더불어 강화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의 의식적 활동은 현실에 대한 수동적인 반영이 아니라 력사적 과정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 전환한다. 이리 하여 사람들의 의식적 활동은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이 발현되는 형식으로, 요소로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혁명을 위한 자각적 열의와 함께 동지적 사랑과 호상 방조가 사회 발전의 불가결의 동력으로 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적대 계급 간에 일자가 타자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되였다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사회 성원들 간의 부단한 통일 단결을 위한 투쟁이 발전의 동력으로 된다.

이리 하여 사회주의 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새 사회 건설에로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떨쳐 나서게 되며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의 통일된 력량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력사의 수동적인 객체로만 되고 있던 인간이 사회주의 하에서 력사 발전의 의식적인 주체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 경제 법칙에 대한 인간의 전 사회적 지배와 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경제 법칙과 사회주의 하에서의 경제 법칙의 차이를 엥겔스는 자연에서의 번개나 벼락 현상과 사람들의 수중에 장악된 전력의 차이와 같은 것으로 비교하였다.

사회주의 경제 법칙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의식적인 리용과 타산을 전제로 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사회주의적 소유는 근로자들의 활동을 단일한 지도에로 결합시킴으로써 경제 법칙을 사회적으로 타산 리용할 수 있는 필연성과 가능성을 마련하여 준다.

사회주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법칙의 인식, 리용에 토대하는 대중의 의식성은 더욱더 높은 수준에로 올라 간다.

이리 하여 사회주의 하에서 실현되는 사람들의 목적 의식적인 활동, 거기에 부여된 고도의 혁명성은 이 사회의 로동 생산 능률과 생산력 수준을 비약적으로 촉진하며 미증유의 높이에로 이끌어 가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여기에 문제의 귀결이 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로동 생산 능률, 생산력의 장성—이것은 바로 한 사회 제도가 다른 사회 제도를 극복하고 그 우월성을 종국적으로 확증하는 기본 기준이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생산력의 결정적 요소로 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정으로 인간적인 관계; 생산에서의 새로운, 바로 주인으로서의 력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과거 그 어떤 사회도 이룩할 수 없었던 생산 장성의 속도와 그 높이를 보장하고 있다.

착취 제도 하에서는 강제와 곤봉과 기아로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인민 대중과 사회적 생산 투쟁과의 결합 관계를 우리 제도는 사람들의 고도의 자각성과 동지적 협조로써 대체하였다. 과거 사회를 지배한 강제와 호상 배타는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 적극성을 무자비하게 압살하였다. 우리 제도 하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의 자각성, 동지적 협조는 로동에서의 그들의 지혜, 창발성, 적극성, 헌신성, 영웅주의의 무진장한 샘으로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제도가 과거 사회, 자본주의 사회 제도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본질적 징표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와 《알리 아르함》 사회 과학원 청강생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이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 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 데 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의 하나는 이 제도 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한다는 데 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계속 높여 줌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자각성과 동지적 협조 정신을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저절로 발양되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능숙한 조직자적 및 향도적 역할에 의해서만 승리한 사회주의는 발전 공고화될 수 있으며 자체의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다. 과학적 리론으로 무장한 맑스-레닌주의당의 지도 하에서만 대중은 모든 사회 성원들의 복리와 전면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적이며 합목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의식성과 조직성이 객관적 합법칙성의 요구에 상응하게 발양될 수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당의 과학적인 령도의 필요성은, 과거 그 어느 사회에서도 제기되여 본 일이 없는 그러한 복잡하고도 어려운 사업이, 참으로 목적 의식적이며 통일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방대한 사업이 이 사회 앞에 필연적으로 제기된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가는 과도적 단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사회에는 과거 사회의 유산인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간의 차이,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 간의 차이 등이 남아 있으며 사람들의 머리에는 아직도 낡은 부르죠아적 사상 잔재, 낡은 생활의 유습과 타성들이 남아 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공산주의에로 가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적 분배를 실현할 만한 생산력 수준, 공산주의적 분배와 공산주의적 생산에 적응할 만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해결하는 물질적 및 정신적 분야에서의 두 개의 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그 우월성에 의거하여 해결하여야 할 심각하고 원대한 혁명 과업이다. **《력사적 사건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것들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하고 레닌은 지적하였다**—그 만큼 이 사건들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도 더 많아진다. 또 반면에 우리가 수행하려 하는 개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관심과 자각적 태도를 더 높여야 하며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뒤를 이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레닌 전집 제 31 권, 614～615 페지). 참으로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심각한 과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중들 속에서 이 과업들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옳바른 인식, 이 과업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자각성은 대중 속에서 저절로 생길 수 없다. 대중들이 처한 생활 환경과 그것에 의하여 제약되는 그들의 준비 정도는 이와 같은 심원한 리론적 및 사상적 전제를 주지 못 한다. 오직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뇌수이며 지혜인 당,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한 당만

이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매 단계들의 요구에 상응하게 대중들의 사상-리론적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과 국가의 지도는 사회주의 제도와 그 발전의 정치적 공간이다. 당의 령도적 역할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혁명적 의식이 배양되며 이러한 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는 자체의 미래를 확신성 있게 개척해 나간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는 모든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그 정책에 우리 사회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집중적으로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의 리익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 당은 이것을 대중의 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을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고 있다.

생활을 통하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체험한 우리 인민은 당 정책을 자신들의 사활적인 요구로, 인식된 필연성으로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고 있다.

당 정책에 반영된 우리 사회 발전의 객관적 론리의 위대한 힘과 우리 인민의 의식적인 활동과의 통일은 이 땅 우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백방으로 발양시키고 있다.

정책 작성에서와 그 관철에서의 철저한 주체적 립장과 군중 로선은 바로 우리 당 령도의 현명성, 정확성, 과학성을 안받침하는 확고한 기초로 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립장에 철저히 서서 우리 사회 발전의 특수성을 정확히 분석한 데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창조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철저히 과학적인 령도를 보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또한 평범한 대중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그리고 헌신적인 로동으로써 혁명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청산리 방법, 대안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고리를 찾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성과적으로 발양시키면서 제기된 과업들을 능숙하게 해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통하여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과도하는 력사적 행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혁명 과업들을 리론적으로 해명하였으며 특히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첫 공정으로서의 사상 혁명에 대한 방침을 명시하였다. 테제는 사상 혁명을 사회주의 하에서 진행하여야 할 중심적 과업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업으로, 그러나 동시에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 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확고히 선행시켜야 할 혁명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테제에서 또한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불가결의 동력으로서의 동지적 협조와 호상 원조의 긴밀한 련계가 로동자와 농민, 인테리 간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맺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석을 내리였다.

우리 당은 자체 활동의 첫 시기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에 항상 일차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그들이 고도의 자각성과 혁명적 동지애,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새 사회 건설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왔다. 당은 특히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끝난 이후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확고히 관철시킴으로써 전 사회를 붉은 일색으로 꾸리였다. 결과 오늘 북반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혁명의 전우로서 확고한 통일 단결을 이루고 서로 밀며 이끌면서 공산주의를 향해 힘

차게 나가는 아름다운 인간 관계가 형성되였으며 그리하여 우리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전례 없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면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당이 취한 조치들 중에서 궁정을 통한 사람들의 교양 개조 방침, 교육과 생산의 밀접한 결합의 원칙, 창조적 로동으로 들끓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을 교양의 거점으로 할 데 대한 로동 교양의 방침 등은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과 공고화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이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발현되는 기본 분야이다.

사회의 생산력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만 우리는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그 우월성을 옳게 발양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모든 부문을 다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숙원인 물질-문화 생활이 빨리 향상되고 고된 로동에서 빨리 해방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것을 가능케 해 준 이 제도를 옹호하여 자기들의 창조적 열성을 아낌 없이 발휘할 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언제나 물질적 조건과 현실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는 한편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믿고 발전 속도를 과학적으로 규정하는 철저히 과학적이며, 동원적이며, 혁명적인 경제 건설 로선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근로자들의 생활 문제와 건설 속도에 대한 방침을 조화롭게 배합함으로써 경제 건설을 성과 있게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인민 생활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를 비상히 높였으며 경제 건설 속도를 한층 높이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천리마 운동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바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위치와 립장을 똑똑히 깨달은 우리 근로자들이 혁명적 정열과 창조적 재능을 다하여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려는 숭고한 지향이 반영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리마 운동 행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기적적인 건설 속도가 창조되였으며 그리하여 세계사의 리정표로부터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선진 국가들과 당당히 어깨를 같이 하게 되였다.

경제의 장성 속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도는 확고하다. 우리의 공업 생산액은 전후 10 년 간에 평균 34.8%의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해방 후 20 년 동안에 13 배 이상으로 올라 갔다.

자기 세기를 다 산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와 대조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전 후의 20년간에 공업 생산에서 약 2.7 배의 장성을 보였을 뿐이며, 그 중 미국은 경제에 대한 고도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을 추구하면서도 조선 전쟁 이후 년간들에 년평균 2.3%의 공업 장성률을 겨우 유지하였다. 더우기 미국은 대전 이후에 4 차에 걸쳐 공황을 겪었고 여기에 소비된 기간은 142 개월이나 된다. 이것은 약 12 년 즉 전후 20 년 간에 절반 이상의 시기가 공황으로 인한 공업 발전의 하강과 침체, 답보 속에서 헤맨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이 제도의 로쇠와 몰락상을 뚜렷이 보여 준다.

수자와 사실은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생활력과 거대한 우월성을 여지 없이 실증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업은 이미 옛말로 되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해당한 일터에서 능률적으로 일하고 있다. 누구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 늙은이들까지도 배우고 있다. 병 나면 무상 치료를 받으며 무료나 다름 없는 싼 값으로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시각에 해방된 남조선 땅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고 있다. 로력자 2명 당 1명으로 추산되는 700만의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항시적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인민 생활은 극도의 도탄에 빠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인간 피라미트의 최하층》에서 허덕이고 있다. 미제와 괴뢰들에 의하여 강요된 반동적 제도는 인민을 질식시켰으며 남조선 사회를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도 없는 암흑 천지로 만들어 놓았다. 민심은 더욱더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에로 돌아 서고 있다. 미국 잡지 《워싱톤 포스트》지까지도 인정한 것처럼 《남조선 인민은 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에게는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고수 발전을 위하여 계속 전진이 요구된다. 이것은 조국 통일을 앞당기며 남조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한 문제로 된다.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더욱 심화함으로써 그들이 이 제도의 고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투쟁하도록 하며 이 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는 것은 당원들과 일'군들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 당의 조국 통일 정책과 그 위대한 생활력

최 창 진

조국 통일—이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민족적 지상의 과업이다.

해방 후 20 년 동안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근본적 리해 관계를 반영한 조국 통일의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조국 통일 문제 해결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는 더욱 유리한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고 있다.

우리 당의 조국 통일을 위한 방침과 그 정당성을 정확히 리해하는 것은 조국 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준비 있게 맞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국 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3대 혁명 력량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은 매우 어려운 혁명 과업이다. 조선 인민은 이 투쟁에서 세계 반동의 괴수이며 가장 포악하고 음흉한 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은 국내 반동의 소굴이며 《반공》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혁명 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된다.

우리 당은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 력량을 강화할 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 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 력량의 준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 하여 우리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굳게 결속함으로써 남조선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세째로, 조선 인민과 국제 혁명 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우리 당이 규정한 이 3대 혁명 력량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그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3대 혁명 력량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반부의 혁명 력량이다.

이 혁명 력량은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에 형성된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 력량이다.

북반부 혁명 력량은 조국을 영구히 분렬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우리 인민 자신의 힘으로 조

국을 통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 력량은 남조선의 혁명 력량의 장성을 촉진하고 남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며 고무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며 통일된 후 남조선에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간고성과 장기성을 예견하고 해방 직후에 벌써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제기하였다.

이 로선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였던 경험에 기초하여 북반부에 혁명 기지를 창설하고 민족 주체적인 힘으로 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할 데 대한 전략적 방침이다.

우리 당은 이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북반부의 혁명 력량을 꾸리는데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화국 북반부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 같이 통일 단결된 단일한 정치적 력량, 사회주의 붉은 일색으로 꾸려졌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와 철벽으로 다져진 군사력에 의하여 불패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북반부의 혁명 력량과 함께 남조선 혁명 력량은 민족 주체적인 혁명 력량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북반부 혁명 력량 하나만으로는 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조국 통일은 북반부의 혁명 력량과 남반부 혁명 력량이 다같이 튼튼히 꾸려지고 밀접히 배합되게 될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특히 남반부 혁명 력량이 튼튼히 꾸려져야만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할 수 있고 조국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

남조선의 혁명 력량은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 하에 군중 조직과 반미 구국 통일 전선에 결속되여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애국적 력량이다.

남조선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혁명적 당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의 기본 계급족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당 주위에 굳게 묶어 세우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계 각층 군중과의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명 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공고화하는 사업은 대중적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지금 남조선 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청년, 학생, 지식인들의 투쟁을 결합시키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동시에 각계 각층을 망라한 광범한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리 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결되고 있으며 불패의 혁명 력량으로 자라 나고 있다.

조국 통일을 위한 3대 혁명 력량 가운데서 국제적 혁명 력량은 민족 주체적 혁명 력량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역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제 혁명 력량에는 세계 사회주의 진영과 반제 민족 민주주의 혁명 세력을 비롯한 모든 반미 투쟁 력량이 포함된다.

조국 통일과 조선 혁명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사회주의와 민족적 해방을 위한 세계 인민의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 인민의 투쟁은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 각국 인민의 투쟁과 밀접히 련결된 투쟁이며 그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국제 혁명 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공동 투쟁을 진개할 때에만 우리의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인 미제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남조선에서 몰아 낼 수 있으며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대외 정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과 국제 혁명 력량과의 단결은 날로 확대 강화되

고 있다.

3대 혁명 력량을 강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주객관적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며 간고하고도 복잡한 우리 나라의 혁명을 확고한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우리는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조국 통일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조국 통일을 위한 기본 원칙과 그 실현 방도

우리 당은 조국 통일과 조선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3대 혁명 력량을 강화할 데 대한 방침을 정확히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과 그 실현 방도를 명시하였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해결하는 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 주요 문헌집》, 194 페지).

우리 당에 의하여 명시되고 정식화된 조국 통일의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은 우리 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부합되는 정당한 방침이다.

자주적 원칙—이것은 나라의 통일을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실현하자는 원칙으로서 우리 당의 조국 통일 정책의 초석이다.

모든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그 나라의 주체적 력량이다. 전 민족적 혁명 과업인 조국 통일 역시 우리 인민의 주체적 노력과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 인민 자신의 투쟁이 없이 그 어떤 외부 세력에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는 통일과 진정한 자주 독립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자주성의 원칙은 이와 같이 민족 자결권의 요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통일 문제의 가장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우리는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여야만 남북 조선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다같이 부합되게 조국 통일 문제를 민주주의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우리 조국 남북반부에는 각이한 사회 정치 제도가 수립되여 있다. 조국 통일은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 조선에 하나의 사회 정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성격의 사회 정치 제도를 선택하게 되는가는 전'적으로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원칙은 통일적인 사회 정치 제도를 남북 조선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선택케 하려는 가장 합리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함께 평화적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적 원칙은 전쟁의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협상의 방법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우리 당은 사상과 정견의 차이가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데 지장으로 되여서는 안 되며 더우기 동족 상잔의 원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원칙은 전'적으로 남북 조선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조선 인민은 조국의 분렬도, 민족 내부의 불화도, 동족 상쟁으로 인한 민족적 비극도 원치 않으며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 통일의 념원을 실현할 것을 원한다.

이와 같이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그 어느 것

을 막론하고 남북 조선 인민의 의사를 진실하게 반영한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우리 당은 자주적, 민주주의적, 평화적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의 매 시기마다 정확한 방도를 명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왔다.

우리 당의 정당한 조국 통일 방침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에 의하여 그 실현이 지연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미군을 철거시키는 투쟁을 강화하면서 일련의 중간 걸음을 거쳐 나라의 통일을 점차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김 일성 동지는 중간 걸음을 거쳐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남북 간의 평화 협정 체결과 군대의 축소, 남북 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의 실현, 남북 련방제의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남북 조선의 군대를 축소하는 것은 그 성격과 내용으로 보아 조국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첫 걸음으로 된다.

평화 협정 체결과 군대 축소는 있지도 않은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과 침략 전쟁 도발 음모를 합리화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음흉한 책동을 폭로할 수 있게 하다. 또한 그것은 남조선 인민의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이며 미제에 의하여 남북 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호상 신뢰와 리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은 정전 이후 제기하여 온 조국 통일 실현을 위한 매 방안들에서 이 조치를 거듭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 왔다.

남북 간의 경제 문화적 련계를 설정하며 교류와 협조를 도모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단절된 두 지역 간의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고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파국적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좋은 방도로 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도탄에 빠진 인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인민들의 의사를 거역하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는 것으로써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듯이 떠들고 있으나 그것은 남조선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외래 제국주의에 가일층 예속시키며 남조선 경제를 더욱더 헤여날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을 뿐이다.

해방 후 20 년 간에 걸친 미국 《원조》의 결과가 이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 이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 주고 있다.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는 데는 남북 간의 경제 문화적 련계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는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북반부 인민들은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여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를 건설하여 놓았다. 북반부에 건설된 자립적 민족 경제는 전 조선의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북반부의 강력한 경제 토대에 의거함으로써만 남조선의 파괴된 공업과 농업은 복구 발전될 수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민생고는 전면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남북 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남북 조선 대표들로 경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조는 경제 문화적 면에만 국한될 수 없다. 우리 당은

남북 간의 서신 거래, 인사 래왕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 걸친 광범한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 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다.

남북 간의 각종 교류, 경제 문화적인 련계와 협조가 실현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남북 간의 리해를 더욱 두터이 하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호상 협조가 실현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의 초보적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서 남북 련방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이 제의하고 있는 련방제는 남북 조선에 현존하는 사회 정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남조선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최고 민족 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련방제는 남북이 호상 어느 일방의 의사를 타방에 강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련방 기구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한 민족 공동의 리해에 관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남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련방제가 실시되면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국내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대외적 분야에도 단일 민족으로서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게 된다.

남북 련방제가 실시되면 또한 남북 간의 접촉과 호상 리해를 촉진하며 정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고 민족적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 극히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게 된다.

련방제가 실시되고 남북 간의 호상 리해와 접촉이 추진되며 민족 화목의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 최고의 과업인 나라의 완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인 중앙 정부를 수립하는 단계로 들어 서게 될 것이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중간 걸음을 거쳐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심히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낮은 데로부터 점차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면서 나라의 완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확고한 길이다.

조국 통일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

우리 당의 조국 통일 정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통일적 민주주의 림시 정부를 수립할 데 대하여 조선 로동당 창립 대회가 제기한 방안,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 총선거를 실시할 데 대하여 제 2 차 당 대회 후 우리 당이 거듭 제기하여 온 방안, 1954년 최고 인민 회의 제 8 차 회의가 제기한 남북 협상안, 8.15 해방 15 주년에 제하여 제기된 련방제안 등 조국 통일을 위하여 우리 당이 제기한 모든 방안들은 그 때마다 남북 조선 인민들을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켰으며 전 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제안들은 또한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는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그들을 완전히 수세와 궁지에 빠뜨렸다.

우리 당 제 3 차 대회에서 채택한 평화 통일 선언은 《북진 통일》을 꿈꾸던 남조선의 매국 역적 리 승만 도당을 타도하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며 조국 통일을 위한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남조선 인민들을 준비시킴

에 있어서 커다란 힘으로 되였다.

리 승만 괴뢰 정권을 타도한 4월 인민 봉기는 조국 통일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새로운 정세에 적응한 더욱 적극적인 자주 통일 방책을 제기함으로써 미제와 장 면 도당을 완전히 곤경에 몰아 넣었다.

8.15 해방 15주년 경축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기한 남북 련방제 실시에 대한 방안과 그를 구체화한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8 차 회의 제안들은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남조선에서 민심은 북조선으로 돌아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은 그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 쥐게 되였다.

애국적 청년 학생들은 《통일만이 살' 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전투적 구호를 들고 남북 협상의 길에 오를 차비를 하기에 이르렀다. 조성된 정세는 조국 통일의 문이 열리며 이로 말미암아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총붕괴의 전야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미제 침략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후 발악적인 군사 파쑈 독재를 수립하는 모험의 길에 들어 섰다.

우리 당은 《군사 정변》에 의하여 남조선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미제를 몰아 내며 군사 파쑈 도당을 쓸어 버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데 대한 새로운 투쟁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인민을 고무하였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 제 4 차 대회 선언과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 방침은 군사 파쑈 테로 통치 하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조국 통일 기운을 성숙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놀았다.

《군사 정변》 후 군사 불한당들의 파쑈적 탄압 하에서 잠재적 형태로 발전하여 오던 남조선 인민들의 조국 통일 지향은 다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조국 통일 지향은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6.3 봉기를 계기로 하여 더욱 강화되였다.

봉기에 궐기한 학생 청년들은 《한일 회담만이 현 정권의 출로가 아님을 알라!》, 《통일 대책 없는 무능》, 《민족 분렬을 일삼는 독재 정권 물러 가라!》는 구호를 들고 자주 통일을 지향하여 나섰다.

6.3 봉기 후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민족 분렬의 원흉을 처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남조선 출판물에는 《북반부에서 주겠다는 백미 200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 《한일 회담보다 판문점 개방 회담이 더욱 긴박하다》라는 요구까지 반영되게 되였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감정이 눈에 띄게 높아 가고 있다. 《한일 협정》과 《한미 행정 협정》의 체결을 반대하여 일떠선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양키는 조용하라》, 《미국은 우리의 상전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은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당의 정책이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얼마나 큰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 준다.

조국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북반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 하에 진행되고 있다.

오늘 북반부 인민들은 7 개년 계획을 완수하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중적 애국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국 통일을 촉진하며 남반부 형제들을 구원하려는 열렬한 심정에서 북반부 근

로자들은 남조선의 애국 투사들을 자기들의 작업반 성원으로 등록하고 그들의 몫까지 수행하기 위한 증산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 인민의 조국 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지지 성원하고 있다.

이리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온갖 방해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면서 빛나는 승리를 거듭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우리 당의 조국 통일 정책의 정당성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

＊　　＊

해방 후 20년간에 걸쳐 조선 인민의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은 전 조선의 광범한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과 미제와 그와 결탁한 한 줌도 못 되는 반동 세력간의 치렬한 판가리 싸움이였다.

이 투쟁 행정에서 조선 인민은 조국 통일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확고한 력량으로 자라 났으며 원쑤들을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몰아 넣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세계 도처에서 피압박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기세가 충천하고 국제 정세 발전의 객관적 추세도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승리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편에 있다.

과학적인 사고 방법과 사업 태도를 철저히 수립하자

I

혁명 활동에서 주관주의를 반대하고 객관적 현실에 맞게 일할 데 대한 문제는 우리 당이 시종일관 강조하여 오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당은 오늘 심화되고 있는 혁명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일군들의 사업에서 사소한 주관주의적 표현도 허용하지 말고 객관적 현실에 맞게 과학적으로 사고하며 사업할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혁명 활동에서 주관주의를 없애고 과학적인 사고 방법, 사업 태도를 가지고 일할 데 대한 문제는 원래 맑스-레닌주의적 사업 방법의 기본 요구의 하나이다.

맑스-레닌주의는 객관적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면 현실의 요구에 맞게 해내지 못할 일이란 없다고 가르친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의 합법칙적 발전을 인식해야 하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고 거기에 의거해서 사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또한 현실을 인식하며 대중을 혁명 사업에 인입할 수 있는 변증법적 방법론과 군중 관점의 위력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적 사업 방법의 요구대로 일한다면 사회의 발전 법칙과 객관 현실의 제 과정을 정확히 깨닫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며, 이에 발붙이여 혁명 사업을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 태도, 사업 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 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반드시 견지해야 하며 특히 사회주의 하에서는 철칙으로 삼아야 할 요구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제도는 객관적 조건, 객관적 법칙의 요구에 맞게 계획적으로, 의식적으로만 발전할 수 있다. 주관주의적 사고 방식, 사업 태도는 사회주의 제도와 근본적으로 상치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사회-경제 관계로 하여 전 사회적인 법칙의 타산, 리용이란 문제로 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개인주의와 자유 경쟁이 판을 치며 매 사람들의 생활과 운명에 대해서는 오직 그들 자신만이 책임을 진다.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은 불가피하게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이리하여 주관주의적 사고 방식, 활동 방식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시비하는 일이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주관주의를 극복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서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는 문제가 완전히 달리 선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개인주의와 독단주의, 일체 주관주의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객관적 조건과 객관적 법칙에 적응하는 전 사회적인 타산, 계획, 계산, 전 사회적인 의지의 통일성, 집단주의, 대중의 창발적 지혜와 힘에 의거하는 군중적 사업 방법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 요구를 실현하는 공간은 바로 맑스-레닌주의당들의 령도에 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우리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정확히 인식 타산하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였으며 그 수행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였다.

우리 혁명의 성과적인 발전 특히 전후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달성한 모든 빛나는 업적과 성과들은 바로 우리 당이 나라의 구체적 조건, 혁명 발전의 구체적 제 요구,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수립한 로선과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관철시킨 것으로서 설명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하부 실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선집 제 4 권, 546 페지).

로선 정책의 작성과 령도에서의 철저한 주체적 립장, 철저한 군중 로선은 우리 당 로선과 그 령도의 과학성, 혁명성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인민의 기상을 세계에 떨친 천리마 운동—우리 당 총로선의 근저에는 바로 이것이 놓여 있다: 경제와 문화, 사상, 국방,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고, 대안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확립하여 당과 국가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우리는 오늘과 같은 천리마의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은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예비로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일'군들이 자기들의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당의 과학적이고 현명한 로선,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는 여기에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대안 체계, 청산리 방법의 요구 대로 부단히 현실에 내려가며, 군중 속으로 들어 가는 데 있다.

대안 체계, 청산리 방법—이것은 바로 사업과 생활에서 일체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객관적 법칙과 현실의 제 조건, 대중의 의사에 맞게 사업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 제도의 합법칙적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대안 체계, 청산리 방법은 철저히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 체계, 사업 방법인 동시에 공산주의적인 사업 체계, 사업 방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수립된 이후 이 제도의 우월성,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고리로 되는 것은 지도와 관리 운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최근 년간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새로운 지도 체계와 관리 운영 방법을 확립하며 개선 완성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 행정에서 바로 위대한 청산리 방법, 대안 체계가 창조되였다.

우리 사업에서 대안 체계, 청산리 방법을 어떻게 관철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개 부문, 매개 단위에서 성과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여기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과학적인 사고 방법, 과학적인 사업 태도를 수립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안 체계, 청산리 방법은 관료주의의 무덤 우에 철저한 군중 로선에 의거하여 세워진 체계이며 방법이다.

대안 체계, 청산리 방법은 바로 우리 일'군들이 군중 속에 들어 가서 사업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가능성과 조건들을 타산하고 대책을 의논한 데 기초하여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주관주의는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객관적 현실과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실태에 대한 료해와 타산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고 방식, 사업 태도이므로 대안 체계, 청산리 방법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그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한다.

더우기 오늘 우리 혁명이 심화되고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가 째여 들어

가고 확대되면서 그 내부적 련계가 한층 복잡하게 얽혀지고 있는 조건에서 또한 7 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조건에서 만일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서 객관적 현실과 제반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지 못하고 주관적 욕망이나 소총명, 경험주의 등에 기초하여 주관주의적으로 일한다면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부정적 후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부문 간의 련계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하여 어느 한 부문에서의 주관주의적 사업 처리도 련관된 다른 많은 부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일찌기 사회주의를 계산과 타산이라고 지적한 레닌의 사상을 새삼스러이 명심하는 것이 요구된다.

오늘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11 차 전원 회의의 정신을 관철하려는 생산자 대중의 혁명적 열의는 비상히 높다. 우리 사업의 성과 여부는 일'군들이 주관주의를 퇴치하고 대안 체계,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의 그 앙양된 혁명적 열의를 생산 투쟁에 면밀히 조직 동원하며 객관적 사업 조건과 가능성들을 옳게 타산하고 정확한 계획에 따라 기업 관리 운영을 확고히 과학적인 궤도 우에 올려 세우는 데 크게 달려 있다.

일'군들이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없애고 당의 정책적 요구,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더 모든 사업을 타산하고 계산하고 짜고 들어 계획적으로, 목적 의식적으로 전개해 나갈 데 대한 문제는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서 절실한 문제로 전면에 제기되고 있다.

Ⅱ

주관주의란,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고 방법, 현실을 무시하고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는 사업 태도이다》.

우리 일'군들 속에 주관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도 아직 주관주의가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론 누구나 객관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 원리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정확한 인식 방법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

객관적 현실은 그지 없이 폭 넓고 복잡하며 부단한 변화와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군들이 만일 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현실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증법적 방법론을 가지지 못 할 때에는 객관과 맞지 않는 사고와 행동에로, 주관주의에로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주관주의가 나올 수 있는 근본 요인이 있다.

동시에 우리에게 아직도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조건에서 이것이 주관주의의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

낡은 사상 잔재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현실적 발전과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에 혁명적으로 파고 드는 것을 방해한다. 낡은 사상 잔재는 군중 관점과 어긋나기 때문에 군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낡은 사상 잔재는 일'군들이 현실에 들어 가거나 군중 속에 들어 간다 하더라도 사태를 옳게 판별할 수 없게 하는 그 낡은 편견과 형이상학적 사고 방식으로 하여 주관과 객관의 불일치를 가져 오게 한다.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 뽑는 것은 주관주의가 나오지 못 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다음으로 교조주의를 극복하며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주관주의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으로 된다.

교조주의는 죽은, 기계적인 사고 방식, 일방적인 사고 방식을 강요한다. 교조주의는 자기 나라의 현실, 자체의 실정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것, 남의 나라의 것을 통째로 삼킬 것을 요구한다. 이 사상 병'집에 걸리면 생동하는 사고력이 녹쓸어 버리며 현실을 바로 볼 수 없게 된다. 사업과 생활에서 교조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군들이 현실 속으로 부단히 들어 가지 않고 현실에 대한 연구를 등한히 할 때에도 주관주의가 나올 수 있다.

일'군들은 사업 상 위치로 보아 현실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생산자 대중과 떨어져 있다. 따라서 만일 일'군들이 대안 체계, 청산리 방법의 요구 대로 부단히 현실 속으로, 군중 속으로 내려 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현실의 요구, 군중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주관주의적 사고 방식, 사업 태도에로 떨어질 수 있다.

주관주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것 만큼 그 표현에서도 다양성을 띠고 있다.

주관주의는 우선 일'군들이 우리 당 정책의 진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지 못 하거나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나타난다.

당 정책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 경제, 문화 발전의 제 조건, 가능성들이 반영되여 있으며 대중의 힘과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여 있다. 또한 당 정책에는 우리 나라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제 방도, 대책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당 정책을 심오히 연구하며 그 본질과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현실을 옳게 인식하며 현실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된다.

그런데 만일 일'군들이 당 정책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현실과의 련관 밖에서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본질을 옳게 파악할 수 없다. 더구나 당 정책에 자의적으로 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사고하며 행동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현실과 유리된 주관주의적 사업 태도에로 떨어지게 된다.

주관주의는 일'군들이 현실을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함이 없이 주먹치기로, 형식주의적으로 일하는 데서 나타난다.

현실이란 무한히 복잡한 세계이다. 물론 일'군들에게는 일정하게 국한된 사업 범위가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 제도 하에서는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사업이 국가적인 전반적 혁명 사업과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으며 서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사업은 부단히 앞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일'군들이 현실을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모든 일을 딱딱 맞물리도록 짜고 들어 진행하지 않고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주먹치기로 진행하거나 또한 형식주의적으로 진행할 때에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관주의적 오유에로 떨어지게 된다.

주관주의는 일'군들이 군중의 힘과 집체적 지혜를 믿지 않고 독단주의적으로 일하거나 군중의 뒤꼬리를 따르는 데서도 표현된다.

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이들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이들은 생산 실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건설의 성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 가능성, 방도들을 잘 알고 있으며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군중에게 의거하면 모든 문제를 객관적 현실에 맞게 정확히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일'군들이 만일 군중의 힘을 믿지 않고 그들의 지혜에 의거함이 없이 독단주의적으로 일하거나 군중 속에 들어 가도 그들 속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종합 분석하고 거기에서 본질적인 의견을 추려 내지 못 할 때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주관주의적 오유를 면할 수 없다.

주관주의는 우리 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주관주의는 당 정책의 성과적 집행에 장애를 주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동될 수 없게 하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마비시킨다. 주관주의적 사고 방식, 사업 태도는 예비를 타산하지 못하게 하며 대중의 힘과 재간과 창발성을 타산하지 못하게 한다.

주관주의는 당과 대중 간의 련계를 약화시키는 장애물로 된다. 일'군들의 주관주의는 필연적으로 관료주의를 낳기 때문에 그것은 군중 속에서 일'군들에 대한 신임을 약화시키며 나아가서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게 된다.

주관주의는 일'군들 자신의 당성 단련과 자질 향상에도 크게 저애를 준다. 일'군들이 만일 현실에 내려 가지 않고 주관주의적으로 일하게 되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나온 계급적 바탕을 잊어 버릴 수 있으며 부단히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질 수 있다. 일'군들이 이렇게 되여 가지고서는 혁명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당의 높은 기대에 옳게 보답할 수 없다.

주관주의는 결국 일'군들의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 없이, 혁명 사업에 큰 해독을 주는 결과에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주의를 견정적으로 극복하고 객관적 현실에 더 정확히 의거하여 사업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Ⅲ

주관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일'군들이 학습을 강화하고 모든 사물 현상에 대한 인식을 넓히며 변증법적 사고 방법, 사업 태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일'군들이 당 생활을 강화하고 대안 체계, 청산리 방법의 요구대로 정상적으로 생산 현실과 대중 속에 내려 가 거기에서 살며 일하며 배워야 한다.

주관주의를 없애는 데 있어서 현시기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현실에 대한 조사 연구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현실에 들어 가고 군중 속에 들어 가는 것이 요구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사람들을 료해하려면 군중 속에 들어가야 하며 기계를 알려면 기계가 있는 곳에 가야 하고 땅을 알자면 땅을 파 보아야 하며 산을 알자고 하면 산에 들어가 보아야 한다.

우리가 군중을 떠나고 현실과 떨어져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어 가지고는 군중의 힘을 알 수 없고 현실에서 무엇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알 수 없다. 군중의 힘과 현실을 모르고서는 아무 것도 타산할 수 없고 예비를 찾아 내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지도 못 한다. 결국 군중과 현실을 떠나서 하는 사업은 주관주의를 면할 수 없다》(김 일성, 《농업 부문 일'군들은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하며 농촌 경리 지도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견정적으로 현실에 들어 가서 사실들을 알아 보고 확인하고 연구해야 하며 군중의 의견을 신중히 듣고 참작하여 일함으로써만 주관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현실을 조사 연구하기 전에는 누구도 발언권이 없으며 결론을 내릴 권리가 없다.

혁명 운동의 력사적 경험은 이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현실과 구체적 사실들은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 출발점이다. 당의 로선 정책, 전략 전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실현 방도, 구체적 실천 대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그 어떠한 결심, 판단, 대책도 오직 객관적 현실에 대한 전면적이고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 연구에 기초할 때만 당의 정책적 요구와 맞는 과학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원칙을 위반할 때 그 누구도 당과 혁명의 위업에 배치

되는 주관주의적 오유를 피할 수 없다.

주먹구구식 사업 방법이나 아무런 확인도 없는 보고와 자료에 기초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따위의 사업 태도는 당'적 사업 태도와는 인연이 없다. 모든 일'군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간에 우선 현실의 조사 연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세워야 하며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현실에 대한 조사 연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와 사실들을 단편적으로 혹은 적은 범위에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상당한 범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어떤 한두 가지의 사실이나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많은 사실과 자료, 통계, 조건 등을 료해한 뒤에야 우리는 확고한 립장을 취할 수 있다.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사물 현상을 포착하여야 한다. 우리는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무 것이나 마구 거두어 들이는 식으로는 될 수 없다. 조사 연구는 반드시 비본질적이고 우연적인 것은 내버리고 필요한 알맹이들만을 추려내는 식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그래야 사업에서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 낼 수 있다.

현실을 조사 연구하며 취사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과 확실성을 기하는 데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어떠한 자료들을 파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정확성과 확실성 여부를 음미하는 태도, 철저한 비판적 검토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자료로써는 그 어떠한 문제도 결코 론증할 수 없다. 사실과 자료가 옳다는 것을 검증한 뒤에라야만 거기로부터 우리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조사 연구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나 수'자 앞에 무릎을 꿇거나 맹종맹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의 라렬로써 사업이나 결론을 대치할 수 없다. 이러저러한 사실이나 자료 앞에서 우리는 응당한 경험과 교훈을 찾아야 하며 그것에 기초해서 앞으로 나아갈 사업 상대책과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실이나 자료란 문'자 그 대로 자료이며 기초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실에로, 새로운 리론적, 실천적 결론에로 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조사 연구의 진정한 의의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주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 대중의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켜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 속에 들어 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일'군들은 군중 속에 들어 가서 응당 군중들을 가르치며 혁명 과업 수행에로 그들을 동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군중에게서 배워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렇게 교시하였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교사는 인민대중이며 현실이다. 모든 간부들은 대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며 실지 사업을 통하여 자기의 수준을 높이며 자기 사업을 총화하고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다》(《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일'군들이 군중에게 허물 없이 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현실을 면밀하고도 옳게 파악할 수 있으며, 예비들을 계속 찾아 낼 수 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혁명성을 배울 수 있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옳게 관철시키려면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는 동시에 이에 중앙 집권제를 결합하여야 한다. 대중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잘 해야 하며 대중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각성시키고 이끌어 주며 혁명 과업 수행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군중의 의견과 제기들을 적극 지지하고 널리 청취하는 동시에 거기에서 본질적이고 혁명적인 것들을 잘 가려 내

여 옳은 결심을 채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또한 집체적 협의를 거쳐 군중의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 대한 조사 연구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옳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고찰과 해결의 척도로 되는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원리에 대한 학습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사실 우리에게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주관주의적 오유가 주로 문제로 된다. 현실을 조사 연구하고 군중의 의견들을 진지하게 듣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당의 정확한 의도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깊은 지식이다. 당의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잘 알아야만 모든 문제를 원칙적 견지에서 옳게 판별할 수 있다.

일'군들은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원리 특히 변증법적 방법론을 원만히 소유하여야만 현실을 연구하거나 군중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항상 정책적 각도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모든 문제를 변증법적으로: 운동과 발전의 견지에서, 호상 련관의 견지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 설 때만이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일'군들이 당의 정책적 요구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 수준, 관리 운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길이다.

*　　*

주관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일'군들이 사업에서 확고한 주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주관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오히려 일'군들이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대담하고도 정확하게 사업을 집행해 나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된다. 당 정책과 현실의 연구, 대중의 의사를 옳게 파악했을 때에만 사업에서 자신심이 생기고 문제를 자유자재로 전개할 수 있는 밑천이 생기며 대담성을 발휘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과학적인 사고 방법, 사업 태도를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것은 곧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의 응당한 자질과 독자성, 주견을 가지게 하는 방도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일'군들의 능숙한 조직자적 역할이 요구되는 오늘에 있어서 모든 사업의 혁신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근로자들의 살림살이와 일'군들의 혁명적 관점

허 학

최근 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지방들에서는 자체 내부의 가능성들을 동원하여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미 신문 지상을 통하여 소개된 신포시를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도시와 마을을 알뜰하게 꾸리며 후방 공급 사업과 봉사 사업을 잘 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귀중한 경험들을 쌓고 있으며 모든 지방, 모든 단위들에서 이 분야에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7개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국내외 혁명 정세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떠선 근로자들의 로력 투쟁을 힘 있게 고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기 위하여 여러 단위들에서 취한 조치들과 구체적 대책들은 서로 다르지만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민 생활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혁명적 관점이 실천 활동에서 훌륭히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험은 매개 단위의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것을 '자기의 제 1 차적 임무로 간주하고 당과 국가가 지어 주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할 때 인민들의 살림은 더욱 빨리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적으로 꾸려 주는 데서 나타나게 되며 또 나타나야 한다.'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적으로 돌보는 것은 모든 지도 일'군들의 첫째 가는 임무이다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적으로 꾸려 주는 것은 모든 지도 일'군들이 자기 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항상 관심을 돌려야 할 사업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지휘관의 첫째 임무는 로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잘 보장해 주는 것이다》 (선집 제 6 권, 469 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일'군이라면 그가 어디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건 간에 항상 근로자들의 살림을 더 잘 꾸려 주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당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자는 데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은 인민 생활을 부단히 개선 향상시키는 것이며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는 사람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과거 착취 사회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 빈궁 속에서 살아 온 피착취 계급들인 근로자들을 자기와 함께 혁명을 수행하는 전우들로 간주하며 특히 주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그들의 모든 생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질 의무를 내세운다.

우리 당이 제기하는 모든 정책은 이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또 이

원칙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바로 당의 이러한 인민적 시책을 집행하는 전사들이며 그 하부분을 담당한 지휘 성원들이다. 우리 당 활동의 이 최고 원칙은 응당 당 정책을 받들고 일하는 모든 일'군들의 실천 활동에서도 최고의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

이는 우리 일'군들이 자그마한 문제 하나를 처리할 때에도 항상 당 정책이 추구하는 이 궁극의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자기 사업을 더 실속 있게 하고 우선 자기 단위의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적으로 꾸리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 대중 속에서 나온 인민의 충복들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이 표징은 우리 일'군들의 공통적 표징일 뿐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표징이다. 이 표징을 떠나서는 그의 사업에서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단순한 《직업 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나선 사람들이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일신 상의 리해 관계나 공명이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은 자기는 희생할지언정 당과 혁명에 더 큰 리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며 그들의 가장 큰 행복은 인민들이 더 훌륭하게, 더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립장은 우선 가까운 곳, 자기 단위의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표현되게 마련이며 그들의 일상 생활의 진정한 호주가 되는 것으로 발현되여야 한다. 자기 단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을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보살피며 그것을 더 훌륭히 꾸려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서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일'군들의 품성이 표현되는 것이며 인민의 진정한 살림'군다운 혁명적 사상 관점이 발현되는 것이다. 또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온 나라와 전체 인민의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구현된다.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적으로 꾸려 주는 것은 지도와 대중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키고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열의를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힘 있게 계발하는 튼튼한 담보로도 된다.

물론 근로자들을 혁명 과업 실천에로 분발시키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그들의 사상 의식을 부단히 높이는 정치 사업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인민들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실천,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전 방법이며 우리의 가장 훌륭한 정치이라고 말씀한 바 있으며 또한 후방 사업은 정치 사업이라고 무차 간곡하게 교시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면서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 조건을 부단히 개선하는 사업을 따라 세워야만 상하 합심은 더 튼튼히 이루어질 것이며 생산에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적극성은 더욱더 높이 발양될 것이다.

우리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며 그들의 생활을 부단히 개선하는 데 자기의 제 1 차적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혁명성을 발휘하는 것은 전'적으로 응당한 일이다.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특히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는 문제는 일'군들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다. 후방 사업과 인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데서 큰 성과를 달성한 단위들의 경험은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는 것이 일'군들의 능력이나 그 어떤 다른 조건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군들이 이 사업에 책임

적으로 달라 붙는가 그렇지 못 한가에 의존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어느 지방, 어느 공장, 기업소를 막론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은 날로 더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되였다. 인민의 의식주 문제가 이미 해결되였으며 그것은 날로 더 좋아지고 있다. 특히 7 개년 계획의 상반기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직물과 일용품 생산이 현저히 늘었으며 농업 생산이 계속 확고히 발전하여 식량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였다. 또한 도시에서는 물론 농촌에서도 국가 자금으로 많은 주택들과 문화 후생 시설들이 건설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매개 단위의 일'군들이 우에서 보장해 주는 유리한 조건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인민 생활에 대한 당의 두터운 배려는 근로자들의 살림살이에서 활짝 꽃피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식생활의 개선에 적응하게 채소 생산과 기타 부업 생산을 잘 하여 부식물 문제를 더 원만히 해결하며 지어 놓은 주택들과 공공 시설들을 더 알뜰하게 거두며 식료품 가공 사업과 편의 봉사 사업 등을 잘 조직하는 것은 매개 지방, 단위의 일'군들이 틀어 쥐고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이다. 이것은 큰 기술이나 많은 자금이 드는 일이 아니며 누구나 일상적인 관심만 돌리면 능히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이것은 당에 의하여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도들도 명백히 제시되여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도 일'군들이 당이 제기한 방침을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결심만 가지면 훌륭히 해결할 수 있다. 말 그 대로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미에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살림살이를 꾸리는 사업은 그 자체의 성격으로 하여 일시적 깜빠니야로써는 도저히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의 일상적 소비와 직접 관련된 사업이며 부단히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다. 이것은 한 번 포치해 놓으면 끝 그 열매가 얻어지는 사업도 아니며 또한 일정한 수준에 올려 세우면 끝나는 일도 아니다.

채소 문제 하나만 놓고 보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장철 관심을 돌려야 해결될 수 있으며 생산 뿐 아니라 공급, 수송, 저장, 가공 등 모든 고리에다 관심을 돌려야 풀릴 수 있다. 봄 채소를 잘 해결하였다 하여 만족한다면 가을이나 겨울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또한 생산만 많이 하였다 하여 안심하고 있으면 그 공급, 수송, 저장 등에서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은 마치 자식들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과도 같이 꾸준하고 일상적이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근심하는 것처럼 당 위원회나 지도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어머니가 되여 그들의 일상 생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선집 제 6 권, 428 페지)고 말씀하였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꾸준한 관심은 바로 우리 일'군들의 자기 계급과 인민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충실성, 자기의 혁명 전우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된다. 일시적인 흥분이나 충격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이런 근본적 립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결심이야말로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확고한 혁명적 군중 관점으로 무장한 경우에만 매일 매일의 일상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혁명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높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 뿌리 박은 지도 일'군들의 확고한 결심

이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경험이 가르쳐 주는 이 진리를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은 어떻게 표현되여야 하는가

근로자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은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서 나타나며 근로자들 자신의 살림살이가 더 잘 꾸며지는 실제적 결과에서 평가된다.

살림살이를 꾸리는 사업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활동 분야이다. 여기에서는 문'자 그 대로 백 마디의 말보다도 한 가지의 실천이 더 귀중하다. 실천을 떠나서는 근로자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일'군들의 혁명적 관점이 표현될 수 없으며 근로자들 자신의 생활이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은 우선 자체 내부의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바로 근로자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은 무엇보다 먼저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자체 내부의 력량에 튼튼히 의거하여 인민 생활 향상의 방도를 찾아 내고 실현하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한 가정의 호주가 남에게 의존하여 살림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론의할 바 없이 명백한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탁심을 가지고는 자기 단위, 자기 지방의 인민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없다. 특히 매개 단위의 구체적 조건은 다르고 근로자들의 수요와 기호도 다양하다. 산간 지대와 평야 지대가 다르고 농촌과 도시가 다르고 탄광 지대와 야금 공업 지대가 다르다. 서로 다른 원천, 서로 다른 수요를 가진 단위들 마다에서 일'군들은 사업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여야만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더 잘 꾸릴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매개 지방, 매개 단위의 일'군들이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당이 지어 주는 조건들과 자체 내부의 가능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리용하겠는가에 대하여 머리를 쓰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일'군들이 머리를 써서 자기 지방,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사업을 조직하면 공장 지대에서도 농촌에 못지 않게 채소 생산이나 축산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림산 마을에서도 도시 부럽지 않은 문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은 증명하여 주고 있다.

근로자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은 또한 실속 있는 대책을 세우고 그것이 실지 근로자들의 생활에 현실화될 때까지 꾸준히 끌고 나가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생활에서는 실속이 제일 중요하다. 음식물은 보기에도 좋아야 하지만 맛이 있고 영양가가 높아야 하며 좋은 집도 잘 거둬야 쓸모가 있다.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선 내용이 좋아야 한다. 따라서 살림을 꾸리기 위한 모든 조직적 대책들은 실속이 있어야 한다.

1년을 통하여 근로자들 매인 당 부식물을 얼마어치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물론 세워야 하지만 매철마다, 매월마다, 매일마다 더 값싸고 질 좋은 부식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살림을 착실하게 꾸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산에서도, 상업에서도 이렇게 금액 상으로 뿐 아니라 그 품종과 질에서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며 철과 달, 날을 쪼개 가면서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을 높이며 그들의 전반적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그리고 대책을 잘 타산하여 세울 뿐

아니라 일단 세운 대책이 실현될 때까지 부단히 관심을 돌리고 근기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의 살림을 완전히 책임 지는 참다운 호주가 되자면 일상적으로 일이 잘 진척되는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며 근로자들을 잘 교양하고 발동하여 제기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은 큰 문제 뿐 아니라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며 부단히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데서 나타나야 한다.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는 종합적인 소비 과정이다. 조그마한 문제 하나라도 빠지면 벌써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일상 생활이다. 또 사소한 문제라 하여 돌보지 않은 결과 살림살이에 큰 지장을 주는 일이 적지 않다.

지도 일'군들은 큰 문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소한 문제에까지 다 깊은 관심을 돌려야 근로자들의 어머니로 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당 단체와 당 위원장은 로동자들이 밥을 제대로 먹는가, 잠을 잘 자는가, 합숙이 깨끗한가, 이부자리가 정결한가, 제때에 목욕을 하는가, 이런 사소한 문제에까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 지배인이나, 기사장이나, 기타 행정 측에서 이렇게 하게끔 감하게 추동하여야 한다»(선집 제 6 권, 313 페지).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관심을 돌리지 않아도 될 구석이란 하나도 없다.

길'가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뜰을 어떻게 거두는가, 창문은 어떻게 손질하는가도 다 지도 일'군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

또한 지도 일'군들은 생활을 꾸리는 데서 만족을 몰라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면 벌써 답보나 퇴보의 시초로 될 수 있다. 이것은 생활의 경험이 여러 번 보여 준 사실이다.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일정한 수준에 올려 세우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부단히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자들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사회와 생산의 발전에 상응하게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계속 급속히 높일 수 있으며 나날이 증대되는 당과 국가의 배려를 실 생활에 구현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더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혁명적 사상 관점으로 우리 일'군들을 교양하며 그 실현 방도를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방법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사업에서 발휘된 혁명적 기풍과 그 열매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될 때 일'군들은 그에 비추어 자기의 사업을 돌이켜 보게 되며 자기 단위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도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거 오래 동안 가난하게 살아 온 우리 일'군들에게는 오늘과 같은 좋은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살림을 훌륭히 꾸릴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생동한 모범을 통하여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이미 창조된 경험들은 좋은 본보기로 된다. 매개 단위, 매개 지방에서는 근로자들의 살림을 더 잘 꾸린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히 자기 부문, 자기 지역, 자기 단위 내에서 더 훌륭한 모범을 의식적으로 창조하고 그것을 시범으로 하여 전반적 단위, 지역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이리 하여 모든 지방, 모든 단위들에서 살림살이를 더 알뜰히 꾸리고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전면적으로 발휘케 하여야 할 것이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남 춘 화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평양 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1 년이 지나 갔다.

이 회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기여한 하나의 중요한 국제적 회의였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평양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실천적 경험의 정당성을 천명하였으며 그 구체적 방도를 명시한 것이다.

최근 년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대한 문제는 많은 국제 회의들에서 중요한 국제적 문제로 론의되여 왔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민족 해방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세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인민들의 거세찬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있으며 이미 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 나라들 앞에는 민족 해방 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과 착취의 후과인 나라의 경제적 락후성과 빈궁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 문제의 옳은 해결이 없이는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은 민족 해방 혁명을 계속 성과 있게 추진시킬 수 없다.

특히 현시기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국제적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신생 독립 국가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면서 이 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문제는 개별적 나라들의 경제 건설의 방향과 방도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종식을 촉진시킬 데 대한 문제, 민족 해방 혁명의 완성과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평양 회의는 신생 독립 국가들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명백한 답변을 주었으며 회의에 참가하였던 아세아, 아프리카, 대양주의 34 개국 대표들의 일치한 찬동으로 력사적인 평양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에게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리론적 및 실천적 무기를 주었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하였다.

*　　　*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새로운 환경에서 이 나라들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성숙된 혁명 과업이다.

오늘 우리는 거세찬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전역을 휩쓸고 있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인 이 강력한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는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있으며 오늘 그 어떠한 힘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종국적 청산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미 수억의 인민들이 제국주의 기반에서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였고 일부 나라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확고하게 들어 섰다.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의연히 광대한 지역에서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비인간적 착취와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미제는 신생 독립 국가들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계속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은 계속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함이 없이는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 해방 혁명의 완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평양 선언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 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민족 해방 혁명의 완수를 위한 하나의 련속적인 혁명 과업이다》.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민족 경제의 명맥이 외래 독점 자본가의 수중에 장악되고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외국에 의존하고서는 외세의 압력을 면할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에 악독한 후과를 남겨 놓았다.

오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경제의 혹심한 락후성과 식민지적 기형성은 바로 장기간에 걸친 제국주의적 착취와 략탈의 후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민족 해방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며 이 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말살하기 위하여 낡은 식민지 통치의 수법과 함께 《원조》의 미명 하에 교활한 신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제국주의 두목인 미제는 이와 같은 신식민주의 정책의 선두에 서 있다.

미 제국주의의 대외 《원조》는 조건부가 가장 많고 가혹할 뿐만 아니라 침략적인 성격과 예속적인 성격도 가장 농후하다.

미국 《원조》의 침략적 본성은 그 절반 이상이 《군사 원조》에 돌려지고 있는 데서 명백히 표현된다.

미제는 《군사 원조》를 리용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에 각종 군사 기지의 설치와 침략적 군사 동맹에로의 가입을 강요하며 이 나라들의 민족 해방 력량을 탄압하고 국토를 분렬시키며 경제를 군사화하고 이 나라 인민에게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

미제는 《경제 원조》의 미명 하에 그를 리용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의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막대한 리윤을 짜내는 한편 민족 해방 투쟁을 억제하고

이 나라들의 정치적 독립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미국의 신식민주의 도구의 하나인 《세계 은행》은 1956~1960년 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매년 평균 2억 1천만 딸라의 《원조》를 주었는데 그 중 1억 7천만 딸라는 동남 아세아에 돌려졌다. 미제가 동남 아세아에 《원조》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을 공동으로 탄압하며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공동으로 진행할 목적 밑에 집단적 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후진 국가 개발》의 간판을 쓴 《국제 부흥 및 개발 은행(세계 은행)》, 《국제 개발 협회》, 《구라파 공동 시장》, 《아세아 생산성 기구》와 같은 것은 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의 도구이다. 최근 미제는 아세아에 대한 경제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 기구를 리용하여 집단적 식민주의 도구인 《아세아 개발 은행》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미제의 조종 하에 일본 사또 정부는 범죄적인 《한일 회담》을 결속하고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완성하는 한편 《아세아 개발 은행》을 리용하여 아세아 침략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 본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써 가면서 식민주의의 사상적 무기인 《후진 국가 개발론》을 류포시키고 있다.

《후진 국가 개발론》자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각종 허위를 조작 선전하는 한편 신생 독립 국가들이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조건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 원조》가 이 나라 경제 발전의 《기본 조건》이라고 떠벌리면서 이 나라 인민들에게 외세 의존의 독소를 부식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신생 독립 국가들이 기술 경제적으로 《락후》하고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공업을 발전시켜도 로력이 많이 드는 채취 공업이나 원료의 1 차적인 가공을 하는 부문만을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떠벌리면서 《선진 국가》의 가공 공업과 《후진 국가》의 원료 생산 간의 《수직적 국제 분업》을 설교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수직적 국제 분업》으로 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역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1950~1960년에 이르는 10 년 간에 수출품의 가격 지수를 보면 원료 상품 가격은 96%로 저하된 반면에 공업 상품 가격은 127%로 등귀되였다.

《후진 국가 개발론》은 신생 독립 국가들을 제국주의자들의 농업-원료 부속물로 고착시키고 이 나라들을 계속 구라파와 미주의 광산과 농촌의 처지에 얽매 놓기 위한 신식민주의의 사상적 무기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 원조》의 략탈적 본성은 그들이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짜내고 있는 막대한 리윤에서도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매년 리윤, 리자, 부등가 교환 등으로 약 300억 딸라를 얻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 인민들이 매시간 340만 딸라를 외국 독점 자본에 착취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독립을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도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하여서는 이룩될 수 없다.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은 제국주의 독점 자본과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 세력의 경제적 지반을 제때에 소탕해야 하며 경제의 식민

지적 락후성과 기형성을 퇴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1947년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주주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 자립적 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 수 없고 건국도 할 수 없고 또한 살아 갈 수도 없는 것이다》 (김 일성 선집 제 1 권, 317 페지).

경제적 독립은 정치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로 된다.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자립 경제를 가지지 않고서는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

오직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진 나라만이 당당한 독립 국가로서 세계의 대소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협조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나라의 륭성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토대이다.

어떤 나라나 현대적 공업과 발전된 농촌 경리 그리고 과학 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부강한 독립 국가로 될 수 없으며 인민 생활도 향상시킬 수 없다.

신생 독립 국가들의 농업에서 단작 경리와 채취 공업의 일면적 발전은 경제의 식민지적 기형성과 락후성의 표현이다.

최신 기술로 장비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없으며 생산력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다만 이 나라들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평양 선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여 세계 경제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것이다》.

세계 인구의 3 분의 2와 무진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광대한 이 지역 나라들이 제국주의 지배와 그로 인한 세기적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튼튼한 자립 경제의 토대를 가진 현대적 공업 국가로 전변된다면 그것은 세계 경제와 문화의 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의 중요 자원 생산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아와 중근동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는 석유, 석, 고무를 비롯하여 중요 자원들이 있는바 그 중 중근동의 석유 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 석유 생산량의 2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원의 많은 부분은 미국, 영국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아프리카는 자본주의 세계의 생산량에서 동의 24.2%, 안티몬의 47.4%, 금의 62.8%, 금강석의 96.3%를 비롯하여 우란, 코발트, 탕그스텐, 카드미움 등 중요 전략 물자를 생산하고 있다. 그 중 콩고(레)는 세계 금강석 생산량의 75%를 비롯하여 동, 석, 탕그스텐, 우란, 코발트, 카드미움 등 중요 자원의 보물고로 알려져 있다.

이 자원의 많은 부분은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바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영국, 프랑스, 벨지끄의 세력을 구축하고 콩고(레)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자원을 독점하기 위하여 발광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사태는 동일하다. 라틴 아메리카는 자본주의 세계의 생산량에서 석유의 25.5%, 보크사이트의 55.6%, 은의 42%, 동의 20%, 연의 20%, 안티몬의 25%, 아연의

16.9%, 망간의 17.9% 등 중요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 자원들은 미국 독점 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의 중요 자원의 생산량에서 철광석의 82.8%, 망간의 94.4%, 크롬, 파라디움, 니켈 및 몰리브덴의 100%, 탕그스텐의 58.7%, 동의 92.2%, 연의 92.9%, 아연의 90.8%, 보크사이트의 92.1%, 안티몬의 32.5%를 독점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은 장기간에 걸친 제국주의 식민지 략탈의 결과로 풍요한 자연 부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공업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 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 발전에서도 뒤떨어져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 체계가 수세기에 걸쳐 구라파와 미주의 일부 지역에 조성한 식민지적 생산력 배치, 그로 인한 막대한 물적 및 인적 자원의 략탈, 식민지적 예속과 착취에 기초한 나라들 간의 불평등한 경제적 련계를 청산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현대적 공업과 농업, 발전된 과학 기술을 가진 지역으로 전변시킬 것이며 이 지역 나라들 간의 완전한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적 협조를 발전시킬 것이다.

* *

자립적 민족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규정하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고도로 발양시키는 것이다.

신생 독립 국가들은 민족 해방 운동의 발생 발전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개 나라 경제 발전의 구체적 형편이 다른 것 만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방향과 방도에서도 일정한 특수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들이 이와 같은 특수성들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며 결코 다른 나라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러나 신생 독립 국가들은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류사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물려 받은 탓으로 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후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 앞에 나서는 선차적 문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의 경제적 지반을 철저히 소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개혁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다.

농업이 주되는 경제 부문이며 농민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농업, 농민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선결적 문제의 하나로 된다.

경제 발전의 차이로 일부 신생 독립 국가들은 토지 소유 관계에서 일련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나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한 많은 나라들에서 토지는 지주와 식민주의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농민들은 자기 생산물의 대부분을 지주, 외국인 농장주, 고리 대금업자, 매점자들에게 수탈 당하고 있다.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와 식민주의자들의 토지 소유를 청산하고 토지를 발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분여함으로써만 농촌에 뿌리 박은 반동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사회 정치적 지반을 튼튼히 다지며 농업 생산력을 낡은 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토지 문제의 해결은 농민에 대한 지주와 식민주의자들의 수탈을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단작 경리를

다가 경리로 전환시키며 절박한 식량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공업의 발전을 위한 원료 기지의 조성과 국내 시장의 용적을 확대시킨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의 하나는 식민주의자들과 예속 자본가들이 소유하였던 산업, 운수, 체신, 은행, 상업 기관 등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경제의 기본 명맥을 국가가 장악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고 로동 계급의 정치적 열성을 발양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긁어 가던 수백억 딸라의 자금과 국유화한 생산 수단을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충분히 리용할 수 있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적 사회 경제 개혁이 철저히 수행되는가 못되는가는 이 나라의 계급적 력량 관계와 관련되여 있다.

경험은 반동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국유화도 포함한 민주주의적 사회 경제 개혁의 철저한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미 국유화된 기업소들도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나아가서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 침투의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혁명의 기본 동력인 로동 계급과 농민이 굳게 동맹하며 그 주위에 일체 민주주의적 력량이 단합하여 대내적으로 반동 세력의 반항을 분쇄하는 것은 이 나라들의 사회 경제적 개혁의 철저한 수행과 사회적 진보를 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의 사회 경제적 개혁을 파탄시키며 민족 해방 혁명의 전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 나라들에 각종 압력을 가하는 한편 반동 세력을 리용하여 혁명 력량을 분렬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은 실제 투쟁을 통하여 자기 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며 일체 진보적 세력과의 반제 통일 전선을 튼튼히 결성하고 반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사회 경제적 개혁의 철저한 수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혁명의 다음 단계에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

반제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한 후 신생 독립 국가들 앞에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할 과업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업화의 길로 나아가며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체의 민족 기술 간부 대렬을 육성하는 것이다.

매개 신생 독립 국가들은 자체의 경제 발전의 특성으로 하여 경제 발전의 총적 방향과 공업화의 속도, 공업 부문 구조의 선택, 공업과 농업 간의 호상 관계 등에서 자체의 특성을 가진다.

그런 것 만큼 매개 나라들이 자체의 실정을 정확히 타산하고 중공업과 경공업, 공업과 농업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규정하며 자기 나라의 원료 원천에 확고히 립각하여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짧은 기간 내에 축성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적 경험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성과 여부가 대중 속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대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모든 난관을 용감히 뚫고 나가는 데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 혁명과 경제 건설의 주인은 오직 그 나라 인민 대중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그 나라의 내부 력량이다. 언제나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기

초하여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이를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감으로써만 국내 자원과 예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민 생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세계 륙지 면적의 57%를 차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71%가 이 세 대륙에서 살고 있다. 이 지역 인민들은 재능 있고 근면한 인민들이다.

이와 같은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하여 난관 앞에서 동요함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자립 경제 건설을 위하여 요구되는 원료, 로력 그리고 자금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간의 전투적 단결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을 분렬시키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간에 불화를 조성하고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려 하고 있다.

아세아 경제 토론회 평양 회의 결의에 지적된 바와 같이 《단결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이며 최후 승리의 담보이다》.

단결은 인민들의 힘을 몇 백 배나 더 증대시킬 것이며 우리가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때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종국적으로 타파될 것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반제 반 식민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되여 있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신생 독립 국가들 간의 경험 교환, 호혜적인 무역 조건의 설정, 항로의 개척, 과학 기술 교류 등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큰 도움을 주며 제국주의의 침략에 집단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며 과거 수세기 동안 제국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구라파와 미주에 예속되였던 이 나라들의 대외 경제 관계를 변혁하고 해방된 나라들 간의 경제적 련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 *

김 일성 동지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은 정확한 것이며 온갖 억압과 예속을 청산하고 완전한 민족적 해방과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인민들의 숭고한 지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로선은 이미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실생활에 훌륭히 구현되고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에서 승리할 것이다》.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련의 신생 독립 국가들은 이미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자립 경제 건설의 구체적 방도를 강구하는 길에 들어 섰다.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예속화 정책을 배격하며 미제의 《원조》를 규탄하고 《자신의 힘을 믿자》, 《자신의 두 발로 서자》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토지 개혁의 실시,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 자본가들의 기업체의 국유화, 공업화와 민

족 기술 간부 대렬의 육성 등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외국인 기업소들의 국유화를 비롯한 일련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자립 경제 건설을 국가 정책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캄보쟈는 미제의 악랄한 정치 경제적 압력을 단호히 분쇄하고 자주적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길로 전진하고 있다.

말리는 자력으로 나라의 경제를 건설하는 로선을 채택하였으며 그 실천 과정에서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아편, 알제리, 꽁고(브), 딴자니아를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도 미제의 략탈적 《원조》를 배격함과 동시에 서독 복수주의자들의 경제적 압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 간의 련계가 더욱 긴밀하여지고 있으며 신생 독립 국가들은 서로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수카르노 대통령의 조선 방문, 최 용건 동지의 아프리카 방문과 모디보 케이타 대통령의 조선 방문을 통하여 우리 나라와 신생 독립 국가들 간의 친선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 발전되였으며 자립 경제 건설의 고귀한 경험들이 교환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과 신생 독립 국가들은 기술자, 전문가들의 래왕을 통한 경제 건설에서의 경험 교환, 무역의 발전 기타 각종 경제적 협조와 기술적 협조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날을 따라 더욱더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길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 나라들 간의 협조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실생활을 통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정당성을 똑똑히 알고 있는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면서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더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호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 속에서 앞으로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한미 행정 협정》의 침략적 본질

강 수 영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저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정책을 미화 분식하며 그 본질을 은폐하려고 애쓴다.

최근 미제가 박 정희 도당과 12년간이나 끌어 오던 《행정 협정》의 결속을 서두르면서 그 침략적 본질을 감추어 보려는 책동도 구체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미제는 《한미 행정 협정》이 마치 자주와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체결될 것이며 그것이 남조선 인민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인듯이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책동으로도 《한미 행정 협정》의 침략적 본질을 은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공개된 《한미 행정 협정》의 내용만 가지고도 그 본질을 충분히 밝혀 낼 수 있다.

*　　*

《행정 협정》은 일명 《주둔군 지위 협정》 혹은 《신분 협정》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킬 경우에 주둔군의 인원, 지역, 기간 등 가장 기본적 문제들은 당사국과 군사 조약(례컨대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여 있다. 그러나 외국 군대의 주둔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기타 문제들(례컨대 주둔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 민사 청구권 문제, 로무자 대우 문제, 군사 기지 및 시설의 사용, 관세 업무, 출입국 절차 등)은 《부차적》 문제라는 구실 하에 의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로 되여 있다.

그러므로 《행정 협정》이란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들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경우에 주둔군의 신분을 규제하기 위하여 당사국 정부 호상간에 체결하는 협약이다.

미제는 이미 세계 49개 나라들과 《행정 협정》을 체결하고 무려 250여 개의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였다. 미제는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 준비에 발광하고 있으며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압살하려고 날뛰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행정 협정》은 본질에 있어서 미제의 침략 전쟁 도발 정책과 약소 국가들에 대한 강점을 보장하는 침략 수단이며 인민들의 반미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미제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행정 협정》의 본질이 이러할진대 저들에게 완전히 예속되여 있는 박 정희 도당과 체결하는 《한미 행정 협정》도 례외로 될 수 없다.

《한미 행정 협정》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제가 꾸며 낸 또 하나의 침략 도구이다.

《한미 행정 협정》 체결 문제가 론의된 것은 1953년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한 때부터이다. 당시 리 승만 도당은 인원, 지역, 기간 등에서 아무

련 제한도 없이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매국적인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미제 침략군의 신분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 협정》까지 체결하려고 상전에게 애걸하였다.

미제는 이에 응하는척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미제는 이미 1950년에 체결한 《대전 협정》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치외 법권적 특권을 보장 받았기 때문이다. 이 《협정》에 의하여 미군과 그 가족들이 그 어떠한 만행을 감행하여도 남조선 측은 감히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여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미제는 구태여 《행정 협정》을 체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타방으로 미제가 괴뢰 정권을 《독립 국가》라고 명목 상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남조선의 추물들과 《행정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대강국》으로서의 위신 문제와도 관련되였다.

《한미 행정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62년 9월 제 1 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때부터이다. 그것은 1962년에 이르러 미제 침략군의 만행이 더욱 우심해진 것이 직접적 동기로 되였다. 미군이 남조선 녀성의 머리를 깎은 사건, 파주 사건 등을 비롯하여 미제 침략군의 만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났으며 이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분노는 날로 높아 갔다. 반미 감정으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삼엄한 계엄령 하에서도 공개적인 반미 투쟁에 어깨겯고 일떠섰으며 신문 지상에 《미군 만행 백서》를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감정을 무마할 목적 밑에 《한미 행정 협정》 체결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 후 미제는 지금까지 80여 차의 《실무자 회의》를 벌여 놓고도 《한국은 준전시 상태》라느니, 《미군은 유엔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참전 16 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느니 하는 구실로 《협정》 체결을 질질 끌어 왔다. 그러면서도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기세를 무마하기 위하여 《협정》 조항 29 개 항목 중 20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괴뢰 당국과 《합의》하였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그러나 《합의》하였다는 것들은 모두 극히 부차적인 문제들이였으며 《행정 협정》의 기본 문제들인 《형사 재판 관할권》, 《민사 청구권》, 《로무 조항》 등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적 태도를 취해 왔다.

이와 같이 지난 12 년 간 《한미 행정 협정》은 결속을 보지 못하고 끌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제가 《한미 행정 협정》의 최종 결속을 위하여 그처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한일 협정》과 남부 웰남 파병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 반미 구국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목적과 관련된다.

오늘 《한일 협정》과 남부 웰남 파병을 반대하여 영웅하게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그 배후의 조종자가 미제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자 《양키는 조용하라》, 《미국은 〈한일 회담〉에 간섭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들고 나오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미제는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행정 협정》 체결이 《한미 친선과 협조에 기여할 것》이라느니, 남조선 인민들에게 《리익으로 될 것》이라느니 하면서 침략자의 본성을 은폐하며 인민들 속에서 일어나는 반미 기세를 무마해 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리 하여 미제는 남조선에서 정치적 안정을 기하며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함께 남조선 괴뢰 도당을 아세아에서 《반공 돌격대》의 역할을 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박 정희 도당은 상전에게 더욱 아부 굴종하여 남조선 력대 위정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행정 협정》을 최종적으

로 결속함으로써 추락된 저들의 《위신》을 추켜 세우며 인민들의 반《정부》 기세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밑에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실무자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소위 《행정 협정 체결》에 대한 최종 《합의》를 보려고 서두르고 있다.

*　　　*

《한미 행정 협정》의 침략적 본질은 그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미 행정 협정》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형사 재판 관할권》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주둔 군대의 범죄자들을 어느 나라가 재판할 권한을 우선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려면 자주적인 국가들 간의 호상 평등,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의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제는 저들의 침략적인 야욕을 《형사 재판 관할권》 해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미 행정 협정》에는 미국인에 대하여 《질서와 규률을 유지할 주되는 책임》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남조선 측은 《제 1 차적 재판 관할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즉 남조선에서의 주인은 미제이기 때문에 미군 범죄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저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제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양키의 침략적인 본성에 기초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자주적인 독립 국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제도와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그 나라의 내정 문제이며 그 누구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한 조건하에서는 물론 주둔군의 범죄 행위가 《공무 중》이건, 《비공무 중》이건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할 것 없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며 떳떳하게 재판하는 것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의 당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침략자와 주구 간에 체결하려는 《한미 행정 협정》에서는 《계엄령 하에서 미국이 전속 관할권》을 가지며 《공무 집행 중》에 저지른 미군 범죄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 심지어 군인이 아닌 《미군 계약자(민간인)의 재판 관할권》도 미제가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최악의 굴욕적인》 《대전 협정》을 릉가하는 침략 문건이다.

《대전 협정》에서는 주로 미군에 한하여 치외 법권적 특권이 허용되였다면 《행정 협정》에서는 군대는 물론 미국 국적만 가진 자라면 그 누구든지 남조선에 들어 와 인민들에 대한 살인, 강도, 방화, 략탈 등 온갖 만행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괴뢰 도당은 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재판할 수도 없게 되였다. 여기에서는 미제의 침략적인 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 괴뢰 도당의 《독립성》이란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로부터 미제는 괴뢰 도당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 국가》의 《감투》를 씌워 보려고 타산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제는 박 정희 도당에게 《비공무 중》 범죄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양도》한다는 조항을 첨가함으로써 교활한 연극을 꾸미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이 떠드는 《비공무 중》 범죄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란 한갓 눈가림수에 불과하다.

오늘 미제의 마수에 걸려 든 자주적인 나라들 특히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도 미군 범죄자에 대하여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형편이다. 프랑스에서는 1956년 6월～1959년 6월까지의 기간에 미군 범죄 건수의 1.14% 즉 7,941 건 중 겨우 91 건만 형벌을 집행하였다. 서독이나 일본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프랑스나 서독, 일본이 이러한데 미제가 자기의 괴뢰인 박 정희 도당에게 미군 범죄자를 재판하라고 넘겨 줄 리

만무하다. 그 뿐 아니라 《협정》에 의하면 《비공무 중》 범죄자마저도 《미국이 특별 사유로 재판권의 포기를 요구할 때 상대방은 호의적으로 대하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것은 《비공무 중》에 살인 강도 행위를 감행하거나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방화 략탈한 자라 할지라도 《미국이 특별 사유로 재판권의 포기》를 요구한다면 남조선 측은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상전을 주구가 재판할 수도 없거니와 미제의 요구에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괴뢰로서의 더러운 생명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는 바와 같이 미제와 괴뢰 도당이 《합의》한 《형사 재판 관할권》이란 미군은 물론 미국인 국적만 가진 자라면 그 어떤 악물이든지 치외 법권적 특권을 보장해 주는 굴욕적인 협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행정 협정》에서 치외 법권적 특권을 보장 받은 미제는 미군의 만행에 의하여 인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는 《민사 청구권》 문제에서도 침략자의 정체를 감추어 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민사 청구권》 조항에는 《공무 중》에 일어난 손해가 미군에게 미치는 경우 《서로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행위가 미군에게 책임이 있을 때》 손해는 괴뢰 도당과 함께 분담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치외 법권적 특권을 보장 받은 미제가 《민사 청구권》 문제에서 《손해 배상》을 운운하는 것부터 가소로운 일이다. 왜냐 하면 《민사 청구권》 자체는 《형사 재판 관할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 관할권》에서 미제가 치외 법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없으며 피해 당한 손해를 제대로 보상 받을 수도 없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제는 세살 난 어린애를 쏘아 죽이고도 도적이라는 루명을 뒤집어 씌웠으며 집단적인 략탈을 감행하고는 《군수품을 회수》하다고 하였으며 농작물을 짓밟는 것을 농민들이 항의하면 《군사 훈련》을 방해한다고 생트집을 걸었다. 바로 이러한 본성을 가진 침략자들에게서 그 어떤 털끝만한 《선심》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설사 그들이 일부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몇 푼의 딸라를 가지고 피해자를 매수함으로써 미군의 야수적 만행이 사회적 물의와 반미 투쟁을 야기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

미제가 《민사 청구권》 문제에서 손해 배상을 운운하는 것은 《한미 행정 협정》이 마치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 재산과 권익을 《옹호》하는 협약인듯이 가장하며 그 침략적 본질을 교묘하게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 행정 협정》의 침략적 본질은 또한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략탈과 착취를 합리화한 데 있다.

오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군사화 정책이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제는 아직도 조선이 《전시 상태》에 있다는 구실로 남조선 인민들의 토지, 건물 등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략탈하고 있다. 미제가 이미 남조선에서 비행장, 훈련장 등 군사 기지들을 건설하기 위하여 략탈한 농토만 하여도 10만 정보 이상에 달하며 그 밖에 수 많은 학교, 공공 시설들을 강탈하였다.

괴뢰 정부가 발표한 극히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50년 7월～1959년 말까지 기간에 미제가 침략적 목적에 리용하기 위하여 강탈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4억 7천 480만 딸라에 달한다. 이와 같이 미제는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인민들의 물질적 재부들을 보수 없이 략탈하였다. 그런데 《행정 협정》에 의하면 《미군이 징발한 토지와 시설에 대한 보상

은 협정상 미군이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한미 행정 협정》을 통하여 이미 략탈한 인민들의 재산을 저들의 소유로 만들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남조선 인민의 모든 물질적 재부들을 공짜로 빼앗아 저들의 침략 전쟁 수행에 동원 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데 불과하다.

《한미 행정 협정》에서 미제는 미군 부대에 고용된 3만 5,000 명의 로동자들을 노예와 같이 착취할 것을 타산하였다.

오늘 《미군 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은 우마와 같이 가혹한 착취와 민족적 멸시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헌혈》(피를 바치는 것)하는 중요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 흡혈귀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 협정》의 《로무 조항》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미제는 미군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쟁의권과 파업권을 전'적으로 거부하던 종전의 태도로부터 《70일 간의 랭각 기간을 두는 조건 하에서 쟁의권과 파업권을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미제가 70일 간의 《랭각 기간》을 설정한 것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자들을 회유 기만하고 매수함으로써 그들의 투쟁 기세를 억제하려는 음흉한 술책이다. 그런데 이 《랭각 기간》마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협정》에 의하면 《랭각 기간》은 괴뢰 도당의 《로동청에서 분과 위원회를 거쳐 한미 합동 위원회의 본 회의에 선정된 때부터》 계산된다는 것이다.

《행정 협정》에서는 또한 미군에 고용된 로동자들을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해고시킬 수 있게 하였다.

미제의 이와 같은 파렴치한 시도는 저들의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며 침략자의 비위에 거슬리는 견실한 로동자들을 제때에 제거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또한 로동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마저 박탈하고 그들을 노예와 같이 부려 먹다가 불구자가 되거나 허약자로 되는 경우 언제든지 해고시키는 구실을 마련하자는 책동이다.

* *

모든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한미 행정 협정》은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 대한 영구 강점을 전제로 하여 미군의 만행과 식민지적 략탈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침략 문건이며 민족적 자주성을 짓밟는 매국 문건이다.

《한미 행정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의 만행이나 식민지 통치에 그 어떤 변화를 가져 올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한미 행정 협정》은 결국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지금까지 저질러 오던 그 야수적 만행과 침략적 략탈을 그대로 계속할 것을 합법화하려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정 협정》이 있음으로 하여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 그리고 만행을 더욱 공개적으로 감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한미 행정 협정》의 침략적이며 략탈적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고 있다.

미군 부대에 고용된 로동자들은 《미국 정부는 반민주적이며 치외 법권적인 로무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 하에 투쟁하고 있다.

청년 학생들은 매국적인 《한일 협정》을 배격하면서 《제 2의 굴욕 한미 행정 협정》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은 우리의 상전이 아니다》, 《미국은 약소국을 정치적 수단으로 리용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 하에 투쟁의 예봉을 점차 미제에게 돌리고 있다.

남조선 로동 계급과 청년 학생들의 이와 같은 투쟁은 《국군》 내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 괴뢰군 내 중하층 장교들과 병

사들 속에서는 《우리 나라는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자동차 사고로 조선 사람 하나 죽인 것보다 미국놈 자동차에 손상 입힌 것이 죄가 더 엄중하게 취급된다》고 하면서 미제 침략군의 민족적 멸시와 미군과 《국군》 간의 차별 대우에 대하여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남조선 출판계에서도 《한미 행정 협정》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질을 폭로하면서 괴뢰 도당의 매국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한미 행정 협정》의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을 《한일 협정》을 배격하며 미일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것은 《한미 행정 협정》의 체결을 저지시키려면 그 조작자들 즉 모든 불행의 화근인 미제와 재침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그를 업어 들이려는 괴뢰 도당을 반대 배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조선에서의 사태 발전은 궁지에 빠진 미제가 제아무리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한미 행정 협정》의 본질을 감추려고 발광하여도 결코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을 기만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한미 행정 협정》을 기어코 불살라 버리고야 말 것이다.

근 로 자 제 15 호 (루계 277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8월 3일 발행 • 1965년 8월 5일

ㄱ—530426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6 호 8 월 20 일

평양 근로자사 1965

근로자

제 16 호(278)

1965년 8월 (하)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일'군들 속에서 학풍을 철저히 세우자

당은 항상 간부들의 학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 이 문제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천리마의 대고조 속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오늘의 현실과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당의 요구와 관련하여 간부들의 수준 제고에 대한 문제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제 11 차 전원 회의는 간부들 속에서의 수준 제고 문제를 현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의 결정 관철을 위한 그 후 실천 과정은 전원 회의의 정신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여 준다.

오늘 나라의 경제는 최신 기술로 장비되면서 방대해지고 복잡해졌으며 부문 간의 련계가 보다 다양하게 얽혀졌다. 더우기 우리는 오늘 7 개년 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에 처하여 있으며 모든 혁명 과업은 긴장되게 맞물려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천리마의 대고조를 견지하면서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은 우리에게 명확한 투쟁 목표와 방향과 방도를 주었으며,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중은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비상한 혁명적 열의로 들끓고 있다.

당 정책이 정당하고 대중이 동원된 조건에서는 일'군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얼마나 혁명적으로 조직 지도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전투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결정적 시기에 들어 선 오늘 그 해결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가 일'군들의 수준 제고에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간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선 높은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모든 간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무적 능력을 혁명 사업에 아낌 없이 바치며 당이 맡겨 준 혁명 과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그리고 견결한 사상성과 혁명성을 가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간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자기 사업을 통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현시기에 있어서는 특히 기업 관리 운영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론과 실무적 능력을 소유하는 문제가

절실한 요구로 된다.

당의 이와 같은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이 자신들을 부단히 혁명적으로 수양함과 함께 학풍을 세우고 당 정책과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업 관리에 대한 지식들로 자신들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또한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간부들은 높은 문화성의 소유자로, 풍부한 인간성의 소유자로 되며 군중 속에서 신망 있는 간부로 자신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간부들의 학습에서 강조되여야 할 것은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원리, 기술 실무 등 모든 학습이 단순히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으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일'군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에 충실하도록 하는 사상 교양으로 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일'군들은 혁명 발전의 현 단계의 요구에 상응하게 당과 혁명에 성과적으로 복무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로 된다.

*

* *

오늘 일'군들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리론 학습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당면하게 요구되는 기술 실무 학습, 경영 지식에 대한 학습을 옳게 결합하며 그 어느 하나도 홀시하지 않는 것이다. 일'군들은 당 정책과 더불어 맑스-레닌주의 철학, 정치 경제학, 부문 별 경영학, 기술 실무와 외국어 등을 학습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일반 지식 수준도 높여야 하며 소설도 읽고 예술 작품도 많이 감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도 우선 배워야 할 것은 당 정책이다.

우리 당의 정책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조선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의 모든 투쟁의 지침이다. 누구든지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해야만 당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모든 사업에서 옳은 방도를 찾고 혁명 과업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당 정책은 조선 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결부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이다. 이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모든 현상을 다 이 자를 가지고 잴 수 있다. 이것이 당 정책에 맞는가, 안 맞는가, 어느 길로 가야 당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만 시비를 가릴 수 있고 원칙을 고수할 수 있으며 제기된 문제를 옳게 해결할 수 있다》(김 일성, 《강서군당 사업 지도에

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당 결정들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을 전면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동시에 매 시기에 제기되는 당면한 정책을 잘 공부해야 한다. 특히 자기 부문 앞에 제시된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제 사업의 구체적 사정과 결부시키면서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본질과 정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행 방도를 똑똑히 찾아 내야 한다. 그리하여 당이 제기한 혁명 과업을 무조건 관철하며 언제나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 정책의 진수를 깊이 있게 깨닫고 정세의 발전과 현실의 요구들을 정확히 인식하자면 반드시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학습하며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군들은 맑스-레닌주의 고전가들의 저서들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혁명적 관점과 변증법적 방법론을 체득하고 이에 토대하여 당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당 정책 학습의 리론적 심도를 보장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있을 수 있는 편향을 경계하여야 한다. 당 정책 학습은 그것을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혁명적 실천을 위한 사상적 무기와 지침을 얻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 정책 학습은 간부들의 실천적 활동과 결합되여야 하며 그 관철을 위한 조직 사업으로 안받침되여야 한다. 당 정책 학습이 이렇게 진행될 때에만 그것은 참으로 생활력 있는 학습으로 될 수 있다.

당 정책 학습과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한 과학적 지식, 경영 리론과 기술 지식에 대한 요구는 매우 절실한 문제로서 일'군들 앞에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 혁명의 승리적인 계속을 위하여 반드시 기본으로 틀어 잡고 나가야 할 혁명 과업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에 대한 기업 관리 운영 문제가 전면에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는 원래 철저한 과학적인 타산과 계산에 기초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주의 경제는 주관적 욕망이나 주먹구구식으로는 운영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일찌기 레닌은 사회주의를 곧 계산과 타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혁명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이 명제가 가지는 진의도를 새삼스러이 되새겨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실하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에 상응하게 경제를 관리 운영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가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혁명에 기여하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일하기 위하여 일'군들은 전문 분야의 기술 지식과 함께 경영학을 체계 있게 학습하여 경제 지도의 기본 원칙들과 기업 관리 운영의 방법론적 문제들, 우리 나라의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의 본질적 요구들을 깊이 체득해야 한다.

오늘 당이 인민 경제 각 분야에 제시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전문 부문의 경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경험만으로는 경제를 지도할 수 없다. 일'군들은 누구나 원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하고 원단위 소비 기준, 수익성, 독립 채산제, 로력 조직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문제가 절실한 요구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정치 리론 학습과 경제 실무 학습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학습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일'군들이 로력 관리, 열 및 동력 관리, 설비 관리, 자재 관리, 재정 관리, 후방 사업 등 기업 관리의 모든 측면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 일'군들은 경제를 정확하게 관리 운영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옳은 지도를 보장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관리 운영만 능숙하게 해 나가면 생산을 높일 수 있는 예비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예비들을 어떻게 생산의 산 요소로 최대한 조직 동원하는가 하는 데서 일'군들의 당성이 표현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기업 관리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우리 사업을 한 계단 높은 수준에로 올려 세우며 당면하게는 7 개년 계획 수행의 결정적 해인 금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학풍을 철저히 수립함으로써 당이 요구하는 정치-리론 수준 제고와 관리 운영 수준 제고를 비롯한 전반적 수준 제고의 과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 앞에 나선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과업이다.

*

* *

학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각성이다. 만일 본인들의 자각적인 노력이 없다면 학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외'적인 영향과 통제는 오직 본인이 자각성을 가지고 학습에 달라붙을 때에만 실효를 나타낼 수 있다.

학습할 시간에 대해서 많이 론의되지만 시간도 상대적으로만 문제로 된다. 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에 준비되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짧은 시간도 다 학습을 위해서 유용한 것으로 된다. 이런 일'군들은 아무리 바빠도 역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얻어 내고야 만다.

학습 자료 문제에 대해서도 사정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학습을 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필요한 자료들을 다 찾아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상 책상 우에 놓여진 책도 그대로 묵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매개 일'군들이 수준을 높일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얼마나 이악하게 학습에 달라붙는가에 있다.

그렇다고 하여 자각성에 맡겨 두는 것만으로 간부들의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학풍을 세우는 데는 반드시 당 조직들의 지도와 통제가 필요하다.

당 규약은 학습을 당원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학습한다는 것은 그 어떤 도의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 당'적 의무의 실행 문제이며 당성 문제이다. 일'군들은 학습에 대한 당'적 의무의 실행 여부에 대하여 응당히 자진하여 당 조직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또 당 조직들은 학습에 대한 통제를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자리에 놓고 실시해 나가야 한다.

당 조직들이 일'군들의 학습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학습 총화이다.

당 조직들은 학습 총화에 응당한 의의를 부여하고 당원들의 학습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나타난 결함과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세워야 한다.

당 조직들은 또한 일'군들이 학습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어김 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계획은 사업 부문과 매 개인의 실정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그리하여 자체의 사상 교양과 당면한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학습 목표의 중심에 놓여져야 한다.

학습 계획은 반드시 간부들의 생활과 사업을 포괄하는 전반적 계획의 한 부분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 계획이 형식적인 것으로 되지 않고 사업에 도움을 주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책임 일'군들이 학습을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진행하는 데서 이신작칙하며 집단의 모범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책임 일'군들 자신이 누구보다도 학습을 많이 하고 배우기에 노력하는 단위와 집단에서는 학풍이 서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일'군들은 자신의 학풍을 통하여 아래'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동시에 아래'사람들에 대한 학습 방조와 지도를 본신 임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실행하여야 한다.

학습에 대한 당 조직들의 지도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이 돌려져야 할 것은 로요 간부 학습반, 간부 상학조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여기에 대상 일'군들을 빠짐 없이 망라시켜 배우게 하는 것이다.

특히 상학조를 잘 운영하여야 한다. 상학조는 사업에서 당면하게 걸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며 그 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되는 내용은 해당 부문의 기술 실무와 경제 운영에 대한 원리 및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설정된 문제에 의하여 상학조를 지도하는 간부들이 직접 시범한 다음 참가자들에게 제강 작성과 출연, 조직 사업에 이르기까지 직접 시켜 보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방식 상학을 반드시 배합하게 된다.

사실 상 당 조직들이 상학조를 잘 운영해 나가기만 한다면 당 정책 관철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효과 있게 풀어 나갈 수 있으며 현시기 당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일'군들의 기업 관리 수준 제고 문제도 성과 있게 해결하고 한 단위씩 사업을 추켜 세우면서 또 그 단위를 통하여 전반 단위들의 사업을 한 계단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상학조 운영은 그것을 준비하고 직접 지도하는 간부들의 학습과 수준 제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 조직들은 상학조의 준비와 실행에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하며 그것을 계통적으로 끌고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간부들 속에서 학풍을 세우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서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글을 쓰게 하며 군중 앞에 출연도 하게 하고 모든 단위들에서 활발하게 토론과 론쟁을 전개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학습은 철저하게 실정에 맞게 진행되여야 하며 자각적인 노력과 조직의 지도, 통제가 결합됨으로써만 훌륭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학습은 반드시 정치 리론 학습과 기술 실무 학습이 배합되게 하고 그것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상 교양으로 되게 하며 나아가서 혁명적인 실천과 결부되게 함으로써만 진짜 산 학습으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일'군들은 학풍을 철저히 세우고 자신을 공산주의 세계관과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동시에 기술 실무적으로 원만히 준비됨으로써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 당과 인민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충실하게 사업할 수 있게 되여야 한다.

당 창건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림 춘 추

조선 인민은 오래지 않아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20 년 간 우리 당은 조선 혁명을 령도하는 세련된 참모부로서 온갖 중첩되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였으며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당은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강철의 대오로 성장 발전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에 대한 다함 없는 충실성, 원쑤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 현명한 령도로 하여 조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얻었으며 대중과의 불패의 통일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우리 당이 20 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이처럼 필승불패의 강철의 대오로 자라 나 복잡하고 간고한 우리 혁명을 훌륭히 령도할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의 력사적 뿌리가 매우 깊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바로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진행된 15 성상에 걸친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그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한 조선 인민의 항일 민족 해방 투쟁은 장차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적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준비를 이루었으며 우리 혁명 운동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였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525 페지).

오직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와 빛나는 혁명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단시일 내에 강력한 대중적 당으로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으며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서 조선 인민을 령도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민족적 번영의 시대를 열어 놓을 수 있었다.

*　　*

우리 나라에서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조건에 의하여 비교적 오랜 시기를 걸쳐 간고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선행 시기 운동의 제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불가피적

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 운동은 10월 혁명 이후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이 국제 프로레타리아 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전환된 새로운 력사적 시기에 발생 발전하였다.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조건에서 우리 나라 로동 계급에게는 그의 발생 발전의 첫 시기부터 반제 반봉건 혁명 투쟁을 령도해야 할 력사적 사명이 부과되여 있었다. 로동 계급은 이 사명을 옳게 수행하여야만 최종 목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갈 수 있었다.

로씨야에서 1917년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는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을 비롯한 인민 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촉진시켰으며 그들이 새로운 진정한 해방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 일어 난 1919년 전 인민적인 반일 봉기는 우리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였다.

《3.1 봉기를 계기로 부르죠아 민족 운동의 시기는 종결되고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밑에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206 페지).

1920 년대에 들어 서면서 산업 중심지를 비롯한 우리 나라 도처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소조들이 조직되여 활동하였다. 이러한 소조들의 활동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는 우리 나라에서 대중적으로 급속히 보급되게 되였으며 점차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기치로 되여 갔다.

맑스-레닌주의가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로동자, 농민, 청년들의 대중 단체들도 급속히 확대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도 급격히 장성하였다.

이리 하여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보급과 소조들의 활동, 대중 단체들의 발전, 로동 운동의 급속한 장성에 의하여 공산당을 창건할 수 있는 일정한 전제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1925년 4월에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조선 공산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추동력으로 되였다. 그것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촉진시키고 일제의 폭압 밑에서 시달리던 그들에게 해방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 투쟁에 더욱 용감하게 나서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 공산당은 일제의 류례없는 가혹한 탄압과 당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종파 분자들의 계속되는 파쟁으로 인하여 1928년에 조직적 력량으로서의 그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진행된 1920 년대 공산주의 운동에는 일정한 긍정적 측면이 내포되고 있었다.

1920 년대 공산주의 운동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 계급이 장성하는 초기에 벌써 로동 계급과 선진적 인테리를 비롯하여 광범한 농촌 빈고농민 청년 대중 속에 맑스-레닌주의가 널리 전파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이 급속히 확대되여 갔다.

이러한 력사적 조건은 우리 나라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이 그 유년 시기부터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따라 곧바로 전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1920 년대 공산주의 운동은 창건된 당을 해산에까지 이르게 한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그것은 우선 1920 년대 공산주의 운동이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한 령도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가 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만약 당시 당내에 령도 핵심이 있었더라면 맑스-레닌주의에 립각

하여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우리 나라 사회 경제 형편과 계급적 제 관계를 옳게 분석한 기초 우에서 정확한 혁명 로선을 수립하고 전략 전술적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적들의 탄압과 종파 분자들의 파쟁으로 말미암아 당을 말아 먹는 것과 같은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1920 년대 공산주의 운동은 또한 대렬 내에 종파 분자들을 그냥 두고서는 혁명 력량의 통일을 이룰 수 없으며 적들의 공세를 물리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당시 당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자들의 골간을 가지고 있지 못 함으로 해서 공산주의 대렬을 사분오렬시킨 무원칙한 파벌 투쟁을 극복할 수 없었으며 일제의 가혹한 탄압도 이겨 내지 못하였다.

1920 년대 공산주의 운동이 남긴 다른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 하고서는 당을 강화할 수도, 적의 공격을 물리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당이 해산된 기본 원인의 하나도 바로 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 하고 그들에 튼튼히 의거하지 못한 탓으로 하여 일제의 탄압 속에서 자기 대렬을 보존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1920 년대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이 남긴 이상과 같은 심각한 교훈에 비추어 보아 당시 상태에서 새로이 당을 창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 운동에 침습한 종파주의를 극복하여야 했으며 대중 속에 들어 가 실지 투쟁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공산주의자들을 부단히 육성하며 당 창건을 위한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를 가장 심중하게 정력적으로 인내성 있게 갖추어 나가지 않고서는 당을 제때에 창건할 수 없었다.

1920 년대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의 력사적 조건은 바로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파 분자놈은 저들이 1920 년대 공산주의 운동에 끼친 죄악을 뉘우칠 대신에 제각기 자기 파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여 《정통파》니, 《당 재건》이니 하면서 권모술수의 방법으로 당을 만들겠다고 미쳐 날뛰였다.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악랄한 책동은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할 당시를 전후하여 동북 간도에까지 연장되여 혁명 수행과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을 극도로 저애하였다.

그러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종래 공산주의 운동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대중 속에 들어 가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 투쟁을 조직 지도하였다.

당이 해산된 이후에도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1920 년대 말~1930 년대 초에 있어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종전의 투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폭력적 진출로써 급속히 앙양되였다.

바로 이러한 앙양된 혁명 투쟁 행정에서 단련되고 준비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 로동자, 농민 출신의 공산주의자들이 급속히 자라 나 공산주의 대렬이 질적으로 확대되여 갔다.

이 행정에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그들은 일제와 만주 군벌의 학살 만행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종파 분자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면서 동북의 조선인 거주 지역과 조국의 북부 일대에 혁명 조직들을 확대하고 대중을 혁명 투쟁에로 힘 있게 이끌어 나갔다.

이러한 투쟁 과정을 통하여 김 일성 동지는 공산주의 운동의 선두에 확고히 서서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을 항일 무장 투쟁의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동시

에 선행 시기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 조건과 당시 조성된 혁명 정세를 충분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를 갖추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꾸준히 조직 전개하였다. 이것은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으로 될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을 육성 확대하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다지고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갖춘 토대 우에서 당을 창건할 수 있는 가장 옳은 방법이였다.

⁂ ⁂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의 항일 무장 투쟁 단계에로의 이행은 당 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민족 해방 투쟁이 무장 투쟁에로 이행함으로써 일제의 대중적 학살 만행이 절정에 달한 당시의 조건에서도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력량을 무장으로 보위하고 육성 확대할 수 있었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켜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무장 투쟁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주어 그들을 반일 투쟁에 궐기시킬 수 있었으며 가는 곳마다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혁명 단체를 조직하며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튼튼히 결속시킬 수 있었다. 이리 하여 당 창건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1920 년대 공산주의 운동이 내포하고 있던 제 약점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건전한 토대 우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면서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당 창건을 위한 준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으로 될 공산주의자들을 육성 단련하는 것이였다. 이러한 골간 부대가 있어야만 공산주의 대렬의 량적 장성과 질적 장성을 옳게 보장하고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과 지하 조직들을 명도 핵심의 주위에 묶어 세울 수 있었으며 일제의 반동 공세가 극심한 조건 하에서도 항상 대중을 혁명 투쟁에로 조직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으로 될 공산주의자들을 육성 단련하는 데 온갖 힘을 다하였다.

이에 있어서 기본을 이룬 것은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을 육성 확대하는 것이였다. 실제 투쟁 과정에서 세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자들만이 언제 어디서나 혁명 수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놀 수 있었으며 이들을 골간으로 하여 군중을 집결시켜야만 어떤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당을 창건하며 제기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인 로동자, 농민들과 진보적인 인테리 청년들로 항일 유격대를 부단히 확대하고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창설하며 그를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수다한 대소 규모의 전투들을 통하여 유격대원들을 견실한 혁명 투사로 단련시켰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친 무장 투쟁 과정에서 엄격하고 자각적인 혁명적 규률에 의하여 결합되고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원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며 동지 호상간에는 열렬한 동지애로 굳게 단합된 공산주의자 대렬로 육성되여 갔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대중을 지도하며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준비된 공산주의자 대렬이 확대되여 갔다.

유격대원들은 비단 무장 투쟁을 통해서 뿐 아니라 유격 근거지-해방 지

구들에서 인민 정권을 조직하며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반제 반봉건적 민주 개혁들을 실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불요불굴의 공산주의자들로 육성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을 육성 단련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조직 생활을 통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훈련하는 것이였다. 이것은 장차 우리 나라에서 당을 창건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며 창건될 당의 골간으로 될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유격대와 근거지-해방 지구 내에서 유격 투쟁을 비롯한 실지 투쟁 과정에서 김열된 동무들과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훈련된 동무들을 혁명 조직에 망라시켜 그들을 조직 생활을 통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간부로 키웠다. 이것은 광활한 지역에 걸쳐서 앞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육성 단련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적 통치 하에 있는 광활한 지역에서 혁명 조직들을 조직 확대하고 대중의 혁명 투쟁을 무장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이끌고 나가도록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일제의 가혹한 탄압 밑에서도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이 계속 확대되여 갔다.

이와 함께 각종 대중 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조직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구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각종 대중 단체들을 조직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그에 인입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그들을 하나의 조직적 력량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특히 당시 우리 나라에 당이 없었던 조건에서 각종 대중 단체들의 확대 강화는 공산주의자들을 육성 단련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그 활동의 첫 시기부터 각종 대중 단체들을 조직 확대하고 모든 반일 애국 력량을 반일 민족 통일 전선에 단합시키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그리 하여 당시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에서는 물론 적들의 통치 하에 있는 동북의 조선인 거주 지역에도 《반일회》, 《농민 협회》, 《호조회》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각종 형식의 대중 단체들을 조직 확대하고 그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혁명 력량을 반일 민족 통일 전선에 단합시켜 나갔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에 깊이 침투하여 로조, 농조를 비롯한 각종 혁명 조직들을 조직하는 한편 이미 존재하던 로동 조합, 농민 조합 등 혁명 조직들과의 련계를 보장하면서 그 조직들을 부단히 확대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대중 단체들에 의거하여 대중 속에서 정치 교양 사업을 진행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반일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으며 무장 투쟁과의 련계를 보장하였다.

당 창건을 위한 준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는 것이였다.

특히 이 문제는 당시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구체적 실정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1930 년대에 들어 와서도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 분자들은 혁명 대렬 내에 잠입하여 계속 무원칙한 파쟁을 일삼음으로써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당 창건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산주의 대렬 내에서 종파 분자들을 극복 청산하고 그 통일 단결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적인 당 창건을 위한 사업을 옳게 보장할 수 없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 창건을 위한 준비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거 공산주의 운동에서 본질적 결함으로 되였던 혁명 대렬의 분렬을 극복하고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실현하는 문제가 선결 조건으로 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 개시 이후 공산주의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종파 분자들을 청산하며 공산주의 대렬 내에 침습한 좌우경 기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였다.

이미 1930년 동만 일대에서 진행된 5.30 폭동 당시 종파 분자들은 자기들의 공명을 날리기 위하여 주객관적 정세와 구체적 조건의 타산도 없이 군중을 무모한 투쟁에로 추동함으로써 혁명 조직들을 적 앞에 로출시켰으며 많은 희생자들까지 내게 하였다. 이 자들은 적들의 탄압이 심해지자 그에 질겁하여 우경 투항주의로 넘어 갔으며 지어 적에게 투항 변절하거나 시저배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좌우경 기회주의자들과 종파 분자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었다.

종파 분자들은 혁명 투쟁이 급속히 앙양됨에 따라 그에 편승하여 좌경적 언사와 행동으로써 자기들을 가장 적극적인 혁명 투사로 자처하여 나섰다. 이 자들은 좌경적인 《계급 로선》을 고창하면서 보다 광범한 반일 력량이 혁명 투쟁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즉시 실현》을 운운하면서 우리 나라 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맞지 않는 《쏘베트 로선》을 계속 고집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종파 분자들의 가짜 《혁명성》을 폭로하며 그들의 비맑스주의적 본질을 똑똑히 밝히면서 좌우경 기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밑으로부터의 군중 투쟁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종파 분자들의 죄행이 력사적으로 폭로되고 적지 않은 종파 분자들이 적발 제거되였으며 혁명 조직들에서 조직 규률이 확립되여 갔다. 동시에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에서 좌경적 오유들이 시정되였으며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반일 무장 대오들과의 반목 대립이 청산되고 광범한 반일 대중이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결속되여 갔다.

그러나 종파주의와 결합되여 있은 좌경적 편향은 그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대렬 내에서 그것을 완전히 극복 청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당시 아직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부 종파 분자들과 좌경 기회주의자들은 좌경적 책동을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주구 단체인 《민생단》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 대렬의 통일과 단결에 일대 혼란을 조성하였다. 좌경 기회주의 분자들은 반《민생단》 투쟁을 구실로 간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동지 호상간에 불신임과 리간을 조성하고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민생단》이라는 루명을 씌워 모해함으로써 혁명 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 대렬 내에는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김 일성 동지는 몸소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원칙적인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반《민생단》 투쟁이 개시되던 첫 시기부터 혁명 대렬 내에 잠입한 《민생단》 분자들을 적발하며 이 투쟁 행정에서 발로된 좌경적 편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특히 1935년 2월 말~3월 초에 있은 다홍왜 회의와 그 후의 요영구 회의를 통하여 종파 분자들과 좌경 기회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을 견결히 폭로 규탄하고 공산주의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였으며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였다.

반《민생단》 투쟁에서의 좌경적 오유를 극복하기 위한 김 일성 동지의 원칙적인 견결한 투쟁에 의하여 1930 년대 전반기에 항일 유격대와 동만의 혁명 조직 내에서는 종파주의가 청산되고 공

산주의 대렬의 순결성이 보장되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명도 핵심은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선 혁명의 믿음직한 지도적 력량으로 단련 강화되였다. 이것은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을 보다 전진시키며 당 창건을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화함에 있어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였다.

이와 같이 하여 1930 년대 전반기에 장차 창건될 당의 골간으로 될 수 있는 공산주의자 대렬이 육성 확대되고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이 구축되였으며 공산주의 대렬의 순결성이 보장되고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공산주의자들이 더한층 굳게 단결됨으로써 앞으로 전국적 판도에서 당 창건 준비를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30 년대 전반기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고귀한 투쟁 경험에 기초하여 1936년 2월에 있은 녕안현 남호두 회의에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확대하고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강화하며 인민 혁명군 부대를 국경 지대에 진출시켜 새로운 유격 근거지를 창설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1936년 5월 초에 열린 무송현 동강 회의에서 그 구체적 실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회의들에서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들은 우리 나라 혁명 운동과 당 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왔다.

특히 김 일성 동지에 의한 과학적인 혁명 로선의 제시는 당시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하면서 동시에 당 창건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했던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로선이 확립됨으로써만 민족 해방 투쟁과 공산주의 운동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당 창건의 사상적 준비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1930 년대 전반기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조선 혁명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며 특히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내에서 제반 민주주의적 변혁들을 실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정확성이 확증된 력사적 제 경험들을 일반화하여 1936년에 조국 광복회 강령을 작성 선포하였다. 이리 하여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혁명의 성격과 그 수행 방도, 혁명의 동력과 대상, 혁명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구명한 혁명적인 강령을 가지게 되였다.

조국 광복회 강령은 장차 창건될 당의 강령적 요구를 반영한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로선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지도에서 사상 리론적 및 전략 전술적 기초로 됨으로써 그들의 로선상 견해의 일치성과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공산주의 대렬 내에 잠입하여 분렬을 획책하던 종파 분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무기로 반종파 투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서 광범한 대중의 의식을 제고하고 혁명 세력을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급속히 묶어 세울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김 일성 동지에 의한 조국 광복회의 결성은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 통일적인 당이 없었던 조건에서 새로 결성된 조국 광복회는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가진 통일 전선 조직으로서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모든 반일 대중과 한 조직내에서 접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주어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꾸릴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국 광복회는 그 활동을 통하여 공산주의자 대렬을 확대하고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김 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한 명도 핵심의 주위에 결속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리 하여 당 창건을 위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조국 광복회의 결성을 통하여 더욱 조직적이며 대규모적으로 조직 진행할 수 있게 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가 남호두 회의와 동강 회의에서 제시한 방침에 따라 1936년 여름에 인민 혁명군 부대들을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국경 지대에 진출시켜 백두산 대산림 지대에 수 많은 밀영들을 설치하였다. 동시에 그것을 거점으로 각 곳에 정치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인민들 속에 비밀리에 혁명 조직들을 결성케 하였다. 장백 지대에 파견된 권 영벽, 리 제순 동지들을 비롯한 정치 공작원들은 그 전역에 걸쳐 혁명 조직들을 조직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군중을 망라한 조국 광복회망을 단시일 내에 체계 정연하게 포치하였다.

그리하여 장백 유격 근거지는 해방 지구 형태로 설치했던 동만 유격 근거지와는 달리 인민 혁명군 부대의 밀영들을 거점으로 하고 그와 광범한 인민들 속에 뿌리 박은 조국 광복회, 각종 혁명 단체의 조직망이 서로 유기적으로 련결된, 적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혁명의 강력한 요새로 되였다. 이것은 인민 혁명군 부대들로 하여금 고정된 지역의 방어에서 벗어나 기동성 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정치 공작을 강화하고 조국 광복회를 비롯한 기타 혁명 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당 창건 방침에 따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당 공작 위원회를 결성하고 당 창건을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게 되였다.

이리하여 장백 근거지를 창설한 이후 당 창건을 위한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여 갔다.

장백 근거지를 거점으로 수 많은 정치 공작원들이 동북 일대와 국내 각지에 파견되여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혁명 로선에 따라 광범한 인민 대중을 혁명 조직에 묶어 세우면서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동북 일대와 국내 각지에 파견된 정치 공작원들은 그 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애국적 반일 력량을 조국 광복회에 망라시켜 그 조직을 급속히 확대하는 동시에 각지에 이미 조직된 대중 단체들을 조국 광복회 산하에 인입하여 그 통일적 지도 하에 결속시켜 나갔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동만, 북만, 남만의 조선인 거주 지역과 국내 각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조국 광복회망이 급속히 확대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조직된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은 반일 력량을 확대 결속함에 있어서 뿐 아니라 당 창건 준비를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지도를 받은 조선 민족 해방 동맹과 그이가 직접 파견한 정치 공작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국내 각지에서는 분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혁명 조직들이 유일한 혁명 로선에 기초하여 자체 조직을 개편하고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통일적 지도 하에 결속되여 갔다. 이리 하여 국내에는 《함북 반일 동맹》, 《함남 반일 투쟁 동맹》을 비롯하여 광활한 지역에 조국 광복회 하부 조직들이 결성되였다.

조국 광복회와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하부 조직들이 확대됨에 따라 각 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그 조직들에 망라된 근로자들을 혁명 투쟁을 통하여 단련시키면서 세련된 공산주의자로 육성해 나갔다. 그들은 출판물, 독서회, 야학회, 비합법적인 군중 단체의 집회, 개별 담화 등 가능한 모든 형식과 방법을 리용하여 각계 각층 군중

속에 조국 광복회 강령과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해설 침투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 일성 동지의 새 혁명 로선에 의하여 무장되고 실지 투쟁을 통하여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의 대렬이 확대되여 갔다.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에서 가능한 온갖 기회를 다 리용하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군중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지하 투쟁과 합법적 투쟁을 배합하여 대중을 전취하며 적을 고립 와해시키는 군중 공작을 능숙하게 수행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대담하고도 물 샐 틈 없는 군중 공작으로 수 많은 각계 각층 군중들은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하는 인민 혁명군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적 력량 관계는 혁명의 편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조국 광복회의 확대 강화와 더불어 일제의 침략적 공격을 격파한 인민 혁명군 부대들의 영웅적인 대규모 전투들과 특히 보천보 전투를 비롯하여 그 후 계속된 빈번한 국내 진공 전투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인민 대중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주었으며 그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 광복회와 조선 민주 해방 동맹을 비롯한 대중 조직들을 급속히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투지를 고무하고 그들을 반일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궐기시켰다.

이와 같이 광활한 지역에서 조국 광복회의 조직이 확대되고 그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그리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의 혁혁한 전투 승리로 그 영향이 커짐에 따라 그와의 직접적인 련계 하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반일 투쟁도 계속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로동자들은 주로 군사 시설 건설장과 군수 공장들에서 대중적인 파업과 태업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농민들은 소작권의 확보와 소작료의 감하를 위하여 그리고 일제의 강제적 수탈 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이리 하여 전국적 판도에서 혁명적 앙양이 이룩되였으며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1930 년대 말～1940 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국제 파쑈 세력들의 쏘련에 대한 침략이 일정에 오르게 되자 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장기간 배후에서 커다란 위협으로 되여 온 인민 혁명군에 대한 《완전 격멸》에 미쳐 날뛰였다. 일제 강도배들은 군대와 경찰을 조선과 만주 산야에 거미줄처럼 늘여 놓았으며 집단 부락 인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 혁명군을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당시 조성된 정세는 민족 해방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혁명 력량을 보존하며 모든 준비 태세를 전망성 있게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일제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40년 8월에 열린 돈화현 소할바령 회의에서 당시 조성된 군사 정치 정세를 정확히 분석한 기초 우에서 민족 해방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혁명 력량을 보존하면서 그들을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선진적 군사 과학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 간부로 육성하는 동시에 인민 혁명군이 대부대 활동으로부터 소부대 활동으로 이행할 데 대한 새로운 투쟁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당시 조성된 정세 하에서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제때에 당을 창건할 수 있는 조직 사상적 준비를 더욱 튼튼히 갖추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되였다.

회의 이후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인민 혁명군 부대들에 대한 군사 정치 훈련이 강화되였으며 수 많은 소부대들과 소조들이 동북 일대 뿐 아니라 국내 깊이에까지 파견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민 혁명군 부대 성원들이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공

산주의자로 자라 남으로써 당창건의 조직적 골간 부대가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동시에 소부대와 소조 활동을 통하여 적들에게 계속 군사 정치적 타격을 주면서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혁명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혁명 조직들을 복구 확장함으로써 광범한 혁명 력량을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집결시켜 그들을 훌륭한 혁명 투사로 육성하였으며 인민들에게 혁명적 영향을 주어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계속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1940 년대 전반기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 부대가 보존 육성되였고 대중적 지반이 계속 확대됨으로써 민족 해방의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면서 당을 창건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 *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오랜 기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싸워 온 조선 인민의 숙망은 우리 조국이 일제 식민지 명에에서 해방됨으로써 드디여 실현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 온 인민 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조국에 개선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에 기초하여 공산당을 창건하는 사업을 급속히 추진시켰다.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는 당 창건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일제의 패망으로 당을 창건하는 사업이 전국적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근로 대중의 혁명적 기세가 앙양됨에 따라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꾸림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였다.

반면에 당 창건을 위한 사업에는 적지 않은 난관들도 있었다.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당 창건 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며 공산주의 대렬을 전국적으로 단합시키는 사업이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혁명의 배신자들, 정치적 투기 분자들, 종파 분자들이 해방 직후의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공산주의 대렬을 적지 않게 혼란시키고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의 선행 과정을 충분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당 창건을 위한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을 즉시 창건하여야 할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전면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를 무엇보다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웠다.

각 지방에 결성된 공산당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묶어 세우고 유일한 지도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통일적 당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동시에 이 지방 조직들과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이 충분히 검열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을 우선 당에 망라시켜 교양 훈련하면서 실지 투쟁을 통하여 검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야만 각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전면적으로 결속하고 당을 즉시 창건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또한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복잡한 정세에 비추어 모든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북조선에 당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당 중앙 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북조선에서 혁명을 급속히 추진시키는 동시에 우리 나라 혁명을 전반적으로 성과 있게 지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파 분자들은 제각기 공산당의 간판을 내걸고 파벌 싸움에 날뛰면서 자기들의 종파적 지반을 닦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다.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악랄한 책동으로 인하여 조성된 복잡한 사태를 타개 수습하고 통일적인 당을 꾸리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바로 이런 데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북조선에 강유력한 당 중앙 지도 기관으로서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제기하였다. 오직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설하여야만 종파 분자들의 분렬 책동을 조직적으로 극복하고 북조선의 각급 당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었으며 남조선의 당 사업도 정확히 지도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방침은 당시의 조건에서 각지에 산만하게 조직되였던 당 조직들을 묶어 세우며 공산당의 전반적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당 중앙 기관을 인차 내올 수 있는 현명한 조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당 창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행정에서 종파 분자들의 반항이 분쇄되고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 조직에 광범히 결속되였으며 지방 당 조직들에 대한 유일적 지도 체계가 수립되여 갔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에 걸쳐 진행된 력사적인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 공산당을 창건하고 우리 나라 현실에 적응한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규정하였다. 이리 하여 1930 년대 이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15 성상의 장구한 기간에 걸쳐 진행된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은 빛나는 결실을 보게 되였다.

오직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세련된 령도 핵심과 그들의 지도 하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이 있었음으로 하여 지난 20 년 간 우리 당은 당 건설과 혁명 과업 수행에서 맑스-레닌주의에 튼튼히 립각하여 어떠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오늘과 같은 위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의 간부 육성 정책의 빛나는 결실

류 정 억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지난 20 년 간 수 많은 간부들을 육성하였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의 기저에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여 온 우리 당 간부 육성 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이 안받침되여 있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간부 문제는 맑스-레닌주의당들 앞에 제기되는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종전의 모든 사회 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주권의 전취가 다만 혁명의 시초에 지나지 않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 로동 계급은 집권한 후 사회주의 경제와 문화를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새 사회 건설의 모든 령역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해야 할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로동 계급이 이 방대하고 심각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력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한 간부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간부는 당의 기본 골간이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 지휘 성원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사업의 성과는 간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간부는 우선 당을 꾸리는 데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이 혁명의 승리를 옳게 조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주되는 문제의 하나는 당성이 강하고 정치적 및 실무적 수준이 높으며 실천 투쟁을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는 당의 기본 골간 즉 당의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간부 대렬이 확고히 꾸려져야 당 대렬이 강화될 수 있으며 당 대렬이 강화됨으로써만 당은 자체의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간부는 당을 꾸리는 데서 뿐 아니라 대중을 전취함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본 열'쇠는 당이 대중을 전취하여 그들을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 데 달려 있다.

그런데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지휘 성원들의 역할, 간부들의 령도 예술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간부의 중요성은 일단 수립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활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그 어느 것을 물론하고 간부들의 정확하고 능숙한 조직 지도 사업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여도 그 집행을 조직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간부 대렬이 새 사회 건설의 모든 령역에 걸쳐 튼튼히 꾸려지지 못 한다면 그것은 성과적으로 관철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간부가 다 건전하고 사상 수준이 높고 다 한결같이 당 정책을 받들고 당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도, 사회주의 건설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다 문제없이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401 페지).

간부 육성 사업은 주권을 전취한 후 맑스-레닌주의당 앞에 제기되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낡은 사회에서 자신의 혁명적 간부들을 충분히 육성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 하는 조건에서 당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전'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혁명적인 간부 대렬을 새로 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간부를 육성하는 사업은 하루 이틀에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간부 육성 문제는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력사적 조건과 해방 후 조성되였던 혁명 정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더욱 긴절하고 어려운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당을 가지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한 우리는 우선 당을 창건하여야 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문화 건설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런 형편에서 해방 직후 도처에서 요구되는 것은 간부들이였다.

그러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결과로 우리 나라에는 간부의 밑천이 거의나 없었다. 그 누구와도 국가 권력을 나누지 않은 일본 제국주의의 파쑈적 전횡과 악랄한 우민화 정책의 후과로 말미암아 해방 직후 우리에게는 경험 있는 국가, 경제 관리일'군이나, 유능한 기술, 문화 간부도 있을 수 없었다. 더구나 우리는 간부를 육성하기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조차 변변히 가지고 있지 못 하였다.

미제에 의한 국토의 량단은 이 모든 곤난과 복잡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선 혁명 앞에는 북반부에 혁명의 튼튼한 기지를 하루 속히 꾸려야 할 긴급한 과업이 제기되였으며 이러한 정세 하에서 간부 육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당'적, 국가적 과제로 나서게 되였다. 참으로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간부 육성 문제는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의 하나였으며 그것은 동시에 비상한 독창성과 책임성을 요하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과업이였다.

우리 당은 간부 육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중첩된 난관과 애로를 타개하고 온갖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면서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단시일 내에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 · *

조국 창건에 들어 선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장구한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후과의 하나인 간부의 부족을 급속히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신속 정확히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모두다 믿고 새 사회 건설에 인입하여 실지 사업을 통하여 검열하면서 그들을 육성 단련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이 방침은 매개 나라 혁명은 오직 그 나라 당에 의해서 수행되여야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적 립장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우리 당이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와 열의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실천 투쟁을 통해서 교양 단련시키는 방침을 견지한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고 현명한 것이였다.

이 방침은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한량없이 너그러운 포용력에 의해서만 취해질 수 있었다.

너그러운 포용력—이것은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며 그들을 공산주의 사회까지 이끌고 나가는 것을 자기들의 고귀한 사명으로 여기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품성이다. 이러한 품성은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원쑤를 격멸하기 위하여 서로 손잡고 단결하여 싸우던 행정에 이룩된 것이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한 령도 핵심의 무한히 넓고 깊은 포용력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 후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파괴 암해 공작과 분렬 책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혁명의 편에 끌어 당겨 실지 투쟁을 통하여 검열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훌륭한 간부로 육성 단련할 수 있었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우리 당이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며 부단히 교양 개조하면서 그들을 계속 혁명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인입한 사실이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자체의 인테리 간부가 없이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며 새 사회를 훌륭히 건설해 나갈 수 없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 개조하여 혁명에 인입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였다.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은 식민지 인테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 갖은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아 왔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성이 매우 강하였다. 우리 당은 장기간의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 형성된 인테리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고 부단히 교양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로부터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세심한 직접적인 배려 밑에 오랜 인테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담하게 포섭하였으며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바쳐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 주었다. 동시에 당은 그들을 혁명적 인테리로 육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교양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돌렸다.

우리 당은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시기, 미제를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

에 걸쳐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그리고 부단히 실천적 투쟁에 적극 인입하여 단련시켰으며 직접 생산 현장에 접근시키고 대중 속에 침투시킴으로써 로동 계급의 혁명성을 배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혁명적 인테리로, 진실한 인민의 충복으로 교양 개조되였다.

당의 너그러운 포용력으로 하여 우리는 해방 후 그렇게도 곤난하였던 간부 문제의 긴급한 수요를 해결하고 그들을 밑천으로 하여 민족 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이 간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삼은 것은 오랜 혁명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혁명가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 계급 출신 일'군들로 핵심 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방침이였다.

오랜 혁명 투쟁 특히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혁명가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 계급 출신 일'군들로 핵심 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은 간부 대렬의 계급적 지반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질적 구성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는 동시에 짧은 시일 내에 수 많은 인민적 간부들을 길러 낼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랜 혁명 간부들은 과거에 간고한 혁명 투쟁을 통하여 단련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혁명에 충실하고 원칙성이 강하며 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고상한 도덕적 풍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골간으로 해서 간부 대렬을 꾸려야 핵심 진지를 공고히 하고 그들의 영향으로 핵심 대렬을 급속히 확대할 수 있다.

우리 혁명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은 자체의 계급적 처지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하여 깊은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하고 용감하며 혁명의 원쑤를 미워하는 정신이 높고 난관 앞에서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 출신 일'군들을 핵심으로 하여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것은 간부 육성 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계급적 원칙이다.

우리 당은 핵심 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새로운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였다.

당은 간부 사업에서 정치적 표징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실무적 표징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로동자, 농민 출신들을 대담하게 등용하고 실지 사업을 통하여 부단히 육성 단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은 오랜 혁명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로간부들과 젊은 간부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을 관철하였다.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로간부들은 실지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사업에서 로숙하고 침착하다. 반면에 젊은 간부들은 새것에 민감하며 사업에서 적극적이고 활동력과 결단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간부 사업에서 로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그들이 호상 우점을 배우면서 자체를 부단히 단련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수한 간부로 자라 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제기된 혁명 과업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또한 로동자, 농민 출신 간부들과 인테리 간부들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도 철저히 견지되였다. 우리 당은 기본 군중인 로동자, 농민 출신 간부들과 인테리 간부들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인테리 간부들은 로동자, 농민 출신 간부들로부터 당에 대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 조직성과 규률성 등 혁명 정신을 배우며 로동자, 농민 출신 간부들은 인테리 간부들로부터 과학과 기술, 경제 지식을 배움으로써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면서 훌륭한 간부로 자라 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바로 오랜 혁명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혁명가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 계급 출신 일'군들로써 핵심 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교양 육성함으로써 그렇게도 결핍되였던 간부 문제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혁명의 당면한 요구와 장래 발전을 고려하여 당장 필요한 간부와 앞으로 필요한 간부를 동시에 육성하는 현명하고 예견성 있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지만 특히 간부 육성 사업에서 당면한 요구와 장래의 전망적 요구를 옳게 결합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관건적 문제로 된다. 당면 과업이 바쁘다 하여 그에만 치우치고 장래를 예견하지 않거나 장래가 중요하다 하여 당면한 요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혁명과 건설에 지장을 준다.

우리 당은 해방 후에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당면하게 요구되는 간부들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차 사회주의 건설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예견하고 당 및 국가,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부문에 필요한 간부들을 전망성 있게 육성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우선 일'군들 속에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을 통하여 일제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고 그들을 건국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동시에 당장 당을 건설하고 국가를 운영하며 경제를 관리하고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간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 강습의 형태로서 각종 간부 양성 기관을 창설하였다. 한편 로동자, 농민 출신들로써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 요구되는 새로운 간부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제의 노예 교육 제도를 철페하고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인민 교육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해방 후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업, 농업, 보건, 교육, 문화 등 인민 경제 각 분야에 필요한 간부 육성을 위하여 김 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한 15개의 대학을 창설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방 후 그렇게도 곤난하였던 간부 문제를 풀고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실현하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능히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간부를 미리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 당은 전쟁 승리를 위하여 전선과 후방에 필요한 군사 정치 간부를 육성하면서 동시에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확신하고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제 기술 간부들을 예견성 있게 육성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당은 일'군들을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전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교양하면서 간부 양성 기관들을 계속 운영하고 각종 강습을 조직하였

다. 그리 하여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선과 후방에 요구되는 군사 정치 간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전쟁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 동시에 당은 전쟁 승리를 확신하면서 장래에 요구되는 간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사업을 전시 체제로 개편하였다. 전선이 고착되고 전쟁이 장기성을 띠게 됨에 따라 당은 전후 복구 건설에 필요한 간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선에 동원되고 있던 대학생들을 학교에 다시 돌려 보내여 공부시켰으며 많은 청년 학생들을 류학생으로 파견하였다.

우리 당은 항상 자기 혁명 위업의 전도를 락관하며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충만되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하고 예견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학적 예견성에 기초하여 간부를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에 전후 시기에 인민 경제 각 분야에 요구되는 간부를 능히 해결할 수 있었다.

전후 시기에 들어 서면서 당 앞에는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고 기술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 어려운 과업을 해결하자면 어떤 애로와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사상 정치적으로 준비되였을 뿐 아니라 경제 기술 지식으로 무장한 수많은 간부들이 요구되였다.

전후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당은 일'군들 속에서 당성 단련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면서 전후 복구 건설에 요구되는 간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파괴된 교육 기관들을 급속히 복구하고 대대적으로 확장하였으며 특히 장성하는 기술 간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 기술 학교를 창설하고 고등 교육 기관들을 확장하는 동시에 야간 교육망과 통신 교육망을 광범히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간부들을 재교양하기 위하여 간부 양성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간부 육성 정책에 의하여 우리는 전후 무참히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당은 전후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하여 당면하게 요구되는 간부를 육성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장차 조국 통일의 위업을 예견하고 그 요구에 상응한 간부를 육성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우리 당은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 송도 정치 경제 대학, 공산 대학을 비롯한 각종 양성 기관들과 고등 교육 기관들을 통하여 남반부 출신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과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요구에 상응하게 간부들을 기술 문화적으로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하여 고급 중학교를 폐지하고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는 유일적인 기술 교육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새 세대들을 일반 지식, 기초 기술 지식과 전문적 기술 기능을 소유한 새로운 일'군으로 육성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양성 기관들과 고등 교육 기관들에서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선진적인 교육 교양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정신적 및 육체적 능력이 구비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재들을 더 잘,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육성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비단 오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먼 장래를 위하여서도 간부들이 훌륭히 준비되여 가고 있다.

간부를 육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일'군들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것 만큼 간부 육성 사업의 성과 여부는 간부를 육성하는 체계와 방법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간부 육성의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왔다.

우리 당은 간부 육성 사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많은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였다.

우리 당은 우선 간부 양성 체계를 객관적 혁명 정세의 변화와 당 앞에 제기된 혁명 임무의 요구에 맞게 기동성 있게 개편하고 간부 양성 사업의 내용을 현실적 요구에 적응시키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당은 해방 직후에 벌써 중앙당 학교를 비롯하여 인민 경제 대학(당시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 중앙 고급 학교), 도당 학교 등 당의 상설적 간부 양성 기관들과 함께 점차 각 성 양성 기관들과 도 행정-간부 학교들을 창설하고 단기 강습의 형태로 간부를 육성하였다.

특히 전후 시기에 당은 인민 경제 복구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상응하게 간부 양성 체계와 양성 기관들의 학제를 개편하고 새로 맑스-레닌주의 학원을 창선함으로써 그 기관들을 통하여 당성이 강하고 정치 리론적으로 준비된 그리고 군중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능숙하게 조직 동원할 줄 아는 유능한 간부들을 수 많이 육성하였다.

또한 과거의 중등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기술 교육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 교육 체계에서는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 로동이 밀접히 결합되게 됨으로써 중등 일반 교육을 완성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 기능을 소유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를 발전시킨 것은 간부 육성의 체계와 방법을 개선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당은 야간 및 통신 교육 체계와 직장 기술 교육 체계를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 속에서 그들을 생산에서 리탈시킴이 없이 수 많은 우수한 간부들을 육성해 낼 수 있게 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체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공장 대학과 공산 대학의 창설이다. 공장 대학과 공산 대학의 창설은 김 일성 동지의 발기와 구상에 의하여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육 원리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실천적 모범으로 된다.

우리 당은 이러한 형태의 대학을 창설함으로써 혁명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의 핵심 대렬 내에서 로동 계급 자체의 인테리를 직접 생산 현장에서 육성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공장 대학은 현직 로동자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현직 기사들이 일하면서 가르치는 대학으로서 앞으로 기술, 문화 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광범히 보급될 수 있는, 또

보급해야 할—직접 공산주의 사회의 교육 형태와 통하는—가장 선진적인 교육 형태로 될 것이다.

우리 당은 간부 육성의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면서 간부의 질을 제고하며 혁명과 건설에 실속 있게 복무할 수 있는 간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였다.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우리 당 사상 사업 특히 간부 육성에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학교 교과목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개편하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것을 당 정책, 혁명 전통, 우리 나라의 력사, 지리 등과 옳게 결합하여 교육 교양하도록 함으로써 당'적 사상으로 무장되고 산 지식을 소유한 훌륭한 간부를 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양성 기관들과 교육 기관을 통하여 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에 못지 않게 실지 사업 과정에서 간부들을 교양 육성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가 비상히 빠른 조건에서 변화 발전하는 혁명 정세로부터 간부들을 부단히 교양 육성하는 문제는 혁명의 기본 요구의 하나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간부들을 부단히 교양하지 않는다면 현실 발전의 요구에 간부들의 수준을 따라 세울 수 없었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부르죠아 사상의 영향과 자체의 낡은 사상 잔재 및 생활 인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상 상 결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다.

우리 당은 각종 학습망과 간부 상학조를 운영하며 매일 2 시간 이상 학습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간부들이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과 혁명 전통을 더 깊이 연구하며 특히 경제 관리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부들의 학습 기풍이 수립되였으며 어떠한 복잡한 조건 하에서도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당 정책을 정확히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배양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매개 간부들이 례외 없이 해당한 당 조직에 속하여 당 생활을 충실히 하며 당 조직 규률에 철저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내 비판과 자기 비판에 적극 참가하여 자체의 결함을 제때에 극복 시정하는 동시에 당성과 리탈되는 온갖 경향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였다. 그리 하여 간부들은 당 생활 과정에서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면서 혁명의 지휘 성원으로서 자체를 더욱 혁명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되였다.

경험은 간부들을 실지 사업 과정을 통하여 부단히 교양 육성하는 것이 짧은 기간에 그들을 더 훌륭한 간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자체의 새로운 인민적 간부를 육성할 데 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방침은 오늘 빛나는 결실을 보고 있다.

해방 직후 그처럼 간부의 결핍을 심각하게 느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오랜 혁명 투사들 뿐 아니라 해방 후 20 년 동안 혁명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수 많은 혁명가들을 가지게 되였다.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수 많은 혁명가들로 당의 지휘 성원들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당 대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되고 그의 전투력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오늘 우리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

실하고 재능 있는 수 많은 당 및 국가 관리 간부들과 군사 지휘관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는 그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또한 아무리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공장, 기업소라 할지라도 모두다 자체의 민족 간부들에 의하여 훌륭히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29만여 명에 달하는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 집단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우리의 과학 기술 일'군들은 인류 과학에 크게 기여하는 위대한 발명들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 예술인들이 창조하고 있는 예술은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황금의 예술》이라는 높은 평을 받고 있다.

지금 9,000여 개의 각급 학교들에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해방 후 단 하나도 없던 대학이 오늘은 98개로 늘어나 대학생 수만 하여도 15만 6,000여 명에 달한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일찍부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유용하게 복무할 수 있는 과학 지식과 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수 많은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은 채 중등 및 고등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실로 우리 나라는 남녀로소를 물론하고 전체 인민을 가르쳐 주는 각종 교육망으로 뒤덮여 있으며 온 나라가 하나의 커다란 간부 육성의 기지로 되여 있다.

* *

우리 당은 당 건설과 혁명 수행에 요구되는 간부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련의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의 오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새 사회 건설에 들어 선 나라에서 당이 혁명의 지휘성원들, 자기의 민족 간부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 국가 관리 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고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 당 간부 육성 정책의 현명성은 바로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간부 양성 사업과 교육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철저히 선행시켜 온 데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당은 항상 수 많은 복잡한 혁명 과업들 중에서 간부 문제의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고리를 언제나 우선적으로 풀어 나감으로써 핵심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의 경험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인 요구를 동시에 심중히 타산하면서 간부 육성 사업의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바로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해방 후 극히 짧은 기간 내에 간부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오늘과 같이 강력한 혁명적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려 놓을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간부 육성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이 분야에서 이미 달성한 경험을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혁명 승리의 유력한 골간으로 되는 간부 대렬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육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남조선 인민 투쟁의 20 년

백 상 철

1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창건 20 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커다란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지고 남조선 인민들이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자랑찬 성과를 돌이켜 보게 된다.

우리 당은 8.15 해방 직후부터 남반부에서 혁명의 승리를 위한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에 무한히 고무된 남반부 인민들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쑈 통치를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 왔다.

해방 후 우리 나라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의 비운을 겪게 되였으며 남북 조선에는 판이한 정세가 조성되고 서로 상반되는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인민이 주권을 잡은 북반부는 자주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의 길에 확고히 들어선 반면에 미제가 강점한 남반부는 또다시 식민지적 예속과 반동의 길로 떨어졌다. 남북에 조성된 이러한 판이한 정세로 말미암아 조선 혁명은 불가피하게 남북반부에서 각이한 추세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남북 조선 인민들 앞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혁명 과업이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통일된 하나의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지향하면서 남북반부에 제기된 두 가지 혁명 과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동시에 각이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남북 조선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능숙하게 령도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선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인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혁명 발전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기초 우에서 조선 혁명의 기본 로선을 명확히 천명하였으며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남반부의 혁명 력량을 확대하여 량자를 배합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혁명 력량의 결정적 우세를 확보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조선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달성할 데 대한 가장 정확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이 전략적 방침에 립각하여 북반부에서 혁명의 원천지—민주 기지를 반석 같이 다지는 동시에 남조선 혁명 운동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혁명 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행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조성된 주객관적 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난관과 애로들이 중첩되여 있었다.

그것은 우선 국제 반동의 원흉이며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교살자인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이 강점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극동의 주요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고 국내 반동 세력을 규합하여

반혁명의 소굴로 전락시킨 조건 하에서 조선 혁명은 복잡성, 간고성, 장기성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또한 과거 일제 통치 시기부터 계속된 악랄한 《반공》 선전의 해독적 영향이 뿌리 깊이 남아 있는 사정은 남조선 혁명 운동 발전에 일정하게 장애를 조성하게 되였다.

이와 함께 당내에 잠입한 미제의 고용 간첩 박 헌영 도당과 온갖 종파 분자들의 파괴 암해 책동이 남조선 혁명 운동 발전에 막대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방 후 남조선 혁명은 일련의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이 모든 난관과 애로들을 대담하게 극복하여 나갔다.

우리 당은 남조선 혁명의 성격과 임무 및 그 수행 방도들을 명시함으로써 항상 남조선 인민들의 나아갈 바 앞길을 밝혀 주었으며 그들을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였다.

즉 남조선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은 외래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며 이 혁명의 대상은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 반동 관료배 등 국내 반동 세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 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이 혁명을 수행하는 동력은 로동 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제국주의 및 봉건 세력을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소자산 계급이며 민족 자본가도 반제 반봉건 투쟁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제시된 조국 통일과 남조선 혁명에 대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으로 무장한 남조선 인민들은 북반부 혁명 기지에서 달성된 거대한 건설 성과에 고무되면서 남조선 혁명의 승리와 조국 통일을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2

지난 20년 간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남조선 혁명의 승리와 조국 통일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나날이였다.

일제의 식민지 기반 하에서 해방된 남조선 인민들은 새로운 침략자—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길에 나섰다.

남조선에서는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 침략자들과 국내 반동들의 식민지 파쑈 통치를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인민 대중의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여 왔다.

8.15 해방 직후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열의와 적극성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도처에서 혁명적 진출이 전개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의 강점 정책을 반대하고 통일적인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견결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로동 계급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대중 운동은 급격히 앙양되였다.

각지에서 전개되던 로동자들의 투쟁은 1946년 9월에 총파업에로 확대되였으며 10월에는 전 인민적인 반미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미제의 단독 《정부》 조작 음모를 반대하고 민족 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반미 구국 투쟁은 계속 완강히 전개되였다.

1948년 2.7 구국 투쟁과 제주도 인민의 4.3 봉기를 비롯하여 남조선 전 지역에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광범한 투쟁이 전개되였으며 이 투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기치 하에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나아갔다.

투쟁은 괴뢰군 병사들 속에도 파급되였다.

1948년 10월에 려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병사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탄압 학살 만행에 항거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며 여기에 지방 인민들까지 합세하여 괴뢰 지방 정권 기관들을 파괴하고 한때 려수 시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제주도 인민 봉기와 려수 군인 폭동 이후 한나산, 지리산과 태백산, 오대산 일대에서는 간고한 조건 하에서 애국적 인민들의 유격 투쟁이 전개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전쟁 전 시기의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들은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국내 반동들의 매국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조국의 자유 독립과 민주주의 제도의 수립을 견결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인민 대중의 혁명성과 그 위력을 크게 시위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해방 후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과정은 일반적으로 모든 혁명 운동의 발전 과정이 그러한 바와 같이 곧은 상승선을 따라서가 아니라 앙양과 퇴조가 서로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장성 발전하였다.

특히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복잡하고 간고한 행정에서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 전 시기의 남조선 인민 투쟁은 급격한 앙양의 시기와 서서히 퇴각하는 일시적 퇴퇴의 시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남조선 인민 투쟁은 8.15 해방 후 급격히 앙양되여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 항쟁에서 가장 높은 고조를 이루었으며 뒤이어 망국적인 5.10 단선 반대 투쟁이 계속 전개되여 나갔다.

이 시기 인민 투쟁에서는 반혁명 세력에 대한 혁명 력량의 진공적 성격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는 데 투쟁의 예봉이 집중되였다.

투쟁의 선두에는 로동 계급이 섰으며 그들의 견결성과 혁명적 진출에 고무되여 농민 대중과 학생 청년들 및 각계 각층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가하였다. 투쟁은 대중적 규모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폭동적 진출을 동반하면서 남조선 전역에로 확대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적아 간의 력량 관계가 혁명 세력에 불리하게 변동됨에 따라 인민 투쟁의 이러한 앙양은 계속되지 못 하였다.

남조선에서 인민 투쟁은 1948년 5월 미제에 의한 괴뢰 단독 정권의 조작과 그 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야수적인 파쑈 폭압에 의하여 일시적인 퇴퇴기에 들어 서게 되였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인 괴뢰 정권의 조작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 지배 체제의 완성을 의미하였으며 혁명 력량에 대한 반혁명적 공세의 《합법적》 도구가 마련된 것을 의미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비법적으로 괴뢰 정부를 꾸며 낸 후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를 일층 강화하고 인민 투쟁에 대한 류혈적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혁명 대렬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암해 활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최신형 무장으로 장비된 미군 부대들을 인민 탄압에 동원하여 애국적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인민의 감옥으로 전변되였으며 당 조직들과 혁명 군중은 야수적인 파쑈 테로의 총공세에 직면하게 되였다.

한편 미제의 고용 간첩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은 혁명 력량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당내에 분렬과 혼란을 조성하고 우경 투항주의와 《좌경》 모험주의적 책동을 감행함으로써 당과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외부로부터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

한 탄압이 가해지고 내부에서 박 헌영 도당이 파괴 활동을 감행하는 간고한 조건 하에서도 남조선에서 당원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굴함 없이 헌신적인 투쟁을 계속하였다. 쇠퇴기에도 투쟁은 일시에 침체된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산발적인 격렬한 충돌과 무장적 진출이 전개되면서 점차적으로 약화되여 갔다.

이 시기 투쟁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규모와 포괄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고 한 곳에서 투쟁이 폭발되여도 그것이 남조선 전역에로 확대되지 못하고 일정한 지역적 한계 내에 국한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투쟁에 인입하지 못 하고 소수 핵심들만이 계속 투쟁함으로써 끝까지 견지하지 못 하였다.

남조선에서 혁명 력량과 애국적 인민 대중에 대한 발악적인 탄압 책동을 감행하는 한편 전쟁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온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드디여 1950년 6월 불의에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의 가렬한 환경 속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진격하는 인민 군대와 전략적으로 배합하여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데 대한 우리 당의 호소를 받들고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인민 군대의 반공격에 의하여 남반부의 광대한 지역이 해방되자 해방 지구의 청장년들은 대중적으로 의용군에 입대하여 전선으로 출동하였으며 후방 인민들은 인민 군대 원호 사업과 복구 수송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인민 정권 하에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일시적 후퇴의 어려운 시기에도 식량 공급과 부상병 간호 등 인민 군대의 전략적 후퇴를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남반부 각지에서는 전선의 인민 군대의 전투에 호응하여 유격 투쟁이 전개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전후 시기에 와서 점차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전후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와 괴뢰 도당의 파쑈 테로 하의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 인민 투쟁을 말살하여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쑈적 탄압과 회유 기만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의 어떠한 발악적 책동도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쑈 통치를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그의 발전 도상에 가로놓인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부단히 장성하는 합법칙적인 발전의 로정을 걸어 왔다.

전후 시기에 들어 와서 남조선 사회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첨예화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심각화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주동적 조치에 의하여 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또한 대중 자신이 생활에서 교훈을 쌓고 투쟁 경험을 체득함으로써 인민들의 항쟁 기세가 점차 제고되였다.

이러한 제 조건으로 인하여 전후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점차 장성 발전하게 되였다.

전후 남조선 인민들은 당면한 생활상 제 요구의 해결과 민주주의적 권리의 획득을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나갔으며 이 투쟁은 그의 발전 과정에서 반파쑈 민주주의적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쑈 민주주의 운동은 력사적인 4월 인민 봉기에로 발전하였다.

1960년 4월에 일어 난 남조선 인민들

의 대중적 봉기는 미제의 오랜 주구인 리승만 파쑈 독재 《정권》을 전복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에서 달성한 첫 승리였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리승만 괴뢰 정권의 붕괴는 그 모든 반인민적 정책과 악명 높은 《북진》 소동의 파산을 의미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 체계의 심각한 위기를 반영한 것이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이 영웅적 항쟁을 통하여 조선 인민의 혁명적 기개를 시위하였으며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체득하였다.

4월 인민 봉기는 더는 낡은 방식 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총검의 위협으로도, 그 어떠한 기만 술책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항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크게 각성되였으며 단결하여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능히 쳐부시고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투쟁에서 첫 승리를 달성한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기본 요구인 새 정치, 새 제도와 조국 통일에 대한 불굴의 지향을 안고 투쟁을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이리하여 4월 인민 봉기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열어 놓았으며 항쟁을 계기로 투쟁의 예봉은 점차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돌려지기 시작하였다. 4월 인민 봉기 후 파쑈 통치 체계는 혼란 상태에 빠지고 반동 보수 세력은 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 약화된 반면에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적극화됨에 따라 남조선의 정치 정세는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여 갔다.

장 면 《정권》 시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서는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주적 평화 통일을 중심적 요구로 제기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은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면서 급속히 확대 발전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대중의 투쟁 기세는 더욱 고조되여 갔다.

특히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우리 당의 새로운 통일 방안은 조국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앞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민주주의와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차게 전개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 길이다》라는 구호 하에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투쟁 기세로 나갔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파국에 처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해 보려고 군부 내의 파쑈 분자들을 사촉하여 군사 쿠데타를 조작하는 모험의 길에 들어 섰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군사 쿠데타는 식민지 지배의 파쑈 테로적 수단이며 신식민주의 수법의 가장 악랄하고도 교활한 첩보 모략 통치 형태의 하나이다. 이것은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전반적 붕괴와 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미제는 군사 파쑈 독재로써도 남조선에서 무너져 가는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도리여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군사 정변 후 반동의 극악한 파쑈적 공세에 의하여 일시 침체 상태에 들어갔던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의 해결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요구하는 대중의 진출에 의하여 또다시 확대 발전하는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일체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을 요구하는 강한 지향이 대두되였으며 이러한 지향은 미제의 예속화 정책을 규탄하며 일제의 재침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넘어 갔다.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한일 회담》의 막후에서 미제의 사촉하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 책동이 로골화됨에 따라 반제 반파쑈 민주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지난해 학생 청년들의 6.3 봉기는 남조선 인민 투쟁의 급속한 장성을 촉진하는 데 커다란 작용을 놀았다.

처음에 일제의 재침을 반대하며 범죄적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한 이 항쟁은 점차 반《정부》적 성격을 띠고 박 정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반제 반《정부》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 봉기는 남조선에 기여 들려는 일제와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미제의 침략 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박 정희 《정권》의 위기를 일층 첨예화시켰다.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투쟁은 금년에 들어 와서도 계속 완강하게 전개되였다.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에서는 반일적 성격 뿐만 아니라 점차 반미적 색채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도구인 박 정희 괴뢰 정권을 타도하려는 새로운 적극적인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전후 4.19, 6.3 봉기와 금년의 《한일 협정》 반대 투쟁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학생 청년들은 남조선 인민의 반제 반파쑈 민주주의 운동에서 선각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중 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120만에 달하는 학생 청년들은 그들이 혁명적 조직에 의하여 튼튼히 결속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의하여 지도될 때 그리고 그들의 투쟁이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결합될 때 거대한 혁명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남조선 학생 청년 운동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면서 그들의 투쟁을 점차 장성하고 있는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전반적 인민 투쟁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점차 대중 투쟁이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각성과 조직적 결속이 촉진되여 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들 속에서는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점차 높아 가고 있고 반미 감정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기운이 날로 장성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투쟁 속에서 부단히 단련되고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체득하며 더욱 조직적으로 단결되여 가고 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3

현시기 남조선에서 혁명 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 운동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은 평화적 조국 통일과 조선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이며 남조선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사태 발전의 추세는 더욱더 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으며 혁명적 정세가 점차 성숙되여 가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심각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식민지 통치와 파쑈적 폭압 체제는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인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정치적 무권리로 말미암아 더는 살래야 살 수 없는 참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오직 투쟁만이 유일한 출로라는 생활의 진리를 체득하고 있다. 또한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와 그 위력의 장성 강화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해방 후 우리 당의 민주 기지 로선이 실현된 결과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일층 공고화

되였으며 조국 통일과 조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강유력한 불패의 혁명 기지로 꾸려졌다.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고무적 기치로 되고 있다.

국제 정세도 남조선 인민의 반제 구국 투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식민지 민족해방 투쟁의 불'길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부 웰남 인민들은 불굴의 투쟁으로써 미제 침략자들을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모든 사실은 오늘 남조선 혁명 발전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여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문제는 이 유리한 주객관적 조건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남조선에서 주체적 혁명 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군중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오늘 남조선 혁명 력량을 육성 강화하는 것은 남조선 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현 단계에 있어서의 남조선 혁명의 기본 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 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켜 다가 오는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이 기본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남조선에서 혁명적 당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적 당이 없이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명확한 투쟁 강령을 줄 수 없으며 혁명 군중을 성과적으로 투쟁에 조직 동원할 수 없다.

남조선에서 이러한 혁명적 당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동 계급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근로 농민 대중을 전취함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릴 뿐 아니라 청년 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애국적 및 진보적 세력들을 당 주위에 굳게 묶어 세우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반제 구국 통일 전선을 결성하는 것은 남조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근본 문제의 하나로 된다. 반제 구국의 기치 밑에 학생, 지식인들과 도시 소자산 계급 및 량심적인 민족 자본가에 이르기까지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광범히 결속함으로써만 미제와 국내 반동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 력량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 혁명 력량을 강화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을 조직하고 결속시킬 뿐만 아니라 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급속히 각성시키고 단련시켜야 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의 침략 세력을 구축하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국 통일의 위업을 이룩하는 결정적 투쟁에로 준비시켜야 한다.

조선 혁명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서의 남조선 혁명의 승리는 결국 남조선에서 혁명 력량의 장성 강화와 그들의 주동적이며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남조선에서 미제가 쫓겨나고 혁명이 승리한다면 조국 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남조선에서 혁명 력량의 장성을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항상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국내 반동들의 억압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반부 동포들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천리마의 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하고 조국 통일의 숙망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조선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성취하는 력사적 위업을 완수하고야 말 것이다.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 방도

김 형 원

우리 당은 경제 발전의 매 시기마다 생산품의 량적 장성과 함께 질 제고에 항상 깊은 주목을 돌려 왔다.

당은 특히 전후 복구기의 과업이 끝나고 개건기의 과업 수행에로 들어서면서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에 전당과 전체 근로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누구든지 자기가 만들고 있는 제품, 입고 쓰고 있는 모든 것을 불과 몇 해 전의 그것들과만 대비하여 보아도 우리 제품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쉽게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모든 것을 폐허 우에서, 거의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내야 하였던 사정을 생각할 때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속도는 량적 장성의 견지에서만 아니라 질적 장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빠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만족할 수 없다.

전면적 기술 개건의 시기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 인민 경제는 보다 성능이 좋고 정밀도가 높으며 수명이 긴 기계 설비를 비롯한 각종 중공업 제품들과 질 좋은 원료, 자재, 연료를 생산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의 구매력도 최근 년간 현저히 높아졌으며 그 구성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대외 무역 사업이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실은 모든 분야에서 생산을 량적으로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전개하는 동시에 제품의 질 제고를 그에 밀접히 따라 세우며 전반적인 공업 제품의 질을 한 계단 더 높일 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과업의 수행을 추진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내용상으로 더욱 실속 있게 꾸리기 위한 중심적인 고리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그것은 우선 그 규모에 있어서 아주 방대한 7 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을 원만히, 어떤 의미에서는 더 빨리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제품의 질은 그 량과 생산 기간에 큰 영향을 준다.

량적으로 아무리 많은 기계와 설비, 원료와 자재, 각종 인민 소비품을 생산한다 하여도 질이 보장되지 못하면 그것들은 사회적 재생산과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과업 수행에 큰 지장을 주리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 뿐 아니라 제품의 생산과 기본 건설에서 응당한 질을 보장 못하거나 오작품과 불합격품을 내면 불가피하게 수정 작업과 반복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사회적 자원의 랑비를 가져 오며 해당 인민 경제 부문의 계획 수행 기간을 그 만큼 지연시킬 것이다.

제품의 질, 그 중에서도 특히 기계 제품의 질 제고는 나라의 기술 혁명 과업 수행을 추진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계 제품의 질 제고는 인민 경제의 기타 모든 부문들에서 로동 생산

능률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인민 소비품 생산 분야에서의 질 제고는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생활상 수요와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켜 주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실질 수입을 증대시킨다. 소비품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고 오래 쓰도록 만든다는 것은 생산자의 립장에서 보면 같은 자재와 로력으로 그 만큼 제품을 더 쓸모 있게 만드는 것으로 되며 쓰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 같은 값을 치르고도 그 만큼 더 실속 있는 제품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는 무역 상품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며 세계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무역을 더욱 확대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특히 해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신의를 높이며 외화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열'쇠로 된다.

실로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주어진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으로 값싸고 성능이 높으며 쓰기 편리하고 견고한 제품을 더 많이 만들고 경제 절약 투쟁의 성과를 보장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고 외화를 더 많이 벌며,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 과업으로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한다.

제품의 질 제고와 일'군들의 사업 태도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제도 하에서 생산물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 척도는 그 제품이 담고 있는 사회주의적 내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제품의 크기, 중량, 모양, 강도, 견고성, 성능 등 사용 가치의 모든 측면이 사회주의 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구미에 맞도록 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제도 하에서는 나라의 경제 건설을 위하여 유효하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인민에게 편리하며 아담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제품이 요구된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이 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진 제품으로 되게 하자면 결국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생산에 참가하는 전체 성원들이 한사람 같이 인민을 위하여 좋고 실속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자는 높은 자각, 공산주의적 사업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기술 장비가 아무리 훌륭하고 일'군들의 기술이 높다해도 또한 제품의 질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통제가 아무리 강화된다 하여도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자신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자고 결심하고 달라붙지 않는다면 질은 높아질 수 없을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그들의 사상 관점에 달려 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정신이 높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다 알뜰하고 실속 있게 할 것이다. 결국은 사상 문제이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256 페지).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일'군들이 사업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정책을 적극 받들고 끝까지 실천하기 위하여, 조국의 무궁한 부강 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바쳐 일하고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 속에 낡은 사회에서 넘겨 받은 사업 태도, 로동에 대한 낡은 관습과 관점의 잔재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낡은 사회로부터 넘겨 받은 사상 잔재, 로동에 대한 낡은 관습과 태도는 집요한 것이여서 앞으로 오래 동안 부단

한 사상 혁명을 진행함으로써만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는 투쟁을 끊임 없이 진행하는 것—바로 여기에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인민들의 재능과 열성, 물건을 만드는 솜씨는 결코 남보다 못 하지 않다. 사실 우리는 남에 지지 않는 기술 문화의 찬란한 력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 사람들의 일하는 솜씨는 예로부터 국내에서는 물론 동방과 세계의 여러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섬세한 제품들을 만들어 사람들의 경탄을 불러 일으켰는가!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 각 고을의 옛 명산물들; 고려 자기를 비롯하여 개성의 인삼, 옹진의 모시, 덕천의 항라, 녕변의 비단, 영흥의 명주 등을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옛 건축술은 또한 얼마나 놀랠 만 하게 우아하고 훌륭한 것이였는가.

우리 근로자들의 일하는 솜씨, 생산에서 발휘되는 지혜와 창발성은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개화되고 있다.

우리 모든 근로자들은 이러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투쟁에 달라붙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만들어 내는 모든 제품의 질을 세계의 선진적 수준에로 빨리 끌어 올리기 위하여 사상적으로 동원되여야 할 것이다.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지도 일'군들 앞에는 더욱 무겁고 중요한 임무가 부과되여 있다.

근로자들의 생산 열의가 높고 제품의 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갖추어진 오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의 성과 여부는 매개 부문, 단위의 지도 일'군들이 그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과 책임성을 가지고 대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어느 생산 단위에서 어떤 질의 제품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그 부문, 그 단위에서 일하는 우리 지도 일'군들이 당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될 것이다.

지도 일'군들이 당과 인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자고 결심하고 일을 이악스럽게 짜고 든다면 생산의 량적 측면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부단한 혁신이 일어 날 것이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적 생산 활동에서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중요한 혁명 과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을 빈틈 없이 짜고 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도 일'군들은 대중의 생활 상 요구와 다양한 기호를 일상적으로 료해하며 생산자들 속에 들어 가 그들과 같이 있는 자재와 로력, 있는 설비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고 지혜를 짜내는 사업 기풍을 항상 견지하여야 한다.

질 제고를 위한 투쟁에 지도 일'군들이 앞장 서서 대중의 창발성을 계속 높일 때 우리 제품의 질은 더욱 높아지리라는 것이 명백하다.

질 제고와 기술 혁신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기술 혁신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아직 선진 수준보다 높지 못한 것은 과거 우리 공업 발전의 일련의 특성과 관련하여 깊은 력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지난날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 뿐 아니라 경공업의 발전도 극도로 억제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전 기간에 걸쳐 공업 발전을 억제하였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

오던 우리의 수공업적 기술까지도 다 마사 버렸다. 따라서 수공업자들이 상품 생산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손'재간도 점차 사라졌으며 마침내는 완전히 잊어 버리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제품의 질 문제란 제기조차도 될 수 없었다.

우리는 해방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공업을 발전시키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달라붙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제의 침략 정책으로 하여 우리는 해방 후 오늘에 이르는 사이에 근 10여 년이란 세월을 전쟁과 전후 복구 건설에 빼앗겼다. 우리 공업의 력사는 사실상 전후 불과 10여 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사정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제품의 질 제고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업으로 나서며 그것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자면 모든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에게는 열성이 모자라는 것보다도 기술이 모자라는 면이 더 많다. 열성은 있는데 기술이 모자라서 못 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각 부문에서 이 때까지 만들지 못 하던 품종을 더 많이 만들며 제품의 질을 높이려면 기술이 필요하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301 페지).

기술 혁신에서 오늘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생산과 건설의 매 부문, 매 단위에서 자체의 모든 기술 경제적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 것이다. 있는 기계, 있는 설비를 더 잘 리용하며 질 제고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할 수 있도록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더욱 대담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인민 경제의 기술 장비 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 만큼 모든 생산 단위에서 이미 시어진 과학 기술적 성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달성한 기술적 성과와 경험을 생산 실지에 구체화하며 이미 갖추어져 있는 현대적인 실험 측정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하기 위한 면밀한 조직 사업을 따라 세우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된다. 이것은 복잡한 생산 공정을 경험과 눈'짐작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엄밀한 과학 기술적 자료에 근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오작품을 근절하는 데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평 제련소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미 달성한 과학 기술적 성과를 리용하여 생산 공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생산에 대한 기술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 기구 및 계량 측정 수단들을 도입함으로써 기본 생산 제품의 품위를 종전보다 훨씬 더 높이고 있다. 또한 문천 기계 공장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많은 측정 계기들을 만들어 생산에 리용함으로써 오작품의 생산을 없애고 부속품의 질을 전보다 더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다 교훈적이다.

우리는 개별적 생산 기업소 또는 생산 공정들에서 달성한 우수한 기술적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서는 지체 없이 동일한 생산 부문 또는 생산 공정들에 널리 일반화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선진적인 생산 공정을 도입하며 부단히 개선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기계, 금속, 화학 공업을 비롯한 중공업 부문들에서 미비한 생산 공정을 보충하고 그것을 더욱 개선하며 기종간의 균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기계 설비와 강재, 세멘트 등 중요한 공업 제품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에게는 지금 각종 강재와 기계 설비를 비롯한 중공업 제품들이 량적으로도 더 많이 요구되며 질적 면에서도 더 좋은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각종 기계 설비가 원료, 연료 등의 생산을 량적으로 계속 증대시키면서 질을 높이는 대책을 동시에 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공작 기계와 설비품들의

성능과 정밀도를 더욱 높이고 그 수명을 연장시키며 강재와 세멘트 등의 규격과 품종을 계속 확대하며 석탄의 선별 공정을 개선하여 버력이 섞이는 량을 적극 감소시키면서 생산량을 빨리 증대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더 정비 보충하며 생산 공정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기계 설비 생산에서 프레스 방법을 보다 광범히 도입하며 랭간 압연 시설과 연마반, 치절반 등 필요한 설비들을 약간만 더 보충하는 것으로도 쇠를 더 많이 절약하고 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계 설비의 정밀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생산 공정을 개선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경공업 부문 특히 지방 공업 기업소들에서 보다 큰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이다. 사실 지금 중소 규모의 지방 공장들에서는 생산 공정의 사소한 부족점들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제품의 질을 썩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직물 생산에서 염색, 표백 가공 시설들을 잘 완비하고 일부 새 공정들을 보충하며 가공 기술을 높인다면 천의 문양과 색갈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일용품 생산에서 도금, 색칠, 연마, 열 처리, 형타 등 설비들을 더 잘 갖춘다면 여러 가지 아름답고 견고한 일용 필수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제품 생산의 기술적 특성에 맞게 생산 공정을 부단히 완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조건에서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며 소비품 생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경험은 식료품이나 기타 모든 일용품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기계와 설비가 아니라도 능히 좋게 만들 수 있으며 현재 있는 설비를 조금만 개조하는 것으로도 제품의 질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 공정의 기술적 개선이라면 복잡하고 큰 것만을 생각하거나 우만 처다 볼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창의 고안과 합리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자체의 힘으로 작은 것, 간단한 것부터라도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선진적인 과학 기술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하여야 한다.

대중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면 같은 기계와 설비를 가지고도 더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는 설비가 아직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부 중소 규모의 지방 공장들에서 오늘 선진적 수준의 제품들을 생산하여 내는 례를 수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 학습과 기능 전습 사업을 강화하여 일'군들이 자기 맡은 부문에 정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매 로동자들에게 그가 맡고 있는 기계 설비의 작업 원리와 구조, 관리 운영 방법을 깊이 알려 주며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 안전 공학의 원리들을 잘 인식시키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진행한다면 생산자들은 자기 직종에 더욱 익숙하여질 것이며 그에 기초하여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더 빨리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 전습 사업에서는 숙련 로동자들의 역할을 특히 높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숙련 로동자들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들이 자기 기술 수준을 계속 높이도록 하면서 반드시 기능이 부족한 3~4 명의 로동자들을 책임적으로 맡아 배워 주게 하는 제도를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면서 고급 기능공들의 대렬을 더 많이 확대하며 그들을 생산에 고착시키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고급 기능공들로써 생산 핵심을 형성하

며 그들의 빈번한 류동을 방지하여 생산 활동에서 응당한 역할을 놀도록 함으로써만 생산 계획의 완수, 제품의 질 제고, 기능공의 양성,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등 중요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직장 기술 학습과 기능 전습 사업을 전망적인 계획 밑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기능 등급 사정 사업을 강화하여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대한 로동자들의 물질적 관심도 높이며 불필요한 회의들을 적극 간소화하고 될수록 많은 시간을 기술 학습과 전습 사업에 돌리도록 하는 데 계속 큰 주목을 돌릴 것이 요구된다.

모든 고리의 련대적 투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투쟁은 인민 경제의 어떤 개별적 부문의 사업이나 한두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서는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없다.

그것은 중공업, 경공업, 농업으로부터 운수와 상품 류통에 이르는 모든 고리에서 련대적인 투쟁으로, 서로 책임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며 질 제고를 위한 전 사회적 및 국가적 통제를 밀접히 배합시켜 나갈 때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서로 련관된 생산 공정들과 부문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련대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오늘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생산 공정들 간의 련대적인 질 제고 운동을 더욱 조직화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운동을 발기한 신의주 고무 공장의 경험은 서로 련관된 생산 공정들 간에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련대적으로 진행한다면 제품의 질 제고에서 대중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투쟁은 기업소 단위에서만 아니라 기업소 호상간, 부문 호상간에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 부문에서는 더 좋은 원료와 자재를 가공 공업 부문에 보내 주며 가공 공업 부문들 간에는 협동 생산 제품의 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전반적인 제품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채취 공업 부문 기업소들이 1차 가공 공업 부문 기업소들에 질 좋은 원료를 생산 공급하는 것은 선철과 강재를 비롯하여 중요한 중공업 제품들의 질을 높이며 더 나아가서 모든 기계와 설비품의 질을 제고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된다.

가령 광산들에서 자철 정광의 품위를 1% 만 더 높인다면 제철소의 조업 행정에서는 실수률을 3% 나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질 제고를 위한 련대적 투쟁에서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 체계를 더욱 완성하고 공고화시키는 사업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중공업 부문들에서는 물론 인민 소비품 생산 부문에서도 소요 제품에 대한 전국적 수요와 지방적 수요를 잘 타산하여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광범히 진행하며 전문 공장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련대적 투쟁은 생산 분야에만 국한될 수 없다.

그것은 품질 검사 사업, 규격화 사업, 가격 제정 사업과 상품 류통, 운수 등 제품의 질 제고와 관련된 모든 고리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품질 검사 사업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생산된 제품을 합격품이나 불합격품으로 갈라 놓고 책임 한계를 밝히는 사업으로 그칠 수 없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오작품과 불합격품을 미리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품질 검사 사업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면 그것은 반드시 중간 생산 공

정과 완성 단계 별로 진행되여야 하며 특히 중간 생산 공정에 대한 검사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 매개 생산 단위들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으며 먼저 공정에서 생긴 오작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 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제품 검사 사업을 강화하자면 품질 감독 기관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제품의 규격화 사업도 더욱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규격화 사업은 생산되는 제품의 질적 측면들을 규정하여 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현대 과학 기술이 달성한 최신 성과들과 선진 기술 공정을 생산에 도입케 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높이며 원료, 자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자극한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규격 수를 확대하고 품종을 더욱 다종다양하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표준 규격 작성 사업에서 강한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매개 생산 기업소의 지도 일'군들은 국가의 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 활동을 지도하며 합격품 중에서도 더 좋은 제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도록 조직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기 공장의 상표가 붙은 것이라면 누구나 없이 완전히 신뢰하며 앞을 다투어 살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는 데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규격화 사업과 함께 제품의 가격 제정 사업도 개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특히 등급에 따르는 제품의 품질 계획화와 등급 별 가격 계획화를 밀접히 맞물리며, 기업소들이 높은 등급의 제품을 생산할수록 더 많은 물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등급 별 가격의 차이를 정확히 설정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같은 자재를 가지고 질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보수가 차례지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생산된 제품의 포장을 잘 하며 그 보관 관리와 수송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이다.

포장 기자재와 용기를 견고하고 문화적으로 만들수록 제품의 미적 가치는 증대된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든다 하여도 포장을 잘못하면 제품의 사용 가치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 갈 때까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만큼 그 가치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수천 수만 키로 메터의 먼 거리에 있는 외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것은 더욱 그러하다.

모든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제품을 더 견고하고 맵시 있게 포장하여야 할 것이며 운수 부문에서는 반드시 규정된 대로 포장된 제품을 접수하는 강한 제도를 세워 제품의 질이 조금도 손상 감이 없이 수요자들의 손에 들어 가도록 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상품 류통 기관들에서도 역시 포장과 보관 관리에 큰 관심을 돌려야 하리라는 것은 물론이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전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며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이 심화되는 현 단계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이 과업의 성과적 해결은 우리 나라가 발전된 공업 국가로 전변되는 과정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제품의 질을 높이는 투쟁에서도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결정적으로 증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도처에서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전 군중적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우리의 모든 제품을 선진적 수준에로 끌어 올릴 것이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 해방 혁명에서의 농민 문제

김 성 제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혁명에서 근본 문제의 하나는 바로 농민 문제이다. 장기간에 걸친 민족 해방 혁명에서 아프리카 인민들이 쟁취한 모든 성과는 농민들의 혁명적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금후 민족 민주주의 혁명 과업의 성과적인 해결 여부도 농민 문제의 해결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오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농민 문제의 해결을 민족 해방 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일련의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　　　*

농민 문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혁명의 중심적 문제로 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나라들이 처한 사회 발전 및 농업 발전의 특성과 관련되여 있다.

개별적 지역과 나라에 따라 그 발전 수준 상 차이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씨족 제도 또는 봉건 제도가 지배하던 시기에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당하였으며 수세기 간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가장 잔인한 착취와 압박을 당하여 왔다. 장기간의 식민주의 통치와 오늘도 감행되고 있는 신구 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착취는 아프리카 사회에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남겨 놓고 있으며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즉 광대한 농촌을 포함한 아프리카 땅은 식민주의자들의 값싼 원료 원천지였으며 주민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농민 대중은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의 대상이였다.

이리 하여 아프리카에서 농민 문제는 제국주의와 아프리카 인민들 간의 적대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바 바로 여기에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 해방 혁명에서 농민 문제가 중심적 문제로 제기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와 아프리카 인민들 간의 대립은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 관계에서 심각히 표현되고 있다. 다른 대륙에 비하여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토지 소유 형태는 외국 독점 회사의 토지 소유, 봉건 지주의 토지 소유, 개인 농민의 토지 소유, 공동체적 소유 등이 존재한다.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첫시기부터 약 1억 5천만 아프리카 인민들을 희생시킨 야만적 노예 무역과 함께 대대적인 토지 수탈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군사적 강점과 각종 위협 공갈과 사기 협잡으로써 그리고 강압적인 행정적 조치로써 아프리카 농민들로부터 비옥한 토지를 수탈하고 그들을 정든 고향 땅으로부터 사막 지대나 황

무지로 축출해 버렸다.

식민주의자들이 토지를 수탈한 목적은 우선 아프리카의 풍부한 지하 자원과 농산물을 략탈하는 데 있었으며 이와 함께 농민들을 대량적으로 파산 몰락시킴으로써 자기들의 광산과 농장에 요구되는 값싼 로동력을 얻으려는 데 있었다.

식민주의자들의 토지 수탈은 19 세기 중엽 이후부터 더욱 강화되였는데 아직도 식민지 예속 하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방대한 토지가 식민주의자들의 손아귀에 장악되여 있다.

토지 수탈이 심한 지역은 남부 아프리카, 중부, 동부 및 북부 아프리카 지대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전체 경지 면적의 89%, 남로데시아와 스위질랜드에서는 각각 49%의 토지가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략탈 당하였다.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에서 150만 헥타르의 비옥한 토지를 략탈하였고 혁명 전 알제리에서는 전체 경지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토지를 프랑스 침략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지금 꽁고(레)에서 외국 독점 회사들은 전체 경지 면적 1억 3천 650만 헥타르 중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 5천 200만 헥타르를 장악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구라파인들의 토지 소유는 아프리카인들의 토지 소유와 비교도 못할 정도로 많았는데 사실상 식민주의자들은 대개 나라에서 비옥한 토지의 거의 전부를 독점하고 있었다.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인들로부터 수탈한 토지를 제멋대로 《국유지》(식민지 당국의 소유지), 《사회지》 등의 딱지를 붙여 아프리카인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외국 독점 회사와 구라파인 이주자들에게 매매하거나 소작지로 만들었다. 외국 독점 회사들은 수탈한 토지에 대규모적인 농장을 설치하고 주로 생산 수단을 박탈 당한 아프리카 농민들을 채용하여 우마처럼 혹사함으로써 막대한 리윤을 짜 내고 있다.

이러한 대농장 경리는 특히 동부 아프리카의 케니아, 딴가니카, 소말리아, 중남부 아프리카의 남로데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서부 아프리카의 리베리아, 북부 아프리카의 알제리 등에 많았다. 아직도 식민지 예속 하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백인들이 농장에 로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 로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두세의 징수와 같은 중세기적 착취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과 함께 그와 결탁한 봉건 지주들의 수중에도 역시 많은 토지가 장악되여 있다. 아프리카를 강점한 식민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 지주를 비롯한 봉건 세력들을 식민지 통치의 사회적 지반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그들의 봉건 지주적 토지 소유 제도를 보존하였다.

1952년 농지 개혁 당시 애급에서는 국왕, 봉건 관료, 회교 사원, 자선 단체, 지주 계급의 수중에 전체 경지 면적의 3 분의 2가 집중되여 있었다면 잔지바르에서는 혁명 전에 전체 경작지의 60%를 전국 인구의 13%도 못 되는 지주들이 점유하고 있었다.

토지의 대부분을 식민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봉건 지주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직접적 경작자인 농민들은 토지 부족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토지 소유 관계는 아프리카 사회 발전의 질곡으로 되고 있으며 토지 문제의 정당한 해결이 아프리카 민주 해방 혁명 앞에 절박하고 중대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서방 식민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 통치는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에 침체성과 기형성을 조성하여 놓았다. 바로 여기에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주 해방 혁명에서 농민 문제가 중심적 문제로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를 오직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만 인정하고 주민

들에게 절실히 필요되는 식량 대신에 주로 리윤이 많이 나는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아프리카 농업으로 하여금 하나 또는 몇 개의 작물만을 재배하는 기형적인 단작 경리로 전변되게 하였다. 례하면 식민주의자들은 가나에서는 코코아, 케니아에서는 커피, 나이제리아에서는 락화생과 코코아, 우간다에서는 목화와 커피를 위주로 생산하게 하였다.

단작 경리는 아프리카 나라들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는바 그것은 우선 알곡 생산의 침체성으로 인한 식량 부족을 가져 오게 하였다. 2 차 대전 후 아프리카에서는 신생 독립 국가들이 수많이 출현하였으나 식민주의자들이 남긴 이 단작 경리의 후과는 아직도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다. 1959~1960년도 알곡 생산량은 2 차 대전 전에 비하여 5%나 축소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감소되였다. 그로 인하여 1960년에 아프리카는 135만 톤의 밀과 밀'가루, 48만 톤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이리 하여 식량을 비롯한 다양한 작물의 재배에 적응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가진 아프리카가 오히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게 되고 산업에 필요한 농산물 원료마저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조성하여 놓고 이를 기화로 《협조》, 《원조》 등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아프리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침략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또한 단작 경리를 강요함으로써 아프리카를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강제적으로 끌어 넣었으며 아프리카로 하여금 세계 제국주의 경제의 부속물로, 값싼 농업 원료 원천지로 전변되게 하였다. 아프리카 경제의 기형성은 외국 독점 자본가들로 하여금 아프리카의 수출 작물을 항상 불안정한 자본주의 시장의 경기 변동에 좌우되게 함으로써 부등가 교환을 진행하여 추가적 리윤을 짜내는 조건의 하나로 되게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들이 후진 국가들에 판매하는 공업 제품 가격은 부단히 인상하면서 후진 국가들이 판매하는 원료와 농산물 가격은 인공적으로 저락시킴으로써 아프리카 나라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례하면 가나에서는 코코아의 국제 시장 가격의 저락으로 인하여 1962년에 그 전 해에 비하여 4%나 더 많은 코코아를 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2백만 파운드나 축소되였다. 이러한 사정이 코코아를 수출하여 국가 예산의 약 60%를 충당하고 있는 가나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으며 농민들의 처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출용 단일 작물의 재배와 상품 화폐 관계의 발전은 농민들 속에서 계급 분화를 촉진시키고 농민들을 더욱더 파산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의 농촌 경리를 파괴하고 농민들을 파산시켜 값싼 로동력을 얻기 위하여 지어 아프리카인들의 경지를 인공적으로 축소시켰으며 선진 기술과 선진적 영농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극력 억제하였다.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주 해방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야 할 과업에 직면하고 있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도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해결은 역시 제 1 차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문제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함이 없이는 농민의 빈궁과 농촌 경리의 락후성과 기형성을 퇴치할 수 없으며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수도 없으며 식민주의자들과 국내 반동 세력의 지반을 청산할 수 없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늘 아프리카에서 농민 문제는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봉건 지주들과 농민 대중 간의 심각한 대립으로도

현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민족 해방 혁명의 전반에 걸쳐 중심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

아프리카 나라들의 혁명은 전반적으로 보아 반제 혁명과 반봉건적 토지 혁명이 밀접히 결부된 민족 민주주의적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원쑤인 동시에 계급적 원쑤이며 제국주의와 결탁한 봉건 세력은 아프리카 인민들의 계급적 원쑤인 동시에 민족적 원쑤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토지에 대한 식민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봉건 지주들의 소유는 식민주의와 국내 반동 세력의 주되는 경제적 지반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민족 해방 혁명과 농민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이 불가분적으로 련관되여 있으며 따라서 식민주의를 청산함이 없이는 농민 문제,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반대로 농민 문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민족 해방 혁명은 사실 상 무의미한 것으로 밖에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오늘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 해방 혁명에는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신구 식민주의자들과 결탁한 봉건 세력들과 극소수의 반역자들을 제외하고는 로동자, 농민, 수공업자, 중소 부르죠아, 인테리 등 광범한 군중들이 참가하며 그리고 일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압박을 받는 봉건 지배층들과 추장들도 그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 해방 혁명의 주력군은 로동 계급과 함께 농민 대중이다.

농민 대중은 우선 아프리카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 나라들에서는 그 비중이 98%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아프리카 민족 해방 혁명의 거대한 혁명 력량이 바로 농민 대중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며 따라서 주민의 절대 다수인 농민 대중을 떼여 놓고는 혁명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아프리카 농민 대중은 또한 식민지적 및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로 인하여 세기적인 잔인한 압박과 착취를 받아 온 계급으로서 식민지 통치를 지신하는 민족 해방 혁명에 가장 절실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말살하였으며 오늘까지도 가혹한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는 백여 종의 악법들로써 원주민을 백인 이주자들과 격리시키고 온갖 멸시와 인종 차별을 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인들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모욕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멸시와 학대 속에서 아프리카 농민들의 처지는 더욱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토지를 빼앗긴 절대 다수 농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의 농장에서 고된 로동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수입은 보잘 것 없다. 특히 식민주의자들은 백인과 아프리카인 간에 혹심한 차별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1953년에 미국 독점체들은 남아프리카 금광들에서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을 붙잡아다가 1 년 간 고된 로동을 시키고 매 사람에게 171 딸라 밖에 안 되는 임금을 지불하였는데 같은 일을 한 백인들에게는 그 17 배나 되는 2,910 딸라를 지불하였다.

아프리카에서 농민들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케 하며 식민지 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민족 해방 투쟁 대렬에 적극 나서게 하고 있다.

아프리카 농민들은 또한 그 처지에서 로동 계급에게 가장 가까우며 혈연적으로도 로동 계급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현재 아프리카 로동 계급의 구성

상 특성의 하나는 농업 로동자가 많으며 계절 로동자 비중이 높은 것인데 계절 로동자도 주로는 농민으로 구성되여 있다. 이것은 농민이 로동 계급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로농 동맹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농민들은 오래 전부터 민족 해방 투쟁에서 항상 주력군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은 침략자들의 마수가 뻗치기 시작한 첫날부터 전개되였는데 민족 해방 투쟁의 매 시기마다 그 주력군은 바로 농민이였다.

프랑스가 수만의 침략군을 동원하여 알제리를 침략한 첫 시기 알제리 인민의 항쟁 운동의 주력군은 농민과 유목민들이였다. 애급에서 19 세기 말 아메드 아라비의 지도 하에 진행된 반영 투쟁, 19 세기 70 년대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사모리의 지도 하에 전개된 상부 기네 인민의 7 년 간의 항쟁, 19 세기 80 년대 수단에서 무하메드 아메드의 지도 하에 전개된 반영 투쟁 등은 모두 농민을 기본 력량으로 하는 투쟁들이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에 있어서도 농민은 여전히 아프리카 민족 해방 혁명의 가장 큰 주력군으로, 인민 무장력의 중요 원천으로 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농촌은 민족 해방 투쟁의 근거지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농민들은 장기간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민주적 및 계급적 각성과 조직성이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농민 운동은 자연 발생성을 극복하고 더욱더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들은 토지 개혁을 비롯한 자기들의 계급적 요구를 명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계급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을 밀접히 결부시키고 있다. 《백인들이 빼앗은 땅을 반환하자!》라는 림수적 구호를 제기하면서 영국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1952년부터 1955년까지 계속된 케니아 농민들의 무장 봉기는 바로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로동 계급과 함께 아프리카 농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식민주의자들과 국내 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체계의 위기와 붕괴 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오늘 꽁고(레)와 앙골라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전 대륙을 휩쓸고 있는 무장 투쟁의 혁명적 폭풍우도 농민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분리해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모든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민족 해방 혁명에서 주력군은 농민이며 민족 해방 혁명에서 농민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며 그들을 적극 인입하는 것은 혁명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적 문제로 되고 있다.

※ ※

오늘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사회 발전의 성숙된 요구인 농민 문제를 해결하며 민족 해방 혁명의 주력군인 농민을 혁명 투쟁과 새 사회 건설에 인입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

민족 해방 투쟁 과정에서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해방 지구를 창설하고 농민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을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인민 무장 부대와 농민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민족 해방 투쟁의 승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앙골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앙골라 인민 무장 투쟁의 지도적 력량인 앙골라 인민 해방 운동당은 자기의 투쟁 강령에서 《적대 분자와 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무상 분배할 것》 등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들을 중요하게 제기하였

다. 이것은 토지의 부족과 강제 로동에 시달리고 있는 앙골라 농민의 절박한 념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광범한 농민 대중을 민족 해방 투쟁에 불러 일으키는 전투적 구호로 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철쇄를 부시고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앙골라 인민 무장대가 날마다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에 적지 않게 기인되여 있다.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그들을 혁명에 인입하기 위한 투쟁은 아프리카에서 비단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만 전투적 구호로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다.

농민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금 아프리카의 일련의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는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선 농민 문제, 농업 문제 해결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8년간의 영웅적 무장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 독립을 쟁취한 알제리에서는 외국 독점체들과 구라파 식민주의자들, 알제리의 반역자들과 투기업자들에게 속했던 375만 헥타르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잔지바르에서는 독립 후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며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할 것을 선언한 《잔지바르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분배가 진행되고 있다. 아련과 기타 일련의 나라들에서도 외국 독점체들과 식민주의자들, 봉건 지주들의 토지 소유를 청산 또는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민들에 대한 식민주의자들과 봉건 지주들의 착취를 청산 또는 제한함으로써 농민의 처지를 그 만큼 개선할 수 있게 하며 농민의 생산 의욕을 자극하고 농업 생산을 제고시켜 식량과 농업 원료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며 나아가서는 자립 경제를 창설함에 있어서도 유리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아프리카의 일련의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는 또한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고 농민의 처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국영 농장과 협동 조합들을 창설하고 있다. 협동 조합들은 외국 독점체들에 의한 농산물 수탈을 방지하기 위한 판매 협동 조합으로부터 점차 생산 협동 조합으로 전환되여 가고 있다. 말리에서는 전야의 공동 경작과 비료의 합리적 리용, 선진적 영농법의 보급을 위한 호상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및 호조반이 창설되였다. 협동 조합들은 집단적 로동의 우월성에 의거하면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의 생활 처지의 개선을 위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늘 아랍 련합 공화국, 알제리, 말리, 기네, 가나 등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일정한 계획 밑에 경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들에서는 농촌 경리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관개 공사와 경지 면적의 확장, 농업 생산력의 제고와 자체의 식량 기지 창설, 단작 경리로부터 다각 경리에로의 이행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계획 수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농민들은 물론 광범한 도시 주민들을 농촌 지원 사업에 적극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파종과 추수 등 다면적 영농 작업과 식수 작업 등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농촌 경리를 군중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긍정적 작용을 놀고 있다.

현실은 농민 문제, 농업 문제가 아프리카 민족 해방 혁명의 근본 문제이며 이 문제의 정확한 해결에 의해서만 민족 해방 혁명의 승리도, 자립적 민족 경제의 창설도 가능하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명백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 식민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아프리카의 반동적 봉건 세력들

은 농민 문제, 농업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의 옛제도를 보존하기 위하여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농민 문제, 농업 문제가 오직 군중적인 반제 혁명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 투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농민 문제의 해결은 더욱 촉진될 것이며 농민 문제의 해결이 추진될수록 혁명은 그 만큼 심화 발전되여 나아갈 것이다.

무궁무진한 혁명적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농민들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온갖 반제 력량과 함께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 세력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반드시 민족 해방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농민 문제, 농업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야 말 것이다.

근 로 자 제 16 호 (루계 278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5년 8월 17일 발행 • 1965년 8월 20일

ㄱ—530463 값 40 전